

동학농민혁명 연구

내표지

창간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9조 및 부칙 제3조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을 규정하였다.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정관에서 동학농민혁명연구소를 설립하도록 명시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유적지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와 같은 사업에는 심층 연구가 필수이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을 특별법에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념재단이 출범한 2010년 이후 13년 동안 특별법에서 명시한 연구소는 설립되지 않았다. 연구소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서 게재하는 학술지의 발간이나 연구총서를 간행하는 사업은 성과를 낼 수 없었다. 지난 4월 1일 뒤늦게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의 문을 열었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연구소는 특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조직이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에서 수행할 연구의 중심 과제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한 동학농민혁명이다.

19세기 말 국내외 정세를 비롯하여 각지의 농민 항쟁과 동학의 교세 확장 및 교조신원운동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발단 부분이 된다. 고부 농민의 항쟁과 1차 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부분이 된다. 그리고 집강소 시기 각 군현에서 벌어진 상황은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규명하는 부분이 된다. 일본군과 일본군이 지휘권을 장악한 관군을 상대로 각지에서

전투를 벌인 과정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확인하는 연구가 된다. 우금치전투 이후 동학농민군이 진압되는 과정과 패산한 참여자를 추적해서 박해하는 과정은 연구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양반 지배층의 여론과 각국 공사관의 보고문서, 동아시아 삼국 즉, 조선·청·일본이 벌인 전쟁의 전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은 세계성을 갖는다. 유네스코는 자유·평등·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동학농민군의 노력을 인정해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한국은 물론 세계가 함께 보존 전승해야 하는 유산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제 인류의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보편타당한 면에 대한 국제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에는 여러 과제가 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실증 연구하는 과제만이 아니다. 국민이 이 사건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교과서와 각종 한국사 개설서에서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한국사학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전문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간행을 맞이하여 100주년 이래 자료 발굴·유족 확인·기념사업을 함께 해온 연구자들의 학문 성과를 기대한다. 또한 신진학자의 정진한 연구 성과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1월 3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신 영 우

차례

창간사 신영우	4
-----------	---

일반논문

경상도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탄압 - 『학초전』과 『갑오군정실기』를 중심으로- 배항섭	9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 사상과 정치의식 김양식	37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김희태	57
경북 예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신진희	113

특집논문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유바다	147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정을경	185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변동 조재곤	213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1866년~1869년을 중심으로- 전경목	255
--	-----

자료소개

갑오일기 해제 신영우	309
갑오일기 영인본	312

부 록

연구소 소식	378
위원회 명단 : 편집위원회·윤리위원회	38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38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398

일반논문

경상도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탄압 － 『학초전』 과 『갑오군정실기』 를 중심으로－

배 항 섭(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목차

1. 머리말
 2. 최고 지도자 최맹순의 인물과 비극적 최후
 3. 동학농민군의 활동 : 박학래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4. 맺음말－ 농민군의 해산과 반농민군 세력의 농민군 탄압
-

1. 머리말

경상도에서 전개된 동학농민군의 활동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학에 입도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경상도 각지에서 동학에 입도하는 사람은 1894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교단 조직의 포교활동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으나, 무엇보다 호남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이후 전라도 농민군이 보여 준 승리와 폐정개혁 활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상도 농민군의 크게 활동한 지역은 경상도 북서지역과 남서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서지역은 충청도 및 강원도와, 남서부지역은 전라도와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다.¹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 1 경상도 지역 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영우, 「1894년 영남 예천의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1984;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 『동방학지』 51·52집, 1986; 「19세기 영남 김산의 양반지주층과 향내 사정」, 『동방학지』 70집, 1991; 「1894년 영남 김산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1991;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2006;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경상감사 조병호와 갑오년의 경상도 상황」, 『동학학보』 35, 2015;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안동문화』 15, 1994; 이윤갑, 「1894년의 경상도지역의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표영삼, 「경상 남서부 동학혁명」, 『교사교리연구』 제6호, 2000; 「경상북서지역 동학군 활동」, 『신인간』 678, 2007. 23월 합동호; 申眞姬, 『義城지역 향촌 지배층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65, 2013; 이병규,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와 그 성격」, 『동학학보』 35, 2015; 이윤갑, 「19세기말 경상도 성주의 사회변동과 동학농민전쟁」, 『대구사학』 119, 2015; 이이화, 최재목, 임형진, 신영우, 박홍규 외, 『경상도 대구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대구와 경상 감영의 역사적 위상』 (동학총서 4), 모시는사람들, 2015; 이이화, 신영우, 이노우에 가즈오, 임형진 외, 『경상도 구미 동학농민혁명』 (동학총서 6), 모시는사람들, 2016.

또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서울에 이르는 연로에 병참(兵站)을 설치하였다. 경상도에는 동래에서 문경까지 약 40리마다 병참부를 설치하였는데, 7월 중순에는 부산·구포·삼랑진·물금포·밀양·청도·대구·다부역·낙동·해평·태봉·문경 등에 설치되었다. 각 병참부에는 일본군이 주둔하였다.² 이 과정에서 연로의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시키는 등 전라·충청 지역에 비해 일본군과 직접적인 마찰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봉기 초기부터 각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경상도 농민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먼저 진압된 것도 일찍부터 일본 병참수비대가 진압에 가담한 데 기인하는 바가 컸다.³

여기서는 새로 발굴된 자료인 『갑오군정실기』(이하 『실기』)를 통해 경상도 북부지역 농민군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그러나 『실기』에는 경상도 지역과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다. 경상도 관련 기사가 15건 정도 나오지만, 이 가운데 농민군 활동과 관련이 있는 기록은 7~8건 정도이다. 대부분은 상주 소모영 관련 기록이고 영남도포사 지석영(池錫永)의 보고

2 일본군의 전선 가설과 병참부 설치에 대해서는 姜孝叔,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防衛研究所圖書館所藏史料を中心に」, 『歴史學研究』 762, 2002, 22~23쪽; 신영우,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1894년 일본군 노즈(野津) 제5사단장의 북상 행군로와 선산 해평병참부」, 『동학학보』 30, 2016 참조.

3 신영우,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 실학』 35, 2008(충남대충청문화연구소편, 『제노사이드와 한국근대』, 경인문화사, 2009);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4 신영우는 경북 지역에 활동한 동학농민군 대접주는 조직은 관동포(예천·문경 일대), 충청포(상주·선산·김산 일대), 상공포(상주·예천 일대), 선산포(선산·김산 일대), 영동포(김산·개령 일대) 등 5개가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세력권이 겹치면서 조직을 확대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2006).

에서 보이는 진주 지역 농민군에 대한 기록이 1건 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는 자료는 1건도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역시 새로운 자료인 『학초전』의⁵⁾ 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왕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거나 기왕의 이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학초전』을 바탕으로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을 재조명한 글로는 박두우, 「학초전을 통해 본 예천 동학사의 재조명」(2011)과 신영우, 「학초전을 통해 본 경상도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발표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등이 있다. 경북 지역 농민군 활동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 온 신영우의 글은 예천을 비롯한 경북 지역 농민전쟁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농민군의 신분적 구성문제, 향촌 사정, 일본군과의 관계, 농민군 도회, 서장자 전투 등을 포괄하는 매우 큰 구도 속에서 『학초전』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중복을 피해 최맹순의 인물과 비극적 최후, 박학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농민군의 활동상, 그리고 농민군에 대한 반농민군의 구체적 탄압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초전』(1,2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4), 2015. 『학초전』은 경상도 예천 순흥 경주 청송 영양 등지에서 살았으며, 동학농민전쟁에 접주로 가담하였던 박학래(1864-1942)가 평생 경험했던 중요한 사실을 나이 60이 되던 1923년에 기록한 자서전이다(자세한 해제는 이병규, 앞의 글, 194~196쪽 참조).

2. 최고 지도자 최맹순의 인물과 비극적 최후

경상도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3월부터 동학교도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일본군의 경북궁 강점이 알려진 6월 말부터 활동이 격화되었다. 예컨대 3월 20일 무렵부터 농민군의 행동이 가시화하였고, 3월 말경부터는 동학교도들이 ‘성군취당(成群聚黨)’하기 시작하였다.⁶ 경상도 金山에 거주하던 화순 최씨가에서 5대에 걸쳐 써 내려온 일기인 『세장년록(世藏年錄)』 가운데 최봉길(崔鳳吉, 1853~1907)이 쓴 갑오년 조 기록에 따르면, 3월 20일 인근의 송낙현이라는 자가 동학에 입도한 후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4년 전에 買得한 畝를 묵혔으나 그동안에 結稅만 빼앗겼으니 畝를 물리고 그동안 낸 結세를 내놓으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다 갔다고 하였다. 이 무렵이면 경상도 일각에서도 동학교도들의 행동이 가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경상도 지역에서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예천 지역이었고 그 중심인물은 최맹순이었다. 최맹순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왔지만, 『학초전』에는 그의 인물됨과 비극적 최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그가 예천 소야(蘇野)에 접(接)을 설치한 것은 1894년 3월이었다. 이들은 보은 지역의 동학교도들과 서로 통하고 있었는데, 최맹순은 자칭 관동수접주(關東首接主)라 하며 경상도는 물론 다른 도의 교도까지 규합하기 시작하였다.⁸ 이후 6~7월이 되면 그 세력

6 「甲午實記」, 『東學亂記錄』 下, 3쪽.

7 「歲藏年錄」, 『총서』 2, 246쪽.

8 「甲午斥邪錄」, 『총서』 11, 7~8쪽. 예천 상주 김산 지례 등의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해서는

이 매우 커지면서 소야리는 경상 북서부 지역 농민군 활동의 핵심적 근거지가 되었다.

본군에서는 이른바 최맹순이란 자가 본년 3월에 蘇野[예천군의 서쪽 50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에서 접소를 설치하고 보은의 동도들과 상통하여 스스로 關東首接主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무리들을 불러 모아 부서를 정하고 이른바 接主·接司·奉令·教授·大正·中正 등을 임명하였다. 그 接은 法所라고 하였고, 그들끼리는 道人이라고 불렀으며, 무리를 모집하는 것을 布德이라고 하였다.

원래 최맹순은 여러 해 동안 옹기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무리들은 모두가 사방에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무뢰배들이었다. 이들은 떠돌아 다니면서 침탈을 일삼다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 세력이 매우 커져서 마을을 횡행하며 포덕을 한다고 하면서 속여서 피어내고 협박하니 여기에 가담하는 자들이 날마다 수천을 헤아렸다. 이에 접소를 분설하여 각 면의 방곡에 접소가 없는 곳이 없었으나 서북의 외지(外地)가 특히 심하였다. 대접은 만여 명이나 되었으며, 소접은 수십, 수백 명이었다. 시정의 동훈(童昏)·평민·장획(藏獲, 사내종과 계집종)·고용(雇傭) 등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득세한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관장을 능욕하고, 사대부를 욕보이고, 마을을 겁탈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무기를 훔치고, 남의 나귀와 말을 몰아 가고, 남의 무덤을 파헤쳤으며,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하여 묶어 놓고 구타하였으며 종종 살인까지 저질렀다. 그러니 인심이 흉흉하여 아침에 저녁 일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경내의 사대부들 중에서는 혹 먼저 욕을

각주 1)에 인용한 신영우의 논문들 참조. 소야접이 활동을 시작한 직후인 4월 초중순부터 김산(김천), 지례, 거창 등에서도 “불온한 썩이 트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며, “평소 동학당의 소굴인 상주에서는 충청도 동학당을 응원하기 위해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69쪽).

당하고 나중에 물든 지도 있었다. 같이 나쁜 짓을 하는 무리들은 서로 끌 어당겨서 무리를 믿고 행패를 부렸다. 수백 명이 사는 촌락에 1~2명의 東 人만 나타나더라도 황급하게 달아나 숨어 버렸다.⁹

위의 인용문과 체포된 뒤 그가 직접 진술한 내용을 통해 보면 최맹순 은 본래 강원도 춘천 사람으로 1882년 무렵부터 동학에 입도하여 옹기 장수를 하며 포교활동을 해 왔으며, 1894년 활동의 절정기에는 휘하에 48개집 7만여 명의 교도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11월 22일 갑오[二十二日甲午]

부병이 최맹순 등 3명을 체포하여 관부로 들여보냈다. 군수는 이들의 죄를 조사하여 다짐을 받도록 하였다.

최맹순[나이 42세]이 말하기를, “저는 본래 강원도 춘천 사람으로 허망한 邪術을 배워 22년 동안 은둔하여 그것을 몰래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에 본군 소야 땅에 접소를 설치하고 他道와 本道を 막론하고 무리를 꺾어서 모으자 그 숫자가 7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좁고 무리 는 많아서 각처에 접소를 설치하니 그 숫자가 48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무리들은 모두들 거칠고 잡된 亂類들이었습니다. 조정의 명령과 순영의 지시를 어기고 지키지 않았으니 이미 효수하여 경계시킬 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재산을 빼앗았으며 龍宮의 무기를 탈취 하여 예천 읍민들을 도륙하려고 하다가 결국 패하여 달아나서 강원도 평창 접소에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중략) 빨리 처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최한결[나이 21세]이 말하기를, “제 아버지가 이미 죄인의 우두머리이므로 달

9 「갑오척사록」 ‘집강소 일기’, 『국역총서』 3, 262.

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죽을죄를 지었음을 자백하오니 빨리 처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장복국[나이 55세]이 말하기를, “저는 본래 본군의 소야에 거주하였습니다. 崔哥, 최맹순과 이웃에 살았던 관계로 邪學에 유혹되어 들어가 접사가 되어 무리들을 불러 모았는데 500여 인에 이르렀습니다. 최맹순과 공모하여 고을을 공격하였고 결국 패하여 쫓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학에 이술 異術이 있다고 맹신하여 밤낮으로 부지런히 그것을 공부하였으며 이것을 배워야만 난세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대를 물리치는 부적[退兵符]과 군대를 물리치는 주문[退兵呪文]을 지니고 있다가 체포될 때 결국 탄로가 났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음을 자백하오니 빨리 처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¹⁰

『학초전』에 따르면 원래 소야 동학 대접주 최맹순은 충청도 보은 장안 최법헌 다음으로 관동포로는 제일 접주이었다고 한다. 사람이 체골은 썩 장대하지는 않으나 심지가 충명 단아하여 포덕을 많이 하였다. 항상 도인들을 보고 도인 자세를 일절 하지 말고 유불선 수도나 착실히 하면서 각 안기업(各安其業)하라고 권하였다. 도인 중에서 혹 부정당한 행위를 하면 하지 못하도록 걱정하던 사람이었다.¹¹ 앞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최맹순은 8월 28일 예천 읍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이후 강원도 평창으로 도피하였다. 이후 그는 평창에서 100여 명의 농민군을 규합하여 다시 예천을 공격하기 위해 10월 17일 예천 적성리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다시 충청도로 이동하였으나, 11월 21일

10 「갑오척사록」, 『국역총서』 3, 325쪽.

11 『학초전』 1, 132쪽.

충주 독기(篤基) 근처에서 아들 한걸(汗杰) 및 장복극(張卜極)과 함께 예천에서 파견한 민보군에게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다음 날이자 예천 장날이었던 11월 22일 남사장(南沙場)에서 예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당하고 모래사장에 묻혔다.

11월 22일

龍宮의 무기를 탈취하여 예천 읍민들을 도륙하려고 하다가 결국 패하여 달아나서 강원도 평창 접소에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100명 정도의 접의 졸개들을 모아 지난달 17일에 본읍 적성리로 갑자기 들이닥쳐 인가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충주 篤基嶺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11월 21일

적성동 統首가 갑자기 보고하기를, “동도의 거괴 최맹순이 충주의 篤基 등지에 숨어 있으니 급히 부병을 파견하여 체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즉시 유사와 포병 30여 명을 파견하였는데 伐川[군의 북쪽 70리 지점에 있다] 까지 추격하여 최맹순과 그의 아들 汗杰 및 장복극을 잡아왔다. (중략)

최맹순에게 엄하게 곤장 1대를 친 뒤에 즉시 武士에게 그를 끌고 나가 남사장에서 목을 잘라 내걸도록 하여 백성들을 경계시켰다. 마침 장날이어서 좌우에서 구경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는데 모두들 통쾌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최한걸과 장복극을 끌고 나와 각각 엄하게 곤장 한 대씩을 치고는 칼을 찌워 옥에 가두었다. 유사 등이 모두들 아뢰기를, “오늘은 장날이어서 두 놈의 친척과 추종 무리들이 부중에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밤을 틈타 빼내어 갈까 걱정이 되니 죽여서 후환을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군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즉시 끌고 가도록 명령을 내리자 부병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둘러싸고 끌고 가서 총을 난사하여 죽인

후 모래사장에 묻었다.¹²

『학초전』에 따르면 최맹순 부자의 죽음은 매우 비극적이었다. 부자가 함께 죽임을 당한 그날은 바로 독자였던 아들 한결이 혼례를 올린 바로 다음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결의 신부까지 자결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소야 대접주 최맹순의) 독자 자식의 나이가 근 이십이나 되었으니 부모의 뜻으로 성취할 때라 친구의 중매로, 예천 벌재라 하는 곳에 사는 범절과 인물이 당세에 특출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김씨가(金氏家)의 규수와 혼취를 시켰다. 아들이 그 신부와 첫날밤 자고 이튿날 부자가 함께 예천 집강소 포군에게 잡혔다. 예천 집강소는 일본 군인과 용궁에서 소야로 가서 해산시킨 줄 알고 그 뒤 빈터에 가서 인민의 재산을 살살이 강탈하던 차, 최맹순 부자가 은적하여 혼인한다는 말을 듣고 맹순 부자를 죽이고 그 신부를 탈취하고자 읍에 잡아다 가두어 놓았다. 최맹순의 죄로 말하면 도덕만 많이 하였지 자기가 나서서 누구를 침토한 일은 없으되 대접주로 불리게 되었으니 ‘돈을 많이 주면 살려 준다.’ 하여 있는 대로 빼앗아 먹었다. 그 아들이야 또한 무슨 죄가 있나? 동학 접주의 아들에 불과하지만 미색 숙녀의 남편이니 죽여 없애야만 할 터, 첫날밤 하룻밤 동침한 그 김씨는 포군에게 잡혀 읍에 데려와 가두지는 아니하고 집강 포군이 만단으로 달래었다. 화간 강간을 만단으로 청하여도 김씨는 기어이 듣지 아니하였다. 집강자들이 말하길 “내 말만 들어 주면 남편을 살려 준다. 동학군은 쓸데없다. 우리와 살면 금의 호식에 영광과 사랑을 받는다. 만일 안 들으면 죽인다” 하면서 백단으로 달래어도 듣지 아니하였다.

말래에는 최맹순 부자를 함께 죽이고 난 뒤, 김씨는 의탁 없고 남편 없으

12 「갑오척사록」, 『국역총서』 3, 325~326쪽.

면 자연 수중에 있는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죽은 후에 만단으로 달래었지 만 전혀 듣지 아니하고 자살 순절하였다. 당시 강도 굴혈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성세에 따라 아침에 모이고 저물 때 흠어져 아침을 드리며 재산을 털어 갔다. 뿐만 아니라 생남생녀 자식 낳아 기르던 여자도 승세를 좇아 송구종신으로 예천 집강인 서방이라면 등용문처럼 여겼다. 최맹순 지부 김 씨는 초혼한 하룻밤 지낸 남편에게 무슨 깊은 정이 있으리오만, 강도 천지에 우뚝한 ‘일야정부 만고입절(一夜情夫 萬古立節)’이라 하겠다. 애석하다, 최맹순은 자손이 멸망하였다.¹³

3. 동학농민군의 활동 : 박학래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예천 지역 농민군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7월부터였다. 농민군은 7월 5일 수십 명이 읍내에 들어와서 前營將 李裕泰를 끌어내서 결박·구타하고 돈을 탈취해 갔다. 7일에는 邑吏 黃俊大의 동생 집의 무덤을 파헤쳤고, 9일에는 읍내로 들어가 읍리 金炳運을 끌어내어 때리고, 그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쳤다. 15일에는 于音洞 접주 朴來憲이 수십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경진가점(京津街店)에서 이임하여 가는 안동부사¹⁴ 일행을 공격하고 행장을 빼앗았다. 이들은 부사의 의관을 벗겨서 빼

13 『학초전』 1, 132~134쪽. 충청도에서는 반대로 농민군이 양반집 딸이 혼인하는 날 밤에 소란을 피우고 결국 신방에 든 신랑을 붙들어 가 버려서 갓 초례를 치른 꽃 같은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遼綱錄』,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9, 71쪽.

14 안동부사는 洪鍾榮으로 그는 1893년 5월 29일 안동부사로 부임하였으며(『승정원일기』 고종 30년 5월 29일), 1894년 7월 19일 李禧元으로 교체되었다(『승정원일기』 고종 31년 7월 19일).

앗고 묶어서 마구 때렸으며, 그 행장과 아녀자의 이부자리 및 비녀와 귀고리를 모두 빼앗았다.¹⁵

예천 읍치 외곽 지역 곳곳에 농민군 도소가 설치되었고, 곳곳에서 기존의 신분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악덕 지주나 토호들을 징치하였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읍정을 관장하고 폐정들을 개혁해나갔다. 예컨대 가장 세력이 컸던 소야지역의 경우 주민들은 송사가 있어도 관아를 찾지 않고 모두 소야에 갔다고 한다.¹⁶ 또 농민군 자체에 檢察官 혹은 안렴사가 있어서 이들은 예천 풍기 등 각 지역을 순회하며 폐정개혁 활동을 조정하거나 감찰하였다. 검찰관 張克元은 예천 각지를 돌아다니며 포악한 자들을 징치하고 다녔는데, 그의 行裝과 수행원들이 마치 관찰사와 같았다. 또 그가 이르는 곳에서는 그 위세가 호랑이와 같았으며 송사를 처결해 달라고 온 사람들이 시장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¹⁷ 이와 같이 농민군 측에서는 검찰관을 파견하여 각 군현을 순행하며 농민군의 폐정개혁 활동을 감

15 「갑오척사록」에서 정리.

16 비단 소야집만 아니라, 일대 각 군현의 사정이 모두 그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 군(郡), 각 접(接)에 피착되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모두 다 와서 옛날 원통한 일을 해결해 주기를 호소하는데, 어떠한 접은 가보니 4~50명 또는 근 백 명씩 열을 지어 앉아서 그중에 民狀을 받아 쌓아 놓고 公事를 처리하고 있었다(『학초진』 1, 73). 또 같은 책, 70쪽, 88쪽 참조.

17 8월 20일, 갑자(二十日甲子) “閭巷의 소접들은 각자 줄개들을 풀어 서로 다투어 침학을 일삼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어 원통함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였다. 誹謗은 모두 소야의 접소로 몰렸으며 관부는 적막하였다. 또 동도의 檢察官 張克元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각 읍을 돌아다니며 포악한 자들을 금지한다고 떠돌면서 도리어 탐욕스런 행동을 자행하였는데 그 行裝과 수행원의 규모가 道伯, 관찰사에 비견되었다. 그가 이르는 곳에서는 그 위세가 호랑이와 같았으며 송사를 처결해 달라고 온 자들이 시장처럼 몰려들었다.”(「갑오척사록」, 『국역총서』 3, 287쪽).

사하거나 소송을 처결하였다. 소야점의 최맹순도 8월 11일 유천 접주 조성길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자 직접 그를 체포하여 예천 관아로 압송해 보내기도 했다.¹⁸

그러나 농민군의 활동이 지도부의 의도대로 잘 통제된 것은 아니었다. 『학초전』을 쓴 박학래는 당시 농민군의 활동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름은 崔時亨이오, 호는 法軒이라고 한다. 충청도 보은 장안동에 거주하면서 1893년(계사년)과 1894년(갑오년)에 동학을 포덕하여 각 도 각 군 면면 촌촌이 일제히 입도하니 <그동안 서슬 퍼렇던> 각 영문과 군수의 세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각처의 동학 집에서 연락을 상통하고 기호를 높이 세우고, 각 접주 기찰들이 앉고 섬이 엄숙하고 원통한 백성의 민소(民訴)가 동학 집에서 처리되었다. 周衣 입고 지팡이 짚고 서슬 퍼렇게 사방으로 횡행하며 인민을 잡아간다, 들어간다, 결박하여 돌을 짓이겨 놓는다. ‘아이고 지고’ 하는 소리, 이 사람들은 모두 누구냐 하면, 예전의 양반이거나, 아전, 사환으로 세력을 부리던 사람이었다.

자기의 부녀 조축 척간이 폐가하고 욕 본 원수며, 다소는 재물을 뺏기고 찾으려 하기, 怨塚勒掘이다. 유부녀 강탈당한 사람, 사문사 존문에 뺏어 먹은 것이며,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영을 취하여 불법으로 뺏긴 사람이며, 무단히 생피불목으로 뺏긴 사람 등 죽을 지는 구기소실(舊紀消失)하면 죽을 양반이신 것이라. 이 같은 세월을 쫓아 욕을 면하기 위하여 입도도

18 8월 11일 소야 접주 최맹순은 유천 접주 조성길을 압송하고 그 죄안을 기록해 예천 집강소에 보내면서, 이미 떠들썩하게 할안(割案)을 하였으니 마음대로 조치하기 바란다고 하였다(『갑오척사록』 8월 12일, 275쪽). 예천집강소에서는 다음 날 “趙成吉을 엄하게 곤장을 치게 하고, 복을 치며 시장에서 조리를 돌렸다.”(『갑오척사록』 8월 12일, 276쪽).

하고, 세력을 쓰려고 입도도 하고, 가정을 보존하려고 입도도 하여 마침내는 동학 중에도 부정당한 사람이 자연 많으니, 유불선 三道가 어찌된 것인 의무인지도 모르고 攻滅之門의 亂臣賊子 나듯이 동학의 불법자도 적지 아니하였다.¹⁹

농민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농민군 측에서 기록한 것은 거의 없다. 이 점에서 위의 자료는 농민군의 입도 배경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농민군 측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검찰관도 있었지만, 이를 빙자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자도 있었으며, 소위 이 지역 감찰관들의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보은 동학교단에서도 사람을 파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학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로 의성인 李章表를 들고 있다. 그는 “사람을 아무 근거 없이 억측으로 지어내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다. 그 버릇대로 보은 장안까지 가서 그 말썽을 일으켜 주장하고, 보은에 가서 입도하고 동학도 검찰이라 하며 행세하고 다녔다.” 이에 따라 박학래를 비롯한 농민군들은 그를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8월 13일에 각 군 각 처 동학도들이 용궁 암천동 반석에 대도회를 열어 이장표를 잡아다가 亂言名例 손상죄에 대해 건디지 못하고 아침에 엄태 30대를 가지고 만장회 때 쫓아내었다.” 이 무렵 보은 대도소에서도 사람을 파견하여 농민군의 행동에 대한 감찰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보은에서 박학초의 수단도 볼 겸 혹, 잘못된 진행으로 民擾만 일으킬지 걱정이 되어 특별히 비밀 按廉使로 李容九를 파견하여 각처 풍문을 비밀 조사로서

19 『학초전』 1, 70쪽.

하였다. 이날 <이용구는> 영벽정 위 김순흥 집 사랑에 머물러 있었다.”²⁰

한편 박학래가 입도한 것은 1894년 4월 말 이후였다. 입도 당시 경상감사가 조병호였다고 하였는데,²¹ 조병호가 경상감사로 임명된 것은 4월 25일이었다. 그는 동학에 입도한 이유에 대해, “오백년 土族이 죽어라 라고 하니 <이를> 구제할 도리가 없는지라”. “사족대가 뜻을 가진 사람 4~5인이 같은 마음을 먹고 학초가 먼저 입도하는데, 關東布 崔孟淳의 집 朴賢聲의 稷谷布에 입도하였다”라고 하였다.²² 입도 이유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입도 이후 박학래의 행적이나 생각 역시 매우 독특하다.

그가 보여 준 가장 대표적인 생각과 행동은 동학농민군들이 성군작당하여 양반 부자 등을 대상으로 설분하는 행위를 적극 만류한 점이다.²³

『학초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토색질이나 고리대금업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던 사람들도 많았다. 이러한 모습은 기왕의 자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가 평소에, 또 농민전쟁 시기에 보여 준 생각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그는 1884년에 부세 부담과 관련하여 이웃한 반촌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반촌의 장두 자격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한 바 있으며,²⁴ 문벌을 숭상하는 세도정권은 물론 민비와 대신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20 『학초전』 1, 92~96쪽.

21 『학초전』 1, 71쪽.

22 『학초전』 1, 73쪽.

23 『학초전』 1, 73~107쪽.

24 『학초전』 1, 48~67쪽.

그는 방백수령에 대해서도 “때를 가리지 않고 백성을 떨어 먹는 강도의 괴수라. 어찌 인민의 부모라 하리오.”라고 하는 등 정치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운과 해월에 대해서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동방의 성인”으로 부르기도 했다.²⁵ 또한 농민전쟁 당시 예천읍 공격을 앞둔 화도도회 때는 모사대장을 맡기도 하는 등 농민전쟁 전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²⁶

그가 농민군들의 집단적 설분 행위를 만류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과렴치한 인물들에 대한 정치까지 적극적으로 만류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평소에) 동학농민군들이 성군작당하여 양반 부자 등을 대상으로 설분하는 행위에 대해 “孔孟之門의 난신적자요, 유불선 동학지문의 난신적자”라고 비난하였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⁷ 또 앞선 안동부사 일행에 대한 공격에서도 보이듯이 농민군들이 집단의 힘을 빌려 평소의 사적인 원한을 갚는 사건이 적지 않았던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초전』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농민군의 안동부사 공격은 용궁군 岩川에 살던 농민군 金順明이 주도한 것이었다. 김순명은 “金東籬의²⁸ 자손

25 『학초전』 1, 86~87쪽.

26 『학초전』 1, 111쪽.

27 『학초전』 1, 73~107쪽.

28 “김동리의 이름은 允安이고, 자는 而靜이다. 경신년(1560, 명종15)에 태어났고, 안동 九潭 출신이다. 퇴계 선생과 西厓를 존숭하여 섬겼다. 도량이 크고 넓어 구속됨이 없었다. 글을 잘 지었는데, 시에 더욱 능하였다. 병오년(1606, 선조39) 召村 察訪에 轉任되었는데, 申伊溪와 사는 곳이 매우 가까워 왕래하며 시를 주고받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 또한 나와도 서로 알고 지내며 정이 좋아 화답한 시가 많다. 뒤에 直長으로 부름에 나아갔다. 자호는 東籬·晴巒이다”(成汝信, 『浮查集』 제6권, 雜著, 從遊諸賢錄).

으로 9대에 걸쳐 안동 좌수와 진사를 지낸 집이라. 도내며 안동 향측에 유수한 그 종손의 동생이었다. 주색을 좋아하던 그는 民娶 장가를 들어 그 처의 재산도 많이 얻어 쓰고, 행위는 양반에 토호 겸 義氣男子인 듯한 사람이었다. 안동 군수 홍종영과 약간의 不好가 있더니, <군수가> 벼슬을 그만두고 遞歸하는 길에 예천 경진이라 하는 주점에서 숙박하였다. 김순명은 동학의 세력을 믿고 동류 기십 명을 데리고 <군수에게> 달려 들었다. 안동에서 불법 학민으로 토색한 돈을 내고 가라고 하다가 뜻과 같이 못하니 행장과 보료, 요강 등 약간의 집물을 탈취하여 왔다는 소문이 낭자하였다”. 박학래는 김순명과 일당을 잡아다가 문초한 후 “그 집물을 빠짐없이 묶어 저다가 경성까지라도 갖다주라.”라고 한 후 풀어 주었다고 한다.²⁹

한편 예천 지역 농민군 지도부 가운데도 평소의 행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자들도 있었다. 박학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해 두고 있다. 예를 들면 8월 10일 예천의 민보군이 농민군 11명을 체포하여 모래밭에 생매장하여 죽인 사건 이후 양측의 대립은 점차 심각해졌다. 농민군은 예천 읍내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철저히 봉쇄하여 양곡과 땃감 등의 보급을 차단하는 한편 금곡, 商東, 소야 집 등에서 통문을 보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보수집강소를 압박해 나갔다.

8월 15일 무렵부터 상주·함창·용궁 3개 고을과 충주의 병사 5,000여 명이 山陽 등지에 모여서 크게 위세를 떨치며 예천읍을 도륙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³⁰ 마침 예천·안동·의성 등에서 농민군을 공격하는 일이

29 『학초전』 1, 100~101쪽.

30 「갑오적사록」 8월 15일, 『국역총서』 3, 281쪽.

벌어지자, 8월 20일경에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강원도의 각 접소에 사통을 돌려 상주의 梨亭과 예천 소야 등지에 모여 예천을 공격하고자 하였다.³¹ 이에 따라 關東大接과 尙北·용궁·忠慶·예천·안동·풍기·榮川·상주·함창·문경·단양·청풍의 13명의 접주가 상주 山陽과 예천의 금곡 및 花枝에서 대회를 열었다.³² 박학래는 이때 “당년 팔월 모일에 용궁을 거쳐 <소야에 모이라는> 도회 통자가 각 집에 도달하였다”라고 하면서 통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위에서 내려온 발문 비통에 의하면, 爲國安民 취지로 각 접 도인은 창과 총을 준비하되 총은 있는 대로 극력 준비를 하고, 총 없는 이는 창이라든가 각각 준비하고 각 접의 기호를 분명히 보기 좋게 하고 모여서 행진함에 항오를 정제히 하라. 우선 8월 모일로 용궁을 거쳐 <소야로 모이기 바람> 무사히 모여서 앞에 적힌 내용을 급급 시행하시기 바람.³³

박학래는 직곡접의 수하들을 이끌고 용궁을 거쳐 소야로 갔는데, 그가 용궁읍에 들어섰을 때 벌써 소야 상접과 각 처에서 온 농민군이 동헌을 둘러싸고 있었다. 최맹순의 수하 가운데 접주 고매함이 군수에게 군기를

31 「갑오척사록」 8월 20일, 287쪽.

32 「갑오척사록」, 287~289쪽. 8월 21일. 이때 각처의 동도들이 상주 山陽과 본군의 금곡 및 花枝에서 대회를 열었다. 각각 만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장차 고을을 도륙하겠다고 떠들어서 고을 사람들이 크게 술렁거렸다.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였더니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적의 세력이 굉장하며 사방에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총과 창검이 숲처럼 뻗뻗하게 늘어서 있고 호령소리와 총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촌가의 양식을 겁탈하여 원근이 소란스러우며 피난민들은 온 들판을 메우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갑오척사록」, 『국역총서』 3, 289쪽).

33 『학초전』 1, 127쪽.

내어달라고 힐난 중이었다. 군수는 거절하였으나, 소야점의 농민군들이 군기고에서 총을 탈취하여³⁴ 소야로 갔다.³⁵ 소야에는 이미 대장도소, 중군도소, 좌우익도소, 급량도소, 서기 후보 정탐 등의 조직이 편제되어 있었다.³⁶

그 이튿날부터 백 명씩 작대하여 군사훈련을 하였는데, 이때 훈련을 담당한 교관이 안동 출신의 김한돌(金漢堧)이었다. 그는 본래 안동 진영 장교 출신으로 황수까지 지내면서, 영장의 복심이 되어 학민(虐民)을 많이 하다가 동학 교세가 확산되고 농민군이 치성하자 동학에 입도하여 안동 발산점의 접장이 되어 또다시 농민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학민’하여 안동, 의성 일대가 도탄에 빠졌다고 한다. 안동 진영에서 잡아 죽이려 하자 김한돌은 부득이 예천 소야점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거기서 농민군 교련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한돌은 8월 24일 본격적인 예천 공격을 준비하던 화지 대도회에서는 대장소의 대장이 되어 농민군의 예천관아 공격을 지휘하였다.³⁷

박학래가 ‘학민’을 일삼던 김한돌의 농민군 지도자가 되어 활동하는 사

34 “한 정도 가히 쓸 것은 없고 모두 敝件으로 보였다.”고 하였다(『학초전』 1, 104쪽).

35 박학래는 소야에 도착하기 전에 용궁에서 무기를 탈취하였다고 했으나, 「갑오척사록」에 따르면, 용궁 관아를 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것은 8월 25일이었다. 박학래의 착각으로 보인다.

36 『학초전』 1, 105쪽.

37 『학초전』 1, 108~109쪽.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김한돌과 박학래는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안동에서 김한돌을 잡으려 했기에 그가 그것을 “피해서 동학진에 와 있는 줄 비단 세상뿐 아니라 예천 군수와 집강소가 그리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김한돌 역시 이에 대해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학초전』 1, 128쪽). 김한돌은 12월 초 안동도총소에서 체포되어 黃黶伊·金庶公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갑오척사록」, 328쪽).

실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서술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바 있듯이 그가 농민군의 행동과 관련하여 “유불선 三道가 어찌된 것인 의무인지도 모르고 攻滅之門의 亂臣賊子 나듯이 동학의 불법자도 적지 아니하였다”고 받아들인 사정 등이 그로 하여금 농민군들의 집단적 설분 행위를 저지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4. 맺음말 – 농민군의 해산과 반농민군 세력의 농민군 탄압

농민군들은 해산하라는 국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병>이라거 하면서 항쟁을 이어갔다. 8월에 들어서는 “수상한 무리들이 密旨라고 하거나 혹은 分付라고 하여 민간에서 선동하는 일이 일어났다.”³⁸ 대원군과 농민군 간에 모종의 과계가 있다는 소식은 박학래에게도 전해졌다. 8월 20일경 소야로 모이라는 통문을 접한 뒤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통장을 보고 헤아려 생각해 보니 요즈음 세상 형편이 하늘의 인심과 도탄에 빠진 생령들이 필시 혁명은 일어나고 말 것 같았다. 비밀리에 들리는 말이 임금의 외통(外通)조도 있다 대원군이 내용이다 하는 <소문이 들렸다> 임진대적(臨陣對敵)하는 날에도 있는 남의 총 귀에 물 나기 하는 수도 있다느니, 조정의 간신 세력을 교혁하여 위국안민(爲國安民)과 광제창

38 『갑오군정실기』 1, 9월 26일.

생(廣濟蒼生)한다는 등 분분하였다. 각항 들리는 말의 취지를 알 수 없고 각 군 수령은 민요(民擾)에 쫓겨들 많이 가고 동학 창궐 후 토색 강도 같은 행위는 스스로 불금이 되고 각 관원의 횡령이 전혀 없는 때이었다.³⁹

그러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나 대원군의 내용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예천 농민군은 8월 28일 서정자 전투 이후 약화되어 갔다. 반농민군의 활동과 일본군의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0월 중순까지도 예천을 다시 공격하려고 기도가 있었으나, 10월 18일 예천 읍내를 공격하기 위해 충청도에서 100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赤城洞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던 소야의 관동대접주 최맹순이 11월 21일 충주 篤基에서 체포되면서 사실상 그 활동이 약화되어 갔다.

경상 북서부 지역 반농민군의 활동은 상주의 前承旨 鄭直默이 영남소모사로 임명된 9월 29일⁴⁰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0월 16일에는 정의목이 영남소모사로 임명된 사실이 상주 관아로 통보되었고, 정의목은 10월 19일에 상주에 도착해서 의병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⁴¹ 10월 20일에는 將官廳이던 碧油堂에 召募營을 설치하였다.⁴² 11월 8일 확정된 소모영 막하 파임기(召募營幕下爬任記)에 따르면 前應敎 張承遠과 幼學 姜奭熙, 朴海祚, 曹喜宇 등이 종사관으로, 유학 金奭中이 游擊將으로 차출되었고, 출범 당시 소모영의 병력은 200명이었다.⁴³

39 『학초전』 1, 103쪽.

40 「갑오군정실기」 1, 9월 30일; 『계초준안』 의 1894년 9월 29일;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9월 29일.

41 「갑오군정실기」 4, 11월 11일.

42 「소모일기」, 『국역총서』 3, 421쪽.

창원부사 李鍾緒, 대구관관 池錫永, 인동부사 趙應顯, 거창부사 丁觀燮 등과 함께 경상도 지역 소모사로 활동하게 된 그의 관할 지역은 안동, 상주, 청송, 순흥, 문경, 예천, 영천, 풍기, 의성, 용궁, 봉화, 진보, 함창, 예안, 영양 등 15개 고을이었다.⁴⁴ 소모영에서 특히 김석중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김석중은 민보군 가운데서 선발한 200명의 別砲軍을 이끌고 영동, 청산, 보은, 옥천 등 충청도 지역 농민군 진압에도 앞장섰으며,⁴⁵ 12월 17-18일에 걸쳐 치러진 보은 복실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상주 소모영은 1895년 1월 24일 해체될 때까지 상주는 농민군 진압의 거점이 되었으며, 많은 농민군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형벌을 받거나 처형되었다.⁴⁶

박학래는 8월 28일 전투 이후 예천 보수집강소의 행패에 대해 다음과

43 「소모사실」, 『국역총서』 9, 133~137쪽.

44 「갑오군정실기」 7, 12월 6일.

45 「갑오군정실기」 9, 12월 21일.

46 소모영으로 끌려와서 처형된 농민군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만 하여도 다음과 같다. 10월 22일 농민군 9명(태평루 앞), 11월 7일 姜善甫(태평루 앞), 11월 7일 姜弘伊, 金景俊 등 2명(남사정), 11월 24일 南戒一, 孫德汝, 崔善長, 李義城, 張判成, 皮色匠, 億孫 등 6명(태평루 앞), 12월 12일 李得伊, 朴起奉, 權和一, 金順五, 李道生, 裴春瑞, 朴昌鉉 등 7명(남사정), 12월 14일 崔仁叔, 尹景五, 金順汝, 全明叔 등 4명(태평루 앞), 12월 22일 상주의 朴孝植, 충청도 영동의 金興業, 金慶學, 청산의 安小斗劫, 金有成, 朴基俊, 池相泉, 황간의 金士文, 李尙信, 申允石 등 10명(남사정), 12월 24일에는 全五福, 李圭三, 李太平 등 3명(남사정) 등 모두 42명이었다(「召募事實」(『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1) 「召募日記」(『叢書』 11) 「討匪大略」(『叢書』 11) 「甲午斥野錄」(『叢書』 11) 「歲藏年錄」(『叢書』 2) 「駐韓日本公使館館錄」 1: 「駐韓日本公使館館錄」 3에서 정리). 또한 정의목은 강은 양면 전략을 취하여 “백성들 가운데에 협박을 받아 동학에 들어갔던 자들에게는 귀화를 설득하여 갔다가 귀화한 자가 11월 8일 현재 1,014명(「소모사실」, 11월 8일, 『국역총서』 9, 129쪽 「갑오군정실기」 5, 11월 17일), 11월 29일 1,630명에 이르렀다(「소모사실」, 11월 29일, 『국역총서』 9, 157쪽). 상주 소모영의 구체적 활동상에 대해서는 신영우, 앞의 글, 1986에 잘 정리되어 있다.

같이 기록해두고 있다.

8월 28일 밤이 지나니 예천 집강 장문건 등이 奸計思想은 <다 말할 수 없었다.> 동학이 다시 무리를 모아 공격할 리는 없을 터, 동학에 있던 한 두 사람이 취당(聚黨)하거든 잡아 죽여 말을 없이 할 작정으로 군수와 공모하여 동학을 용하게 많이 잡은 형용 자공하여 대구 감영에 보고하였다. 읍저 인민을 대설기창(죽창)으로 다중 취합하여 窩舍 대청에 집강 군문을 설치하였다. 각항 과임을 정제하고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학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 재산이나 있는 사람, 전자 힘(欠)이 나 있는 사람, 동학을 更起主唱, 즉 동학을 다시 일으킬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잡아다가 포살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계집이 가색이면 빼앗아 집강군 첩으로도 삼았다.

전곡과 토지에 기물까지 재산을 강탈하여 전곡은 군량으로 <충당>하고 매매할 건 방매하고, 호의호식에 의기양양하여 촌민의 재산 여지없이 떨어갔다. 읍의 백성은 집강소를 빙자하여 거진 착실한 요부라, 읍촌 간 직업 없고 부랑 잡기자 모두 집강에 가서 붙어 누가 동학이라 하고 재산 없는 자 재산을 뺏드려 먹고 살기, 계집을 취코자 한 자 계집을 뺏어 살기, 예전에 <자신과> 힘이 있었던 자를 동학이라 칭탁하여 원수 갚기, 그 전에 받은 공전이라도 아니 받았다고 칭하고 족속에 족징, 길로 가는 장사가 재산이 많은 듯하면 동학이라 <덮어썩워> 잡아 죽이고 재산 떨어먹기, 시장에 물건 오면 동학인의 물건이라 뺏어먹기, 만일 똑똑하게 대항하면 동학의 항대라 포살하기, 관청으로는 동학 잡은 자 공으로 군용을 세우고, 실상은 동학에 乞降自伏하여 和好各散 후에 쓸데없는 세계 군용을 베풀고 실측은 백성 잡아 살해, 무단 떨어먹는 강도소라. 그중에도 부지손줄이 집강과 동학이 어찌하여 화호각산된 속내를 모르고 바람에 흩친 대로 행동하며 작폐, 無數作弊를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다.

민보군의 행동 양태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기록이라 생각된다. 예천 전투 이후 관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피난 다닌 박학래의 직접적인 경험담이나 행적과 더불어 농민군에 대한 탄압과 농민군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투고일 : 2023.10.23.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	-------------------	---------------------

참고문헌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 4, 6, 7, 8.
- 『東學亂記錄』 下
-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 9, 11.
-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9.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

- 이이화, 최재목, 임형진, 신영우, 박홍규 외, 『경상도 대구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 혁명사에서 대구와 경상 감영의 역사적 위상』 (동학총서 4), 모시는사람들, 2015.
- 이이화, 신영우, 이노우에 가즈오, 임형진 외, 『경상도 구미 동학농민혁명』 (동학총서 6), 모시는사람들, 2016.

- 姜孝叔,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防衛研究所圖書館所藏史料を中心に」, 『歴史學研究』 762, 2002.
- 신영우, 「1894년 영남 예천의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1984.
- _____,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 『동방학지』 51·52집, 1986.
- _____, 「19세기 영남 김산의 양반지주층과 향내 사정」, 『동방학지』 70집, 1991.
- _____, 「1894년 영남 김산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1991.
- _____,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2006.
- _____,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 실학』 35, 2008.
- _____,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 _____, 「경상감사 조병호와 갑오년의 경상도 상황」, 『동학학보』 35, 2015.
- _____, 「1894년 일본군 노즈(野津) 제5사단장의 북상 행군로와 선산 해평병참부」, 『동학학보』 39, 2016.
- 신진희, 「의성지역 향촌지배층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65, 2013.
- 이병규,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와 그 성격」, 『동학학보』 35, 2015.
- 이운갑, 「1894년의 경상도지역의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 _____, 「19세기말 경상도 성주의 사회변동과 동학농민전쟁」, 『대구사학』 119, 2015.
-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안동문화』 15, 1994.
- 표영삼, 「경상 남서부 동학혁명」 □교사교리연구구□제6호, 2000.
- _____, 「경상북서지역 동학군 활동」, 『신인간』 678, 2007. 2·3월 합동호.

경상도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탄압 - 『학초전』과 『갑오군정실기』를 중심으로-

배항섭(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이 글은 새로 발굴된 자료인 <갑오군정실기>와 <학초전>을 통해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군 활동과 민보군의 농민군 탄압의 일단을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실기>는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최고 군사 지휘부의 공식 기록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많이 담고 있지만, 경상도 지역과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다.

<학초전>은 경상도 사람 박학래(1864~1942)가 평생 경험했던 중요한 사실을 나이 60이 되던 1923년에 기록한 자서전이다. 박학래는 경상도 예천 순흥 경주 청송 영양 등지에서 살았으며, 동학농민전쟁에 지역 지도자로 가담하기도 했다. <학초전>에는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의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던 사실, 혹은 이미 알려진 것과는 다르거나 기왕의 이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하되, 최맹순의 인물과 비극적 최후, <학초전>에 기록된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경상도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상, 그리고 동학농민군에 대한 반농민군의 구체적 탄압 실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 최맹순, 예천, 동학농민군, 보수집강소, 민보군

Abstract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Yecheon, Gyeongsang-do and oppression of anti-Peasant Army – Focusing on “Hakchojeon” and “Gapo-gun Jeongsilgi”–

Bae, Hang-Seob(Academy of East Asia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HK propessor)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northern Gyeongsang-do and the suppression of the Peasant Army in Minbo-gun through the newly discovered data "Gapo-gun Jeongsilgi" and "Hakchojeon." <Silgi> is the official record of the highest military command for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contains many unknown contents, but there are not many records related to the Gyeongsang-do area. "Hakchojeon" is an autobiography written by Park Hak-rae (1864-1942), a Gyeongsang-do man, in 1923 when he was 60 years old. Park Hak-rae lived in Yecheon, Sunheung, Gyeongju, Cheongsong, Yeongyang, Gyeongsang-do, and participated as a local leader in the Donghak Peasant War. In <Hakchojeon>, there are many facts that were not shown in previous data regarding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sang-do, or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already known or that can complement the previous understanding. Based on the already published research results, this article examined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Yecheon, Gyeongsang-do, focusing on Choi Maeng-soon's character, tragic end,

and new contents recorded in <Hakchojeon>,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anti-Peasant Army's suppression of Donghak Peasant Army.

key word : Choi Maeng-soon, Yecheon, Donghak Peasant Army,
conservative <jipkangso>, Minbo-gun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 사상과 정치의식

김 양 식(청주대학교 조교수)

목차

1. 머리말
2. 전봉준의 인간관과 사회의식
3. 전봉준의 정치의식과 실천
4. 맺음말

1. 머리말

전봉준(1855~1895)은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로서, 불꽃 같은 삶을 통해 ‘혁명’을 역사 위에 남기고 간 인물이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동학농민혁명을 낳은 전봉준의 삶과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꿈꾼 세상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실제 갑오년에 어떻게 실천되었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등 많은 연구자가 주목하고 글을 남겼다.

장도빈이 1924년에 최초로 갑오년 대사건을 혁명으로 규정하고 전봉준을 혁명가로 평가한 이후,¹ 전봉준 혁명사상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는 1974년에 가서야 김용덕에 의해 이루어졌다.² 김용덕은 격문 분석을 통해 전봉준의 혁명사상을 다루었는데, 전봉준을 혁명가로 자리매김하면서도 전봉준의 혁명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 뒤 전봉준 사상에 관한 연구가 종종 있었으나, 의외로 깊이 있는 연구는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한용희는 전봉준의 정치이념이 보국안민에 있으며 그 근본 사상이 사랑과 정의 그리고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논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³

1990년대 들어와 주목되는 연구는 정창렬에 의해 이루어졌다. 동학 외론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접근한 정창렬은 전봉준을 변혁적 지도자로 평가하면서 보국안민의 정치이념하에 폐정개혁을 통한 봉건제도 자체의 혁신까지도 세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았다.⁴ 그 뒤 정창

1 장도빈, 『甲午東學亂』, 1926;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4, 262~263쪽.

2 김용덕, 「격문을 통해서 본 전봉준의 혁명사상」, 『나라사랑』 15, 1974.

3 한용희, 「동학혁명과 전봉준」, 『숙대학보』 21, 1981.

렬은 전봉준에 대한 인물평에서도, 전봉준을 개혁적 지도자로 평가하면서 ‘넓은 정치를 개혁할 능력’과 ‘새롭고 선명한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인물로 보았으나,⁵ 탐관오리 축출, 토지제도 개혁, 합의법에 따른 정치 등 개혁 내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혁명사상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창렬 연구 이후 전봉준 사상에 관한 역사학계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박맹수는 무장 포고문, 4대 명의와 12개조 기율, 폐정개혁안, 만국공법 등을 분석하여, 동학사상에 기반을 둔 전봉준의 평화사상을 분석하였다.⁶ 그에 따르면 전봉준은 내면의 평화와 외적인 평화를 동시에 추구한 평화주의자였다.

최근 전봉준에 관한 연구는 인간적인 측면에 주목하거나 평화와 같은 현 시대적 담론과의 연계 속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전봉준 평전에서 더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 출간된 전봉준 평전에 나타난 전봉준 이해는 혁명가로서 접근하면서도,⁷ 인간적인 전봉준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찾으려는 관

4 정창렬, 『갑오농민전쟁 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5 정창렬, 「동학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 『내일을 여는 역사』 2000 여름호, 2000.

6 박맹수, 「전봉준의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1, 2017; 박맹수·조광환, 「전봉준의 동학사상」, 『한국종교』 53, 2022.

7 대표적인 전봉준 평전은 신복룡의 『전봉준 평전-동학농민혁명 125주년』(들녘, 2019), 김삼웅의 『독두 전봉준 평전』(시대의 창, 2007), 이이화의 『전봉준, 혁명의 기록』(생각정원, 2014) 등을 들 수 있다. 신복룡은 『월간 조선』 1981년 9월에 게재한 「실록 전봉준」을 바탕으로 1982년에 처음으로 『전봉준 평전』(양영각, 1982)을 간행한 뒤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1996년에 이어 2019년에 다시 『전봉준 평전』을 재간행하였다. 이이화 역시

점으로 서술되었다. 그래서 신복룡은 영웅적인 혁명가 모습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전봉준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이화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평화주의자’라는 관점에서 정의롭고 희생적인 전봉준의 삶을 새롭게 형상화하였다.⁸

이와 같이 전봉준의 사상 연구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연구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 들어와 전봉준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혁명가’라는 경직된 인식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가치를 찾아내려는 고민은 긍정적이다.

기존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을 반봉건·반침략운동으로 규정한 나머지, 전봉준의 사상 역시 반봉건·반침략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는 서구형 근대의 경로만을 유일한 길로 보기 때문에 전봉준이 지향하고 꿈꾸었던 미래상을 다양하게 바라다볼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전봉준과 관련된 텍스트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없게 만들었다.⁹

특히 전봉준 사상의 원천은 유학이었고 그가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한 사회 역시 유교사회였다. 그가 사용하는 텍스트와 담론 또한 기본적으로 유학을 기반으로 한 지식자원이었다. 그렇다면 전봉준 사상에 대한 접근은 전봉준이 지배적인 유교적 논리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하여 현실 비판과 새로운 사회를 전망하는 지식자원으로 활용하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⁰

『녹두장군 전봉준』(중심, 2006)에서 ‘평화주의자 전봉준’을 형상화한 뒤 수정·보완하여 2014년에 『전봉준, 혁명의 기록』을 재출간하였다.

8 조극훈, 「역사의 해석과 삶의 서사: 전봉준 평전 소고」 『동학학보』 58, 2021, 447쪽.

9 김상준, 『동학농민혁명과 두 근대의 충돌』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 -개혁과 근대-』, 제39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9 참고.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봉준 사상을 보다 인간적인 측면과 19세기 시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전봉준 재판기록, 전봉준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여러 포고문, 격문 등의 글을 활용하되, 19~21세기로 이어지는 중단연구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 우연히 발발한 것이 아니듯이, 동학농민혁명에서 분출된 여러 가치와 사상은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오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가치와 사상들은 시대를 관통하여 미래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로서의 전망을 열어 놓고 접근하고자 한다.

2. 전봉준의 인간관과 사회의식

1) 인간관

1855년에 고창 당촌에서 태어난 전봉준은 10대부터 고부에 정착한 30대 중반까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조선의 현실을 목도하고 가난과 수탈과 질병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였다.¹¹

10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재적·유교적 근대성 관련 연구 성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은주,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 -한국 근대성의 정당성 위기와 인간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한국학술정보, 2014; 나종석, 「전통과 근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30, 2015;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 『역사비평』 110, 2015.

11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25~42쪽.

전봉준은 기본적으로 정의롭고 희생적이며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심지어 굳고 배포도 크며 의지력이 강한 인물이었다. 실제 전봉준의 교수 형을 집행한 총순(總巡) 강모씨는 전봉준이 잡혀올 때부터 형을 받는 날 까지 전봉준을 지켜본 인물이었는데, 전봉준의 인물 됴됨이에 탄복하였다. 전봉준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였고 죽는 순간까지도 뜻을 굽히지 않고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¹²

또한 전봉준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고 뜻을 같이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특히 전봉준은 개혁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었다. 전봉준을 옆에서 직접 지켜본 오지영은 전봉준이 항상 불평한 마음이 많아서 사람을 사귀어도 신사상을 가지고 개혁심이 있는 자를 추수하였다고 회고하였다.¹³

이러한 전봉준의 인물 됴됨이와 개혁 의지는 다음과 같은 재판 심문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¹⁴

문: 네가 무슨 계책으로 탐관을 제거하려 하였느냐?

답: 특별한 계책이 있어서가 아니다. 본심이 안민하는데 간절하여 탐학을 보면 분하고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탐학을 제거하는 일을 행한 것이다.

이처럼 전봉준은 민중들이 편히 사는 세상을 간절히 원하였다. 그 때문에 위정자들의 탐학에 분노하고 한탄하였다. 더 나아가 그러한 분개는

12 오지영, 『동학사』, 대광문화사, 1984, 167~168쪽.

13 위 책, 169쪽.

14 『全琤準供招』, 을미 2월 11일 전봉준 再招 問目.

그의 정의롭고 실천적인 성격과 만나면서 민중들을 구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봉준의 인간관은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무장 포고문에서 엿볼 수 있다. 포고문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하면서 보국안민을 목적으로 의로운 깃발을 들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장 포고문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인본가치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편적 가치로서 인륜을 지닌 인민은 모두 존귀한 존재인 것이다.¹⁵

전봉준은 공주 충청감영 공격에 앞서 10월 16일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 첫 문장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은 기강이 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다”로 시작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전봉준 사상의 출발점은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전봉준의 인간존엄 의식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실천적인 것으로, 삶과 삶이 일치하였다. 전봉준은 재판받을 때, 재판관이 “너는 해를 입은 것이 없는데 왜 봉기하였느냐?”고 묻자, 전봉준은 “일신의 해를 위하여 봉기하는 것이 어찌 남자의 일이 되

15 일부 학자는 ‘인륜’을 봉건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전봉준의 인간관이 전근대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나(문성호, 「전봉준의 민중정치사상과 체제구상」, 『정치정보 연구』 2-3, 1999), 무장 포고문 맥락을 볼 때 인륜은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 『東學黨征討略記』, 兩湖倡義領袖全奉準謹百拜上書于湖西巡相閣下(甲午十月十六日).

리요. 여러 사람이 원통하고 한탄하는 까닭으로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하였다.¹⁷ 민중의 원통과 한탄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봉준의 인본사상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가능하였다.

복송의 주돈이(1017~1073)는 태극도설(太極圖說)을 통해, 무극이 움직여 음양오행의 생성원리에 따라 만물이 태어나고 그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우주의 빼어난 기운을 얻어 가장 영특한 존재로 파악하면서도 인의 예지 성품에 따라 성인과 군자·소인이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양반 지식인의 세계관이자 공통된 인간 이해였다. 특히 이 논리는 조선왕조의 신분제와 결합되면서 인간 불평등의 논리로 고착화되었다. 조선왕조의 이데올로기인 민본주의 역시 신분제를 전제한 것이었다.

반면에 전봉준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귀한 존재로 해석, 조선의 이데올로기와 신분 개념에서 일정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조선의 통치이데올로기와 성리학적 민본 이념은 철저히 통치의 대상, 신분 위계질서를 전제로 한 것이나, 전봉준이 바라본 인본은 신분 차별이 없는 나라의 진정한 주체로서의 인본이었다. 그 때문에 전봉준은 비록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성리학적 담론을 차용하였을지라도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텍스트를 사용할지라도 형질을 달리하는 언어적 전환을 통해 인류 보편적 인본가치로 전복시켜 자기 언어화한 것이다. 이는

17 『전봉준공초』, 을미 2월 9일 전봉준 初招 問目.

동학의 가치체계, 교의적 상징들, 대안 사회상 등이 유교적 사유체계와 언어 및 상징 자원과 같은 관습적 의미망 속에서 배태되고 발전한 것에 비추어 볼 때,¹⁸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전봉준의 인간관은 사람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 때문에 사람은 귀하게 대접받고 상호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실천적 사회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전봉준이 바라본 인간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는 보편적 인본가치 위에 있는 수평적인 평등한 인간관이었다.

이러한 인간관은 동학과 맥을 같이한다. 그래서 전봉준은 동학을 몹시 좋아하였다. 그 이유는 동학이 수심경천(守心敬天)하는 도학이고 보국안민의 주의도 같았기 때문이다.¹⁹

전봉준이 말한 수심경천은 동학의 수심정기(守心正氣)의 다른 표현이다.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은 하늘(우주)의 기운을 바르게 하여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정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전봉준이 ‘정기’를 ‘경천’으로 받아들인 것은 전통적인 경천사상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이며,²⁰ 그 때문에 수심정기를 신조로 한 동학을 손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동학 역시 그 뿌리의 하나는 전통적인 경천사상이었다. 수운 최제우가 1861년 남원 은적암에서 지은 포덕문을 보면, 수운은 천도(天道)인 동학의 강령으로 수심정기와 성경신(誠敬信)을 제시하였다.²¹ 수운의 말에 의

18 김상준, 「대중 유교로서의 동학」 『사회와 역사』 68, 2005.

19 『전봉준공초』, 을미 2월 11일 전봉준 再招 問目.

20 조성환, 「바깥에서 보는 퇴계의 하늘섬감사상」, 『퇴계학논집』 10, 2012, 325~326쪽.

하면, 수심정기가 지향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 준 인의예지를 지켜내어 사람이 하늘인 시천주(侍天主) 세상을 열어 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유신령하고 외유기화하여 영적으로 만물과 통하는 새로운 개벽세상이었다. 그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하늘에 대한 영적 경외감,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 생태적 우주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동학의 수심경전은 전봉준의 인간관과 상통하였다. 전봉준은 동학을 통해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사실과, 사람이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능동적인 주체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회의식을 일깨우고, 심지어 절대적인 국왕의 존재를 상대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의식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봉준의 인간관은 보편적인 천부인권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주목된다.

2) 사회의식

(1) 평등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이라는 전봉준의 인간관은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식으로 확장되었다. 전봉준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평등사상을 실천에 옮기었다. 전봉준은 고부에 살 때 “마을 사람이 오면 반드시 뿔마루에 나와 인도했고 그 집안의 경중, 신분의 고하를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²²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이미 일상생활에서 평등주의적 삶을 살았고, 그것

21 『天道敎書』(천도교, 1920), 포덕 2년 辛酉年條.

22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42쪽.

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그대로 관찰시켰다.

실제 전봉준의 생각이 담겨 있는 무장 포고문에 나타난 대립 축은 탐학한 위정자(수령) 대 그렇지 않은 인민이었다. 백산 격문도 ‘탐학한 관리와 횡포한 강적의 무리’ 대 ‘양반과 부호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벼슬아치’ 사이의 대립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대립 축은 의로움이 기준일 뿐, 그 안에 신분적·지역적 불평등은 없었다.

동학농민군을 이끌던 전봉준의 리더십과 군사적 지침이 잘 드러난 것은 동학농민군 4대 명 의와 12개조 기율이다. 이 강령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고부를 점령한 뒤 전봉준이 직접 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²³

동도대장이 각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약속하기를, ① 매번 적을 상대할 때 우리 동학농민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가장 으뜸의 공으로 삼을 것이며, ② 비록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③ 또한 매번 행진하며 지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치지 말 것이며, ④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사는 동네 십 리 안에는 절대로 주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12개조 기율>

－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

23 『朝鮮國東學黨動靜ニ關スル帝國公使館報告一件(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박맹수, 앞의 논문, 84~85쪽에서 재인용).

- 탐관은 쫓아낸다.
- 굶주린 자는 먹여 준다.
- 도망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제거한다.
- 아픈 자에게는 약을 준다.
-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 따르는 자는 공경하며 복종한다.
- 간교하고 교활한 자는 못된 짓을 그치게 한다.
- 가난한 자는 진휼한다.
- 거스르는 자는 타일러 깨우친다.
- 불효하는 자는 벌을 준다.

이상의 조항은 우리의 근본이니, 만약 이 조항을 어기는 자는 지옥에 가들 것이다.

이와 같은 4대 명의와 12개조 기율은 실제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유민권운동가였던 다나카 쇼조(田中正造, 1841~1913)는 ‘동학당’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동학당은 문명적이다. 12개조의 군율은 덕의를 지키는 것이 엄격하다. 인민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 부녀자를 능멸하지 않는다. 군수물자는 지방관이 나 관아에 의거하고, 병력으로 권력을 빼앗고 재산을 취하되,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공평하다.²⁴

24 『田中正造全集』 第2巻, 岩波書店, 1978, 283쪽(기타지마 기신, 「토착적 근대화의 지구적 전개」,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개벽과 근대-』, 제39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9, 38~39쪽 재인용)

이것으로 보아 동학농민군의 12개조 기율은 적어도 전봉준의 통제가 가능하였던 지역은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894년 3, 4월 동학농민군의 동정을 소상히 전해 듣고 있던 황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²⁵

적은 관군의 소행과는 반대로 하기에 힘써 백성들에게 패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게끔 명령을 내려 조금도 이를 어기지 않으면서 쓰러진 보리를 일으켜 세우며 행군하였다.

황현의 기록은 동학농민군의 기율이 엄격히 지켜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부녀자와 재물을 약탈하지도 않았다. 그 때문에 동학농민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 세력이 점점 커질 수 있었다.²⁶

이와 같은 동학농민군의 4대 명義와 12개조 기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봉준의 사상은 먼저 평등사상을 꼽을 수 있다. 사회를 바라보는 전봉준의 따뜻한 시선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중에 향하고 있었으며, 특히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정 계급이나 진영 중심의 규율이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평등하고 공정하며 충효라는 공의(公義)를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다.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의 평등주의적 열망은 아래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전라도에서 집강소가 설치·운영되던 1894년 7, 8월 상황이다.

25 黃玹, 『梧下記聞』, 首筆(김중익,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79~80쪽).

26 위 책, 74쪽.

이로부터 세상 사람의 동학군 비평은 분분하였다. 동학군들은 귀천빈부의 구별이 없다거니, 적서와 노비·주인의 구별이 없다거니, 내외 준비의 구별이 없다거니.....²⁷

이처럼 동학농민군들의 평등주의적 열망은 대단하였다. 그래서 군국기무처 역시 동학농민군들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신분제를 혁파하는 의안을 제일 먼저 제정하고 서둘러 반포하여 민간에 게시하였다.

(2) 상생

다음으로 4대 정의와 12개 기율에 나타난 전봉준의 사회의식은 서로 돕는 상생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12개조 기율은 가난하고 곤궁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돕는 상생의 행동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탐관·불충불효자 등은 엄하게 다루어 사회적 병폐를 제거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였다.

그래서 전봉준은 고부관아를 점령한 뒤 감옥을 열어 죄수를 풀어 주고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제하였으며, 3월 25일 백산대회 때는 잠입한 전주 감영 소속 장교들을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여 개과천신할 기회를 주었다.²⁸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직후에도 옥문을 열어 죄수를 석방하고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휼하였다. 그리고 죄가 있는 관리일지라도 반성하고 동학농민군의 의거에 따르는 자는 특별히 용서하도록 하였다고 한다.²⁹

27 오지영, 앞 책, 139쪽.

28 오지영, 앞 책, 122·125~126쪽.

동학농민군의 기율은 동학의 유무상자(有無相資)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동학은 초기부터 신분과 성별·세대의 차별 없이 서로 돕는 전통이 있었다.³⁰ 이 때문에 전봉준도 수심경천하는 동학을 몹시 좋아하였다.

(3) 생명 존중

다음으로 동학농민군의 4대 명義와 12개 기율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생명관을 찾아볼 수 있다.³¹ 전봉준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던 만큼 못 생명을 존중하여 사랑하였다.

4대 명義는 모두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다. 그래서 ①과 ②는 상대 진영일지라도 목숨을 귀히 여기고, ③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④의 경우는 선한 사람의 경우 존중해서 절대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12개조 기율 역시 행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아픈 자에게는 약을, 따르는 자는 공경을, 거스르는 자는 타일러 깨우치게 하는 등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뜻을 함께하는 자들은 포용적으로 감싸 주어 대승적으로 하나 됨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4대 명義와 12개조 기율은 고부 백산대회 이후 전봉준이 공포한 것으로 알려진 동학농민군 4대 명義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명義는 “사람과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 것”이었다.³² 이처럼 전

29 위 책, 134쪽.

30 표영삼, 『동학』 1(통나무, 2004), 271~276쪽.

31 박맹수, 「동학의 공공성 실천과 그 현대적 모색」,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2, 2017, 95쪽.

32 鄭喬, 『大韓季年史』, 3월 25일조.

봉준은 사람은 물론 가축 같은 생물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것을 제일의 덕목으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봉준의 생명관은 폐정개혁안 12개조의 첫 번째 조항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 첫 번째 조항은 ‘인명을 함부로 죽이는 자는 버힐 사’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조항을 첫 번째로 꼽았는지가 의문스러웠으나, 생명에 대한 전봉준의 존엄의식을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전봉준은 모든 인간을 귀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귀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이끌어 서로 돕는 상생의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봉준의 인간관은 사람을 중심에 놓되, 못 생명과 생명의 가치로 연결된 생태인본주의에 가깝다.

3. 전봉준의 정치의식과 실천

1) 보국안민의 길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전봉준은 내외외환이 점증하던 19세기에 정확히 31년 나이 차이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한 점, 가장 혈기왕성하고 꿈 많던 20대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견문하고 민초들의 처참한 삶에 공감한 점, 보국안민을 위해 온몸을 바친 점, 똑같은 41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점 등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택한 보국안민의 길은 달랐다. 최제우는 1860년 동학을 창시하여 주문 수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사회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 비판과 대안 제시가 없었다. 무위이화를 통한 보국안민, 개혁을 지향한 것이다. 그래서 전봉준은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동학을 배우면 병을 면하는 것 외에 다른 이익은 없느냐”고 묻자, 단호하게 다른 이익은 없다고 말하였다.³³ 그래서 전봉준이 택한 보국안민의 길은 동학의 무위이화와는 달리 사회 모순과 부조리에 맞서 직접 싸우는 것이었다.

실제 전봉준이 내세운 동학농민혁명의 목적과 정치사상은 한마디로 보국안민에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목적 및 지향성이 담긴 무장 포고문은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하였다.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전봉준은 “우리는 보국안민을 주장하는 자라, 백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노력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놀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³⁴ 1895년 3월 재판을 받을 때 일본영사가 9월에 재기병한 이유를 묻자, 전봉준은 일본의 속내를 파악한 뒤 보국안민의 계획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답변하였다.³⁵

전봉준은 순창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보낸 6월 7일자 글에서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하였다.³⁶ 이러한 전봉준의 글은 무장 포고문과 맥을 같이한다.

33 『전봉준공초』, 을미 2월 11일 전봉준 재초 문목.

34 오지영, 앞 책, 134쪽.

35 『전봉준공초』, 을미 3월 10일 전봉준 5차 문목 일본영사 문초.

36 『二六新報』, 明治 27년 8월 15일(강창일,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사회와 사상』, 1988, 255~256쪽).

이처럼 보국안민은 전봉준이 혁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국안민의 정치적 주체는 일반 민중들이었다. 이는 비록 ‘민유방본(民惟邦本)’이라는 조선왕조의 지배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담론의 주체, 지향성, 목적 등을 달리하는 ‘같은 문자 다른 뜻’이다. 전봉준은 유교적 지배 이념의 재해석을 통해 보국안민을 위한 투쟁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³⁷

‘보국안민’이라는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 1894년(고종31) 이전에 총 14건 등장하는데, 13건 모두 ‘보국안민(保國安民)’이라고 하였고 1건은 세종 때 송나라 왕안석의 예로 유일하게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는 용어가 있다.

‘보국안민’을 한국고전종합DB에서 검색한 결과, 고전번역서에는 3건, 고전원문에는 5건, 한국문집총간에는 22건에 불과하였다.³⁸ 한자 표기는 輔國安民 또는 保國安民 모두 혼용해서 쓰나, 후자가 더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보국안민은 주로 치자나 위정자 입장에서 사용되었어도 흔히 사용된 개념은 아니며, 사용되더라도 ‘保國安民’으로 표현하였다.

반면에 동학의 정치적 이념으로 제시한 슬로건은 輔國安民이었다. 보국안민은 수운이 지은 포덕문(1861년 3월)과 권학가(1862년 1월)에 처음 등장하는데, 동학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 보국안민하자는 것으로 선험적이고 관념적이었다. 그 뒤 1892년 11월 삼례 교조신원운동 때 해월 최시형이 전라감사 이경직(李耕植)에게 보낸 글에, “우리들이 정성스런

37 배향섭,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사립』 45, 2007, 163~164쪽;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2017 참조.

38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2022년 6월 23일 검색).

마음으로 도를 닦아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하는 바는 輔國安民과 포덕천하(布德天下)의 큰 바람뿐이니라” 하였다. 동학이 내세운 보국안민은 다양한 사람들을 흡수하고 확산시키는 상징 언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민중들의 정치적 자각과 인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실제 동학의 보국안민이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 현실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변혁하는 투쟁이념으로서의 실천성은 일정한 정도 한계가 있었다.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최시형은 전봉준에게 통유문을 보내 경거망동하지 말고 시운을 기다려 하늘의 명을 따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전봉준을 비롯한 각처 동학도들은 보국안민을 소리쳐 말하고 서로 다투어 깃발을 걸고 일어났다.³⁹ 이와 같은 사실은 보국안민이 더 이상 동학의 비정치적 틀 안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투쟁 슬로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보국안민의 주체, 목적, 실천 방안 등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동학이 내세웠던 보국안민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⁰

실제 1892년경부터 동학에 깊이 관계한 전봉준은⁴¹ 동학의 핵심 사상인 보국안민을 좋아하고 공감하였다.⁴² 수심경천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한 동학도들이 협동하면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39 『천도교서』, 포덕 35년 갑오년조.

40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1982, 157쪽.

41 이이화는 전봉준이 1892년에 사회변혁수단으로 동학에 입도한 것으로 보았으나(앞 책, 45~46쪽), 구체적인 시기는 불명확하다. 1888년 무렵부터 순화중과 빈번한 만남이 이루어졌던 만큼, 전봉준은 1892년 이전에 이미 동학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송정수,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 혜안, 2021, 89~90쪽 참조.

42 『전봉준공초』, 을미 2월 11일 전봉준 재초 문목.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⁴³

따라서 전봉준이 동학에 들어간 것은 동학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국안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동학의 보국안민은 전봉준의 투쟁 목표로 전환되어,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발전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무장 포고문에는 ‘보국안민’이 두 번 나온다. 그만큼 보국안민이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중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꺾이면 나라가 잔약해짐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보국안민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탐학을 일삼는 수령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보국안민의 핵심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보국의 길인 것이다. 포고문 전체 논지 역시 보국(輔國)하는 길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나, 수령들이 사리사욕에 젖어 탐학을 일삼아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나라가 위태로워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무장에서 출발한 전봉준 등이 고부 백산에 집결하여 띄운 격문도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결단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고 하였는데,⁴⁴ 논리적으로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하는 일이 곧 국가를 반석 위에

43 “輔國安民이라는 동학당의 主意에 동감하고 있던 바……단지 마음을 바로 한다는 것 때문이라면 물론 동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동학당의 소위 敬天守心이라는 주의에서 생각할 때는 正心 외에 협동일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結黨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 마음을 바로 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탓이다”(『大阪朝日新聞』, 全綠豆의 審問續聞, 명치28년 3월 3일; 『東京朝日新聞』,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명치 28년 3월 6일).

두는 길이었다. 즉, 보국보다 안민에 더 무게중심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봉준은 수령들의 탐학으로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삶에 분개하고 가슴 아파하며 폐정을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전봉준의 사상과 실천적 지향은 무장 포고문을 비롯해 각종 격문과 폐정개혁안에 잘 나타나 있다.

전봉준이 보국보다 안민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기본적으로 민유방본의 주체인 인민의 삶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왕조의 정치이데올로기인 민본주의를 국왕 아래 만민평등사상으로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그 결과 왕과 민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왕과의 관계가 재설정되면서, 전봉준의 발걸음은 점점 서울로 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봉준의 정치의식은 재판 심문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⁴⁵

문: 네가 이미 (대원군 효유문을) 진짜로써 보았다면 어찌 다시 봉기를 일으켰느냐?

답: 귀국의 속내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그러함외다.

문: 속내를 상세히 알아본 뒤에는 장차 무슨 일을 행할 계획이었느냐?

답: 보국안민의 계획을 행하고자 함외다.

문: 네가 봉기를 다시 일으킨 것은 대원군의 효유문을 믿지 못해서이나?

답: 전에 묘당의 효유문이 한둘에 그치지 않았으나 끝내 실시되지 않아서 아래의 실정이 위에 도달하기 어려웠고 위의 은택이 아래에까지 다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어코 일차로 서울에 이르러 민의를 상세히 개진하고자 하려 함입니다.

44 오지영, 앞 책, 123쪽.

45 『전봉준공초』, 을미 2월 19일 전봉준 5차 문목 일본영사 문초.

전봉준은 9월에 재봉기한 이유를 일본의 속내를 직접 알아보고 민의를 국왕에게 상세히 전달해 보국안민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는 왕과 민이 1:1의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절대적이었던 왕의 존재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면서 정치의식의 발전을 통해 상대적인 위치로 변화하였다.

실제 무장 포고문의 앞 부분에는 “지금 우리 임금님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하여 다스린다면 훌륭한 임금들의 치적을 해를 가리키며 바랄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전봉준은 기본적으로 임금의 존재를 존중하는 근왕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표상화된 상징과 명분이었다. 그 때문에 운동 전이과정에서 근왕주의적 허상은 점점 해체되고 국왕과 민이 1:1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는 곧 민이 국왕과 직접 소통하고자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는 역사과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동학농민군이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뒤 홍계훈이 이끄는 정부군과 전주성을 경계로 대치하던 5월 초2일 전봉준이 홍계훈에게 보낸 소지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무장 포고문과는 다른 전봉준의 인식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예전 감사가 수많은 양민을 죽인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죄를 물으려 하는가? -선유 종사를 살해한 것은 윤음을 보지 못하고 다만 토포라거나 모병하라는 문자만 보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는가? - 탐관은 마땅히 낱알이 죽어서 제거하는 게 무슨 죄인가? 각하가 잘 생각해 임금에게 알리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다.”⁴⁶

전봉준은 4월 25일 원평에서 선유 종사로 내려온 이효은·배은환 등을 처단하였는데, 토포와 모병 문자만 보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왕이 보낸 관리일지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죽일 정도로, 국왕을 대하는 전봉준의 태도는 단호하였다. 그러면서 폐정 개혁에 대한 임금의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응답을 홍계훈에게 요구하고 있다.

전주성을 점령한 전봉준은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왕명을 받들었으니 귀순하라는 효유문을 5월 5일 받고도 저항하였다.⁴⁷ 그러면서 홍계훈에게 폐정개혁조항을 국왕에게 직접 아뢰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허락을 받아냈다. 또한 전봉준은 전주화약 이후 전라감사 김학진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해산하라는 왕명을 거부하고 폐정개혁안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허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전라감사 김학진을 통해 국왕을 상대로 한 협상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양호초토사 홍계훈이나 전라감사 김학진을 중간 매개로 한 국왕과의 소통은 제한적이었고 효과도 없었다. 실제 전봉준은 재판을 받을 때, 홍계훈 등을 통한 폐정개혁의 실효가 없었고 일본이 대궐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직접 서울로 올라가 국왕을 상대로 폐정을 개혁하고 민영준·고영근 같은 중앙의 간신들을 축출하여 보국안민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⁴⁸ 갑오년 9월 이전 위정자를 중간 매개자로 한 보국안민의 길에서, 9월 이후 국왕을 직접 상대하는 보국안민의 길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진전되면서 잠재된 전통적인 근왕주의가 해체되고 민이

46 『兩湖招討謄錄』, 5월 초4일 賊黨訴志.

47 『양호초토등록』, 5월 초5일 효유문.

48 『전봉준공초』, 을미 2월 11일 전봉준 재초 문목.

왕을 직접 상대하는 수준까지 정치의식이 발전한 것이다.

2) 정의로운 실천

전봉준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쟁에 나선 명분과 정당성은 의로움이였다. 전봉준은 무장 포고문에서, 동학농민군이 직접 보국안민의 길에 나선 행위를 의롭고 마땅히 해야 할 거사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의로운 깃발을 들어 투쟁에 나선 것이다. 고부 백산에서 발한 격문 역시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다. 1895년 3월 재판을 받을 때 9월에 재기병한 이유를 묻자, 전봉준은 일본이 불법으로 궁궐을 점령해서 충군 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모집하였다고 하였다. 한 나라의 민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라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전봉준은 투쟁본부를 민중을 구제하는 정의로운 곳이라는 의미의 ‘제중의소(濟衆義所)’라 하고 의자 깃발을 사용하는 등 의로운 투쟁으로서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전기 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

4월 16일 창의소 명의로 전주감영에 보낸 통문에서도, “이번 우리들의 의거는 결단코 다른 의도가 없으며, 탐관오리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홍선대원군을 받드려 나라를 감시하고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다.⁴⁹ 동학농민군은 군신지의(君臣之義)를 실천하기 위해 의로운 거사를 도모한 것이다. 다시 말해 동학농민군은 타락한 기존의 신하 대신 군신지의의

49 『隨錄』, 靈光上送彼類通文 完營留陣所.

실천 주체로서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서민을 편안케 하기 위해, 즉, 보국안민을 위해 의로운 깃발을 든 것이다.

전봉준은 10월 16일 충청도 논산에서 ‘兩湖倡義領袖’ 이름으로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일본의 도둑들이 군대를 움직여 우리 임금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을 걱정스럽게 하니 어찌 참는단 말인가 --- 함께 의(義)로써 죽는다면 매우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의를 위해 죽음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⁵⁰

이것으로 보아 전봉준이 제시한 의로움은 전통적인 군신지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전봉준의 정의론을 밝힐 수 있는 핵심이다.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성인이 立人의 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있으니, 곧 仁과 義이다. 의는 군신 사이보다 그 덕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다. 무릇 국가가 환난에 처하였을 때, 그 신하된 자로서, 자신의 몸을 바쳐 분발하려는 자는 오직 의를 본받으려는 마음만을 가질 뿐, 사생과 화복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덕을 가져야 성인이 이르신 입신의 도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⁵¹

이 인용문은 1894년 9월 전라도 흥덕 유생들이 작성한 기록이다. 그들이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수성군을 조직한 대의명분은 국가의 환난에 처한 임금님을 구하기 위한 군신지의였다. 그들은 그것을 정의로운 투쟁으로 여겼다. 이는 당시 성리학으로 무장된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의

50 『東學黨征討略記』, 兩湖倡義領袖全奉謹百拜上書于湖西巡相閣下(甲午十月十六日).

51 『舉義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2, 2009, 428쪽).

리론이었다.

그렇다면 ‘군신지의’에 대한 전봉준과 유교 지식인의 해석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의로움을 행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유교 지식인은 신(臣)을 양반지배층으로 한정한 반면, 전봉준은 일반 민을 포함한 신민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특히 신하된 자들이 탐학을 일삼고 국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므로, 군신지의는 일반 민이 실천에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봉준의 논리였다. 그 때문에 나라와 백성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거의(舉義)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며 정당한 도덕적 실천으로 여겼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8월 13일 전봉준과 나주목사 민종렬의 대화내용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⁵² 전봉준은 자신의 행동이 탐관오리의 학정을 바로잡아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의거라고 하자, 민종렬은 전봉준 등은 난상(亂常)의 무리로서 임금님께 근심을 끼쳤으니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민종렬은 국왕의 명 없이 행동한 전봉준을 난상의 무리로 보았다. 반면에 전봉준은 국왕의 명이 없어도 보국안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신지의에 어긋나지 않은 의거로 보았다.

특히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왕에 대한 전봉준의 인식은 추상적인 존중의 대상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나갈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군신지의 개념 역시 보다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래서 전봉준의 의리론은 군신지의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면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행동이 가능하였던 것은 조선왕조의 통치이데올로기였던 민본주

52 『錦城正義錄』 갑편, 甲午八月十三日 巨魁全琤準.

의가 보편적인 인본주의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인민들이 중세의 질곡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체인 국민으로 재구성되는 ‘근대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3) 소통과 연대, 그리고 협치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끌면서 필요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세력과 소통하고 연대하려는 노력을 잊지 않았다. 이는 운동의 전략과 전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1893년 겨울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사발통문에는 소통과 연대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전봉준 등은 거사를 모의 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한 뒤 사발 원을 따라 스무 명이 서명하였다. 이는 주동자를 색출하지 못하도록 한 측면도 있지만 참여자들의 민주적 소통과 연대의식을 바탕에 둔 것이다.

무장 포고문은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고 억조창생이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의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라고 하면서 의로운 혁명선언을 하였다.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고 의논을 모았다는 사실은 온 나라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고 연대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그를 통해 항쟁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무장에서 기포한 이후 고부 백산에 집결한 전봉준 등이 띄운 격문에서는 “방백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하층 관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고 하면서 함께 연대하여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4월 4일 전봉준이 지휘하고 있던 제중의소 명의로 법성포 아전들에게 보낸 통문에서는 “사농공상 네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우리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위로 국가를 돕고 아래 빈사상태인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면 어

찌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보국안민을 위해 모두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⁵³

전봉준은 9월 재기병할 때도 북접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학교단의 항일의병전쟁 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곳곳에 방문을 내걸어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의 창의를 촉구하였다.⁵⁴ 전라도 삼례에서 출정 준비를 마친 전봉준은 10월 12일 삼례를 출발하여 10월 14일 논산에 도착하였다. 그는 공주 공격에 앞서 10월 16일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진심어린 편지를 보내 같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봉준은 물리적 충돌에 앞서 끝까지 상대방과 소통하고 연대하고자 한 것이다.⁵⁵

이러한 노력은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서도 이루어졌다. 전봉준은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뒤 마지막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11월 12일 동도창의소 명의로 띄운 고시문에서,⁵⁶ 그 대상을 정부군과 관군, 그리고 하급 벼슬아치는 물론 시장 상인 등을 망라하고 있다. 전봉준은 이 글에서 비록 이념이 다를지라도 척왜와 척화는 같은 만큼 같은 나라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게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대사를 이루자고 호소하였다. 비록 이 고시문대로 군인과 관리 등이 움직여 주지 않았지만, 전봉준은 소통하고 연대하여 함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글은 전봉준의 진솔하면서도 처절한 나라와 동포 사랑을 말해 주고 있다.

5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국사편찬위원회, 1986, 1·20~21쪽.

54 『전봉준공초』, 을미 2월 9일 전봉준 초초 문목.

55 『東學黨征討略記』, 兩湖倡義領袖全瑛準謹百拜上書于湖西巡相閣下(甲午十月十六日).

56 『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膽書』, 告示 京軍與營兵吏校市民.

이러한 전봉준의 소통과 연대의식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정치체제 구상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⁵⁷ 전봉준은 밑으로부터의 변혁을 성공으로 이끈 뒤 정치체제를 민주적인 집단 합의제로 운용할 생각이었다.⁵⁸ 이는 특정인이나 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의 중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상호 소통과 연대 및 협의·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역사 진전에 따라 공화제는 물론 거버넌스체제를 통한 다양한 세력 사이의 협치를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협치는 이미 전라도에서의 집강소 설치·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전봉준은 5월 8일 전주성을 빠진 나온 뒤에 전라감사 김학진과 폐정개혁과 신변안전 보장을 둘러싼 끈질긴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7월 6일 선화당에서의 회담을 통해 집강소를 전라도 각 군현에 전면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심지어 끝까지 집강소 설치를 거부하는 나주목의 경우에도 8월 13일 전라감사 김학진의 편지를 소지하고 찾아가 나주목사 민종렬과의 담판 끝에 수성군의 농민군 공격을 멈추도록 하였다.

이러한 집강소 설치의 민관이 합의에 의해 설치한 최초의 정치기구였을 뿐 아니라, 민중들이 공적인 정치영역에 참여한 첫 사례로서 거버넌스체제를 전망하고 있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는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세력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한 결과물이자 합의제 운영사례로써, 전봉준이 구상하였던 합의법의 실현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다.

57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자.

58 이이와, 『전봉준, 혁명의 기록』, 앞 책, 258쪽; 박맹수·조광환, 앞의 논문, 30~44쪽 참조.

4. 맺음말

전봉준이 죽음을 앞두고 쓴 절명사에서 자기 자신을 애인애국(愛人愛國)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듯이, 실제 그의 삶과 사상은 보국안민의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한 혁명가였다.

전봉준의 사상적 바탕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인본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 전봉준이 바라본 인간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는 보편적 인본가치 위에 있는 수평적인 평등한 인간관이었다. 특히 전봉준 의식의 저변에는 하늘에 대한 영적 경외감,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 생태적 우주의식이 깔려 있었다. 이는 사람을 중심에 놓되 못 생명과 하나로 연결된 생태인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전봉준이 바라본 사회는 평등하고 서로 돕는 상생의 공동체 사회였다. 사회를 바라보는 전봉준의 따뜻한 시선은 모든 민중을 향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대하였으며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공의를 기준으로 차별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인간을 귀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귀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이 마주한 현실은 불평등하였고 여러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로 민중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이에 전봉준은 보국안민을 위한 정의로운 혁명의 길에 나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봉준의 정치의식은 전통적인 근왕주의가 해체되고 민이 국왕을 직접 상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데, 그것은 민중들이 중세의 질곡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체인 국민으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봉준의 사상은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 그의 인본주의적이고 평등한 사상은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굳어진 유교적 이념과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이 전봉준은 그의 사상과 꿈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고 상징화하지 못함으로써 보수적인 양반 유교 지식인의 언어를 빌려만 하였고, 그 결과 그가 꿈꾸는 새 시대를 자기 언어로 새롭게 담아내고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봉준의 사상적 한계는 시대적 한계이다. 그의 시대적 역할은 인본주의의 가치와 사회적 평등의 씨앗을 역사에 심고 발아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을 키워내 결실을 맺는 것은 후대의 몫이자 미래의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봉준의 사상 원형 속에 담긴 미래가치를 찾아내 미래지향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심경천하는 동학을 몹시 좋아 한 전봉준의 인간관은 우주적이고 영적이었다. 전봉준은 인류가 있는 인간을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도덕적 심성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는 결코 아니다. 그의 인간관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모두 하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존재로서 그 자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경천사상과 동학의 시천주사상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래 관점에서 그 가치를 새길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4차산업혁명의 결과 놀라운 속도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은 인류로 하여금 로봇과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강요하고 있으며, 우주 기술의 발달은 지구를 우주의 작은 푸른 별로 위치 짓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할 필요성

이 있다. 그를 위해서는 20세기 사유방식이었던 인간 이성 중심적 사고와 지구속 서구 중심주의를 어떤 형태로든 극복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봉준의 사상 기저에 흐르는 우주적이고 영적인 인간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전봉준의 사상은 모든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등관이었다. 이는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을 전개하면서도 한결같이 다른 존재와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전봉준이 지향한 정치체제가 합의제였다는 사실과 집강소 설치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현재 진행형이자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초연결사회라는 점이다. 지구는 초국가적 단일체제화되어 가고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기술과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연결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개방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아울러 소통과 연대, 그리고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자기 존재가치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편히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다양한 세력과 소통하고 함께 하고자 한 전봉준의 삶과 사상을 의미있게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인류사회가 서로 차별하고 분열·대립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해결해야 할 인류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 뿐 아니라 못생김도 존중하였던 전봉준의 생명 존중의 정신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미래가치이다. 그것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남북 통일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역사적 경

힘이자 지속가능한 사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전봉준은 앎과 힘이 일치된 인물이었다. 전봉준은 그의 사상이 사유의 세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실현하고 경험하면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었다.

미래사회는 모든 인류의 지적 자산이 데이터화되면서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신하고 로봇이 육체적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마주하는 인간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인 사유와 실천적인 삶이 요구된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민한 현실 대응과 실천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앎과 힘이 일치된 삶을 살았던 전봉준의 혁명기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전봉준의 인본주의는 20세기를 지배하였던 인간 이성 중심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전봉준이 지향하였던 인본주의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면서도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우주적 생명관을 가졌을 뿐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부정하는 상생과 평등관을 바탕으로 둔 생태인본주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이후 전봉준이 지향한 생태인본주의적 대동사회는 부정되고 서구가 주도하는 인간 이성 중심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그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에코휴머니즘(Ecohumanism)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전봉준 사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코휴머니즘, 즉, 생태인본주의는 20세기 인간이 범했던 지구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인간 이성주의, 남성 중심주의, 서구 중심주의, 서구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사상이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주적·영적인 존재

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만물, 심지어 로봇과도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안에 있으며 각각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그 사이에는 차이와 공존·공생만 있을 뿐 차별과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는 조화와 협력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면서도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봉준 사상의 미래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봉준이라는 인물을 상징화·기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톨릭 탄압에 대항해서 싸운 영국의 가이 포크스(Guy Fawkes, 1570~1606)가 면이 나쁜 권력에 저항하는 자유시민의 상징이 된 것처럼, 전봉준 역시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불의에 저항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세계적인 보편적 캐릭터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투고일 : 2023.10.26.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	-------------------	---------------------

참고문헌

- 송정수,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 해안, 2021.
-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4.

- 김상준, 「동학농민혁명과 '두 근대'의 충돌」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 -개벽과 근대-』, 제39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9.
- 기타지마 기신, 「토착적 근대화의 지구적 전개」,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 -개벽과 근대-』, 제39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9.
- 박맹수, 「전봉준의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7.
- 박맹수·조광환, 「전봉준의 동학사상」, 『한국종교』 53, 한국종교학회, 2022.
-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역사학회, 2017.
- _____,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 『역사비평』 110, 역사비평사, 2015.
- _____,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사립』 45, 수선사학회, 2007.
- 김상준, 「대중 유교로서의 동학」 『사회와 역사』 68, 한국사회사학회, 2005.

-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 사상과 정치의식

김양식(청주대학교 조교수)

본 논문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사상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은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 사상과 정치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봉준의 사상적 바탕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인본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 전봉준이 바라본 인간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는 보편적 인본가치 위에 있는 수평적인 평등한 인간관이었다. 더 나아가 전봉준의 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되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우주적 생명관을 기반으로 한 생태인본주의였다.

전봉준이 바라본 사회는 평등하고 서로 돕는 상생의 공동체 사회였다. 사회를 바라보는 전봉준의 따뜻한 시선은 모든 민중을 향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대하였으며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공의를 기준으로 분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이 마주한 현실은 불평등하였고 여러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로 민중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전봉준의 정치의식은 전통적인 근왕주의가 해체되고 민이 국왕을 직접 상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데, 그것은 민중이 중세의 질곡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체인 국민으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전봉준, 동학농민혁명, 생태인본주의, 평등사상, 정의, 동학농민군

Abstract

A Study on Jeon Bong-Jun's Ecohumanism and Political Consciousness

Kim, Yang-Sik(Cheongju University, Professor)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thought of Jeon Bong-jun, who was the leader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particular, this thesis aims to analyze Jeon Bong-jun's humanistic thoughts and political consciousness.

Jeon Bong-Jun's ideological foundation was derived from the humanistic view of human beings that people are the most precious in the world. Jeon Bong-jun's view of human beings was a horizontal and equal view of human beings on universal human values regardless of class or status. For that reason, the society Jeon Bong-jun looked at was a community society of equal and mutually beneficial mutual benefit. Jeon Bong-jun's warm gaze toward society was directed toward all the people. In particular, there was a lot of interest i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underprivileged. He treated everyone equally and tried to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justice regardless of status or position.

However, the reality Jeon Bong-jun faced was unequal, and the people were groaning due to various social contradictions and absurdities. Jeon Bong-Jun's political consciousness develops to the level where traditional monarchism is dismantled and the people directly deal with the king.

key word : Jeon Bong-Jun, Donghak Peasant Revolution, ecohumanism,
equality, justice, Donghak Peasant Army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김 희 태(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목차

1. 머리말
2.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현황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사례
4.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방안
5. 맺음말

1. 머리말

나주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쟁기에 전라도에서는 유일하게 동학농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다. 이러한 탓인지 나주 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처럼 높지는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¹ 일반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주 지역에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삼가면의 오권선, 노안면의 전유창 등이 유명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나주성 공략은 7월과 9월에 이루어지지만 수성군의 대항을 넘지 못한다.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는 나주목에 호남초토영을 설치하고 동학농민군과 일전을 벌였다. 나주 초토영에서는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서 체포되어 와 기본적인 조사를 받았다. 90여 명 가운데 70여 명이 처형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확인된 일본군 『중군일기(從軍日誌)』 일기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가 쌓여서 실로 산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면서 680여 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투지가 처형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전쟁 시기는 일반적으로 상호 격전을 치르는 전적이면서도 잡혀온 이들을 학살

* 이 논문은 나주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에서 흥으로 승화하다 (나주시·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소, 2019.10.30)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1 이상식·박맹수·홍영기 편,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전라남도, 1996;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2005; 나선하, 『조선 후기 나주 향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2006; 이상암, 「나주지방의 동학농민전쟁과 관군의 대응」,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14; 홍영기,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하는 처형지라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인식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바라보아야 하고, 관련 문화유산의 조사나 활용 방안²⁾도 새로운 시각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현황

1894년 음력 4월 동학농민혁명군이 나주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나주목사 민종렬이 이끄는 수성군은 이에 격렬히 저항하여 동학농민군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함평에 주둔한 농민군 측에서는 나주목사에게 통문을 보내 투항을 권유하기도 했다. 음력 7월 나주 대접주 오권선과 최경선이 이끄는 농민군은 금성산·함박산 등지에 주둔하며 나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음력 8월 전봉준이 직접 나주목사를 찾아가 수성군의 해산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10월 나주목사 민종렬은 호남 초토사로 임명되었고, 나주에는 호남초

2 필자는 몇 차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논의를 다룬 적이 있다. 김희태, 「수는 강향선생의 선양활동」, 『문화부 이달의 문화인물 수는 강향선생 학술대회』, 2001.03.27. 영광군청 회의실: 「존재 위백규의 선양활동과 문화유산의 활용」, 『전남도립담양대학논문집』 제5집, 2003: 「유평로의 추승현황과 문화유산 현양의 방안」, 『임진왜란과 유평로의 의병운동』, 곡성군, 2014: 「영광 법성진 사적 지정과 활용계획」, 『영광 법성진 사적지정 학술대회』, 영광군(문화교육사업소)·(재)한국경제연구소, 영광 예술의전당, 2018.07.19: 「장성지역 노사학파의 의병유산과 그 활용 방안」, 『노사학파의 장성의병』, 노사학연구원·전라남도·장성군, 장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19.10.18; 김희태 외, 「전남지방 고대 문화유산 보존관리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전남 고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전라남도·목포대박물관, 2002.

토영이 설치되었다. 음력 11월 다시 농민군과 수성군의 전투가 벌어졌으나 침산·남산촌·용진산 등 전투에서 농민군이 패퇴했다. 결국 나주는 농민군이 함락하지 못했고, 집강소 또한 설치되지 못했다.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은 유적과 유물로 크게 나누어 정리해 보겠다.

1) 유적

유적은 활동지, 전적지, 기념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활동지는 출생지(생가)나 거주지, 전적지는 전투지 주둔지, 점령지, 회담지, 처형지 등을 들 수 있다. 기념물은 혁명전쟁 이후의 묘소나 비석, 사당 등이다.

우선 전라남도 지역의 유적³은 21개 시·군에서 102건⁴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을 확인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것이다. 유적의 종류는 18개 항목⁵으로 구분하였다. 나주 지역은 7개소가 조사 되었다. 주둔지 2개소, 전투지, 회담지, 처형지 각 1개소, 기념비 2개소이다. 1개소는 위치 확정을 못 하였다. 보고서로 간행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⁶

3 전라남도·무등역사연구회,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실태조사-』, 2011.

4 조사는 124건이었고 보고서에는 102건을 실었다. 완도와 신안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5 유적의 종류와 분포는 집강소(10), 전투지(18), 점령지(8), 주둔지(7), 근거지(5), 집결지(3), 훈련지(4), 체포지, 구금지(1), 처형지(11), 매장지, 은거지(4), 은신지(1), 제작지(2), 생가(2), 거주지(5), 묘소(4), 기념물(10), 기타(7-저술지2, 회담지1, 사당1, 저장소1, 도항지1, 상륙지1)이다.(위 책,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12·23쪽.).

6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56~71쪽.

<표 1> 나주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

연	유적	소재	성격	형태	상태	지정별
1	나주성 서성문 전투지	나주시 교동 42	전투지	성곽	원형복원	사적(제302호)
2	남산 전투지	나주시 주립동 남산공원(추정)	전투지	산야	위치확정 안됨	
3	나주 목사 내아 전봉 준·민중렬 회담지	나주시 금계동 33-1 (금학현, 내아)	회담지	건물	원형보존	전남문화재자료 (제132호)
4	금성산 농민군 주둔지	나주시 경현동 산	주둔지	산야	원형보존	
5	함박산 농민군 주둔지	나주시 대호동 산62(성향공원)	주둔지	산야	변형	
6	나주 호남초토영 터 농민군 처형지	나주시 남외동 128 (나주초등학교)	처형지	건물	멸실	
7	금성토평비	나주시 과원동 109-5(금성관)	기념비	비석	원형보존	전남문화재자료 (제175호)
8	나동환 의적비·진주 정씨 행적비	나주시 금계동 13-18 정수루옆[이전]	기념비	비석	원형보존	

(1) 나주성 서성문 전투지

1894년 음력 7월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⁷ 『금성정의록』·『오하기문』 등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2011년에 서성문이 복원되었다. 1894년 음력 7월 5일 나주의 대접주 오권선(吳勸善)과 최경선(崔景善)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은 금성산을 거쳐 나주성에 이르러 수성군과 접전을 벌였다. 나주성에는 동점문(東漸門)·서성문(西城門)·남고문(南顧門)·북망문(北望門)이 있었는데 전투는 주로 서성문에서 치러졌으며, 농민군은 끝내 나주성 함락에 실패했다. 한편

7 『蘭坡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8(역사문제연구소·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996, 이하 《叢書》로 약칭), 134쪽; 『錦城正義錄』 《叢書》 7, 31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65·288쪽.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인용. 이하 같음.

서성문은 전봉준이 나주목사 민종렬을 만나 담판을 짓기 위해 8월 중순 나주읍성에 닿았을 때 수문별장(守門別將)에게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밝힌 곳이라고도 한다.

(2) 남산 전투지

『오하기문』, 『금성정의록』, 『전남동학농민혁명사』(280쪽)에 나오나 위치 확정이 안 된 유적이다.

(3) 나주목사 내아 전봉준·민종렬 회담지

1894년 음력 8월 전봉준과 나주목사 민종렬이 회담을 벌인 곳이다.⁸ 1894년 음력 7월 오권선·최경선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 함락에 실패하자 전봉준은 음력 8월 13일 부하 10여 명과 함께 나주성 서성문에 닿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주목사 민종렬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전봉준과 민종렬은 나주목사 내아(羅州牧使內衙, 금학헌)에서 만났는데, 전봉준의 수성군 해산 권고를 민종렬이 거절하여 회담은 결렬되었다.

(4) 금성산 농민군 주둔지

1894년 음력 7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 공격을 위해 주둔했던 곳이다.⁹ 1894년 음력 7월 1일 오권선·최경선이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은 나주

8 東學史 《叢書》 1, 474~475쪽 『錦城正義錄』 《叢書》 7, 15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78~282쪽.

9 錦城正義錄 《叢書》 7, 11~12쪽 『梧下記聞』 《叢書》 1, 156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72쪽.

금안동에서 합류하여 수일 동안 전투를 벌이고 금성산에 주둔했다. 이들 10,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음력 7월 5일 하산하여 나주성의 서성문을 공격했으나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다.

(5) 함박산 농민군 주둔지

1894년 음력 11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 공격을 위해 주둔했던 곳이다. 1894년 음력 11월 23일 금안면(金安面)¹⁰ 남산촌(南山村)¹¹의 태평정(太平亭) 등지에 주둔하던 동학농민군은 나주성 공격을 위해 다시 함박산으로 진출하여 주둔했다.

(6) 나주 [호남]초토영터 농민군 처형지

전봉준·손화중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이 수감되거나 처형된 호남초토영이 있던 곳이다.¹² 1894년 음력 10월 28일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에 임명된 민중렬은 나주에 호남초토영(招討營)을 설치하고 민보군(民保軍)을 모집했다. 이 호남초토영은 호남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본부 역할을 했으며, 음력 12월 이후 전라도 각지에서 체포된 수많은 농민군들이 이곳에 수감·처형당하여 순국하였다. 전봉준·손화중·최경선 등도 수감되었다가 서울로 압송당하였다. 화순접주 한달문(韓達文)이 옥중에서 고향의 어머니에게 구명을 요청하며 쓴 편지가 남아 있다.

10 금안면은 1914년 이로면(伊老面), 복암면(伏岩面)과 합해져 노안면이 된다. 윤여정, 『대한민국 행정지명』 1-전남·광주-, 향지사, 2009 참조.

11 지금의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남산마을이다.

12 梧下記聞 《叢書》 1, 309쪽 錦城正義錄 《叢書》 7, 24쪽 『金洛結語』 《叢書》 7, 241~242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49·292·296·569쪽.

(7) 금성토평비

나주 수성군이 동학농민군을 물리치고 나주성을 지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95년 세운 비이다.¹³ 금성토평비(錦城討平碑)는 거북을 새긴 받침돌 위에 빗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돌을 올린 모습이다. 받침돌은 땅 속에 파묻혀 그 윗부분만 보이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 동학농민군이 나주에까지 들어오는 과정, 나주목사 민종렬이 여러 장수들과 방어 계획을 세우는 과정, 수성군과 농민군이 나주목사에서 전투를 벌이는 과정 등 3부분으로 구분된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나자 나주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으로 짐작되며, 기우만(奇宇萬)이 글을 짓고 송재회(宋在會)가 글씨를 써서 1895년에 세웠다.¹⁴ 이 비는 나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이 비는 원래 정수루(正綏樓) 앞에 세웠다가 금성관(錦城館) 앞으로 옮긴 것을 1976년 금성관 내로 옮겼다. 1990년 2월 24일자로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75호로 지정되었다. 2011년 조사 때는 동쪽에 있었으나 금성관 일대를 발굴 조사하고 정비하면서 서쪽으로 옮겼다.

(8) 나동환 의적비·진주정씨 행적비

나주 동학농민군 접주 나동환과 부인 정씨의 의열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¹⁵ 나주의 접주 나동환(羅東煥, 1849~1937)은 1894년 500명의 농

13 蘭坡遺稿 《叢書》 8, 122~57쪽; 錦城正義錄 《叢書》 7, 45~51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97쪽.

14 정윤국, 「금성토평비」, 『나주목지』, 1989, 418~420쪽;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금성정의록』, 1991, 370~376쪽; 이상식·박맹수·홍영기 편,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전라남도, 1996, 359~365쪽.

민군을 이끌고 나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고, 전봉준이 체포되자 함평군 월야면 연암리의 처가로 은신했다. 부인 진주정씨(晉州鄭氏)는 남편과 아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고, 자신은 관군들에게 잡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의열각(義烈閣) 안에 <나주나공 동환의적비(羅州羅公東煥義蹟碑)>와 <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孝烈婦晉州鄭氏行蹟碑)>가 세워졌다. 정수루 옆에 있었으나 금성관 일대를 정비하면서 옮겼다.

2) 유물

유물은 기록문헌과 문서 등을 들 수 있다. 나주 동학농민혁명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바 있다. 『金洛喆 歷史(羅州關聯部分)』, 『履歷(羅州關聯部分)』, 『甲午 七月 東學道人 名錄』 『甲午 九月 東學道人 名錄』, 『錦域正義錄』, 『蘭坡遺稿』, <劉光華書翰> 등이다.

(1) 일기류 1 - 금성정의록

『금성정의록(錦域正義錄)』은 나주의 유림 겸산 이병수(兼山 李炳壽, 1855~1941)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관군 편에서 적은 기록과 1895년 을미년의 의병 등에 관한 기록을 필사한 것으로 나주 지역 동학과 의병운동을 이해하는 사료적 가치가 크다. 2006년 12월 27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6호로 지정되었다.

15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90~291쪽. 김은정·문경민·김원용, 『동학농민혁명100년』, 나남출판, 1995, 291쪽.

(2) 일기류 2 - 종군일지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로 최근 확인된 『明治二十七年 日清交戰 從軍日誌』이 주목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학살 전담부대인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楠 美代吉(쿠스노끼 비요키치) 상등병의 일기이다. 직접 참전하고 학살을 자행했던 일본군의 개인 일기라는 점에서 나주만이 아니라 동학농민군의 학살 기록으로 중요하다. 1895년 2월 5일 기록을 보면, 남문결의 작은 산에 사람의 시체가 쌓여서 산을 이루고 있었고, 일본군에 포획되어 책문(責問)을 한 다음에 중죄인(重罪人)을 죽인 것이 매일 12명 이상으로 103명을 넘었고, 시체를 버린 것이 680명에 달하여 그 근방에는 악취가 진동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¹⁶

(3) 문집류 - 난파유고, 겸산유고

문집류 기록도 들 수 있다. 『난파유고(蘭坡遺稿)』나 『겸산유고(謙山遺稿)』가 대표적이다. 『난파유고』는 나주의 호장(戶長)으로 동학농민혁명 때 나주를 수성(守城)한 데 공을 세워 1896년 초 해남군수에 임명된 정석진(鄭錫珍, 1851~1896)의 유고집이다. 호남초토사가 군무의 공적을 보고한 별지[招討使報軍功別紙單], 1894년(甲午) 토평일기(討平日記)가 부록을 실려 있다.¹⁷ 『겸산유고』는 앞에서 살핀 『금성정의록』의 저자 겸산

16 박맹수,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3, 2018, 203~228쪽;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제30호, 2007, 63~100쪽에서도 나주 임시재판소의 생포농민군 처리(제19대대)에 대해서 다룬 바 있다.

17 김옥경, 「역주 《난파유고(蘭坡遺稿)》」,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논문, 2015.

이병수의 유고집이다. 1894년 때에 동학군이 나주읍성을 침공해 오자 민종열 나주목사는 이병수를 측근에 두고 주로 문장(文章)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¹⁸

(4) 관문서류 -첩정 등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고문서도 중요하다. 문서1[첩정(牒呈)]은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 민종렬(閔種烈)이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이다. 1894년 4월 6일에 시작되어 전개된 동학농민군 토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과를 보고하고, 동학농민혁명군 소탕을 위해 정예병력의 파견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동학의 거두였던 이여춘(李汝春)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단 것을 비롯하여 동학군 토벌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적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의 동향과 정부의 대응책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¹⁹

문서2[정책]는 동학농민혁명군 토벌 과정에서 희생당한 동학농민군의 숫자와 노획물의 현황, 전투에 참여한 수성 정졸의 명단 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²⁰

호남초토사서목(湖南招討使書目) 1은 1894년 11월 29일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양호도순무사에게 올린 서목 문서이다. 호남 열읍(列邑)에서

18 나천수, 『역주 《겸산유고(謙山遺稿)》』 -詩·書·日記類,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논문, 2017.

19 국립중앙박물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 (구(購)629)

20 국립중앙박물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 (구(購)630)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으로 분석한 바 있다. 김희태,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나주시,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나주학 총서 2집-, 2022, 127~160쪽.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한 장졸의 이름, 희생당한 동학농민군의 숫자, 노획한 물건 등 전과에 대한 보고는 이미 성책(成冊)을 갖추어 전달하였으며, 정에 병정 수천 명을 본진(本陣)에 배치해 완전 소탕하여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양호도순무사가 “임금에게 글로 아뢰겠으며, 포상에 관한 문제는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글이 12월 15일자로 적혀 있다.²¹

호남초토사서목 2는 1895년 1월 24일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군무대신에게 올린 보고서[牒呈]의 서목(書目) 문서이다. 내용은 민종렬이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해 호남의 4읍(邑)을 1통(統)으로 편성하여 체제를 갖춘 사실, 무기가 불리한 나주 수성군(守城軍)에게 서양 총 수백정과 탄환을 지급해 달라고 군무대신에게 요청하는 글이다. 이에 대한 군무대신의 처분이 2월 13일자로 초서체로 적혀 있다.²²

감결(甘結)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각 읍에 내린 문서이다. 매 4읍마다 한 통(統)으로 편성하여 동학도 소탕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작통성책(作統成冊)을 즉시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다.²³

(5) 사문서류 -서간문 등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문서 가운데 유생들이 서명하여 민종렬에게 올린 단자(單子) 문서가 있다. 1894년 12월 25일에 전라도 나주, 광주,

21 국립중앙박물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 (구(購)630).

22 국립중앙박물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 군무대신에게 올린 보고서」 (구(購)654).

23 국립중앙박물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각 읍에 내린 문서」 (구(購)650).

창평, 함평, 담양 등지에서 수십 명의 유생들이 서명하여 호남초토사 민중렬에게 올린 단자이다. 나주목사로 있다가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호남초토사에 임명된 민중렬에게 성금과 포(布)를 모아 바치고 충정을 표시하는 내용이다. 초토사의 수결과 함께 이에 대한 글[제음]이 적혀 있다.²⁴

나주 옥중에서 화순의 어머니에게 썼다는 <한달문 서한(韓達文書翰)>, 그리고 나주의 <유광화 서한(劉光華書翰)> 등 개인의 서한도 중요한 기록유물이다.²⁵

이밖에도 정의림(鄭義林)의 『일신재집(日新齋集)』 중 「상민초토사(上閔招討使(鍾烈))」, 오계수(吳繼洙) 『난와집(難窩集)』, 오준선(吳駿善)의 『후석유고(後石遺稿)』 중 「송민초토사서(送閔招討使序)」, 기우만(奇字萬)의 『송사집(松抄集)』 중 「답민초토사(答閔招討使)(鍾烈)」, 민중렬 서간문(7건) 등도 있다.(한국학자료센터) 그리고 1894년 정월에 북접 법헌의 나동환 교장(敎長) 위촉장 등도 새로 발굴되었다.²⁶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사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사례는 유적지 현장 정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비교적 최근에 성역화 사업을 실시한 장흥 사례, 주요 전적지

24 국립중앙박물관, 「전라도에서 유생들이 서명을 하여 민중렬에게 올린 문서」 (구(購)647).

25 『전남 동학농민혁명사자료집』, 앞 책, 464·665쪽.

26 나천수, 「다시 쓰는 나주 동학 농민군 이야기-나주 동학 접주 나동환을 중심으로」,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94, 2022.

인 장성, 정읍, 공주 사례, 그리고 고창 사례이다.²⁷ 이에 더하여 최근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무안 사례를 살펴보겠다.²⁸

1) 정읍

정읍은 사발통문 봉기 계획이 수립된 곳이며, 1894년 1월 10일 고부 농민들이 말목장터에서 봉기하여 고부관아를 점령함으로써 봉기가 시작된 곳이다. 그리고 백산에서 호남 농민군이 봉기하여 전국적인 농민 혁명 단계로 발전하였다.

1963년 10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형물인 갑오 동학혁명기념탑을 황토현 전적지에 건립하였다. 이어 1974년 5월 11일 만석보 유지비 건립,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건립, 동학농민군 영술장 최경선 장군 묘역 정비, 고부봉기 역사맞이곳, 정읍동학 유적지 안내 책자 발간,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1969년부터 동학농민군 최초의 전투일이자 전승일인 5월 11일에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하고 있다. 2007년 황토현동학축제, 2012년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4년 8월 동학농민혁명 캐릭터 ‘갑오동이’를 개발하였다.

황토현 전적지(정읍시 덕천면, 335,826m²)는 1981년 12월 10일 국가

27 장흥동학농민혁명역사공원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집한 전라남도, 장흥군 자료와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무안동학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보고서』의 사례 부분도 참고하였다.

28 1996년 4월 함평동학농민혁명 장경삼, 장옥삼, 장공삼 공적비가 건립된 바 있다. 이상식이 글을 지어 이병현이 쓰고 나상옥이 조각하였다.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 입구 장산들에 있다.

지정문화재 사적(제295호)으로 지정되었다. 1983년부터 황토현 전적지 기념사업을 실시했다. 기념관(1983년, 137㎡), 제민당(강당, 1987년, 135㎡), 구민사(사당, 1991년, 57㎡), 전봉준 동상 1기(높이 2.7m, 좌대 3.7m), 기념탑 1기, 내삼문, 외삼문 등이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기념관 사업을 하였다. 전시관(지하 1층, 지상 2층, 3,817㎡), 교육관(지하 1층, 지상 2층, 1,544㎡)을 건립하였다. 총 사업비는 39,300백만 원(국비 11,800, 특별교부세 9,000, 지방비 18,500)이었다.

2) 공주

공주 우금치 전적지(공주시 금학동 산78-1 일원, 부지 564,115㎡)는 1994년 12월 1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제387호)으로 지정되었다.²⁹ 초기 사업으로 위령탑 건립, 봉화대(4기)(1973.11.11), 목비, 장승 설치(1995, 동학농민전쟁 제101주년 기념행사)를 하였다. 1996년~2003년 사이 토지 매입(51,896㎡)을 하고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사업비는 1,128백만 원(국비 650, 지방비 478)이다. 5년이 지난 2008~2012년 사이 토지 매입(33,000㎡)을 하고 건물 10동을 매입·철거하였다. 사업비는 12,000백만 원(국비 8,400, 지방비 3,600)이다. 1996~2002년 사이 총 사업비 13,128백만 원(국비 9,050, 지방비 4,078)이다.

3) 고창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이며 동학의

29 처음(1994.12.10.) 지정 구역은 51,896㎡, 추가(1997.02.07.) 지정 구역은 512,219㎡이다.

대접주 손화중의 활동무대였다. 그리고 구수마을은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선포하면서 전국적인 봉기로 출발한 무장기포의 역사적 현장이다. 1994년 1월 4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발족하였고 2007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³⁰ 매년 무장 포고문을 선포한 날 [음력 3월 20일, 양력 4월 25일]에 위령제를 지내다가 1997년부터 ‘무장 기포기념제’로 진행하고 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무장 기포지 성역화 사업과 전봉준 장군 출생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무장 기포지(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8,605m²) 성역화사업은 무장포고기념비, 훈련장, 화장실, 주차장 등이다. 199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사업비는 500백만 원(도비 250, 군비 250)이었다. 전봉준 장군 출생지(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 63, 3,778m²) 환경개선사업은 생가(초가) 복원, 비석 1기, 안내판, 주차장 등이다.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사업비는 300백만 원(도비 150, 군비 150)이었다.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전봉준 선생 고택지는 사적 제293호(1981.9.27 지정,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1 일원)이다. 2011년 7월 28일 정읍 전봉준 유적으로 문화재 명칭이 변경되었다.

4) 장흥

장흥 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최후 최대 전적지인 석대들 전적지가 있다.

30 학술대회를 실시하고 『전라도 고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1996), 『동학농민혁명과 고창』 (2008) 등을 발간하고 녹두대상(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2008)을 하고 있다. 녹두교실 홈페이지 운영(2008),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역사 기록화 사업(2007) 등을 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전쟁의 4대 전적지(황토현, 우금치, 황룡, 석대들) 중의 하나로 동학 농민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2009년 5월 11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98호)로 지정되었다.³¹ 석대들 전적과 함께 장흥 관아 터 농민군 점령지, 장대 터 농민군 처형지, 동학농민군 묘역,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등 17개소 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석대들 전적 사적 지정을 계기로 장흥 석대들 전적지 사적 지정 기념 국제학술대회(2009. 10.23), 동학농민혁명 제115주년 전국대회(2009.11.05~11.07)가 열렸고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³²

성역화 사업은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등 51필지 35,700m²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최후 격전지를 이념과 전개 과정을 간직할 수 있는 산 역사의 교육 현장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자긍심을 제고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사에 대미를 장식한 곳으로서의 역사성을 내세운 것이다. 내용은 전시기념관(홍보영상관), 상징조형물, 조경, 주차장 건립 등이다.

전시실에는 동학 관련 각종 책자와 고문서와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31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장흥동학농민혁명사』, 1992; 위희환 역저,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2-동학농민혁명 최후 격전지사-, 천도교장흥교구·장흥군, 2009; 전라남도·장흥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도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2010; 김희태·김상찬, 『장흥 동학농민혁명 전투와 석대들 전적지』, 『장흥 공설공원묘지 정비(무연묘) 관련 장흥 동학농민군 학술조사 보고서』, 장흥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8.

32 장흥군에서는 명칭 공모 설문(2019.10.28~11.30)을 하여 “장흥 동학농민혁명역사공원”으로 하였다. 네 개 안이 제시되었다. 최후 격전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장흥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장흥 석대들 동학평화시민공원, 장흥 석대들 전적지 역사공원.

사용했던 무기류도 있다. ‘세계 속의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항쟁, 식대들 전투’ 등에서는 영상물을 통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활약했던 장태장군 이방언, 이인환, 이사경, 구교철, 문남택 대접주를 비롯하여 소년 뱃사공 윤성도, 여장군 이소사, 열세 살 소년 장수 최동린 등 동학 역사 인물도 전시하였다. 2008~2012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2015년 4월 26일 개관하였다.

<표 2>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	사업 내용
계		11,840	
토지 매입	2008~2009	1,590	토지 매입(27필지)
부지 조성 사업	2009~2009	550	기존 주택 철거, 기반시설, 공원 조성
조형물 조성	2010~2010	1,914	동학농민혁명 상징 조형물 설치
홍보영상관 건립	2010~2010	4,486	홍보 영상관+기념관 건립
산책로 조성, 주변 정비	2011~2011	3,300	산책로 조성, 화장실, 주차장 건립 등

장흥에서는 2004년 2월 27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설립한 이후 매년 기념식과 사료집 편찬³³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2011년 11월 18일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2012년 12월 4일 창립총회를 거쳐 2013년 4월 11일 전라남도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장흥동학농민 대동한마당(2014.04.26./제120주년 기념식, 동학농민대동제, 연합사물놀이(12읍면 농악대), 사발통문 작성, 동학 체험 행사

33 위희환 저, 『장흥동학농민혁명과 그 지도자들』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이방언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외, 2013.

와 전시회, 강강술래, 음악회), 장흥동학농민혁명 창작극 기념공연(2014. 04.25.), 장흥 동학농민혁명 전국대학생 논문대회, 『이야기 장흥동학농민혁명』 발간 등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다. 최근에는 장흥문화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웹툰을 제작하여 보급한 바도 있다.³⁴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³⁵

5) 장성

장성 황룡 전적지는(장성군 황룡면, 20,388m²)는 1998년 4월 1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06호로 지정되었다.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는 계기가 된 황룡전투의 전적지이다. 1994~1997년 사이 동학농민혁명기념탑을 설치하고 동학농민혁명승전기념공원을 조성하였다.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과 장성군의 지원이 따랐다. 사업비는 250백만 원이었다.

6) 무안

무안군에서는 학술조사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⁶

34 2017년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갑오-1894 동학 최후의 전투, 장흥석대들 전투> 15부작 웹을 제작하였다.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장흥군 주최, (주)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주관, 장흥문화원 기획이었다.

35 박형모, 「기억의 장소와 에코뮤지엄」, 2018.10.26; 박홍규, 「동학농민혁명관련 조형물과 역사전투도, 인물화의 성격과 방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장흥군민과 함께 하는 장흥동학 역사인문학 강좌』

36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무안군, 『무안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

<표 3>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안)

구분	추진 시기	주요 내용	예산안
기념공원 조성	2014~2015	무안 동학 안내문, 쉼터 등	16억 원
상징물 건립	2014~2015	무안 동학 기념탑	1억 원
기념제 개최	2014년부터	기념행사, 위령제, 축하행사	5천만 원
유적지 정비	2014년부터	무안 동학 사적지 정비 자원화	10억 원
학술대회	2014년부터	무안 동학 관련 학술대회	2천만 원
시민강좌	2014년부터	시민 대상 교양강좌	1천만 원
홈페이지 구축	2014년	무안 동학 스토리 뱅크, 기념사업 소개	5백만 원

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내실 있게 장기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념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체 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의 지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동학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³⁷의 정례화, 전국화를 위한 대표 브랜드 및 문화상품 개발(무안 동학의 상징, 배상옥 장군 관련 상품 개발, 무안 동학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 등 상품

『계획수립』, 2013.

37 답사는 9시 집결(노인복지회관 3층)해서 18시에 무안 송달예술회관에서 해산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30분의 사전 교육 특강(무안의 동학농민혁명에 이어 해제면 임치진, 민대들, 삼의사 비, 무안을 동학골, 붉은고개, 불무제 다리, 몽탄면 차피 인평 마을, 일로읍 개산재, 삼향읍 대양리 배상옥 장군 생가, 청계면 바우백이 청천재, 함평 고막원 전적지터 등이다.

개발, 무안 동학 만화 제작 및 보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무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 정립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고유 명칭(무안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립과 공식 사용, ‘무안동학’의 범주(무안, 함평 등)에 대한 설정, 무안동학 탐방코스를 ‘무안권 역사문화’와 연계 풍부한 스토리 창출, 무안 창포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활용, ‘무안동학’과 ‘하도의 영수 배상옥’ 개념화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 배상옥 장군의 개념화를 위한 상징물 제작(초혼묘, 홍상제작), “섬으로 간 동학”이라는 이미지 확대와 관련 연구 진행 등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다지 실행을 담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 활용 방안

1) 해석, 연망, 미래의 연계

어느 특정 시기나 사건, 장소, 인물 등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유산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항상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가 함께 따라야만 한다. 그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물론 관련 시기, 유형, 인물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해석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건 동학농민군 측의 직접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성을 했던 관군이나 토벌이 주임무였던 정부 측, 동학에 비판적이었던 유림 측의 기록이 주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엄밀한 사료 비판과 재해석이 선행된 뒤에 활용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학술대회나 주

민토론회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주민의 참여는 중요하다.

자료가 수집되면 세밀하게 분석하고 교차로 엮어 가면서 연표식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군이든 유림이나 수성군이든 전통시대의 제반 활동은 연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야만 집단과 지역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적 특성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에서 동학농민군이 수성군에 밀린 것은 향리층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았다. 민란을 야기한 당사자들로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맞아서 수성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 같은 각 집단과 세력들의 연망을 분석하여야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인식의 기반 위에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학의 이상과 동학농민군의 처절한 투쟁, 그 역사적 동향은 그 자체로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추구했던 평등이나 상생이 생활화될 수 있어야 하고, 나주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장 자료의 연계 홍보 활용

동학농민혁명기의 유산을 유적과 유물로 살펴보았지만 기록이 있어도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구전으로만 전하는 지역도 있다. 부족하거나 미비한 자료라도 조사된 자료는 활용을 잘해야 한다. 전남도에서 조사한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유적은 8개소임을 살폈다. 한 곳은 위치 확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 이후 홍보나 활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등재된 동학 유적지 내용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나주가 7개소이다. 2011년 전남도 조사 8개소와 수치상으

로 비슷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서로 다르다. 등재된 목록을 보면, ① 나주 관아, ② 나주객사 금성관(전남도유형문화재[제2호]), ③ 남교문, ④ 나주 평적비, ⑤ 정수루(전남문화재자료[86호]), ⑥ 나동환비각, ⑦ 나주내아(전남문화재자료 [132호]) 따위이다.³⁸

나주내아에 대한 설명은 “이곳에서 전봉준과 나주목사 민종렬이 비밀 회담을 하였다고 전한다. 전봉준은 1894년 8월 나주목사 민종렬을 만나 호남에서 집강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나주에도 집강소를 설치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민종렬은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6개소는 소재지와 지정문화재인 경우 지정 종별과 번호만 표기되어 있었다.

각종 기록에 나오고 이미 조사된 전투지나 주둔지 일부는 들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 관아 건물이 올라 있는데 설명 없이 사진만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되고 법규에 따라 들어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료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³⁹ 나주로만 보자면, 어쩌면 수성군과 호남초토영군 중심의 시각에 머무른 듯싶었다.

다행히 동학농민혁명재단의 웹사이트 개편을 통하여 자료가 보완되었다. 나주 금성산 동학농민군 주둔지(나주시 경현동), 나주 남외동 동학농민군 처형지(나주시 남외1길), 나주 동학농민군 금성토평비(지방문화재)

3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www.1894.or.kr>)

39 이 같은 사례는 장흥의 경우도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료에는 4개소만 올라 있었다. 2009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조사,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조사, 2011년도 전남도 조사(17개소) 자료 등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뒤로 개편을 통하여 11개소가 올라 있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www.1894.or.kr>))

(나주시 금성관길), 나주 동학 접주 나동환 기념비 (나주시 과원동), 나주 함박산 동학농민군 전투지 (나주시 대호동), 나주성 전봉준-민중렬 회담 지 (지방문화재, 나주시 금성관길), 나주읍성 서성문 전투지(지방문화재) (나주시 교동) 등이다.⁴⁰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등록과 연계 분석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공기록물 등재 인물을 대상으로 직권 등록이 함께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당사자의 신청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연계 자료가 조금이라도 찾아진다면 신청을 거쳐 보는 게 좋을 것이다. 행정기관이나 문화 역사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는 2023년 10월 기준 3,766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을 ‘나주’로 하여 검색하니 233명이었다. 초기 기포지나 주요 전적지를 검색해 보니 장흥 380명, 고창 43명, 정읍 48명, 공주 111명, 장성 80명, 광주 59명, 함평 92명, 강진 71명, 무안 67명 등이었다. 나주 인근의 광주 60명, 함평 97명, 강진 82명, 무안 74명 등이다. 이 수치는 해당 시군만의 단일 지역 참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복수의 참여 지역명이 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⁴¹

40 최근 간행된 『천년의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재발견』 (나주시, 2018)에서도 “나주 동학” 관련 내용이 들어갔으면 더 좋을 것이다.

41 2023년 10월 기준으로는 참여자 등록은 3,766명, 나주 233명, 장흥 380명, 고창 43명, 정읍 48명, 공주 111명, 장성 80명, 광주 59명, 함평 92명, 강진 71명, 무안 67명이다.(동

그렇더라도 나주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수성군과의 접전지이고 전라도 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처형지 호남초토영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광주, 무안, 함평, 우금치, 무장, 금구, 백산, 정읍 등 참여 지역이 복수로 나온 경우가 많아서이다. 나주 지역만 단독으로 참여 지역이 표기된 경우는 97명에 이른다. 분명 97명도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겨 보면 적은 수는 아니다.

이같이 참여 지역이 복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석과 연망의 분석이 좀 더 치밀해져야 하겠다.

4) 장기, 지속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체계 정비

유적의 정비나 유물의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예산 반영과 법제화 등도 검토한다.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은 “장기 지속”이다. 뜻이 모아지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여도 “장기 지속”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회성”에 머물고 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학농민혁명 유산의 활용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랐던 데서도 기인한다. 연구가 축적되고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공주 우금치 전적지나 정읍 황토현 전적지 기념사업은 국가의 관심이 뒤따랐지만, 당대의 사회 사정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다. 여하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고 기념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볼

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www.1894.or.kr>))

수 있다.

장기 지속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이 같은 법제화이다.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4년 9월 6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②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③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④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자 등록이나 기념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2개소, 기초자치단체 14개소⁴²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2023년 10월 기준으로 광역은 5개소, 기초 25개소가 제정하였다.

<표 4>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기념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계
광역	경남, 광주, 전남, 충남	전북			5
기초	광주 광산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전주, 정읍 충남 공주, 논산, 당진, 아산, 예산, 천안	충남(공주), 태안 전남 장흥	전북 정읍	전북 정읍	25

42 광역지자체는 전남과 충남, 기초지자체는 전남 장성군, 장흥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전주시, 정읍시, 충남 공주시,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충북 옥천군, 경북 산청군이었다.

	충북 옥천 경남 남해, 산청 전남 무안, 장흥, 장성				
계	24	4	1	1	3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네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진다. 기념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관련이다. 기념사업 조례는 24개 지자체, 기념관 설치 조례를 보면 광역은 전라북도, 기초는 전남 장흥군, 충남 공주시와 태안군이 제정하였다. 전남 장흥과 충남 공주는 기념사업 지원 조례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가 함께 있다. 전북 정읍시는 기념사업, 기념일, 유족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참여자로 등록된 유족에게는 매월 유족수당을 개인별로 지원하고 있다. 충남 공주의 경우는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라 법령제명을 부여하여 제정하였다.⁴³

그런데 조례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조항에 따른 위임조례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 조례 30건 가운데,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광역 2건, 기초 8건이다. 태안 기념관의 경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명시하고 있다.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 조항으로 명시하여 위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기념재단-지자체’의 법령 체계가

4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확립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국가-기념재단의 이원적 법령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조례 형식의 법령 체계로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명시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발전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 검토

지금까지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동 시기 전후하여 시대 사정을 볼 때 “동학농민혁명군”, “수성군”, “관군”, “의병”, “향리”, “관리”, “수령”, “사족” 등이 함께 연결되고 있다. “동학”을 논의하는 자리라 당연히 “동학”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시대성이나 지역성을 논하려면 광범위하게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조사와 해석, 연망의 분석 등이 이어져 “나주”라는 큰 틀에서 조망하고 투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나주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그러한 자료들이 합해져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에서 흥으로 승화하다”라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리

44 김희태 「나주학이 왜 필요한가」, 『나주문화원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나주학 3』, 나주문화원 다목적홀, 2019.08.20.

하면서 나주의 동학유산, 다른 지역 동학유산의 활용 사례, 나주 지역 동학유산의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나주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은 유적이 8개소가 조사된 바 있다. 유물은 일기류, 문집류, 관문서류, 사문서류가 확인된다. 기존에 확인된 관찬류 자료도 많다. 활용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진전을 더해 가고 있는 장흥과 동학농민혁명 주요 전적지인 공주 우금치, 정읍 황토현, 장성 황룡촌, 그리고 초기 기포지인 고창 등의 사례를 살폈다.

활용 방안으로는 크게 다섯 항목을 제안하였다. ① 해석, 연망, 미래의 연계 ② 현장 자료의 연계 홍보 활용 ③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연계 분석 ④ 장기, 지속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체계 정비 ⑤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 등이다.

기초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재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말이다. 서로 연망을 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조사되었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는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 관심을 넘어 의무감으로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경우도 '나주'로 검색하니 233명에 달한다. 보통 나주는 동학농민혁명군보다는 수성군이나 호남초토영군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인식하곤 했다. 그런데 주요 전적지라는 정읍, 공주, 장성보다도 2~3배의 참여자 통계는 분명 나주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어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수립과 법제적인 뒷받침도 분명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30개 지자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기념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례 가운데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10건이다. 일종의 위임조례의 형식이지만, 모법에 위임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즉,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 조항으로 명시하여 위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기념재단-지자체’의 법령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국가-기념재단의 이원적 법령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조례 형식의 법령 체계로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명시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발전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조사와 연계 분석, 계획의 수립 등이 이어져 “나주”, “나주학”이라는 큰 틀에서 조망하고 투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면 “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에서 흥으로 승화하다”라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 2023.10.16.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	-------------------	---------------------

참고문헌

- 김은정·문경민·김원용, 『동학농민혁명100년』, 나남출판, 1995.
- 나선하, 『조선 후기 나주 향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2006.
- 나주시, 『천년의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재발견』, 2018.
- 나주시,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나주학 총서 2집-, 2022.
- 나천수, 『역주 《겸산유고(謙山遺稿)》』 -詩·書·日記類,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논문, 2017.
-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금성정의록』, 1991.
-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장흥문화원, 『갑오-1894 동학 최후의 전투, 장흥석대들 전투』 (15부작), 2017.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무안군, 『무안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2013.
- 위의환 역저, 『장흥동학농민혁명소료총서』 1·2-동학농민혁명 최후 격전지사-, 천도교 장흥교구·장흥군, 2009.
- 위의환 저, 『장흥동학농민혁명과 그 지도자들』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이방언장군-,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외, 2013
- 윤여정, 『대한민국 행정지명』 1-전남·광주-, 향지사, 2009.
- 이상식·박맹수·홍영기 편,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전라남도, 1996.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탐견립추진위원회, 『장흥동학농민혁명사』, 1992.
- 전라남도·무등역사연구회,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실태조사-』, 2011.
- 전라남도·장흥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도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2010.
- 홍영기,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제30호, 2007.
- 김옥경, 「역주 『난과유고(蘭坡遺稿)』」,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논문, 2015.
-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나주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 -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에서 흥으로 승화하다-』, 나주시·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소, 2019.10.30.
- 김희태,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나주학 총서 2집), 나주시, 2022.
- 나천수, 「다시 쓰는 나주 동학 농민군 이야기-나주 동학 집주 나동환을 중심으로」,

-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94, 2022.
- 박맹수,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3, 2018, 203~228쪽.
 - 배항섭, 「나주 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2005.
 - 이상암, 「나주지방의 동학농민전쟁과 관군의 대응」,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논문, 2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www.1894.or.kr>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김희태(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의 현황, 다른 지역의 활용 사례, 나주 동학의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나주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은 유적이 8개소가 조사된 바 있다. 유물은 일기류, 문집류, 관문서류, 사문서류가 확인된다. 기존에 확인된 관찬류 자료도 많다. 활용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진전을 더해 가고 있는 장흥과 동학농민혁명 주요 전적지인 공주 우금치, 정읍 황토현, 장성 황룡촌, 그리고 초기 기포지인 고창 등의 사례를 살폈다.

활용 방안으로는 크게 다섯 항목을 제안하였다. ① 해석, 연망, 미래의 연계, ② 현장 자료의 연계 홍보 활용, ③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연계 분석, ④장기, 지속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체계 정비, ⑤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 등이다.

기초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재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말이다. 서로 연망을 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조사되었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는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 관심을 넘어 의무감으로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학 농민 참여자의 경우도 '나주'로 검색하니 233명에 달한다. 보통 나주는 동학농민혁명군보다는 수성군이나 호남초토영군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인식하곤 했다. 그런데 주요 전적지라는 정읍, 공주, 장성보다도 2~3배 많은 참여자 통계는 분명 나주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적인 계획의 수립과 법제적인 뒷받침도 분명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30개 지자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기념

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례 가운데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10건이다. 일종의 위임조례의 형식이지만, 모법에 위임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 조항으로 명시하여 위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기념재단-지자체’의 법령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국가-기념재단의 이원적 법령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조례 형식의 법령 체계로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명시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발전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제어 : 나주, 나주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유산, 활용 사례, 활용 방안

Abstract

Measures to utilize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Naju Donghak Peasant Revolution

Kim, Hee-Tae(Former Cultural Heritage Senior Researcher,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We proposed the current status of Naju Donghak Peasant Revolution-related heritage, examples of use in other regions, and ways to utilize Naju Donghak.

Eight heritage site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Naju region have been investigated. Artifacts include diaries,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official documents, and private documents. There is also a lot of previously confirmed government-related data. Case studies looked at Jangheung, which has been making progress relatively recently, Ugeumchi in Gongju, a major battle sit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wangtohyeon in Jeongeup, Hwangryongchon in Jangseong, and Gochang, an early stage.

Five major items were proposed for utilization. ① Interpretation, network, future connection, ② Linked public relations use of field data, ③ Link analysi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ipants, ④ Establishment of long-term, continuous basic plan and maintenance of legal system, ⑤ Comprehensive humanities resources, etc.

It is a textbook saying that basic research must be faithfully conducted and reinterpreted.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each other's networks

well. And if there is already research or data available, it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e will have to find a way to connect with a sense of duty beyond interest.

In the case of Donghak farmer participants, when searching for ‘Naju’, the number reaches 233. Naju usually perceived that Suseong-gun or Honam Chotoyeong-gun had an advantage ov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ary Army. However, the statistics on participants being 2 to 3 times higher than those of Jeongeup, Gongju, and Jangseong, which are major battlefields, clearly require us to look again 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ju.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sustainable plans and legal support are clearly necessary. So far, local government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by 30 local governments, and can be divided into commemorative projects, memorial halls, anniversaries, and bereaved family allowance support. However, among these ordinances, there are 10 ordinances that specify the <Donghak Farmers' Honor Restoration Act> as a model law. It is a form of a kind of delegation ordinance, but the delegation provisions must be included in the parent law. Juk, the parent corporation <Donghak Farmers' Honor Restoration Act> must specify and delegate it as an articl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nact and implement it as a delegation ordinance. Only then will the legal system of ‘national-memorial foundation-local government’ be established. In the current dual legal system of the National Memorial Foundation and the legal system in the form of ex officio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honor of the p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s specified in the Donghak Peasant Honor Restoration Act. Recovery will inevitably proceed slowly.

key word : Naju, Naju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Heritage, Use Cases, Utilization Plan

일반논문

경북 예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신 진 희(안동대학교 강사)

목차

1. 머리말
2.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
3. 맺음말을 대신하여 : 과제 및 활용 방안

1. 머리말

경북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1894년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 활동이 포착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1864년 교조 최제우 처형과 1871년 이필제의 ‘영해란’ 이후, 동학은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예천 지역에서 포착된 것은 1894년 3월이었다. 관동대접주 최맹순이 예천 소야에 집소를 두고 동학 포교에 나섰다.² 최맹순은 관동포 수접주로서 옹기 장사꾼으로 위장하여 행상하면서 동학을 전파하여 농민군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 활동은 6월이 되면 크게 성장하여 그 수가 7만여 명, 48집소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는 신영우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³ 예천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의 활동은 물론, 경상도 동학농민군의 활약상과 상주 소모영의 진압 활동을 면밀하게 정리하였다. 또 경상도 북부 지역 동학농민군 예천군 유천면 토치접주 박현성, 윤치문, 용문면 모량도감 전기항(전도야지), 관동 수접주이자 동로면 소야 수접주 최맹순, 장복극, 박영수, 전규선 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⁴ 2010년대 들어서는 경북의 동학농민군 연구 속에 예천 동학농민군을 다루거나, 예천 동학농민군 활

1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3쪽.

2 『甲午斥邪錄』 1894년 봄.

3 신영우,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1984;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 상·하, 『동방학지』 51, 1986 『갑오농민전쟁과 영남 보수세력의 대응-예천·상주·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4 신영우, 「1894년 영남 서북부지방 농민군 지도자의 사회신분」, 『학림』 10, 1988.

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⁵⁾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총 375곳이다. 그 가운데 전북이 117건(31.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21.6%), 충남(18.7%), 경북(9.6%) 순이다.

<표 1>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유적지	2	2	5	3	1	1	4	14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유적지	28	70	117	81	36	11	0	375

* 출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북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10%도 되지 않는다.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관련 사적지를 조명한 연구는 2001년 동학학회에서 『동학의 문화유적 순례』 I (영남지역 2)에서 진주·하동·김산·상주의 동학농민군 활동 개관과 함께 서술하였다.⁶⁾ ‘경상 북서부 지역

5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0, 2006;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경상감사 조병호와 갑오년의 경상도 상황」, 『동학학보』 35, 2015; 채길순,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2013; 홍동현, 「1894년 동학농민군의 향촌사회 내 활동과 무장봉기에 대한 정당성 논리-경상도 예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8, 2014; 최재복, 「19세기 경상도의 유교전통과 민족종교 동학-동학 내의 '유교' 재평가를 접해서-」, 『동학학보』 35, 2015; 고순희, 「근대기 국문실기 <학초전> 연구」, 『국어국문학』 176, 2016; 이광우, 「동학농민전쟁기 경상도 유림의 향약 시행」, 『민족문화논총』 68, 2018; 윤인선, 「로고테라피의 실천으로서 <학초전>에 나타나는 자서전적 글쓰기」, 『문학과 종교』 25, 2020; 한경희, 「동학군 기록 <학초전> 고찰」, 『동학학보』 58, 2021; 「『갑오척사록』에 나타난 예천 동학농민혁명 고찰」, 『동학학보』 61, 2022; 김영진, 「동학사상과 경상도 예천 지역 양반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학초전』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60, 2021 등.

최대 동학농민혁명 전투지’로 ‘예천’의 사적지를 살핀 연구도 있다.⁷ 이들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다니면서 예천도 함께 소개한 글이다. 2010년과 2021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편람』을 발간하였는데, 그 안에 경상북도 전체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현황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이 도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공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상도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관련 유적지를 정리하고 과제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록된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유적지(7곳)와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조사가 된 유적지(2곳)를 정리하였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 등을 제시하여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포착된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이 잊히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2.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록된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유적지는 6곳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예천이었던 소아리는 현재 문경시 산북면에 속하는데, 이곳을 포함한다면 7곳이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

6 동학학회, 『동학의 문화유적 순례』 I (영남지역 2), 2001.

7 채길순, 『새로 쓰는 동학기행』 2(경상북도·경상남도·북한편), 모시는사람들, 2021: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2013, 114~118쪽. 채길순은 서정자전투를 굴머리전투라고 칭하고 있다.

면 다음의 표와 같다. 행정구역 변천으로 지금은 문경에 포함된 곳도 있지만, 예천 동학농민군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 예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번호	유적지 명	현재 주소
1	예천 접소 터 및 최맹순·최한걸 부자 집터	경북 문경시 산북면 소아리
2	예천 동학농민군 근거지 및 전투지-금당실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3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9(충효로 395) 예천스타디움 근처 한천
4	예천 동학농민군 서정자 전투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91-1, 83, 85-2, 86-1 일대
5	예천 동학농민군 금곡포덕소-함양박씨 儒楔所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333, 334(금당실길 150)
6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全基恒, 전도야지) 묘소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산 31
7	예천 보수집강소 본부-예천관아	경북 예천읍 서본리 49-6(효자로 43)-예천초등학교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1(대창학교길 24-1)

여기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록된 예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7곳과 추가로 살펴야 할 2곳(용궁현청과 화지도회 터)까지 총 9곳을 예천 동학농민군 전개 과정 순서에 따라 살피고자 한다. 1) 예천 접소 터 및 최맹순·최한걸 부자의 집터, 2) 예천 보수집강소 본부-예천관아, 3) 예천 동학농민군 금곡포덕소-함양박씨 儒楔所, 4) 예천 동학농민군 근거지 및 전투지-금당실, 5)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6) 동학농민군 무기 탈취 터-용궁현청, 7) 예천 동학농민군 화지도회 터-유천면 화지리, 8) 예천 동학농민군 서정자 전투지, 9)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 묘소의 순서로 살핀다.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적지를 사건의 순서대로 살피기 위함이다.

1) 예천 접소 터 및 최맹순·최한걸 부자 집터 :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

예천의 동학농민혁명은 최맹순(崔孟淳)이 1894년 3월 소야(蘇野)에 접소를 설치하고 동학 포교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⁸ 예천 소야는 당시 예천군 동로면에 속했으나, 현재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를 말한다. 관동포 수접주 최맹순은 옹기 장사꾼으로 위장하여 행상하는 동시에 동학을 포덕하여 농민군 조직을 확대하는 연결망을 형성하였다.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 표지석 사진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중앙-네이버지도)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던 한재(旱災, 가뭄과 그로 인한 피해 등)와 상주 낙동·함창 태봉에 일본군 병참부가 설치되면서 경상도 북부지역의 민중이 느낀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6월이 되면서 최맹순이 이끈 동학농민군 세력이 크게 성장하여 그 수가 7만여 명, 48접소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최맹순이 설치했다고 하는 접소의 터나 최맹순·최한걸 부자가 살았다고 하는 집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확한 위치 비정이 어려워 산북면 소야리를 그 주소로 확정하였다. 현장조사나 지도를 살펴보면, 소

8 『甲午斥邪錄』 1894년 봄.

아리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 사진을 찍기에 곤란한 점이 많다. 따라서 드론으로 촬영해야만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2) 예천 보수집강소 본부-예천관아: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49-6(효자로 43)

7월 5일 동학농민군이 예천 읍내에 들어와 전 영장이었던 이유태(李裕泰)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에 이른다.⁹ 15일 예천접주 박래헌(朴來憲)이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안동부사의 행리를 빼앗았다.¹⁰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7월 24일 예천읍 향리들이 객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 날인 25일 예천군수가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예천의 집강소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세력이기 때문에 ‘보수집강소’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예천군수가 설치한 ‘보수집강소’는 예천관아와 객사를 활용하여 설치되어, 이후 본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위치는 원래 경북 예천읍 서본리 49-6번지(효자로 43)이다. 현재 예천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예천관아나 객사가 있었던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예천관아 객사 건물은 1927년 3월, 대창학원 원장 김석희(金碩熙)가 예천읍 노상리 1-1번지(대창학교길 24-1)로 이전하였다. 현재 이곳은 대창중고등학교 교장실과 행정실, 인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객사 건물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일부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서 살필 수 있듯이, 맞배지붕 건물에 차양 역할[庇]을 하는 부분을 덧붙인

9 『甲午斥邪錄』 7월 초5일조.

10 『甲午斥邪錄』 7월 15일조.

부분은 조선 건축의 전통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927년 이 건 당시 덧붙여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천객사-대창중고등학교 체육관 짓기 전 건물 앞모습



예천객사-대창중고등학교 체육관이 지어질 당시(2012년) 건물 뒷모습

2012년 예천관아 건물 앞에 대창중고등학교 체육관이 지어져 앞모습 사진을 찍기보다 뒷모습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예천관아 건물이 있는 곳의 주소를 예천관아 위치로 적고 있는데, 원래 예천관아 위치인 예천읍 서본리 49-6번지(현 예천초등학교 자리)와 건물의 이건 위치인 노상리 1번지(대창중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예천 동학농민군 금곡포덕소-함양박씨 儒楔所 :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333·334(금당실길 150)

8월 2일 동학농민군이 예천 읍내를 장악하고,¹¹ 3일 유계소(儒楔所)를 점거한 후 접소를 설치하였다.¹² 8일 권경함(權景咸)이 금당실에 접소를 설치하였다.¹³ 예천 함양박씨의 유계소를 빼앗아 점거하고 금곡포덕소(金谷布德所)라고 불렀다.

금곡포덕소는 예천 ‘보수집강소’에 통문을 보내 9일에 잡아간 동학농민군 11명을 석방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¹⁴ 하지만 8월 10일 예천 ‘보수집강소’가 동학농민군 11명을 한천 모래밭에 생매장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였다. 이 일로 인해 경북 북부와 충청도 일부 지역 동학농민군까지 가세하여 예천 읍내를 압박하게 되었다.

11 『甲午斥邪錄』 8월 초 2일조.

12 『渚上日月』 1894년 8월 3일자(박성수 주해, 『저상일월』, 민속원, 2003, 189쪽).

13 『甲午斥邪錄』 8월 초8일조.

14 『甲午斥邪錄』 8월 10일조.



금곡포덕소(상금곡리 333·334(금당실길 150))

금곡포덕소가 있었던 함양박씨 유계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불에 타 버렸으나, 함양박씨 문중에서 복원하여 경담재(鏡潭齋)라는 현판을 걸고 있다. 유계소가 있는 금당실(용문면 상금곡리)은 동학농민군의 근거지 가운데 하나였다. 이 유계소는 8월 28일 서정자전투(굴머리전투)에서 용기를 얻은 민보군에게 습격당하였고, 30~40호에 달하는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집이 소각되었다.¹⁵⁾

4) 예천 동학농민군 근거지 및 전투지-금당실 :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금곡포덕소가 있었던 함양박씨 유계소가 있던 마을은 『정감록(鄭鑑錄)』에 나오는 이른바 ‘십승지(十勝地)’ 가운데 하나이자, 16세기 초 명당을 찾아 이주한 함양박씨의 세거지이기도 했던 금당실이었다. 현재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인데, 이곳은 예천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인 금곡

15 『渚上日月』 1894년 8월 29일조.

포덕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당실 입구에 있는 송림에서 전투가 벌어 지기도 하였으며, 8월 28일 금곡포덕소가 습격당할 때 금당실에 있던 30~40호에 달하는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집이 소각되기도 하였다.¹⁶

9월에 들어 금당실 농민군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으나, 9월 13일에 예천 보수집강소 민보군의 공격을 받고 32명이 체포되었다. 10월에 들어서는 금곡의 사족들이 동제를 지내고 동약(洞約)을 강제로 정하고 무기를 점고하는 등 반농민군 세력이 강화되면서 금곡의 농민군 활동도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금당실 마을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이곳 송림을 사이에 두고 농민군과 일본군이 대치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전투 일자나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당실과 송림(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현재 송림은 천연기념물 제469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송림 안쪽으로 금당실 마을이 있고, 바깥쪽으로 1971년 3월 설립된 용문중학교

16 『渚上日月』 1894년 8월 29일조.

(용문면 상금시장길 45-2)에서 1922년 5월 설립된 용문초등학교까지 송림이 이어져 있다. 금당실과 송림 옆에 오미봉이 있는데, 금곡포덕소에서 활동한 전기항의 묘소가 있다.

5)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 예천읍 동본리 479(충효로 395) 예천스타디움 옆 한천 가

8월 3일 금당실에 설치된 금곡포덕소는 예천 ‘보수집강소’에 통문을 보내 9일에 잡아간 동학농민군 11명을 석방하라고 요청했다.¹⁷ 그러나 11명의 동학농민군은 이미 예천 ‘보수집강소’에 의해 한천가에 생매장된 다름이었다.¹⁸ 이 사건은 예천 동학농민군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으로, 동학농민군 측이 예천 ‘보수집강소’에 통문을 보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하였다.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동본리 479(충효로 395))

8월 20일경에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강원도의 각 접소에 사통

17 『甲午斥邪錄』 8월 10일조.

18 『甲午斥邪錄』 8월 10일조.

을 돌려 상주의 이정과 예천 소야 등지에 모여 예천을 공격하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동대접(關東大接)과 상북·용궁·충경·예천·안동·풍기·영천·상주·함창·문경·단양·청풍의 13접주가 상주 산양(山陽)과 예천 금곡 및 화지(花枝)에서 대회를 열었다.

예천스타디움이 지도 오른쪽 맨 위에 있다. 예천을 가로지르는 한천이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천스타디움 근처를 생매장 터라고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집강소가 생매장이라는 방법으로 예천민들에게 경계시키려 했던 의도를 생각한다면, 예천관아 앞에 있는 한천체육공원 부근에 동학농민군을 묻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동학농민군 11명이 생매장된 터는 현재 <동학농민군생매장터> 비석만 세워져 있다. 예천읍 충효로 395 예천스타디움 옆 강변 기슭에 있다.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의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지 못하였지만, 1999년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동학농민군생매장터> 비를 세워 예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6) 동학농민군 무기 탈취 장소-용궁현청 :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191-1

동학농민군 11명이 예천 보수집강소에 의해 생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남 동학 38접은 예천읍을 공격하기 위해 용궁의 군기를 탈취하였다.¹⁹ 이 사건으로 인해 조정에서는 용궁현감 이주의(李周儀)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²⁰ 동학농민군의 용궁 무기 탈취사건은 예천집강소가

19 『羅巖隨錄』 1894년 8월조.

20 『羅巖隨錄』 1894년 9월. 二二〇 新式節目(九月).

안동도총소에 원병을 요청하고, 예천군수 조원하(趙爰夏)가 안동진관에 구원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²¹ 동학농민군의 위세가 등등해지는 상황에서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의 대립도 날카로워졌다.

용궁현은 철종(1856) 때 홍수를 만나 省火川 주변으로 치소를 옮겼고, 1895년 안동부 소속,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예천군에 통합되었다. 읍부리에 복원한 용궁현청 위치가 동학농민군이 군기를 탈취했던 용궁현청이었을 듯하다.



용궁현청(읍부리 191-1번지)



『嶺南邑誌』 내 「龍宮縣」 (1895)



『宦遊帖』 中 龍宮地圖 확대

21 『甲午斥邪錄』 8월 26일조.

1895년 『영남읍지』에 용궁현의 지도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남아 있다.²² 읍치와 향교의 위치와 1895년 당시 용궁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856년 홍수 전 용궁현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가능한 지도가 국립민속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바로 「환유첩(宦遊帖)」이다.²³ 「환유첩」은 홍기주(洪岐周)가 관직생활을 했던 14개 고을 지도들을 재임 순서대로 묶어 만든 지도책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편자인 홍기주는 1858년 30세의 나이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고,²⁴ 1875년 용궁현 감으로 부임하여 당시 용궁현의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홍수가 나기 전 용궁현은 용궁향교의 오른쪽에 위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예천 동학농민군 화지도회(花枝都會) :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동학농민군 11명이 한천 가에 생매장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예천 동학농민군은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금곡과 화지에서 대회를 열었다. 금곡은 금곡포덕소가 위치한 용문면 금곡리(금당실)였고, 화지는 유천면 화지리였다. 1894년 8월 21일, 화지도회(花枝都會)라고 불렀던 동학농민군 대회에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이 모였다.²⁵ 바로 직전에 민보군과 싸움에서 패배한 의성과 안동의 동학농민군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화지동으로 피신해 왔다.²⁶ 이로써 예천 읍내 공격의 기반을 마련하여, 동학농민군이 화지동을 중심으로 예천군을 포위하였다.²⁷

22 서울대학교 규장각.

23 국립민속박물관.

24 『崇禎紀元後四戊午式司馬榜目』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25 『甲午斥邪錄』 8월 21일조; 「화지 대도회 소집」, 『鶴樵傳』 1.

26 『甲午斥邪錄』 8월 23일조.



예천군 화지리 전경

화지의 접사(接司)는 김노연(金魯淵)이었다.²⁸ 화지도회는 8월 28일 예천읍 공방전에서 금곡포덕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동학 농민군 근거지였다. 또 21일 화지도회가 열린 후, 동산에서 전투가 벌어 지기도 했다.²⁹ 8월 28일 서정자들 전투에 임했던 동학농민군 주력이 바로 이 금곡과 화지도회에 참여한 농민군이었다. 유천면 화지리는 앞에 작은 냇가 흐르고 너른 들이 있어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다. 다만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 어려워 주소를 적을 수 없었다.

8) 예천 동학농민군 서정자 전투지 :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91-1(서정자들), 83, 85-2, 86-1 일대

1894년 8월 27일 민보군의 총수 100여 명이 현산 옆 골짜기에 잠복하였다.³⁰ 잠복했던 이들은 다음 날 “적병 1만여 명이 가득 몰려오는데 10

27 『甲午斥邪錄』 8월 23일조.

28 『甲午斥邪錄』 8월 28조.

29 「화지 동산 전투」, 『鶴樵傳』 1.

여 리에 이어져 있으며 고함 소리가 땅을 진동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즉, 현산이 전투지로 활용되지는 않았으나 동학농민군의 예천 공방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보군이 잠복하고 있었던 것은 전투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던 곳임을 증명한다.



서정자들 - 현산 - 예천관아 터

동학농민군이 예천읍을 공격하기 위해 주둔했던 곳이 유정(柳汀)이다.³¹ 한천을 사이에 두고 현산에는 민보군이 잠복하고 있었고, 한천을 건너 유정에는 동학농민군이 가득 들어서 있었다. 서정자들의 늪지가 개간되기 전, 유정에는 버드나무 숲이 빼곡했다고 한다. 『학초전(鶴樵傳)』에는 “서정자 십 리 제방 위에 있는 버드나무 잎이 빛나고 있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³² 유정에 주둔한 동학농민군은 술개들을 거쳐 한천을 건너 현재

30 『甲午斥邪錄』 8월 27일조.

31 『甲午斥邪錄』 8월 28일조.

예천초등학교에 있었던 예천관아를 공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천관아를 점령하려는 동학농민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현산에 민보군이 잠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정에 많은 동학농민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고하기도 하였다. 현재 이 현산에는 예천문화원과 성당이 있다. 이곳이 조금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예천을 바라보면 너른 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8월 28일 밤, 예천 화지도회와 금당실의 동학농민군은 예천 읍내를 공격하였다.³³ 굴머리 전투 혹은 서정자 전투라고 부르는 전투가 이것이다. 예천 민보군은 서정(西亭)의 긴 제방을 에워싸고 동학농민군을 양면에서 협공하였다. 전투 상황은 “총탄이 떨어지는 숲속에서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어지럽게 땅으로 떨어졌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에 가득 차서 적과 아군이 구분되지 않아 마구 죽었다”고 묘사하였다. 이 전투가 수행된 곳이 바로 서정자-굴머리-한천 일대이다.

전투 과정에서 민보군이 청북동 주민에게 산 위에 횃불을 많이 설치하여 군대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본진에서 총성이 울리거든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 적병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고 시켰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한천에서 예천 동남쪽 서정자[西亭] 들로 퇴각하였다. 민보군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다.

서정자들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난 다음 날인 29일 안동도총소에서 보낸 구원병 3,500여 명이 예천 민보군에 합류하였다. 게다가 통역 등을 대동한 일본군 53명과 통역·화병(火兵) 10명도 합류하면서 예천 동학농민

32 「화지 대도회 해산 행진」, 『鶴樵傳』 1.

33 『甲午斥邪錄』 8월 28일조.

군은 크게 패하여 상주와 충청도 단양, 제천 등지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때 유천면 화지리와 용문면 금당실, 동학농민군 포덕소인 금곡포덕소 등이 소각되고 파괴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서정자들 전투 기념비(예천읍 서본리 91-1)

2023년 10월 12일(목), 1894년 음력 8월 28일에 벌어졌던 서정자들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서정자들(예천읍 서본리 91-1번지 일대)

위의 사진은 동학농민군이 민보군·일본군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 숨어 있던 버드나무 숲[柳汀]이 있었고 전투가 벌어졌으며, 민보군에 밀려 퇴

각했던 서정자들의 모습이다. 동학농민군 11명이 생매장당하고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던 한천은 당시에 흘렀던 내[川]이기는 하지만, 제방을 쌓고 하천의 재정비하면서 천변의 모습이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9) 동학농민군 지도자 全基恒(전도야지) 묘소 :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산 31

용문면 상금곡리 오미봉 입구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 의사 추모비 있는 곳>이라는 이정표가 마련되어 있다. 이정표를 따라가면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의 묘소를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全基恒(전도야지) 묘소

전기항의 묘소 앞 판석은 1996년 4월 5일 한식에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만들었다. 판석의 옆에는 5대손·손부, 6대손의 이름을 새겼다. 그 옆에는 全基恒(전도야지, 1827~1900)의 님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9년 <東學農民革命指導者 全基恒義士追慕碑>를 세웠다. 전기항이 활약했던 금곡포덕소의 접주는 권순문(權順文)이었다. 예천 보수집강소에서 전기항을 포착한 계기는 금곡(금당실) 동학농민군

32명을 붙잡아 조사할 때, 금곡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전기향(전도야지)을 언급했기 때문이다.³⁴

전기향은 농민군의 모량도감(募糧都監)을 맡아서 경상도 북부 일대 농민군의 군량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전기향의 고손인 전장홍 님은 “고조부님 풍채가 워낙 좋아 ‘돼지’의 한문 표기인 全刀也只로 불렸으며, 천석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농이었으나 동학농민군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다 끌어다 써 집 안에 무쇠술 하나만 남았다”고 하였다.



전기향 의사 추모비 이정표



전기향 추모비

東學農民革命指導者 全基恒義士追慕碑

예천 읍내 공방전이 실패로 돌아간 뒤 전기향은 몸을 숨기기 위해 소백산맥 기슭에 12군데 움막을 만들어 놓고 번갈아 가며 머물렀고, 가족들 또한 수 대를 살아온 금당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산으로 숨어 다니며 화전민으로 살다가 전장홍 님의 할아버지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³⁵ 1999년 예천동학농민혁

34 『甲午斥邪錄』 9월 13일조.

명기념사업회는 전기항의 닛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기항의 묘소 앞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기항 의사 추모비>를 세웠다.

3. 맺음말을 대신하여 : 과제 및 활용 방안

1) 과제

본문에서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 활동이 포착된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9곳을 살펴보았다. 경북 예천이라는 좁은 지역의 동학농민군 관련 유적지를 살폈음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894년 8월 28일 서정자들에서 벌어졌던 동학농민군과 민보군(보수집강소 등) 사이의 전투는 금곡과 화지도회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모양이다. 특히 화지도회에서 크게 활약한 인물이 박현성(朴顯聲)과 김노연(金魯淵)이다. 김노연은 화지의 접사(接司)로서, 동학농민군 11명을 생매장한 사건에 대해 보수집강소와 대화하기 위해 박현성과 함께 보수집강소를 찾아갔다가 잡혀 1894년 8월 28일 서정자들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에 피신하였다.³⁶ 이후 9월 동학농민군이 상주 객관을 점령했을 때 참여했다.³⁷ 박현성은 토치집주로서, 동학농민군 11명을 생매장한 사건에

35 「예천 금당실 모량도감 전도야지 전기항, 손부 나주 정씨·근고손자 장흥·방손 상춘」, 『다시 피는 녹두꽃』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36 「갑오척사록」 1894년 8월 28일.

37 「갑오척사록」 1894년 9월 27일.

대해 보수집강소를 찾아갔다가 대화가 불가능한 것을 파악하고 1894년 8월 28일 서정자들 전투에 참여하였고, 9월 상주 객관 점령에도 나섰던 인물이다. 또 다른 자료에 박현성(朴賢聲)도 등장한다. 그는 관동포 최맹순의 집 가운데 하나인 직곡포(稷谷布)의 집주인데, 1894년 2월 박학래가 입도한 집이다.³⁸ 한자를 다르게 썼지만 『학초전(鶴樵傳)』의 기록된 예천 보수집강소로 박현성을 보냈다는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앞서 언급한 朴顯聲과 동일인이다.

예천 동학농민군으로 전기항 묘소만 추적되어 유적지로 언급되었다. 가장 먼저 소야에 집소를 세웠던 최맹순·최한걸 부자의 집이나, 토치집주 박현성, 화지집사 김노연, 모사대장 박학래, 최맹순·최한걸 부자와 함께 잡히고 함께 처형되었던 장복극, 예천 한천에 생매장당했던 전규선(全奎選, 1869~1894)³⁹ 등 예천동학농민군으로 활약한 인물들의 집터나 마을 등을 추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가운데 전기항과 박현성, 박학래, 전규선의 후손이 있다. 전기항과 박현성, 전규선의 증언록은 이미 채록되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후손의 증언을 채록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후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전규선 후손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전부터 느껴 왔지만, 이번에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자료와 함께 추적하면서 동학 연구자와 의병 연구자가 함께 연구해야 할 필요성

38 「鶴樵傳」 1.

39 『예천 금당실 농민군 전규선 손자 두형』, 『다시피는 녹두꽃』(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을 절실히 느꼈다. 예천 용궁에서 동학농민군에게 잡혀서 죽었던 다케노 우치 대위와 관련된 내용은 한말 전기의병 중 갑오의병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다. 동학농민군도 스스로를 ‘의병(義兵)’이라고 칭하였듯이⁴⁰ 동학농민군 연구자와 의병 연구자의 교류가 필요하다.

2) 활용 방안

동학농민혁명은 1993년 7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 한승헌) 설립을 시작으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0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 및 2019년 2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는 1996년 3월 예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창립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4일 사단법인 예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회장 전장홍, 부회장 김두년·유진상, 사무총장 문제갑)가 창립되어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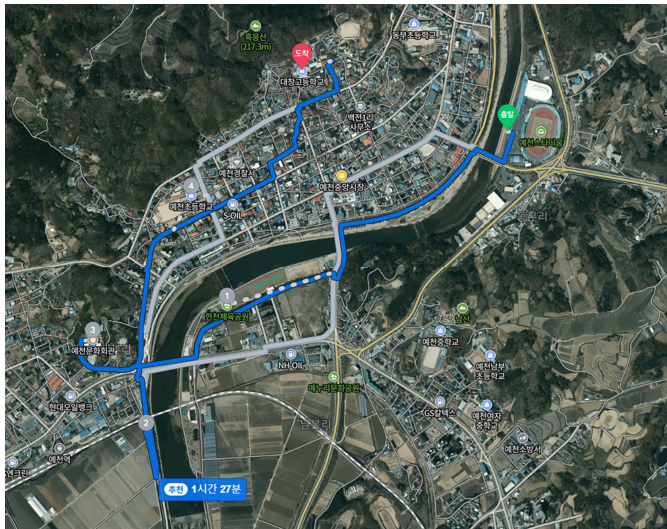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22년 7월 예천박물관에서 예천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열었고, 9월 ‘128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2023년 5월에는 전기향 의사의 피신처를 찾아서라는 주제에

40 「갑오척사록」 1894년 8월 28일, “오늘 본읍 예천에서 도회를 열고 죄인들을 잡아들인 뒤에 한마음으로 왜를 물리칠 계획입니다. 같은 동토(東土)의 백성들인데도 만약 왜를 물리치려는 뜻이 없다면 하늘 아래에서 당신들이 옳은 것입니까? 도인들의 의(義)가 옳은 것입니까? 도인들은 의병(義兵)입니다.”

맞춰 문경 동로 ‘숫트맥이’ 일원으로 역사탐방에 나섰고, 6월에는 예천청 소년수련관에서 역사강좌를 열었다. 또 10월에는 서정자들 전투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⁴¹ 또 11월에는 꽃재 일원으로 역사탐방이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활용 방안으로 <역사체험 탐방 관련 코스>를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① 예천 읍내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 코스 : 예천동학농민군 생매장터(예천스타디움) - 전투지 한천 - 전투지 서정자들 - 민보군 주둔지 현산(예천문화회관) - 예천 ‘보수집강소’ 본부 예천관아(예천초등학교) - 예천 ‘보수집강소’ 본부 건물(대창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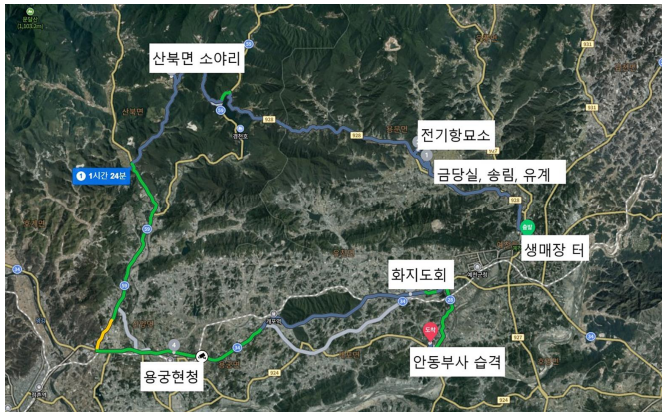


예천 읍내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 코스

41 예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yd1894>)

예천 읍내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 코스는 5.3km 걷기코스로,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곳곳에서 예천동학농민군 활동과 ‘보수집강소’의 활동을 설명하게 되면 그 시간보다 더 소요될 것이다.

②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역사투어 :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예천스타디움) - 동학농민군 근거지 금당실 - 동학농민군 전투지 금당실 송림 - 금곡포덕소 유계소 - 전기항 묘소(용문면 상금곡리 산 31) - 예천동학농민군 접소 설치 장소이자 최맹순·최한걸 부자 집터(산북면 소야리) - 동학농민군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했던 용궁현청(용궁면 읍부리) - 화지도회가 열렸던 유천면 화지리 - 동학농민군이 안동부사의 붓짐을 습격했던 경진가점(개포면 경진리)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역사투어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역사투어는 65km를 자동차 혹은 관광버스를 활용하여 이동하면서 투어를 하는 방식이다. 1시간 30분 정도 이동시간이 필요하지만 유적지와 관련된 설명이 추가가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 활용 방안으로 제시할 것은 관광안내 프로그램이다. 예천 출

신이 아닌 필자는 자료만으로 접한 동학농민혁명을 추적하기 위해 예천 일대를 다녔다. 다행스럽게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유적지로 설정해 둔 곳이 있어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이라면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흔히 관광안내지도를 떠올리는데 예천군 관광안내지도에는 금당실이 있지만 동학농민군 활동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전통마을로서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관광안내지도에 동학농민군 활동 유적지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동학농민군 활동 유적지 지도’를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동학농민군 활동 유적지 지도는 곳곳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 비치하여 관광객 혹은 관람객, 예천 군민 등이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활용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역사체험 탐방 관련 코스>를 진행할 때 필요한 해설사이다. 동학농민군 활동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사가 필요하다.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매월 역사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사강좌를 해설사 양성을 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천군에서는 관내 주요 관광명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에게 문화유적지의 역사적인 얼, 의미, 유래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관광지는 회룡포, 삼강주막, 용문사, 초간정, 금당실 전통마을, 장안사 등이고, 인원제한 없이 무료로 예약을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⁴² 장소를 보면, 금당실 전통마을이 있을 뿐 예천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 및 프로그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이 가장 먼저 포착되었던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정리하고 활용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활용 방안은 이전의 프로그램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활용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들 때 기초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예천군,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은 물론, 관련 기관과 정부 등의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투고일 : 2023.10.29.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	-------------------	---------------------

참고문헌

- 『甲午斥邪錄』
- 『渚上日月』
- 『羅巖隨錄』
- 『崇禎紀元後四戊午式司馬榜目』
- 『鶴樵傳』

1. 논문

- 고순희, 「근대기 국문실기 <학초전> 연구」, 『국어국문학』 176, 2016.
- 김영진, 「동학사상과 경상도 예천지역 양반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 『학초전』 을 중심으로 -」, 『동학학보』 60, 2021.
- 신영우, 「경상감사 조병호와 갑오년의 경상도 상황」, 『동학학보』 35, 2015.
- _____,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 _____,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0, 2006.
- _____, 『갑오농민전쟁과 영남 보수세력의 대응 -예천·상주·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1894년 영남 서북부지방 농민군 지도자의 사회신분」, 『학림』 10, 1988.
- _____,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 상·하, 『동방학지』 51, 1986.
- _____,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1984.
-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최재목, 「19세기 경상도의 유교전통과 민족종교 동학 -동학 내의 '유교' 재평가를 곁에서-」, 『동학학보』 35, 2015.
- 채길순,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 -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2013.
- _____,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 -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2013.
- 윤인선, 「토고테라피의 실천으로서 『학초전』 에 나타나는 자서전적 글쓰기」, 『문학과 종교』 25, 2020.
- 이광우, 「동학농민전쟁기 경상도 유림의 향약 시행」, 『민족문화논총』 68, 2018.
- 한경희, 「동학군 기록 『학초전』 고찰」, 『동학학보』 58, 2021.
- _____, 「『갑오적사록』 에 나타난 예천 동학농민혁명 고찰」, 『동학학보』 61, 2022.
- 홍동현, 「1894년 동학농민군의 향촌사회 내 활동과 무장봉기에 대한 정당성 논리 : 경상도 예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8, 2014.

2. 단행본

- 동학학회, 『동학의 문화유적 순례』 I (영남지역 2), 2001.

- 채길순, 『새로 쓰는 동학기행』 2(경상북도 · 경상남도 · 북한편), 모시는사람들, 2021.
- 박성수 주해, 『저상일월』, 민속원, 2003.

3. 참고사이트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서울대학교 규장각
- 국립민속박물관
-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 예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블로그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경북 예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신진희(안동대학교 강사)

이 글은 경북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북 예천은 1894년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 활동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예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총 9곳이다. 1) 예천에 가장 먼저 接所를 차렸던 최맹순 父子의 집터, 2)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鄉吏들이 조직한 ‘보수집강소’ 터, 3~4) 동학농민군 근거지였던 금곡포덕소와 금당실 마을, 5) 11명의 동학농민군을 생매장했던 곳, 6) 동학농민군이 결전을 위해 武器를 탈취했던 용궁현청, 7) 동학농민군이 결전을 위해 모였던 화지도회와 금곡도회, 8) 결전을 벌였던 서정자들, 9)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全基恒)의 묘소가 있는 곳 등이다.

활용 방안으로는 유적지를 활용한 탐방프로그램과 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예천 동학농민군 가운데 전기항 외 김노연(金魯淵), 박현성(朴顯聲), 전규선(全奎選) 등 후손의 집터 등을 추적할 것과 후손의 증언 채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 前期義兵 연구자와 동학농민군 연구자의 교류가 필요한 점도 언급하였다.

이 글을 통해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예천, 동학농민혁명, 최맹순, 생매장 터, 서정자들, 전기항

Current Status and Utilization of Historic Sites Related to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Yecheon, Gyeongsangbuk-do

Shin. Jin-Hui(Andong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This article targets historical site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Yecheon, Gyeongsangbuk-do. This is because Yecheon, Gyeongsangbuk-do, was the first to capture Donghak Peasant Army activities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sang-do in 1894. There are a total of nine historical sites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Yecheon. 1) They include the site of the house of Choi Maeng-soon's, the father and son(최맹순 부자), who first set up a Jeopso(接所) in Yecheon, 2) The site of the "BoSu-JipGangso(보수집강소)" organized by 鄉吏s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3~4) Geumgok Podeokso(금곡포덕소) and Geumdangsil Village(금당실 마을), which were the base of Donghak Peasant Army, 5) where 11 Donghak Peasant Army were buried alive 6) Yonggung Hyeoncheong, where Donghak Peasant Army seized 武器 for the battle, 7) Hwaji-dohoe(화지도회) and Geumgok-dohoe(금곡도회), where Donghak Peasant Army gathered for the final match, 8) The Seojeongja-deul(서정자들) where the battle took place, 9) the grav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Leader Jeon Gi-hang(全基恒).

As a utilization plan, a tour program using historical sites and a commentator training program were presented.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house sites of descendants such as Kim No-Yeon(金魯淵), Park Hyeon-Seong(朴顯聲), and Jeon Gyu-seon(全奎選), other than Jeon Gi-hang(전기항), should be tracked down and that the testimony records of descendants should be recorded. Finally, it was mentioned that exchange between the a righteous soldier(義兵) researcher and the Donghak Peasant Army researcher was necessary.

Through this article, I hope that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Yecheon will not be forgotten and remembered.

key word : Yeche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i Maeng-soon,
The Seojeongja-deul, Jeon Gi-hang

특집논문

『홍재일기(鴻齋日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유 바 다(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

목차

1. 머리말
2. 1892~1893년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1~2월 고부민란에 대한 기록
3.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의 시작과
백산대회 기술에 대한 교차 검토
4. 1894년 4월 이후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과정에 대한 기술
5. 맺음말

1. 머리말

奇幸鉉의 『鵑齋日記』가 2011년 발견된 이래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를 다룬 연구가 셋 나왔다. 김철배,¹ 이선아,² 성주현³의 연구가 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당시 부안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김철배의 연구를 통하여 白山大會 날짜를 1894년 3월 26일로 특정할 수 있었다. 이를 이어받아 이선아는 기행현의 시각을 중심으로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고 성주현은 이를 두고 동학 교단 세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풀어내었다. 이로써 『鵑齋日記』를 통한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산대회를 3월 26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鵑齋日記』만을 사용할 뿐 기존 사료와의 충분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산대회는 지금까지 그 실체 여부 및 개최 날짜를 두고 술한 논란이 있었다.⁴

* 이 논문은 2023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김철배, 「『홍재일기』로 본 19세기 말 부안의 사회상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2016.

2 이선아, 「19세기 부안 儒生 奇幸鉉의 『鵑齋日記』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2019.

3 성주현, 「『홍재일기』를 통해 본 부안지역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2020.

4 裴亢燮, 「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 2002; 임형진, 「백산대회와 동학농민혁명-논쟁점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25, 2012; 배항섭,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韓國史研究』 170, 2015; 조성운,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歷史와 實學』 61, 2016; 하우봉,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위상」, 『전북사학』 50, 2017; 박대길,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 과정에서 백산대회의 위상」, 『동학학보』 62, 2022.

백산대회가 吳知泳의 『東學史』에서만 언급된 탓이었다. 반면 백산대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대를 기록한 사료들은 상호 착종되어 있어 매우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단적으로 2006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편한 『동학농민혁명사 일지』에 따르면 신용하, 정창렬은 백산대회 개최 날짜를 3월 25일로 비정하면서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梧下記聞』, 『隨錄』 등을 검토해 볼 때 백산대회가 개최된 시점은 동학농민군 본대가 백산과 예동으로부터 태인 화호로 이동하여 주둔한 3월 26일 저녁 6시경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 따라서 백산대회 개최 날짜를 『鵑齋日記』의 기술대로 3월 26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사료와의 충분한 대조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鵑齋日記』를 통하여 특정된 백산대회 개최 날짜를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를 재구하기 위하여 구사하였던 기존 사료들과 교차 검토하여 정확히 드러내도록 하겠다.

그밖에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이전 동학교도의 활동, 그리고 제1차 봉기 이후 제2차 봉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동학농민군의 활동 또한 기행현의 시각으로 재구하고자 한다.

2. 1892~1893년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1~2월 고부민란에 대한 기록

기행현은 1890년 7월 29일 東學을 처음으로 기록하였다. “동학의 설이 크게 일어났다”⁷⁶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은 1891년 7월 24일, 9월 8일에

도 똑같이 이루어졌다.⁶ 이때 이미 동학이 상당히 창궐한 탓인지 향교의 靑衿案 가운데 동학의 사람은 제명하여 내보내고 訓執 가운데 만약 동학의 사람이 있다면 역시 제명하여 내보내자는 뜻으로 계를 만들고 의회계 안에 이름을 썼다.⁷ 1892년 7월 19일에는 관가가 대대적으로 東學人을 다스려 贖錢 300냥을 거두었고⁸ 8월 11일에는 향교에서 동학을 적발하라는 회문이 왔다.⁹

드디어 같은 해 10월 30일 동학교도의 공주 집회 소식이 들려왔다. “東學人들의 공주 감영에 모두 모였고 근일에는 전주 감영에 모였다”는 것이다.¹⁰ 11월 30일에는 “바르게 도를 닦을 일”이라는 題辭를 지닌 東學人의 議送狀을 보았다.¹¹

이듬 해 1893년 3월 11일에는 東學人들이 伏閣한 일을 들었다.¹² 동학교

5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기념사업회, 『홍재일기(鴻齋日記) 탈초집(脫草集)』, 흐름출판사, 2017, 330쪽, 庚寅(1890) 7월 29일, “東學之說大起”;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문화발전소, 2022, 576쪽.

6 『鴻齋日記』, 347쪽, 辛卯(1891) 7월 24일, “東學之說大起”; 350쪽, 辛卯(1891) 9월 8일, “此時東學之說大熾 故誦此時”; 『국역 홍재일기』 상, 611쪽.

7 『鴻齋日記』, 350쪽, 辛卯(1891) 9월 15일, “鄉論齊發 校中靑衿案中 東學之人割名送出 訓執中若有之 則亦割名出送之意 以義會作稷題名 義會稷案中”; 『국역 홍재일기』 상, 616쪽.

8 『鴻齋日記』, 369~370쪽, 壬辰(1892) 7월 19일, “官家近日大治東學之人 而受贖三百兩云”; 『국역 홍재일기』 상, 659쪽.

9 『鴻齋日記』, 371쪽, 壬辰(1892) 8월 11일, “自校中東學摘拔之回文來到”; 『국역 홍재일기』 상, 661쪽.

10 『鴻齋日記』, 374~375쪽, 壬辰(1892) 10월 30일, “近聞東學之人 都聚于公州監營矣 近日會于全州監營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669쪽.

11 『鴻齋日記』, 376쪽, 壬辰(1892) 11월 30일, “往禮洞金友仲賢家 見東學之人議送狀題曰 以正修道向事矣”; 『국역 홍재일기』 상, 671~672쪽.

12 『鴻齋日記』, 382쪽, 癸巳(1893) 3월 11일, “故問京奇 則東學之人伏閣事”; 『국역 홍재일기』

도의 광화문 복합상소도 관측된 것이다. 3월 21일에는 東學人 朴文濤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정황을 들었다.¹³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학이 복합한 후 계하 관문에 이르기를 ‘삼천리 강산의 오백년 성학이 방백 수령의 상호 침어로 부지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이후로 침어하지 말라. 향교에서는 강학을 하도록 하고 만약 다시 침어하는 방백 수령이 있거든 법률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또 ‘『禮記』에 이르기를,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학문에 있다고 하니 우리의 올바른 도를 강구해서 밝혀야 한다. 너희들은 물러가 더욱 익히고 닦는 일에 힘쓰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異說은 조정에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관문의 내용은 『日本外交文書』에서도 눈에 띈다.¹⁵ 다음으로 이미 금구 원평에 동학인들이 진을 이룬 정황이 다음과 같이 포착되었다.

東學人 30여 명이 금구 원평에 이미 모여 진을 이루었는데 진법은 弓乙陣이고 깃발의 이름은 倡義旗인데 거기에 ‘忠義之士에게 묻고 도모하여 저

기』 상, 683쪽.

13 『鶴齋日記』, 382쪽, 癸巳(1893) 3월 21일, “東學人朴文濤來 自言曰; 『국역 홍재일기』 상, 685쪽.

14 『鶴齋日記』, 382쪽, 癸巳(1893) 3월 21일, “東學伏間後 啓下關文曰 三千里之江山五百年之聖學 方伯守令 互相侵漁 莫可扶支云 自今以後 勿爲侵漁 自校宮 使之講學 若復有侵漁之 方伯守令 依律施行事云 而又曰 記曰化民成俗 其必有學講明斯道 汝等宜惟退 去益勉講修 則何患乎 異說自朝家宜處向事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685쪽.

15 『日本外交文書』 26권, 「東學派舉動情報ノ件」, 417~420쪽, “右建言書ニ對スル國王殿下ノ勅答 館學儒生進士李健重等上疏大概、敢陳衛斥之義、乞賜允俞之音、事入、啓答曰、省疏具悉、謂曰化民成俗、其必由學、講明斯道、則何憂乎邪說之不伏乎、自有朝家之處置、爾等諒悉、益勉莊修”.

왜양을 쓸어 버리자라고 써있으며, 다음 달 2일 행군하여 팔도가 함세하여 왜양을 쫓아내자고 한다.¹⁶

斥倭洋倡義를 부르짖은 금구 집회가 포착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5일에는 동학에 대한 내용의 전주 통문이 향교에 왔다.¹⁷ 4월 11일에는 “동학의 무리는 각자 물러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라는 윤음을 받고 각자 향리로 돌아갔다. 전날의 소동이 다스려졌으니, 조금도 놀라지 말라는 뜻으로 면내 각리에 칙유하라. 壬辰條 檢稅色吏도 또한 신칙하여 입현하도록 하라”는 관하첩이 왔다.¹⁸ 금구 집회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당분간 『鴻齋日記』에 동학에 관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다가 1894년 1월 12일 드디어 고부민란 소식이 들어왔다. 고부에서 민란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때 趙秉甲이 도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¹⁹ 1월 10일 일어난 고부민란 소식이 사흘만에 당도한 셈이었다. 1월 29일에는 고부에서 민란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기록하였다.²⁰ 2월 11일에는 禮吏 金應建이 고부의 민란이 일어난 곳에 간다고 하였다.²¹ 2월 25일에는 고부의 민

16 『鴻齋日記』, 382쪽, 癸巳(1893) 3월 21일, “東學之人三千餘名 已會于金溝院坪成陣 陣法弓乙陣 旗名倡義 旗書曰 誨謀忠義之士 掃彼委洋事云”; 『국역 홍재일기』 상, 685쪽.

17 『鴻齋日記』, 383쪽, 癸巳(1893) 4월 5일, “近東學之意 全州通文 來到校中”; 『국역 홍재일기』 상, 686쪽.

18 『鴻齋日記』, 383~384쪽, 癸巳(1893) 4월 11일, “官下帖來到 而東學之類 既承使各退歸 安業之綸音 各歸鄉里 前日騷訛更無爲憂 少勿驚動之意 飭諭於面內各里 壬辰條檢稅色吏 亦爲飭送入現云”; 『국역 홍재일기』 상, 687쪽.

19 『鴻齋日記』, 397쪽, 甲午(1894) 1월 12일, “近日古阜民亂大起 而時倅趙炳甲逃走云”; 『국역 홍재일기』 상, 712쪽.

20 『鴻齋日記』, 398쪽, 甲午(1894) 1월 29일, “古阜民亂去益甚”; 『국역 홍재일기』 상, 713쪽.

란이 갈수록 심해져 刺客 27인이 자칭 胡兵隊라고 하면서 민란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혀서 1인이 죽었다고 하였다.²² 여기서 胡兵隊는 淸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정황은 자못 엄중하였는지 2월 27일에는 부안에서도 고부의 민란에 대한 일로 장병을 모집하여 守城하기에 이르렀다.²³ 여기까지가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기행현이 보고 들은 정황이다.

3.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의 시작과 백산대회 기술에 대한 교차 검토

『鴻齋日記』 甲午 3월에는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의 시작 및 백산대회에 대한 기술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3월 23일 東學人 4000여 명이 남쪽에서 古阜 白山에 다시 모인다고 한다.²⁴

3월 24일 東學人이 크게 일어났다.²⁵

21 『鴻齋日記』, 398쪽, 甲午(1894) 2월 11일, “禮吏金應建書來 而方作古阜民擾之行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15쪽.

22 『鴻齋日記』, 399쪽, 甲午(1894) 2월 25일, “古阜民亂去益甚 刺客二十七人 自稱胡兵隊 互入民亂中 還爲捉囚一人被死矣”; 『국역 홍재일기』 상, 716~717쪽.

23 『鴻齋日記』, 399쪽, 甲午(1894) 2월 27일, “本邑以古阜民亂事 募軍守城云”; 『국역 홍재일기』 상, 717쪽.

24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3일, “東學之人四千餘名 自南更會古阜白山云”; 『국역 홍재일기』 상, 719쪽.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 古阜邑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 2, 3명이 해를 입었다고 한다.²⁶

3월 26일 東學人이 茂長, 高敞, 興德, 古阜 4읍에서 軍器를 탈취하고 古阜 馬項에 모였다고 한다.²⁷

3월 27일 東學軍이 어제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 本邑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道所峯에 올라가 바라보았는데 거취를 알 수가 없어서 곧장 내려 왔다. 친구 崔友壽이 聖云과 함께 다녀갔다. 東學軍은 즉각 全州로 향했다고 한다.²⁸

이를 『隨錄』 등 기존 자료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23일 東學人 4,000여 명은 근거가 뚜렷하다. 3월 23일 도착한 부안현감 李喆和의 牒呈을 보자.

이달 23일 巳時(오전 9~11시) 무렵에 어느 곳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십여 명이 머리에 황건을 쓰고 손에는 쇠로 된 창과 죽창을 잡고 본 현의 흥덕 줄포에 도착하였는데, 점심 밥 3,500상을 배정하여 마련해 달라고 알려 왔

25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4일, “東學之人大起”; 『국역 홍재일기』 상, 719~720쪽.

26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5일, “東學之人昨入古阜邑 君器奪取 而火藥庫火燃 人名數三人被害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0쪽.

27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6일, “東學之人 茂長高敞興德古阜四邑 軍器奪取 屯聚於古阜馬項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0쪽.

28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7일, “東學軍昨日移陣白山 而今日入本邑云 故登道所峯 望見則不知去就 故卽爲下來矣 崔友壽兼與聖云來去 東學軍卽向全州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0~721쪽.

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2,000~3,000명이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각각 총과 창을 가지고 와서 줄포의 射亭에 모였는데, 깃발의 구호는 仁, 義, 禮, 智, 信을 쓰거나 혹은 順天, 光州라고 썼습니다. 행색이 수상하여 심히 놀라웠습니다.²⁹

이牒呈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이미 3월 23일 오전 줄포에 당도하여 점심 밥 3,500상을 배정하여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4,000여 명에 근접한다. 실제로 이날 2~3,000명이 줄포의 射亭에 모였다.

둘째, 3월 23일 이들이 古阜 白山에 다시 모인다는 기술도 신빙성이 있다. 같은 부안현의 牒呈을 보도록 하자.

부안현 줄포에 와서 모인 무리들은 3월 23일 酉時(오후 5~7시) 무렵에 줄포에서 출발하여 고부로 향할 것입니다.³⁰

이牒呈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같은 3월 23일 오후 무렵에 줄포에서 출발하여 고부로 했다. 古阜 白山에 다시 모인다는 기술과 상통한다.

셋째, 동학농민군은 실제로 3월 23일 이미 고부읍내로 진입하였다. 3

29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今月二十三日巳時量 不知何許人十餘名 頭着黃巾 手執鐵鎗竹鎗 來到本縣茁浦 午飯三千五百床知委排定矣 追後數三千名 或騎或步 各持銃鎗 來聚茁浦射亭 而旗號說書仁義禮智信 或書順天光州 行色殊常殊 甚驚駭是如白乎跡”; 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編,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996, 159~165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5~8쪽.

30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本縣茁浦來會之類 同日酉時量 自該浦離發 將向古阜是加爲白乎跡”;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9~165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5~8쪽.

월 24일 도착한 고부군의 공형이 文狀으로 급히 보고한 내용을 보자.

고부군수가 부임하여 취임인사를 하기 위해 감영으로 빨리 나아갔고, 3월 23일 戌時(오후 7~9시) 무렵에 동학도 3,000여 명이 혹은 창을 지니고 혹은 죽창을 지녔는데, 총을 쏘면서 읍내로 난입하였습니다. 말을 탄자가 20여 명이었으며, 모두 향교와 관청건물에 모였습니다. 저녁밥은 읍내의 서리와 민가에 나누어 분담하도록 정하였으며, 그들이 행패를 부린 것은 끝이 없었습니다.³¹

넷째,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3월 24일) 古阜郡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는 내용도 근거가 뚜렷하다. 3월 25일 도착한 고부군의 공형이 文狀으로 급히 보고한 내용을 보자.

저들 무리들이 軍器庫로 향해 가려다가, 먼저 실수로 火藥庫에 불을 내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자가 몇 명이었고, 창에 찔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未時(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4개 읍의 보고와 문장에서 보고한 것으로 그들의 수를 세어보면, 혹은 수천 명이라 하고, 혹은 3,000여 명이라 하며, 또는 2,000명에서 3,000명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쪽은 많고 저쪽은 적어서 숫자가 비록 같지 않으나, 처음엔 평민들이 없고 모두 동도였는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서 갈수록 뒤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31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本郡開府延命次 馳進營下 二十三日戌時量 東學徒三千餘名 或持鎗劍 或持竹鎗 放砲攔入于邑內 乘馬者爲二十餘名 皆聚于鄉校及公廨 夕飯分定于邑底吏民家 其所作梗 罔有紀極是如爲白乎跡”;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9~165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5~8쪽.

저들은 대나무를 잘라 창을 만들고 포와 검을 거두어들였으며, 인가를 부수고 돈과 곡물을 찾아내어 빼앗는 등의 여러 정상은 이미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이 창궐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약고에 실수로 불이 붙었다고 말한 것은 비록 매우 모호하지만 그들의 행동들은 매우 놀랄 정도입니다. 잇달아 향교에서 발생한 일은 전에 없었던 일로 매우 놀랍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를 만일 빨리 무찔러 없애지 않으면 장차 오랫동안 시끄러워질 염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도와 전략을 궁구하여 잡아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고부 고을의 백성들은 두려운 나머지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에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길거리에서 소문이 서로 전해져서, 마을 사이에도 이제는 괜히 놀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막 농사철이 되는데도 떠나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일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연유를 보고합니다.³²

이牒呈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3월 24일 軍器庫로 향해 가려다가, 먼저 실수로 火藥庫에 불을 내어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즉사하였고 창에 찔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자도 또한 많았다. “古阜邑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는 기술과 일치한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무렵에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 그 수는 역시

32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彼徒將向于軍器庫是如可 先自失火於火藥庫 當場卽死者 爲幾許名 被鎗幾死者亦多 而未時量 出往于郡之西北間路上是如爲白乎跡 今以四邑之報與文狀數之 或爲幾千 名或爲三千餘名 又或爲數三千名 此多彼少數 雖不同 初無平民 俱是東徒 而東閃西忽 去益跳踉是白乎跡 刈竹爲鎗 收取砲劍 打破人家 攫奪錢穀之諸般情常已極 猖獗是白芻除良 火藥庫之失火云者告辭 雖甚模糊 舉措尤爲駭聽 至於接蹤於鄉校事 未前有萬萬驚悚 此若不亟圖剿滅 將有繹騷之慮 另究方略 期圖捕捉爲白在果 古阜一境之民 餘怕未定 後鬧更起 道路之上 風寫相傳 閭里之間 方爲虛驚 迨此方農佃離相續 言念民事 誠甚憧憧 緣由事”;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9~165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5~8쪽.

2~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3월 26일 東學人이 茂長, 高敞, 興德, 古阜 4읍에서 軍器를 탈취하고 古阜 馬項에 모였다는 기술은 대체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茂長, 高敞, 興德, 古阜는 3월 20일 동학농민군이 茂長에서 기포한 뒤 북상한 경로에 있다. 다음으로 朴文圭의 『石南歷史』를 보도록 하자.

나는 3월에 定婚이 되어 4월 초3일이 大禮日이었다. 이때 인심이 擾動하고 流言이 흥흥하더니 초2일에 東學軍이 茂長 林內 안 산골 속에서 무리를 모아서는 茂長·高敞·古阜의 3~4개 군을 함락시키고 軍器를 탈취해서 말목 禮洞으로 行進하여 백산으로 진을 옮겼다.³³

『石南歷史』는 1879년생인 朴文圭가 73세에 달하여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내용을 자필로 기술한 문건이기 때문에 날짜는 다소 부정확하다. (4월) 초2일에 동학 東學軍이 茂長 林內 안 산골 속에서 무리를 모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히 3월 20일의 무장기포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날짜는 무시해도 좋다. 다음으로 “茂長·高敞·古阜의 3~4개 군을 함락시키고 軍器를 탈취해서 말목 禮洞으로 行進하여 白山으로 진을 옮겼다”는 기술은 “東學人이 茂長, 高敞, 興德, 古阜 4읍에서 軍器를 탈취하고 古阜 馬項에 모였다”는 『鴻齋日記』의 기술과 거의 일치한다. 동학농민군이 3월 26일 이전 馬項(말목)에 모였다는 기

33 『石南歷史』, 「甲午年正月」, “我나는三月에定婚되어四月初三日이大禮日이다人心이擾動하고流言이凶凶하더니初二日에東學軍이茂長林內안山골속에서聚重하화茂長高敞古阜三四郡을咸城하야軍器을奪取해가지고말목禮洞으로行進을하와白山으로移陣을하고있다”;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4쪽.

술은 거의 사실로 보인다.

다음으로 『石南歷史』의 “白山으로 진을 옮겼다”는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술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3월 26일 이전 말목에 모였다가 白山으로 진영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따라서 3월 27일 東學軍이 어제(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 本畵에 들어왔다는 기술 또한 당시의 상황과 부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鴻齋日記』 3월 26일의 기술과 『石南歷史』의 기술을 다시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여기에 『隨錄』 기술된 3월 26일 낸 태인현의 보고까지 첨부한다.

『鴻齋日記』

-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3월 24일) 古阜畵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 2, 3명이 해를 입었다고 한다.
- 3월 26일 東學人이 茂長, 高敵, 興德, 古阜 4읍에서 軍器를 탈취하고 古阜 馬項에 모였다고 한다.
- 3월 27일 東學軍이 어제(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 本畵에 들어왔다고 한다.

『石南歷史』

- 茂長·高敵·古阜의 3~4개 군을 함락시키고 軍器를 탈취해서 말목 禮洞으로 行進하여 백산으로 진을 옮겼다.

『隨錄』

- (3월 23일 부안현감 李喆和의 牒呈) 이달 23일 巳時(오전 9~11시) 무렵에 어느 곳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십여 명이 머리에 황건을 쓰고 손에는 쇠로 된 창과 죽창을 잡고 본 현의 흥덕 줄포에 도착하였는데, 점심 밥

- 3,500상을 배정하여 마련해 달라고 알려 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2,000~3,000명이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각각 총과 창을 가지고 와서 줄포의 射亭에 모였는데, 깃발의 구호는 仁, 義, 禮, 智, 信을 쓰거나 혹은 順天, 光州라고 썼습니다. 행색이 수상하여 심히 놀라웠습니다.
- (3월 24일 도착한 고부군 공형의 文狀) 3월 23일 戌時(오후 7~9시) 무렵에 동학도 3,000여 명이 혹은 창을 지니고 혹은 죽창을 지녔는데, 총을 쏘면서 읍내로 난입하였습니다.
 - (3월 25일 도착한 고부군 공형의 文狀) 저들 무리들이 軍器庫로 향해 가려다가, 먼저 실수로 火藥庫에 불을 내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자가 몇 명이었고, 창에 찔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未時(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 저들 무리들이 점차 전진하여 막 금구 원평에 이르렀는데, 순영문에서는 곧 甘結을 내어서 감영 직할지와 가까운 읍에서 포군 수백 명과 祿商 수백 명을 뽑아 올리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병정들과 함께 성 안팎의 이 민들을 묶어서 龍頭峙로 출진하게 하여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³⁴
 - (3월 25일 금구현의 보고) 저들 무리들이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머물러 있으며, 전주로 향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원평의 마을 두민의 문장에 의거하여 이에 첩보합니다.³⁵
 - (3월 25일 未時 고부군 공형의 文狀) 저들 무리들이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다가, 화약고가 실수로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다.³⁶

34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彼輩次次前進 方此於金溝院平 而營門 則營下近邑 砲軍幾百名 祿商幾百名 發甘抄上 竝與兵丁 城內外吏民 作結出陣龍頭峙 晝宵防禦耳”;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9~165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5~8쪽.

35 『隨錄』, 「營寄」, “以彼徒輩中 火於泰仁 止宿於院平 將向全州云云之意 卽城院平洞頭民文狀 玆以牒報事”;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77~192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12~24쪽.

- (3월 26일 태인현의 보고) 당일(3월 26일) 酉時(오후 5~7시) 무렵 저들 무리들이 古阜의 白山 禮洞에서 일시에 산을 내려와 본 읍의 龍山面 禾湖 新德亭里로 옮겨 주둔하고 총을 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세력이 매우 커서 방어할 계책이 없다.³⁷
- (태인 공형의 문장) 지금 3월 29일 저녁 그들 무리들이 곧바로 동헌에 들어와서 군사들을 풀어놓았으며, 또 내아로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고 고향을 쳐서 제반 광경이 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삼반관속들이 모두가 도망하였고, 본 현감에게 요청하여 印符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그들을 질책하고 주지 않았더니, 그들이 화를 내면서 칼을 견주었습니다. 비록 빼앗기지는 않았으나, 세력이 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형 또한 전주 이세봉과 함께 아울러 잡혀 들어가서 결박되어 관청 마당에서 주리를 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루 밤을 지나서 지금에야 비로소 풀려났으며, 이제 겨우 급히 보고합니다.³⁸

이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3월 23일 오전 9~11시 동학농민군 일부가 흥덕 줄포에 도착하였다. 그 뒤를 따라서 2~3,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줄포의 射亭에 모였다. 이

36 『隨錄』, 『警寄』, “以彼徒進屯於斗池面 火藥庫失火燒燼事”,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77~192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12~24쪽.

37 『隨錄』, 『警寄』, “以當日酉時量 彼黨自古阜白山禮洞一時下山 移屯於本邑龍山面禾湖 新德亭里 放砲喊 其勢浩大 防禦沒策”,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77~192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12~24쪽.

38 『隨錄』, 『警寄』, “以今三月二十九日夕 厥徒直入東軒縱兵 又入內衙 揮劍咆喝 諸般光景 罔有記紀極 三班官屬 舉皆鼠竄 要請本縣監 欲奪印符 叱責不給 則發怒擬劍 雖不見奪 勢孤力單 莫敢抵當 公兄亦被捉入竝與全州李世鳳 同爲結縛 股釵於庭下 不省精神 一夜經過 而今始得放 今纔馳告事”,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77~192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12~24쪽.

들은 오후 7~9시 고부읍으로 진입하였다.

3월 24일 동학농민군이 고부읍에서 軍器庫를 탈취하고 火藥庫를 불태웠다. 당일 오후 1~3시 무렵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古阜 馬項(말목)에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활동은 『鴻齋日記』에 따르면 분명히 3월 24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隨錄』에 보고일(3월 25일 도착한 고부군 공형의 文狀)을 기준으로 이 활동이 3월 25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³⁹ 기행현은 분명히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3월 24일) 古阜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고 기술하였다.

추가적으로 화약고는 기행현의 진술대로 고부읍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隨錄』의 3월 25일 未時 고부군 공형의 文狀에 따르면 “저들 무리들이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다가, 화약고가 실수로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다”라고 되어 있어 마치 화약고가 두지면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중인 『1872년 지방지도』 중 古阜 항목에 따르면 斗池는 곧 斗之로 추정되며 馬項 바로 서편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은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斗池里다. 馬項, 즉 말목장터도 지금 현재 이평면 두지리에 있다. 斗之와 馬項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 『1872년 지방지도』에도 나타나지만 고부 화약고가 斗之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 고부 화약고가 읍내로부터 상당 거리 떨어진 이평 斗之에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9 裴亢燮,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 2002, 37~38쪽.

『梧下記聞』 「茂長縣布告」 기사에 따르면 “고부군 보고에 저들 무리들이 本郡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였고 화약고가 불탔다”⁴⁰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隨錄』 에 기재된 3월 25일 未時 고부군 공형의 文狀을 따른 것이다. 이 문장 때문에 고부군 화약고가 두지면에 있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872년 지방지도』 에 따르면 武器庫, 즉 武庫는 고부읍내 內衙 동편에 있었다. 그리고 “저들 무리들이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였다고 하니 동학농민군 주력은 3월 24일 분명히 古阜 馬項(말목), 斗池에 주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도 1> 고부읍내 軍器庫(武庫) 및 馬項 서쪽 斗池의 위치 (『1872년 지방지도』)

40 『梧下記聞』, 「茂長縣布告」, “同日未時 古阜郡報 彼輩進屯本郡斗池面 火藥庫燒燼;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56쪽.

3월 25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의 활동은 불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鵑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말미의 기술 및 (3월 25일 금구현의 보고)에 따라 이들이 태인과 금구 원평방면으로 향하였다가 이 가운데 일부는 3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숙영하였다고 하였다.⁴¹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사 일지』⁴²에 따르면 태인, 금구, 원평 방면의 활동은 김개남이 활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개남의 근거지는 태인이었다. 적어도 3월 24일 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던 동학농민군 주력이 3월 25일 금구 원평까지 진출하였다가 3월 26일 백산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石南歷史』도 동학농민군이 “軍器를 탈취해서 말목 禮洞으로 行進하여 백산으로 진을 옮겼다”고 기술하였다. 금구 원평으로의 진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3월 25일 동학농민군 주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鵑齋日記』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어제(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3월 27일) 本畵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적어도 백산으로의 진영 이동은 3월 26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월 24일 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던 동학농민군이 그 이

41 배향섭, 앞의 논문, 37~38쪽.

4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2006, 39~47쪽, “김개남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일부의 동학농민군은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그날 밤을 머물렀다(『梧下記聞』 『叢書』 1, 56쪽 『鵑錄』 『叢書』 5, 178쪽). 이상의 사실로 볼 때 3월 25일 현재 전봉준 부대는 고부의 동북쪽에 있는 백산이 아닌 고부 서북쪽에 있는 군기고를 공격하였으며 그날 밤은 고부 백산과 예동에서 숙영하였다. 또 김개남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숙영하였다.”

후 古阜 馬項(말목)에 모였을 것이고 그 시각은 최대한 3월 26일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생각보다 장기간 古阜 馬項(말목)에 머무르다 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겼다고 볼 수 있다.

3월 26일 白山에 진영을 꾸린 동학농민군은 당일 오후 5~7시 무렵 古阜의 白山 禮洞에서 일시에 산을 내려와 본 태인의 용산면 禾湖 新德亭 里로 옮겨 주둔하고, 총을 쏘며 소리를 질렀다. 이를 보면 백산대회는 3월 26일 만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고 당일 오후 5~7시 무렵에는 이미 산을 내려와 태인 방면에서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3월 27일, 28일의 행적은 잘 알수가 없고 3월 29일 태인읍으로 진입하였다.

이상과 같이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당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의 진로를 『鵬齋日記』를 중심으로 기존 자료와 교차 검토하였다. 이를 지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2>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진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활용)

보다시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 2~3,000여 명은 3월 23일 오전 9~11시 무렵 홍덕 줄포 사정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9시 무렵 고부읍으로 진입하였다. 3월 24일에는 군기고를 탈취하

고 화약고를 불태웠다. 그리고 오후 1~3시 무렵 서북쪽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같은 날 고부 馬項(말목)에 주둔하였다. 최대 3월 26일까지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금구 원평으로 향한 부대는 김개남 부대다.

3월 26일 동학농민군은 백산으로 진을 옮겨 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7 무렵 산을 내려와 태인 용산면 禾湖 新德亭里로 옮겨 주둔하였다. 그리고 3월 29일 태인읍으로 진입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로를 살펴 볼 때 백산대회는 1894년 3월 26일에 이루어졌다. 『鴻齋日記』에서 이들을 두고 東學軍이라고 지칭하여 주목된다.

4. 1894년 4월 이후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과정에 대한 기술

1894년 4월 들어 기행현은 金洛喆의 활동을 포착하였다. 4월 1일 金汝中黨 수백인이 分土洞 김씨 재실에 모여 진을 쳤다.⁴³ 다음 날 이들은 자못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벌였다.

金汝中黨 40여 인이 성안으로 돌입하여 獄門을 부수고 군정을 모두 放出하고 곧장 동헌에 들어가 부안현감을 책망하기를, ‘어찌 군정을 모집하였느냐’라고 하고 다시는 군정을 모집하지 말라는 뜻으로 신신당부하였다.

43 『鴻齋日記』, 401~402쪽, 甲午(1894) 4월 1일, “望見則長曷里金汝中黨數百人 屯聚于分土洞金齋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1쪽.

오늘 布告文을 南門에 붙이고 이방과 호방을 붙잡아 가서 백미 10섬과 돈 200냥을 즉시 납부하라는 뜻으로 분부하고 내보냈는데 본관이 크게 분노하며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 毘弊와 民瘼 등 여러 조목을 糾定하라는 뜻을 윤시하였다.⁴⁴

이는 부안현에서 읍저의 건장한 자들 100명을 군정으로 모집하고 金邦憲을 領舉大將으로 삼아 올려보내기 위해 陣軍한 행위⁴⁵를 규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부안에서도 김낙철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호응하여 4월 4일 동학농민군 10,000여 명이 다음과 같이 부안읍성을 함락하였다.

동학군 10,000여 명이 뜻하지 않게 입성하여 일시에 성을 함락하였다. 본관이 바야흐로 도피하는데 저들이 알고 東軒으로 잡아들였는데 그때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는 형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저녁에 향교에 들어갔는데 上齋와 夏齋에 사람 하나 없이 적막하였다. 도로 나와서 성안을 바라 보니 불꽃이 하늘에 가득하였고, 총을 쏘는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였다.⁴⁶

44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2일, “金汝中黨四十餘人 突入城中 破碎獄門 軍丁盡爲放出 直入東軒 責本倅曰 何爲募丁巾 更勿募丁之意 信信語之矣 今日則布告文付之南門 吏戶捉去 白米十石錢二百兩 卽納之意 分付出送 而本官大怒不聽云矣 又有毘弊民瘼諸條 糾定之意輪示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2쪽.

45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2일, “昨日募軍 邑底壯健者百名 以金邦憲爲領舉大將 上送之意 陳軍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2쪽.

46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4일, “東學軍萬餘名 不意入城 一時涵城 官方逃避 彼軍知之捉致 東軒其時困狀難可形容云 暮入校宮 上下齋寂無一人 邇來望見城中 火光漲天放炮聲振動天地”; 『국역 홍재일기』 상, 722~723쪽.

이어서 4월 5일에는 다음과 같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활동이 일어났다.

다시 읍에 가서 南城에 올라 동학군의 陣中을 밟 보니 旗幟와 劍戟, 鼓角, 火炮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다. 정오에 上蘓山에 늘어선 陣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 왔다. 京兵이 감영병과 더불어 四面에 서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는데 西海에서 대포 소리가 6, 7차례 진동하였다. 吏屬무리, 鄉儒와 班常을 따지지 않고 죄가 있는 사람, 毀道한 자를 종일토록 嚴刑하였고 邑規를 정했다고 한다. 鄉儒와 堂掌이 도피하여 향교의 문서 상자를 얻을 수 없어서 밀고 들어가 靑衿案과 校生案을 불태웠다고 한다.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왔다. 우리 마을 동학인 朴文表가 도착하였다. 그래서 물었더니 본읍에 일이 많고 경병과 감영병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⁴⁷

1894년 5월 8일 전주화약 이후 본격화하는 폐정개혁 활동의 시초가 엿보여 주목된다. 이윽고 4월 6일 황토현전투의 서막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읍에 가서 東學人이 출발하는 것을 보았는데, 陣勢가 아주 엄정하였다. 5세 아이와 14세 아이가 魁首라고 한다. 다시 도소봉에 올라가 바라 보니

47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5일, “更往邑 登南城 望見東學軍陣中 旗幟劍戟鼓角 火炮掀天 日午登上蘓山列陣 卽爲下來矣 京兵與營兵四面立至云 而日暮西海大炮聲六七次振動矣 吏屬輩鄉儒與無論班常有罪之人 毀道者 終日嚴刑 定邑規云 而鄉儒與堂掌逃避 不得鄉校文書櫃 推入靑衿案與校生案燒火云 日暮歸家本村東學人朴文表來到 故問則本邑多事 而京兵與營兵不可畏也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3쪽.

사거리에서 곧장 외요촌을 향하여 中橋를 넘어 고부의 上基 뒤에 이르렀다가 내려 왔다. 감영의 병정이 성으로 들어왔는데 본관이 도주하여 府中이 텅 비었다고 한다. …… 저녁을 먹은 후에 동현에 들어가서 우리 현감을 만나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왔다. …… 본관은 진짜 도주한 것이 아니었고 王師를 맞이할 생각으로 東津에 갔다가 왔다고 한다. 감영병은 백산에서 고부로 곧장 향했다고 한다. 『古秘記』에 이르기를 癸巳年 7월에 사망 들녘이 하얗고 甲午年 5월에는 萬人이 푸르리라'고 하였다.⁴⁸

이를 통해 부안을 빠져나간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다시 고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부안현감은 생존하였다. 동학농민군에게 살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癸巳年 7월에 사망 들녘이 하얗고 甲午年 5월에는 만인이 푸르리라”는 『古秘記』의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황토현전투의 구체적인 정황이 들려왔다.

감영병 만여 명이 東學陣을 고부 황토현에서 마주쳐서 서로 싸웠는데 감영병 수천 명이 沒死하였다. 그런데 죽은 동학인은 단지 2, 3명이라고 한다. 中軍將 李在燮은 도주하였다고 한다. 향교에서 나오다가 장갈리 동학인 김여중을 마주쳤는데 듣자니, 우리 읍도 바야흐로 후환이 있을 것이니 누구든 따질 것 없이 삼가 피신하라고 하였다.⁴⁹ …… 고부의 接戰에 대해

48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6일, “往邑見東人發行 陣勢極爲嚴靜 而五歲童與十四歲童爲魁首云 更登道所峯望見則自四巨里卽向外蓼村 越中橋 至古阜上基後下來 聞營門兵丁入城 而本倅逃走 府中一空云 …… 夕飯後 入東軒 見本倅問慰而來 …… 而本官眞非逃走也 迎王師之意 往東津而來云 營兵白山直向古阜云 聞古■秘記曰 癸巳七月四野白 甲午五月萬人靑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3~724쪽.

49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7일, “營兵萬餘名 遇東學陣於古阜黃土峙 相戰而營兵數千名沒死 而東學人死者 但二三名云矣 中軍將李在燮逃走云矣 自校出來 達長

다시 들으니 동학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감영병의 경우 더러 100여 명, 더러는 천 여명이 죽었다고 한다. 동학인이 지나간 곳은 풀 한 포기 밟히지 않고 벌레 한 마리 죽지 않았는데, 감영군이 지나간 곳에는 殘滅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한다. 營軍將 4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宋四川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 동학인은 흥덕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⁵⁰

동학농민군의 황토현전투 대승 소식이 들린 것이다. 그리고 “동학인이 지나간 곳은 풀 한 포기 밟히지 않고 벌레 한 마리 죽지 않았는데, 감영군이 지나간 곳에는 殘滅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한다”는 언급을 통하여 동학농민군이 감영병에 비하여 인심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로는 兩湖招討使 洪啟薰의 활동이 포착되었다. 4월 14일 홍계훈이 全州 府中으로 들어와서 金世豐을 죽이고 監司 金文鉉의 죄를 따져 묻은 정황을 들었다. 여기서 金世豐은 金始豐이다. 이때 동학농민군은 茂長으로 향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정에서 東學과 더불어 私和한다는 소식도 들렸다.⁵¹ 全州和約의 조짐이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장성 황룡촌전투 소식도 들렸다.

葛里東學人金汝中 聞本邑方有後患 無論某人謹避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4쪽.

50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9일, “更聞古阜接戰事 東學之人無一人死者 營兵死者 或云百餘名 或云千餘名 而東學之人 所過不踏一生草 不殺一生虫 營軍所過處 無不殘滅云 營軍將四人被死 而宋四川亦在其中云矣 東學之人移去興德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4쪽.

51 『鴻齋日記』, 403쪽, 甲午(1894) 4월 14일, “招討使洪在希還去府中 殺金世豐 數罪監司 金文鉉云 東學之人去茂長云矣 林友自校來去 偵探使下去茂長東學所 而朝家與東學 欲爲私和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5쪽.

우리 마을 東學人 姜一奉이 도착하였다. 때문에 물었더니 지난 23일 午時에 長城의 月坪에서 접전하였는데 죽은 京軍이 수백 명이었고 동학인은 수십명이 죽었다고 하였다. 어제 정읍에 洪大將이 이르렀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한다.⁵²

이번에도 동학농민군 대승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러다가 곧 동학농민군의 전주 점령 소식이 들려왔다.

문득 듣자니 東學軍이 全州 府中에 들어가서 일시에 성을 함락했다고 한다. 大將은 용머리고개에 미쳐 오지 못했다고 한다.⁵³

이후로는 완산 전투에 대한 견문이다. 5월 2일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東學人 수백 인이 죽었고 성 밖은 모두 불길 속에서 타들어갔고 성 밖과 성 안에서 죽은 인민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全州府의 判官이 營將, 中軍과 함께 태조대왕의 畫像과 殿牌를 모시고 도피하여 府中에는 화상과 전패가 이미 없었기 때문에 洪大將이 火攻을 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前監司는 틈을 타서 도주하였고, 새 감사는 바야흐로 礪山에 있다고 한다.⁵⁴

52 『鴻齋日記』, 404쪽, 甲午(1894) 4월 26일, “本村東學人姜一奉來到 故問則去二十三日 午時 長城月坪接戰 京軍死者數百名 東學人死者數十名 昨到井邑洪大將 不知何處在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7쪽.

53 『鴻齋日記』, 404쪽, 甲午(1894) 4월 30일, “忽聞東學軍入全州府中 一時涵城云 而大將未及在於龍頭峙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7~728쪽.

54 『鴻齋日記』, 404쪽, 甲午(1894) 5월 2일, “東學人死者數百人城外盡入蕩盡中 而城外城內人民死者 不可勝數 本府判官與營將中軍 侍太祖大王畫狀與殿牌 逃走府中 既無

처음으로 동학농민군 패전 소식이 들렸다. 5월 4일에는 동학농민군의 도주를 막으라는 官家의 秘帖과 초토사의 甘結을 보았다.⁵⁵ 이로써 동학농민군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졌다. 그런 가운데 5월 6일 이번 달 3일에 접전하였는데 東學人은 600명이 죽고 京軍은 16명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淸軍 3,500여 명이 방금 내려왔다는 소식도 들었다.⁵⁶ 상황이 매우 급박해지기 시작하였다. 5월 8일에는 3일 접전에서 東學人 1,300여 명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다.⁵⁷ 이제 동학농민군의 패배는 자명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동학농민군이 홍계훈과 화친하고 해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5월 9일의 기술이다.

갑자기 듣자니, 동학군이 부안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 마을 東學人 朴文表가 전주 부중에서 내려 왔다. 그런데 홍대장과 더불어 和親하고 解散하였다고 한다. 동학군은 그동안 죽은 자가 불과 50명이라고 한다.⁵⁸

畫狀與殿牌 洪大將欲爲火攻云 旧伯乘間逃走 新伯方在礪山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8쪽.

55 『鴻齋日記』, 404~405쪽, 甲午(1894) 5월 4일, “午飯後 見官家秘帖招討使甘結內東徒輩或四五名或六七名或稍稍散出四方 各自遯匿云 誠甚痛惡 似彼匪類段 卽係覆載間難貸之物 無論某里 令飭村丁雖一箇殊常之人 一邊結縛押上 一邊着意把守切勿漏網逃走之弊是矣 如或認以尋常有所許放失捕之端 則斷當施以軍律 惕念舉行宜當向事是平等以 茲下帖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8~729쪽.

56 『鴻齋日記』, 405쪽, 甲午(1894) 5월 6일, “今月初三日接戰 東人死者六百餘名 京軍死者十六名 而淸軍三千五百餘名 方今下來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9쪽.

57 『鴻齋日記』, 405쪽, 甲午(1894) 5월 8일, “更問初三日接戰 東學死者一千三百餘名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9쪽.

58 『鴻齋日記』, 405쪽, 甲午(1894) 5월 9일, “忽聞東學軍方向扶安云 …… 村東學人朴文

동학농민군 대패 소식이 들렸는데 별안간 和親을 한 사실은 매우 의아스러웠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한 朴文表는 동학교도이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전사자를 50명에 불과하다고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든 이를 보면 동학농민군이 완산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후 5월 23일에는 東學은 私設이고 逆賊이나 聖上の 赤子이기 에 이들을 침범하지 말 것을 알리는 초토사 홍계훈의 감결을 보았다.⁵⁹ 이러한 형태로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타협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감결은 『梧下記聞』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5월 25일에는 각 군영의 움직임이 다음과 같이 포착되었다.

表自全州府中下來 而與洪大將和親而解散云 東學軍前後死者 不過五十名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9~730쪽.

- 59 『鳴齋日記』, 406쪽, 甲午(1894) 5월 23일, “本面主人 來示傳令 而招雷使甘結內 天生斯民 其性本善 但爲私說所惑 樂禍逆命 自古以來 未有若彼類之爲甚也 噫 東學之學道 人之道言其名 則爲道學而究其實 則乃逆賊賊也 將行逆賊之事 而敢假道學之稱者 無乃良民中二三首惡做出 似是之說誣我蚩蚩曰 道學在是 人非先覺 豈無侵梁誦呪則謂疾病不侵 粘符則謂乃兵不入 無知村童 稱爲神人 假托除弊 起爲姦盜 臨戰則背書乘勝 以此誑衆 并底誅戮 然則呪符反爲喪身之媒神 童還作害人之魔 所謂除弊不過連死 自稱乘勝 未免敗亡 觀此數端 雖愚愚氓 平日之見欺 豈不況然大覺乎 哀此無辜由彼凶魁 身膏草野血染 刀鋸興言及 此寧不測然 矧今幡然 改圖者是吾 聖上之赤子潢池弄兵何可推咎 且其父母妻奴子相逢之日 必與執手感泣曰 身爲左道所 誤罪合万死 若非朝家好生之德 安得生還乎然之良心於是自生矣 因此巡導 豈不爲對揚我 聖上包荒之德意也哉 各自該邑面里 勿爲侵捉忿除良 良家毀產破 無以奠接選効其數日 日結講相資有無俾爲安業 毋至道路彷徨之苦是拯至若平民之假 使爲賊焰所燒者 則救濟之方當 與彼特異矣 自該邑面里 另爲摘奸從實 施救毀者復之類者 葺之是令飭之後 該邑守令 以此文俱施無顯效 則卽當啓黜斷不容昏矣 以此知悉各別舉行 而將此甘解眞諺翻騰揚付通衢 俾無一民不知之弊 宜當者云 故本官下帖于各面里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31~732쪽.

招討使 洪在希가 상경하였고 靑軍 1,000명이 다시 내려왔다. 400명은 錦營에 들어갔고 600명은 完營에 들어갔다고 한다. 京城은 크게 혼란하여 사대문을 단단히 닫았다고 한다. 靑兵 37,000명이 나왔는데 大人 元世介는 倭와 洋을 붙잡는 것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⁶⁰

이 중 靑兵 37,000명은 과장이다. 袁世凱의 이름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청일전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점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화약 이후 기행현의 입장에서는 동학농민군의 侵虐이 눈에 들어왔다. 6월 7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外邇에 갔는데 東學人 10여 명이 어제 金友의 집에 들어와 나쁜 일을 행한 것이 셀수 없었고 돈 100냥을 훔쳐 갔다. 20여 명이 오늘 白石의 친구 崔泰甫의 집에 들어와 돈 400냥을 몰래 훔쳐 갔다. 東學人 중에 白癸中과 白士俊이 禁斷하기 위해 왔다고 한다.⁶¹

6월 9일에는 동학농민군 朴文表와 金自賢이 外蓼村 白元章의 집에 가서⁶² 다음과 같이 협박하기도 하였다.

60 『鴻齋日記』, 406쪽, 甲午(1894) 5월 25일 “招討使洪在希上京 靑軍千名又爲下來 而四百名入錦營 六百名入完營云 京城大亂四大門堅閉云 而靑兵三萬七千名出來 元大人世介 拏倭洋爲主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32쪽.

61 『鴻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7일 “往外邇 東學之人十餘名 昨入金友家 行惡無數 錢百兩盜去矣 三十餘名 今入白石崔友泰甫家 錢四百兩盜去 而東學中白癸中白士俊 禁斷次來到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3쪽.

62 『鴻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9일 “本村東學人朴文表與金自賢 自外蓼村白元章家來到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4쪽.

그대가 面事로 王稅를 독촉할 때에 자기의 結價를 東學이라고 招報한 죄와 錦山의 마름으로 있을 때 자기의 時作畚을 移定한 죄, 두 세 차례 접전하고 전주에서 살아 돌아온 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죄가 있으니 오늘 내일 사이 그대의 집에 들어가 때려 죽이겠다.⁶³

같은 날 동학농민군 백사준이 10여 명을 데리고 기행현의 종제 奇成五의 집안으로 들이닥쳐 그의 아들 奇東煥을 마구 때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동환을 잡아 禮洞으로 갔다.⁶⁴ 따라서 가족들이 기동환을 데려오고자 돈 100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⁶⁵ 결국 기동환이 돌아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는 杖毒을 이기지 못하여 마루에 오를 수도 없었다. 가족들은 동학인이 소리를 듣고 올까봐 두려워하였다.⁶⁶ 이때 근처의 여러 사람들이 밤마다 東學黨에 들어가거나 혹은 난리를 일

63 『鵑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9일, “君以面事督責王稅時渠之結價 以東學■■之致 招報之罪 錦山舍音時 渠之時作畚移定之罪 二三次接戰 自全州生還後 一無來見之罪 今明間屠入君家 打之殺之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4쪽.

64 『鵑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10일, “從弟成五自家來到云 昨夜半 東學人白士俊 率十餘名 突入家內子東煥搥打 至於死境云而去矣 午後侄東良與東青來到云 東學更入大小家 大亂相失 東煥捉去禮洞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4쪽.

65 『鵑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11일, “從弟成五自家來到云 東學措處 非錢無率故來去云 故偕往狀洞 某樣周旋錢百兩 負送後 從弟成習來到 言近處親友 皆白元章見之可也云 故偕來中路 思見白友之心 則心大忽起不能到家 還至堤內書堂宿”; 『국역 홍재일기』 상, 734쪽.

66 『鵑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12일, “自狀洞錢便聞家消息 則子東煥·歸家而即來 有好道理云 故往月川尋妻男金敬善 先探家消息 暮往鍾山 夕飯後 與從弟歸家 家中寂寥 四門竹櫺破碎 房中但一老妻 庭下但一兒 子東煥…不勝杖督 招招不能 上堂相扶不能 大聲痛哭 但爲悲泣 猶恐東人聞聲而來也 亂難形容 眞可憐 卽與從弟還至鍾山宿”; 『국역 홍재일기』 상, 734~735쪽.

으키고, 혹은 난리를 금하기도 하였다.⁶⁷ 당시 기행현의 감상은 다음과 같다.

곳곳의 東學人들이 당당하게 횡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폐해를 끼치며 거리낌 없이 살인을 하니 대소 민인들이 그 기세에 두려워 하였다. 밤마다 東學黨이 들이닥친다고 한다. 난리를 피하는 방도가 완전히 섬멸하는 데 있으나 어찌 다 죽이겠는가.⁶⁸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다음과 같이 세를 불리고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에 4, 5명의 친구들과 동행하여 石堤의 李氏 齋室에 갔다. 東學 10여 명이 열지어 앉아 있었다. 接主 金道三이 나가고 없었다고 한다. 外蓼村에 가서 三員 白元章 어르신을 만났다. 新石堤에 가서 어르신 崔鳳煥씨 大祥에 조문하고 되돌아 외요촌에 이르렀는데 東學人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오늘 밤에 새로 들어온 자가 30여 명이라고 한다. 곧바로 와서 文表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 마을에서 입교하는 사람이 밤마다 3, 4명인데 오늘 밤에도 4명이라고 한다.⁶⁹

67 『鴻齋日記』, 407~408쪽, 甲午(1894) 6월 15일, “而近處諸人 夜夜入東學黨 或作亂或禁亂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5쪽.

68 『鴻齋日記』, 408쪽, 甲午(1894) 6월 17일, “處處東學之人 堂堂橫行 行惡作弊 無嚴殺人 大小民人畏於其勢 夜夜祭入東學黨云 避亂之方 全在於殲殺 而何殲殺乎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5~736쪽.

69 『鴻齋日記』, 408쪽, 甲午(1894) 6월 23일, “午飯後 與四五友作伴 往石堤李氏齋室 東學十餘名列坐 而接主金道三出他不在云 往外蓼村 見三員丈白元章 往新石堤 吊崔文鳳煥氏大祥 遷至外蓼村 東學處處屯在 而今夜新入者三十餘名云 卽來入文表家 此村入道者 夜夜三四人 而今夜亦四人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6쪽.

급기야 동학농민군에게 침학을 당한 기동환도 6월 24일 東學에 새로 입교하고 天主에 제사지냈다. 6월 25일에는 동학 수백 명이 格浦의 군기를 탈취하기도 하였다.⁷⁰ 7월 2일에는 기행현의 친구 閔辰文도 새로 동학에 들어갔다.⁷¹ 그러한 가운데 7월 12일 前 吏房 辛正植이 道所로 잡혀가 笞杖 30여 대를 맞고 指目錢을 상납하게 되었다.⁷² 8월 4일에는 기행현이 奇聖天, 李汝彦과 함께 茂長 孫化中 아버지의 장례에 가기도 하였다.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의 부친상에 조문을 간 것이다. 기행현의 친구 김여고도 동학에 입도하였다.⁷³ 8월 28일에는 光州의 足宗 10여 명이 同學에 입교하였다.⁷⁴ 제2차 봉기 직전인 9월 8일에는 “지금의 세상이 東學을 배척할 수 없다”고 들었다.⁷⁵ 이제 동학농민군이 구축한 질서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0 『鴻齋日記』, 408쪽, 甲午(1894) 6월 26일, “言昨日上西東學數百名 格浦軍器奪去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7쪽.

71 『鴻齋日記』, 409쪽, 甲午(1894) 7월 2일, “閔友辰文來去 新入東學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7~738쪽.

72 『鴻齋日記』, 409쪽, 甲午(1894) 7월 12일, “本村道人往四巨里道所 來言前吏房辛正植 捉致道所 笞杖三十餘度後 指目錢百兩 今十五日 納上爲限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8쪽.

73 『鴻齋日記』, 410쪽, 甲午(1894) 8월 4일, “今日與本村之人奇聖天李汝彦 去茂長孫化中親葬 往禮洞 與金文往內禮洞 見本面訓執金友君化家 …… 往遜溪金友善明家 金友汝教亦入道矣”; 『국역 홍재일기』 상, 740~741쪽.

74 『鴻齋日記』, 411쪽, 甲午(1894) 8월 27일, “光州族宗十餘人入東學云”; 『국역 홍재일기』 상, 743쪽.

75 『鴻齋日記』, 412쪽, 甲午(1894) 9월 8일, “與從弟往柳川 高丈濟商氏家宿 當今之世 東學不可排斥云”; 『국역 홍재일기』 상, 745쪽.

5. 맺음말

奇幸鉉의 『鵑齋日記』를 중심으로 『隨錄』 등 기존 자료와 교차 검토하여 보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은 제1차 봉기 당시 다음과 같은 행로를 걸었다.

3월 23일 오전 9~11시 동학농민군 일부가 흥덕 줄포에 도착하였다. 그 뒤를 따라서 2~3,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줄포의 射亭에 모였다. 이들은 오후 7~9시 고부읍으로 진입하였다.

3월 24일 동학농민군이 고부읍에서 軍器庫를 탈취하고 火藥庫를 불태웠다. 당일 오후 1~3시 무렵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古阜 馬項(말목)에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3월 25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의 활동은 불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이 태인과 금구 원평방면으로 향하였다가 이 가운데 일부는 3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숙영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태인, 금구, 원평 방면의 활동은 김개남이 활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개남의 근거지는 태인이었다. 적어도 3월 24일 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던 동학농민군 주력이 3월 25일 금구 원평까지 진출하였다가 3월 26일 백산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鵑齋日記』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어제(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3월 27일) 本畠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적어도 백산으로의 진영 이동은 3월 26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월 24일 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던 동학농민군이 그 이후 古阜 馬項(말목)에 모였을 것이고 그 시각은 최대한 3월

26일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생각보다 장기간 古阜 馬項(말목)에 머무르다 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겼다고 볼 수 있다.

3월 26일 白山에 진영을 꾸린 동학농민군은 당일 오후 5~7시 무렵 古阜의 白山 禮洞에서 일시에 산을 내려와 본 태인의 용산면 禾湖 新德亭里로 옮겨 주둔하고, 총을 쏘며 소리를 질렀다. 백산대회는 3월 26일 만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고 당일 오후 5~7시 무렵에는 이미 산을 내려와 태인 방면에서 주둔하였다. 奇幸鉉이 『鵑齋日記』에서 지적했듯이 백산대회는 분명 1894년 3월 26일에 이루어졌음을 『隨錄』 등 기존 자료를 교차 검토하여 알아낼 수 있었다.

다만 吳知詠의 『東學史』에 있는 白山 檄文은 『鵑齋日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鵑齋日記』에는 『茂長布告文』도 실려 있지 않다. 『鵑齋日記』는 일기이고 각 날짜별 기로기 비교적 간략하기 때문에 각각의 포고문과 격문을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東學史』에 있는 白山 檄文이 왜 하필이면 “甲午正月十七日”에 나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의문을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고일 : 2023.11.06.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	-------------------	---------------------

참고문헌

1. 자료

-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기념사업회, 『홍재일기(鴻齋日記) 탈초집(脫草集)』, 흐름출판사, 2017.
-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문화발전소, 2022.
- 『隨錄』
- 『石南歷史』
- 『梧下記聞』
- 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編,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5, 1996.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2006.

2. 연구논문

- 김철배, 「『홍재일기』로 본 19세기 말 부안의 사회상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2016.
- 裴元燮, 「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 2002.
- 박대길,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 과정에서 백산대회의 위상」, 『동학학보』 62, 2022.
- 배항섭,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韓國史研究』 170, 2015.
- 성주현, 「『홍재일기』를 통해 본 부안지역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2020.
- 이선아, 「19세기 부안 儒生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2019.
- 임형진, 「백산대회와 동학농민혁명-논쟁점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25, 2012.
- 조성운,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歷史와 實學』 61, 2016.
- 하우봉,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위상」, 『전북사학』 50, 2017.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유바다(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

奇幸鉉의 『鴻齋日記』를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당시 扶安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白山大畵를 3월 26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활용했던 사료와의 충분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梧下記聞』, 『隨錄』 등의 사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1894년 3월 백산대회를 전후한 시기 동학농민군의 행적을 재구하고자 하였다.

1894년 3월 24일 全琫準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은 古阜邑에서 軍器庫를 탈취하고 火藥庫를 불태웠다. 다음으로 같은 날 오후 무렵 高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古阜 馬項(말목)에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鴻齋日記』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3월 26일 백산으로 진영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3월 25일 泰仁에서 점심을 먹고 院坪에서 숙영한 부대는 金開南 부대다. 실제로 김개남의 근거지는 태인이었다. 적어도 3월 24일 오후 무렵에서야 고부 말목에 주둔하였던 동학농민군 주력이 3월 25일 태인으로 들어가고, 금구 원평까지 진출하였다가 3월 26일 백산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제어 : 기행현, 홍재일기, 백산대회, 고부, 마항

The First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Hongjae Diary

Yoo, Ba-Da(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Through the Hongjae Diary of Gi Haenghyeon, a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the Buan area during the first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s already been made. However, in order to specify the Baeksan Convention as March 26, a sufficient comparative review with the existing feed must be made.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additionally reviewed historical records such as O-Ha-Ki-Moon and Soo-Rok to reconstruct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before and after the Baeksan Convention in March 1894.

On March 24, 1894, the main forc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centered on Jeon Bongjun, took over the military flag in Gobu and burned the gunpowder store. Next, around the afternoon of the same day, they went on a road between the northwest of Gobu. They are believed to have gathered at Gobu Malmok. According to the Hongjae Diary, they appear to have moved to Baeksan on March 26.

The unit that had lunch in Taein and camped in Wonpyeong on March 25 was the Kim Gaenam unit. In fact, Kim Gaenam's base was Taein. It is unlikely that the main Donghak Peasant Army, which was stationed in Malmok, Gobu, at least around the afternoon of March 24, entered Taein on March 25, advanced to Geumgu Wonpyeong, and returned to Baeksan on March 26.

key word : Gi Haenghyeon, Hongjae Diary, Baeksan Convention, Gobu,
Malmok

특집논문

『홍재일기(鴻齋日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정 을 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2차 봉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3. 맺음말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기록은 정부측이 작성한 자료, 개인이 작성한 자료, 일본의 외무성자료 및 신문자료, 청 정부의 자료, 교단이 작성한 자료와 경전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기록 중 개인이 작성한 자료는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 기록한 자료(오지영의 『東學史』, 조석현의 『北接日記』 등),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목격하여 작성한 자료(황현의 『梟下記聞』, 김윤식의 『西陽行遣日記』 등)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개인 기록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과 비교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 기록은 관(官)의 입장이 아닌 민(民)의 입장으로 당시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기록한 개인의 부류가 당시의 상황과 사건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홍재일기』는 전라남도 부안군 남하면(현재 주산면) 홍해마을에 살던 기행현(奇幸鉉, 1843~)이 1866년을 시작으로 1911년까지 쓴 일기로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 이 일기에는 개인적인 일상 뿐 아니라 당시 보고 들은 내용, 민정(民政), 각종 부세(賦稅), 쌀을 포함한 물가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홍재일기』를 단순히 개인의 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19세기 후반 부안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상황을 통해 당시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홍재일기』는 부안 백산대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 이 논문은 2023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서 연구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¹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한 시기 부안과 인근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뿐 아니라 1894년 3월에서 1895년 5월까지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과 행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었다. 『홍재일기』를 쓴 기행현이라는 인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의 유생이었다. 따라서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목격하고 들은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점과 지방 유생들이 갖고 있던 동학농민혁명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홍재일기』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었다.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홍재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군의 경제사정,² 훈집(訓執)의 역할,³ 비결(秘訣)의 유행,⁴ 부안현 호구 및 결가 조사 양상⁵ 등 당시 부안군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고찰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연구는 『홍재일기』 분석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실상,⁶ 1894년 이후 호남의 동학여당과 의병의 동향⁷ 등 2편

1 김철배, 「『홍재일기』로 본 19세기말 부안의 사회상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2016, 60~62쪽.

2 김철배, 「전라도 부안 사족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전북사학』 46, 2015.

3 김영준,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군 훈집의 역할—『홍재일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4 이선아,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秘訣의 유행」, 『동학학보』 66, 동학학회, 2023.

5 김영준,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현 호구 및 결가 조사의 실제적 양상—남한면 훈집 김기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53, 전북사학회, 2018.

6 이선아,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2019.

이 확인된다.

기존의 연구는 1894년 3월부터 12월까지를 한정하여 백산대회, 황토현전투, 전주성 함락 등 큰 사건에 대한 농민군의 활동을 고찰하거나, 1894년 이후 10년 동안 동학여당의 활동상을 통해 의병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1894년부터 1895년까지의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을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홍재일기』라는 새로운 기록을 통해 기존의 부안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와 부안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파악하기에 중요한 점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2차 봉기 과정에서 부안을 비롯한 인근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2. 2차 봉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1) 동학에 대한 인식

이 시기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해 주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전라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은 박맹수의 연구⁸⁾에 의해 밝혀졌다.

7 이선아, 「1894년 이후 호남의 동학여당과 의병의 동향-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65, 2023.

8 박맹수, 「전라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2009.

1860년 경상도 경주에서 성립된 동학은 3단계에 걸쳐 전라도 지역에 포교되었다. 1단계는 수운 최제우에 의한 직접포교, 2단계는 2대 교주 최시형에 의한 순회포교, 3단계는 해월의 지도를 받고 성장한 전라도 출신 지도자들에 의한 포교였다. 전라도 유생들의 초기 동학에 대한 인식은 경상도 유교 지식인들의 인식과 동일하였으며, ‘양민을 속이는’ 학문으로 간주한 중앙 조정의 입장과도 동일한 견해였다. 전라도 유생들은 동학을 직접 인식하지 못하고 풍문(風聞)으로 인식하였고, 동학을 서학의 변종이나 혹세무민의 학문으로 인식하였다.⁹

교단에서는 1864년 최제우가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죄목으로 처형된 직후부터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운동인 교조신원운동이 본격화되는 1892년까지의 시기를 ‘은도시대(隱道時代)’라고 부른다. 이 은도시대에 해월의 지하포교 활동으로 충청도와 전라도는 동학의 교세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890년대 초반 전라도에서도 동학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탄압은 지방관이 아닌 고을의 유력 양반이나 부호들까지 탄압에 가세하였으며, 종래의 탄압이 사도인 동학에 대한 금단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동학 금단을 빙자한 지방관 및 호민들의 전재토색 행위의 일환이었다.¹⁰

은도시대를 지나 1892년부터 1893년에 전개된 교조신원운동을 통해 동학교인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교세도 더욱 성장하였다. 전라도 유교 지식인들은 이러한 동학의 만연에 위기감을 느꼈고

9 박맹수, 「전라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2009, 114~116쪽 참조.

10 박맹수, 위 책, 120~121쪽 참조.

동학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로 향약 실시를 통한 향촌사회 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¹¹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1차 봉기 시기에 농민군이 감영군과 경군을 잇따라 격파하고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호남의 수부인 전주성마저 점령하면서, 유교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유교지식인들은 동학을 사교이면서 혹세무민의 종교로 폄하하고 있었으며, 백련교도나 장각의 무리처럼 변란을 일삼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바라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유생들이 직접 농민군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모든 유생들이 동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거나, 직접 농민군들과 맞서 싸울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당시 유생들의 동학에 대한 인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기행현과 비슷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행현과 비슷한 전라도 출신 유생이었던 장성의 변만기(邊萬基, 1858~1925)가 동학농민혁명기에 남겨 놓은 일기인 『봉남일기(鳳南日記)』와 남원 유생 김재홍(金在洪)이 남긴 『영상일기(嶺上日記)』를 살펴보자. 『봉남일기』에는 장성 인근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상뿐 아니라 나주 전투, 전봉준의 움직임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는 이 일기의 많은 곳에서 동학농민군들의 횡포와 폐단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각 면(面)이나 리(里)마다 소위 량미(糧米)와 군수전(軍需錢)이란 것을 임의대로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혹은 사사로운 혐의(私嫌)로 침략하는 폐단으로 인해 사람들의 원성이 들끓었다.’¹²라는 기록이나, 도인들이 마을로 들어

11 박맹수, 위 책, 124쪽.

12 『봉남일기(鳳南日記)』 갑오년 10월 28일.

와 노략질하거나 밥상을 바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등 동학농민군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영상일기』는 동학농민혁명기 자신이 겪은 경험과 전해 들은 일을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서 그는 동학농민군에 대해 사도(邪徒)로 규정하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김개남 등 동학의 접주를 ‘괴수’라고 명명하였으며, 농민군을 ‘적’이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거주하는 백성들은 협박하여 자신의 무리를 따르게 하였는데, 만약 따르지 않은 자는 속전(贖錢)을 받거나 형벌과 옥을 심하게 받았다. 협박으로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날로 많아졌다.’¹³라고 기록하는 등 노골적으로 동학농민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였다.

기행현의 동학에 대한 인식을 일기를 통해 살펴볼 때, 그도 역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기록에서 기행현은 ‘동학인들이 당당하게 횡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폐해를 끼친다’고 말할 정도로 동학인들의 민인들에 대한 횡포에 대해 적나라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동학인들이 거리낌 없이 살인을 하여 민인들이 기세를 두려워한다고 하였으며, 동학인들이 주민들을 적간하여 성책한다는 점도 기록하였다.

1894년 6월 17일 곳곳의 동학인들이 당당하게 횡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폐해를 끼치며 거리낌 없이 살인을 하니 대소 민인들이 그 기세에 두려워하였다.¹⁴

13 『영상일기(嶺上日記)』 갑오년 10월 14일.

14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35쪽.

1894년 9월 2일 동학 사람들이 마을마다 속인(俗人)들을 적간하여 성책하였다고 한다.¹⁵

기행현은 9월부터 부안 지역 인근에서 동학농민군의 소란이 매우 심하다는 것과 집안 어른이 지금 세상에 동학을 배척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록하였다. 전국적으로 커지는 동학 교세에 대해 인식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1894년 9월 8일 동학인들 8만여 명이 남원에서 모여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종제와 함께 유천의 어르신 고제상 씨 집에 가서 잤다. 지금의 세상에 동학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한다.¹⁶

특히 1894년 9월 11일에는 장성에 살고 있는 기양연의 서자가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다. 기양연은 같은 집안사람인 것으로 보이며, 총을 쏜 사람이 동학과 관련된 인물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러한 일들이 기행현이 동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894년 9월 11일

친구 김성숙(金聖淑)의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재실(齋室)에 가니 정덕언(鄭德彦)의 포(包)에서 경통(敬通)이 도착하였다. 접중(接中)이 죽고 사는 고비인데 그중 2명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15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4쪽.

1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5쪽.

사창시(社倉市)에 모였다고 한다. 소문에 듣자니, 장성의 기양연(奇亮衍)의 서자(庶子)가 총을 맞아 죽었다. 최경선(崔敬善)이 총을 쏘아 죽였는데 임실의 대접주라고 한다.¹⁷

2)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의 승리로 인해 일본이 조선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면서 재기하게 되었다. 특히 9월 18일 최시형이 내린 총기포령에 따라 남접과 북접의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활동한 시기로 중요하다. 『홍재일기』에서도 이 시기(9월 15일) 동학농민군이 기포(起炮)를 결정하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때 부안읍의 도소는 읍내의 작청(作廳)에 설치하였다. 또한 같은 날 기행현은 한양에서 내려온 백치현(白致賢)의 아들에게 각 읍의 기군(起軍) 소식을 물었고, 북접의 최시형이 ‘운명이로다.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다는 대답을 전해 들었다.¹⁸

듣자니 각 읍의 접주들이 모두 군대를 일으켜 기포(起炮)하였으며, 본읍의 도소를 다시 읍내 작청(作廳)에 설치하였다. 사통이 도착하였는데 각 접주들이 오늘 날이 저물기 전에 기포하고 창검을 들고 서둘러 와서 모이라고 하였다. 친구 백계중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친구 백치현(白致賢)의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났더니 한양으로부터 오는 길이어서 각 읍에서 일으킨 군사 소식을 물었더니 법헌(法軒: 최시형) ‘운명이로다 어떻게 하겠는가’

1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6쪽.

18 이진아,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2019, 105쪽.

라고 하였다고 한다.¹⁹

또한 기행현이 본 북접(北接) 법헌소(法軒所) 경통(敬通)에는 ‘일제히 분발하여 함께 대의(大義)로 나아가 부족한 힘을 다해 임금의 지척에서 그 원통함을 호소하여 선생의 목은 억울함을 시원스레 풀고 종묘와 사직이 위급할 때 달려가서 모두 대의를 좇아 보답하자’라고 적혀 있었다.²⁰ 이처럼 최시형 등 북접도 이 시기는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행현이 살던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1차 봉기 때는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충기포령에 따른 2차 봉기에는 동참하였다. 이와 관련한 부안 동학농민군의 봉기 원인과 관련 주동 인물들은 전봉준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나라 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전주 근처의 參禮驛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에 그해 9월쯤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大都所로 삼았다. 그리고 鎭安에 사는 동학 집주 文季八, 全永東, 李宗泰, 금구에 사는 집주 趙駿九, 진주에 사는 집주 崔大奉, 宋日斗, 정읍에 사는 孫汝玉, 부안에 사는 金錫允, 金汝中, 崔卿宣, 宋熹玉 등과 모의하여²¹

1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6쪽.

20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8쪽.

21 「제37호 판결선고서원본 전봉준」

이들의 봉기 원인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뜻이 있다고 파악하였고, 이러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거병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침략을 제대로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라도 일대의 동학 접주들이 동참하였는데, 그중 부안에서는 김석윤, 김여중, 최경선, 송희옥 등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김석윤은 김영조이며, 김여중은 김낙철이다.²²

기존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2차 봉기 과정에 대해서는 소략했다. 1894년 9월 중순 최시형이 기포를 명하였을 때, 김낙철과 김낙봉, 신명언, 김영조(김석윤)이 기포했다는 점, 양력 10월~12월 전봉준과 손화중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에 합세하여 공주 우금치전투 등에 참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²³

그러나 총기포령 이후 부안과 인근 지역 동학농민군들의 움직임은 『홍재일기』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김개남을 포함한 동학농민군이 남원에서 모여 재봉기를 결의한 이후, 기행현은 다음 날인 9월 16일 전봉준이 군대 1만 명을 일으켜 삼례에 가서 진을 쳤다고 기록하였다. 최경선 또한 군대 1만 명을 일으켰고, 정일서(鄭一西) 역시 군대 1만 명을 일으켰으며, 손여옥(孫汝玉)도 정읍에서 군대를 일으켰다고 전해 들었다.²⁴

최경선은 1859년 11월 18일 태인현 서촌면 월촌리 출신으로 1894년 1월 고부관아를 습격하였으며, 3월 제1차 봉기에서는 백산에서 동학농민

22 조성운,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역사와 실학』 61, 역사실학회, 2016, 330쪽.

23 조규태, 「김낙철 형제의 동학과 부안도소 활동」, 『동학학보』 64호, 2022, 27~28쪽.

24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7쪽.

군의 영솔장(領率將)을 맡아 서남해안을 돌아 5월 전주성을 입성하기 전까지 선봉에서 지휘한 인물이다. 정일서는 고부 농민군 접주로 고부봉기 단계에서 중요한 인물이며, 손여옥은 1871년 정읍군 출신으로 손화중의 족질(族姪)이다.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고부에서 기포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며, 9월 재봉기 후에는 나주싸움에 참전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이다.²⁵ 기행현의 기록대로라면, 9월 16일 전봉준의 2차 봉기에 태인의 최경선, 고부의 정일서, 정읍의 손여옥이 군대를 일으켜 2차 봉기에 함께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안읍의 동학농민군들은 9월 17일에는 읍내 도회에서 모두 해산하여 돌아갔고,²⁶ 다음 날인 18일 밤에는 삼원장(三元丈), 백인흠(白仁欽), 백계중(白癸中)이 도소봉(道所峯)에 올라 천제(天祭)를 지내려고 왔다. 또한 와촌(瓦村)과 공촌(公村) 두 접에 속한 도인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⁷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들은 9월 17일을 전후하여 재봉기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와촌과 공촌의 두 접의 동학농민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도 알 수 있다.

9월 19일에는 도인들이 상서(上西) 장전평(長田坪)에서 모였으며,²⁸ 22일에는 동학교인들이 모두 읍전에 있는 옛 교련(敎鍊)하는 사습터[私習基]에 모였다고 하여 직접 가보니 그 모습이 장관이었다고 기록하였

25 이동초 편, 『동학천도교인명사전』, 동학천도교인명사전연구회, 2015.

2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7쪽.

2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7쪽.

28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7쪽.

다.²⁹ 이후에도 꾸준히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은 봉기를 위해 모여 활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시기 부안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동학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은 김낙철 가문과 천석꾼이면서도 동학에 입도한 김낙철, 김낙봉 형제의 성품에 기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인식 때문에 이 시기 부안은 관과 유생, 그리고 동학의 관민상화(官民相和) 혹은 민중자치(民衆自治)가 가능하였다.³⁰

3) 부안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은 2차 봉기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9월 25일 기행현이 김윤중의 집에 갔다가, 부안 인근의 7개 마을이 어제 서로 모여 이 마을에 금란소(禁亂所)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³¹ 또한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경병(京兵)과 일본군(日本軍)이 내려 온다는 소식에 민심이 더욱 동요된다는 기록도 확인된다.³² 10월에는 동학농민군을 잡아들이기 위해 경군과 왜군이 물과 육지 양 방향으로 이르렀고,³³ 전라도 12개의 읍 수령이 병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음을 기록하였다.³⁴ 부안 지역을 포함한 인근의 동학농민군들에 대한 탄압이

29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7쪽.

30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178~179쪽.

31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8쪽.

32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 위 책, 748쪽.

33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 위 책, 749쪽.

34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 위 책, 749쪽.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0월 말부터 동학농민군들은 경병과 일본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패전 소식들이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들이 『홍재일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10월 24일에는 접졸(接卒)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패하였고,³⁵ 10월 28일에는 전봉준(全琫準)의 군대가 패하였거나 혹은 모두 죽거나 흩어져 죽은 사람이 과반이었으며,³⁶ 11월 9일에는 접전(接戰)하였는데 전봉준이 또 크게 패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며,³⁷ 11월 28일에는 경군과 동학농민군이 태인에서 전투를 치르고 동학농민군이 패하여 도망하였다³⁸고 하였다.

반면 동학농민군들의 승전보 소식도 확인된다. 11월 말 경군과 삼도(三道)의 병사들로 구성된 6만 8천의 병력이 김제 만경과 금구 원평으로 나뉘어서 전라감영으로 들어갔으나, 동학농민군에게 크게 패하는 일이 있었다.³⁹ 전라감영은 10월경 김개남이 근거지로 삼았던 곳으로 10월 28일경에는 전라감사 김학진(金鶴鎭)이 쫓겨났던 것으로 확인된다.⁴⁰ 이날의 패배로 남원부사 등이 사망하였고, 동학농민군에게 피해를 입은 관원들이 고을을 도륙하였을 뿐 아니라 고을의 이름까지 바꾸는 등의 복수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겠으나, 당시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을 간접적으로 알 수

35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751쪽.

3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1쪽.

3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3쪽.

38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5쪽.

3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4쪽.

40 『영상일기』, 10월 28일자.

있는 기록이다. 또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던 장군 중에는 동학농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 배정된 ‘복수장군(復讐將軍)’이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1월 말 전봉준과 김기범(金基凡)이 모두 패하여 달아나 원평(院坪)에 이르렀고, 경군(京軍)과 삼도(三道)의 병사를 아울러 6만 8천 명에 이르렀는데 전라감영으로 들어가며 한 갈래는 김제 만경(金堤萬頃)에 이르고, 한 갈래는 금구 원평(金溝院坪)에 이르러 동학군에게 크게 패하였다고 한다. 대장 신정희(申正希), 남원부사(南原府使) 이용헌(李用憲)이 동학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그 동생 ■■이 복수장군(復讐將軍)으로서 병사를 이끌고 내려왔고, 대구중군(大邱中軍) 박항래(朴恒來)도 복수장군으로서 병사를 이끌고 내려왔다고 한다. 고부 신관(古阜新官) 양필환(梁弼煥)은 동학에게 해를 입었는데, 그 고을의 향리와 민간에서 그 시신을 거두지 않았으므로 그 고을을 도륙(屠戮)하고 그 고을의 이름을 혁파했다고 한다.⁴¹

경군 700여 명이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고부에서 나주로 내려갔는데, 이 시기 기행헌은 관에서 발급한 유학표(儒學標)라는 것을 받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고 기록하였다. 아마도 이 유학표는 동학농민군과 비동학농민군을 구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² 그러나 『몽님일기』 나 『영상일기』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부안에서만 확인되는 특별한 징표인지 주목된다. 부안읍에는 11월에 신

41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4쪽.

42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5쪽.

임 관찰사[新伯]로 이도재(李道宰)가 부임하였는데, 이후 동학이 거의 사라졌다는 기록도 확인된다.⁴³

일본군과 정부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12월부터 더욱 거세졌다. 경군은 12월 6일 고부읍에 들어가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였고,⁴⁴ 부안의 백원장을 비롯하여 전명숙(全明叔), 정일서(鄭一西) 등 여러 접주(接主)들이 모두 체포되었고,⁴⁵ 김여중이 체포되어 고부로 압송되었다.⁴⁶ 또한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주도자인 백사준에 대한 체포 명령이 엄격하여, 백사준을 대신하여 외숙(外叔)을 잡아 가두는 일도 일어났다.⁴⁷ 탄압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월 21일에는 하도(下道)의 동학농민군이 장흥의 수령을 살해하여 모조리 체포하였으며, 전봉준과 손화중을 잡아 니주에 가두었다고 한다.⁴⁸ 12월 29일에도 시장에서 동학농민군 2명이 체포되는 등 12월 말까지 동학농민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이 이루어졌다.⁴⁹ 12월 말까지 부안에는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한 왜군과 경군이 거의 철수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남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⁵⁰

이 시기 유생들이 동학농민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보인다. 당시 예동 재실의 본명 유희(儒會)에 갔는

43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6쪽.

44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6쪽.

45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6쪽.

4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6쪽.

4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6쪽.

48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7쪽.

4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8쪽.

50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7쪽.

데 윤음(綸音), 감결(甘結)과 하첩(下帖)에 ‘비록 동학인이라고 하더라도 귀화한다면 곧 나의 양민(良民)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⁵¹ 즉, 동학교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동학교인이 귀화한다면 받아들일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2월 30일에는 일인(日人)이 30여 명과 경군 100여 명이 성에 들어와 마을에 많은 폐단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유희장(儒會長) 이하 향유(鄉儒) 수십 명이 경군대관소(京軍隊官所)에 등장(等狀)을 올려 호소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관이 백배 사과하며 금단하겠다고 하였음을 기록하였다.⁵² 이 시기 유생들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려는 경군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에 들어와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군을 질타하여 사과를 받아냈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이듬해인 1895년에도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동학농민군 체포에 향교의 유생이 앞장섰던 것이 확인된다. 향교에 설치된 유희소(儒會所)에 모여 향사대회(鄉士大會)를 열어 ‘동학 거괴(東學巨魁) 7인’-백사준, 김도삼(金道三), 이상용(李相用), 손수일(孫守一), 김석운(金石允), 곽덕언(郭德彦), 신명언(辛明彦)을 체포하기 위해 향중유생(鄉中儒生) 30인을 별유사(別有司)로 차정하고 거괴와 구동학(舊東學)을 체포하기로 모의하였다.⁵³ 그리고 별유사에 차정된 송윤두(宋潤斗), 김규용(金奎鏞), 김진용(金鎭庸)이 기행현의 마을에 사는 구동

51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7쪽.

52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7쪽.

53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하 17쪽 이산아,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2019, 108쪽.

학(舊東學) 박문표를 체포하였으며, 도산(道山)에 사는 김태보(金奉甫)와 이화일(李化一)을 체포하였다.⁵⁴

동학농민군의 체포와 관련된 기록은 1895년 5월까지 확인된다. 1월 5일 광덕언(郭德彦)과 송성구(宋成九)가 체포되었고,⁵⁵ 신소룡(申小龍)이 고창에서 체포되었으며 김도삼도 체포되었다.⁵⁶ 1월 12일에는 별유사가 체포한 박문표, 김태보, 송성구가 남문 밖에서 총살되었다.⁵⁷ 2월에 들어서는 무장(茂長)의 전 장령(掌令) 김수형(金秀馨)이 부안군 남하면의 향교에 통문(通文)을 하여, ‘동학 가운데 구동학도[旧道]이든 신동학도[新道]이든지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뿌리를 뽑아 후환을 막는데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⁵⁸ 또한 별유사(別有司) 친구 김군오(金君五), 채기삼(蔡奇三)이 수성군 1명과 함께 도착하여 강일봉(姜日鳳)을 붙잡았는데 나이가 어려서 가엾게 여겨 도로 풀어 주는 일도 기록되어 있다.⁵⁹ 비록 『홍재일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월 22일에는 김여중과 김명중, 모치옥, 임행춘 등 9명이 체포되기도 했다.⁶⁰ 이즈음 동학농민군이 고산의 산중에 모여 진을 치고 있어 감영에서 이들을 공격하여 20명을 죽이고 18명을 생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⁶¹ 이 산중에 모인 동학

54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18쪽.

55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17쪽.

5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18쪽.

5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18쪽.

58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0쪽.

5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0쪽.

60 二十二日行陳于扶安邑捉得巨魁金汝中金明中牟致玉林行春孫順西孫陽叔金仁權裒洪烈李基範九漢; 『양호우선봉일기』 4, 1895년 1월.

61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1쪽.

농민군은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 대둔산에서 관군과 동학농민군이 벌인 최후의 항쟁을 전해 들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2월 부안읍의 동학농민군 9명이 남문 밖과⁶² 동학농민군 7명이 시장에서 총살되었다.⁶³ 26일을 즈음해서는 동학농민군을 매우 심하게 체포하고 있다는 기록도 보인다.⁶⁴ 이 시기 관에서는 고을 백성들에게 전령을 내렸다. ‘우리 고을의 동학 거괴 백사중(白士仲), 손수일(孫秀一), 이상용(李尙用), 신명언(辛明彦), 신공선(辛公先) 다섯 놈을 체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백성들은 경동(驚動)하지 말고 농업과 상업에 편안히 임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 관의 동학 접주들에 대한 탄압 의지가 강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⁵ 3월에는 김석윤(金石允)이 총살되었고, 전봉준과 손화중 등 6명이 27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은 4월에 들었다.⁶⁶ 4월 22일에는 부안읍의 거괴인 김여중(金汝中)이 니주에서 상경하여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장차(將差) 노대규를 보냈으며, 팔문(八文)을 때려 죽인 이규노(李奎魯)와 이성오(李成五)가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⁶⁷ 동학농민혁명에 끝나는 다음 해 5월까지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2쪽.

63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3쪽.

64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3쪽.

65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5~26쪽.

6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8쪽.

6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32쪽.

3. 맺음말

전라도 유생들은 동학을 서학의 변종이나 혹세무민의 학문으로 인식하였고, 교조신원운동으로 교세가 성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시기에 농민군이 감영군과 경군을 연이어 격파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왕조의 발상지이면서 호남의 수부인 전주성까지 점령하면서, 유교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유생들이 직접 농민군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행현 역시 동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고, 9월 18일 최시형이 내린 총기포령에 따라 남접과 북접의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활동한 시기로 중요하다. 『홍재일기』에서도 이 시기 부안읍의 도소를 읍내의 작청(作廳)에 설치하는 등 봉기한 점이 확인된다. 기행현이 살던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1차 봉기 때는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총기포령에 따른 2차 봉기에는 동참하였다. 이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뜻이 있다고 파악하였고, 이러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거병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전라도 일대 동학 접주들이 동참하였는데, 그중 부안에서는 김석윤과 김여중, 최경선을 비롯하여 송희옥 등이 참여했다.

총기포령 이후 부안과 인근 지역 동학농민군들의 움직임은 『홍재일기』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9월 16일 전봉준의 2차 봉기에 태인의 최경선, 고부의 정일서, 정읍의 손여옥이 군대를 일으켜 2차 봉기에 함께 참여하

었다. 당시 부안읍의 동학농민군들은 와촌과 공촌의 두 접의 동학농민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에 맞서 부안 인근의 7개 마을이 서로 모여 금란소(禁亂所)를 설치하였으며,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경병(京兵)과 일본군이 내려왔다. 그리고 10월 말부터는 동학농민군들이 경병과 일본군과 맞서 지속적으로 패전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들이 『홍재일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반면 동학농민군들의 승전보 소식도 확인된다. 11월 말 전라감영에서 크게 승리하였으나, 관원들이 고을을 도륙하였을 뿐 아니라 고을의 이름까지 바꾸는 등의 복수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던 장군 중에는 동학농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 배정된 ‘복수장군(復讐將軍)’이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일본군과 정부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12월부터 더욱 거세졌다. 경군은 인근 지역의 접주들을 모두 체포하였을 뿐 아니라, 12월 말까지 농민군을 지속적으로 체포하였다. 12월 말에는 부안의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긴 왜군과 경군이 거의 철수하였으나, 일부가 남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 시기 지역의 유생들은 동학교인에 대해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동학교인이 유생으로 귀화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또한 나라를 어지럽히는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려는 경군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를 들어 질타하는 모습 등을 통해 경군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이듬해인 1895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체포되었고, 인근에서 경군에 의해 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동학농민군 체포에 향교의 유생이 앞장섰

다는 기록도 확인되어 눈길을 끈다.

이상으로 『홍재일기』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홍재일기』를 쓴 기행현이라는 인물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의 유생이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목격하고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지방 유생들의 인식과 시대 상황들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의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은 의미를 갖는다.

투고일 : 2023.10.20.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참고문헌

-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 박맹수, 「전라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2009.
- 이동초편, 『동학천도교인명사전』, 동학천도교인명사전연구회, 2015.
- 이선아,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2019.
- 조성운,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역사와 실학』 61, 역사실학회, 2016.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라도 유생들은 동학을 서학의 변종이나 혹세무민의 학문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시기에 농민군이 감영군과 경군을 비롯하여 호남의 수부인 전주성까지 점령하면서 더욱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기행현 역시 동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9월 18일 최시형이 내린 총기포령에 따라 남접과 북접의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활동한 시기이다. 『홍재일기』에서도 이 시기 부안읍의 도소를 읍내의 작청(作廳)에 설치하는 등 봉기한 점이 확인된다. 기행현이 살던 부안지역의 동학농민군은 1차 봉기 때는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총기포령에 따른 2차 봉기에는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거병했다고 밝히면서 동참하였다. 봉기에는 부안의 김석윤, 김여중, 최경선, 송희옥 등을 비롯하여 전라도 일대 동학 접주들이 참여하였다.

이 시기 부안과 인근 지역 동학농민군들의 움직임은 『홍재일기』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태인의 최경선, 고부의 정일서, 정읍의 손여옥이 군대를 일으켰고, 부안읍의 동학농민군들은 와촌과 공촌의 두 접의 동학농민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맞서 부안 인근의 7개 마을이 서로 모여 금란소(禁亂所)를 설치하였으며,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경병(京兵)과 일본군(日本軍)이 내려왔다. 그리고 10월 말부터는 동학농민군들이 경병과 일본군과 맞서 패전하고 승전하는 소식들이 『홍재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11월 말 전라감영에서 크게 승리하였으나, 관원들이 고을을 도륙하였을 뿐 아니라 고을의 이름까지

바꾸는 등의 복수까지 했다. 또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던 장군 중에는 동학농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 배정된 ‘복수장군(復讐將軍)’이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

일본군과 정부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12월부터 더욱 거세졌다. 경군은 인근 지역의 접주들을 모두 체포하였을 뿐 아니라, 12월 말까지 농민군을 지속적으로 체포하였다. 12월 말에는 부안의 동학농민군을 탄압하던 일본군과 경군이 거의 철수하였으나, 일부가 남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 시기 지역의 유생들은 동학교인에 대해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동학교인이 귀화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또한 나라를 어지럽히는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려는 경군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를 들어 질타하는 모습 등을 통해 경군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이듬해인 1895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동학농민군 체포에 향교의 유생이 앞장섰다는 기록도 확인되어 눈길을 끈다.

주제어 : 홍재일기, 금란소, 기행현, 2차봉기

Abstract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Donghak Peasant Army in Buan during the Second Uprising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rough Hongjae Diary

Jeong, Eul-Kyung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senior researcher)

The Confucian scholars of Jeolla-do recognized Donghak as a variant of Seohak or a study of tax people, and later, during the first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peasant army occupied Gamyeong-gun and Gyeong-gun as well as Jeonju-seong, the head of Honam. It is confirmed that Ki Haeng-hyun also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Donghak.

The second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a time when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South and the North were united in accordance with the gun decree issued by Choi Si-hyung on September 18. In "Hongjae Ilgi", it is also confirmed that during this period, Doso in Buan-eup was established in Jakcheong in the town. The Donghak Peasant Army in Buan, where Ki Haeng-hyun lived, did not actively participate from a distance during the first uprising, but participated in the second uprising following the gun decree, saying it was a large soldier to defeat the Japanese army. Kim Seok-yoon, Kim Yeo-jung, Choi Gyeong-seon, Song Hee-ok, and other Donghak masters from Jeolla-do participated in the uprising.

During this period, the movements of Donghak Peasant Army in Buan

and nearby areas are variously confirmed in "Hongjae Ilgi". Choi Gyeong-seon of Taerin, Jeong Il-seo of Gobu, and Son Yeo-ok of Jeongeup raised the army, and Donghak Peasant Army of Buan-eup was actively engaged in two Donghak Peasant Army of Wachon and Gongchon. In response to their activities, seven villages near Buan gathered with each other to set up a Geumlan site, and Joseon Government Army and Japanese soldiers came down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from the end of October, the news of Donghak Peasant Army's defeat and victory against the police and Japanese troops is recorded in the "Hongjae Ilgi". They won greatly in Jeolla Gamyeong at the end of November, but officials not only stole the village but also took revenge by changing the name of the village. It is also confirmed that among the generals who suppressed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a "revenge general" assigned to avenge the family kill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Japanese soldiers and Joseon Government Army's oppression of Donghak Peasant Army has intensified since December. Joseon Government Army not only arrested all the neighboring residents of the nearby area, but also continuously arrested the peasant army until the end of December. At the end of December, the Japanese and light forces that suppressed the Donghak Peasant Army in Buan almost withdrew, but some remained and remained vigilant. During this period, Confucian scholars in the region were not unconditionally ostracized, but were willing to accept Donghak if they were naturalized.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Joseon Government Army, who tried to arrest the Donghak Peasant Army that disturbed the country, was not in favor of the police force by criticizing them for disturbing the order of the village.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continuously recorded until May 1895, the following year.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records have been confirmed that Hyanggyo's Confucian scholars took the lead in the arrest of Donghak Peasant Army.

key word : Hongjae Ilgi, Geumlan site, Kihanghyun, the second uprising

특집논문

『홍재일기(鴻齋日記)』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변동*

조 재 곤(서강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목차

1. 머리말
2. 오가작통제 시행과 을미의병에 대한 인식
3. 을사늑약과 을사·정미의병에 대한 인식
4.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인식
5. 맺음말

1. 머리말

『홍재일기(鴻齋日記)』는 전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일기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부안 지역에서 생활했던 농촌지식인 기행현(奇幸鉉, 1843~?)이 1866년 3월 10일부터 1911년 12월 30일까지 45년간 기록한 것이다. 일기에서 서술하고 있는 시기는 병인양요 무렵부터 시작해서 경술국치로 인한 대한제국 멸망 직후까지이다. 기행현의 일기는 근대 이행기 정치사회 변동은 물론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자료로, 동학농민혁명을 전후로 한 부안과 고부지역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¹ 특히 주목되는 내용으로, 1894년 4월 9일 자 일기에 “동학인이 지나간 곳은 풀 한 포기 밟히지 않고 벌레 한 마리 죽지 않았다”라고 하여 동학농민군의 생명 존중 사상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뒤늦게 『홍재일기』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에서 전라북도 와 부안군의 지원을 받아 이를 탈초하고 2권의 책으로 번역 발간하였다. ‘홍재일기로 본 부안의 사회상’이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학술세미나를 완료하였다.

이 일기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라도 부안 지역은 물론 국내 상

* 이 논문은 2023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그간 『홍재일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논문과 번역서가 제출된 바 있다. 김철배, 「전라도 부안 土族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전북사학』 46, 2015; 김영준,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현 호구 및 결가 조사의 실제적 양상-남하면 훈집(訓執) 기행현의 홍재일기(鴻齋日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53, 2018; 이선아, 「19세기 부안 儒生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2019;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秘訣의 유행」 『동학학보』 65, 2023;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 『(국역) 홍재일기(상·하)』, 문화발전소, 2022.

황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자료로 판단된다. 특히 1894년 동학농민혁명 중심지에 거주하면서 동학농민군, 관군, 일반백성, 상인, 민보군, 유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홍재일기』에서 담고 있는 주요 사건과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주요 사건 내용
1866	만동묘 철폐(1865), 경복궁 중건, 병인양요
1867	오가작통, 가뭄, 모기, 유행병, 당백전의 폐해, 경복궁 이어
1868	당백전, 오펜트 남연군묘 도굴 사건, 오가작통, 서원철폐
1869	원납전(결두전), 경복궁 중건, 대기근
1870	대기근, 동포(洞布) 징수
1871	동포, 세미난봉(稅米難捧), 가뭄, 신미양요, 의복제도 개혁
1872	가뭄, 물가양등, 우역(牛疫)
1873	오가작통, 만동묘 복설 상소(최익현)
1874	동포
1876	흉년
1881	척왜복합상소(신사척사소), 홍재학 상소
1882	백낙관 상소, 임오군란, 흥선대원군
1883	임오군란의 후유증(하나부사, 오장경), 당오전, 대원군
1884	당오전, 청국 군대, 복제개혁, 갑신정변
1885	갑신정변의 여파, 대원군
1886	화적
1887	당오전, 복제개혁, 호환(虎患)
1888	괴설(怪說), 복제개혁
1889	광양민란
1890	동학(처음 언급), 나주민란, 군전사 김창석
1891	나주민란, 김창석, 방곡령
1892	군전, 동학인
1893	동학인

1894	고부봉기, 백산봉기, 동학농민군 활동과 확산, 청일전쟁
1895	민보군, 농민군 체포 처형, 오가작통 시행, 을미사변, 토역방문(討逆榜文), 의병과 동학, 단발령
1896	의병, 피란
1897	유인석 의병, 동학 재봉기설, 서교(西敎, 영학당), 대한제국 선포
1898	동학여당(東學餘黨) 체포, 제주민란(제1차), 서교, 최시형 체포, 독립협회, 영학(英學)
1899	독립협회, 기씨 재실 복원(동학피해), 영학당, 군전, 동학여당 체포, 상무사(商務社)설치
1900	동비(東匪)체포 처단, 상무소(商務所), 활빈당(活貧黨)
1901	제주민란(제2차)
1902	백산(白山, 전봉준 회상), 동학, 칭경(稱慶) 40주년
1903	송성건의소(頌聖建議所), 석고(石鼓), 오가작통, 동비잔단, 파원(派員)의 폐해
1904	러일전쟁, 일본인의 약탈, 인부동원, 동비 체포처단, 일진회(一進會), 오가작통
1905	일진회, 진보회, 오가작통, 을사늑약, 의병
1906	이남규 상소, 송병선, 일진회, 천도교, 의병, 기생 산흥과 이지용
1907	국채보상운동, 고종퇴위, 의병
1908	의병, 단발
1909	의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살해
1910	종묘와 대궐철해, 경술국치, 기우만 자결, 일본인 관광, 천장절
1911	일본인 측량, 토지매입과 거주, 일본인 농업회사, 일본 유학, 민적조사

* 1875(을해)~1880(경진)년의 일기는 한 해를 단 한 줄씩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홍재일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제6책과 제7책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부터 일제 강점에 이르는 기간 한국 근대의 정치 사회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소개 분석하고자 한다. 즉, 1895년부터 1911년까지의 일기 기록에서 동학농민혁명 이후 변혁운동의 추이와 ‘동비여당’ 색출과 오가작통제 시행, 을미사변과 의병봉기, 을사늑약과 순

국 자결, 을사·정미의병의 동향, 일진회와 친일 세력, 일제의 한국 토지 침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2. 오가작통제 시행과 을미의병에 대한 인식

1) ‘동비여당’ 색출과 오가작통제 시행

1894년 11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주력이 대패한 이후 동학농민군은 급격히 와해되었고 중앙에서는 양호 도순무영을 비롯한 정부군을 지방에서는 전라감영 군과 유생들이 주도하는 민보군 등을 동원하여 패퇴한 이들의 수색과 체포 처형에 집중하게 되었다. 기행현이 거주하는 전라도 부안 지역도 예외가 없었다. 이 지역 패잔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한 준비장소는 유회소(儒會所)였다.

『홍재일기』를 보면 부안 지역에서는 1895년 1월 4일부터 이른바 ‘동비여당(東匪餘黨)’ 체포가 시작된다.² 즉, 향교 유회소에 가보니 지역의 선비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백사준(白士俊), 김도삼(金道三), 이상용(李相用), 손수일(孫守一), 김석윤(金石允), 곽덕언(郭德彦), 신명언(辛明彦) 등 ‘동학의 거괴(巨魁) 7인’을 아직도 체포하지 못한 일로 소모영(召募營)의 관직(關飭)이 도착하여 향교에서 이들을 체포할 방도를 모의하고 별유사(別有司)를 정하고 향중(鄉中)의 유생 20인이 이들 거괴와 이전의 옛 동학당을 체포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2 『鴻齋日記』, 1895년 1월 4일 자.

일기에 보이는 1895년 1월 5일부터 1904년 5월 15일까지 동학농민군 체포와 처단 등과 관련한 사례를 간략히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년	월일	내용
1895	1. 5	거괴 곽덕언(郭德彦), 송성구(宋成九)를 체포
	1. 7	옛 동학 박문표(朴文表) 외 김봉보(金奉甫)와 이화일(李化一)도 잡혀감
	1. 8	“면회소에 갔는데 면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죄인을 잡아들여야 하는데 한 사람도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온 고을 각 면이 모두 그렇다고 한다.”
	1. 10	신소룡(申小龍)이 고창에서 붙잡혔고 김도삼도 붙잡혀옴
	1. 11	감영의 감결에 옛 동학도[舊徒] 가운데 사람을 부주겨 미혹하거나 새 동학도[新徒] 중에서 어지럽혀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일일이 잡아들이도록 함.
	1. 12	박문표, 김봉보, 송성구를 남문 밖에서 총살
	1. 15	수성청(守城廳)의 사통(私通)에 역적 박문표가 이미 죽었으니 시친(屍親)에게 찾아가도록 하고, 문표의 동생을 오라고 분부. 문표의 아들 성수(成守)가 정소하자, “과오를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생업에 종사하고 주검을 묻어 주도록 하라”고 하여 시체를 찾아와서 빈소를 차림.
	1. 17	수성군 3명이 마을에 도착하여 닭 5마리, 계란 30개를 대군이 사용할 것이라는 관의 명령을 보여줌. 일본 군사 72명, 경군 2명이 입성.
	1. 24	무장(茂長)의 전 장령 김수형(金秀馨)이 부안 향교에 통문하여, 동학 가운데 구 동학도[旧道]이든 신 동학도[新道]이든지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뿌리를 뽑아 후환을 막는데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함.
	1. 26	수성군이 와서 강일봉(姜日鳳)을 붙잡았는데 나이가 어려서 기엽게 여겨 풀어줌.
	1. 29	건선면 묵하리에 사는 다섯 사람이 죄인 장개(蔣哥)를 잡았다가 놓쳐 수색 중임.
	2. 12	동학 9명을 남문 밖에서 총살.
	2. 13	향교로 가서 의전(義錢) 3냥을 내어 주고 저녁에 돌아옴.

	2. 22	시장에서 동학 7명을 총살.
	2. 26	요즘 동학을 매우 심하게 체포하고 있다고 함.
	3. 18	동학 김석윤(金石允)이 총살됨
	3. 23	“우리 고을의 동학 거괴 백사중(白士仲), 손수일(孫秀一), 이상용(李尙用), 신명언(辛明彦), 신공선(辛公先) 다섯 놈을 체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백성들은 경동(驚動)하지 말고 농업과 상업에 편안히 임하라”고 관에서 전령함.
	4. 11	동학인 전명숙(全明淑), 손화중(孫化中), 김여중(金汝中) 형제가 한양에서 내려왔다고 함.
	4. 18	‘비류(匪類)를 귀화시켜서 편안하게 하라’는 전령을 봄
	5. 22	본읍의 동학 거괴로서 나주에서 상경하여 살아 돌아온 김여중을 잡아 오기 위해서 노대규(盧大圭)를 보내고 팔문(八文)을 때려죽인 이규노(李奎魯)와 이성오(李成五)를 잡아옴.
	5. 23	김여중의 형제가 달아나자 순찰사가 그 종제를 잡아들여 장 10대를 때리고 풀어주면서, “너의 종형을 감영으로 보내 자수하라”라고 함. 이규노와 이성오를 잡아들여 엄히 매질하고 다시 가둠.
1896	9. 10	김방환이 갑오년에 동학란이 일어났을 때 처자를 데리고 제주로 들어갔다가 을미년에 ‘동비’가 소탕된 이후에 돌아옴.
1898	1. 30	정읍의 동학인 6명이 담양에서 체포됨.
	4. 29	붓장수[筆商] 최동익(崔東益)이 와서, “동학의 법사(法司) 최재우(崔濟愚; 최시형의 오인)가 강원도에서 붙잡혔다고 말함.
1899	5. 3	병정들이 와서 임응문(林應文)을 잡아갔는데, 병대장(兵隊長)이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 무수히 사과함.
	5. 5	전주 병대주진장소(兵隊駐陣長所)에서, ‘동비(東匪)의 여열(餘孽)을 이제 체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농사철이 되어 민폐가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에 포졸을 철수하니 해당 면과 해당 동에서 붙잡아 올리라’라고 훈령함.
	5. 6	내요촌에 사는 백치현(白致賢)의 아들을 병정들이 잡아갔고 병정 30여 명이 번산에 들어감.
	5. 11	“동학 무리가 다시 일어났다. 괴수를 고부, 정읍, 태인에서 거의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병사를 철수하니 남은 종자는 해당 동네에서 붙잡아 올리라”라는 관찰부 훈령.

	7. 1	“각 군의 수괴를 기어이 체포하고 나머지 양민에게 효유하여 편안히 거접하라”라는 관찰부의 훈령.
	9. 13	“어떤 무리들이 종인(從人)이라고 가탁(假託)하고 마을에 몰래 다니면서 돈과 재물을 토색하거든 결박하여 붙잡아 올려라”라고 안렴사 이도재가 훈령.
1900	2. 29	전주영에서 동학을 잡아서 죽임.
	3. 4	본군 겸관인 만경현감 손병호(孫秉浩)가 “동학을 잡아들이는 일을 중지하라”라고 한 훈령이 도착. 순찰사가 ‘순찰사의 종자(從者)라고 하면서 폐단을 일으키는 자를 결박하여 잡아올리라’라고 훈령.
1901	6. 20	“내부(內部)에 말미를 청하여 근친(觀親)하러 발행했을 때 그 사이에 혹시 토포가 있으면 시찰관, 종인 등이 출역하되, 본군 경내에 사는 자는 잡아 가두고 이름을 지적하여 서리부(署理府)에 보고하고 돌아와 조처하라”라고 관찰부에서 훈령.
1902	5. 4	동학이 다시 일어나서 감영에서 병정을 풀어 붙잡기는 하지만 동학 속에서 반드시 난의 근본이 될 것이고 태인에 사는 김문행(金文行)은 비록 잡혀 갇혔지만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세상사를 이야기함.
1903	11. 4	“충청도의 이름 모르는 민가(閔哥), 금구의 홍종한(洪鍾翰)과 이인규(李仁圭)는 동학의 잔당이니 진실로 잡아 바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라고 관찰사가 훈령.
1904	5. 15	“동학의 거두는 이미 교형[絞刑]으로 다스렸고 법망에 빠져 달아난 자는 기필코 썩을 제거해야 끝날 것이다. 처음부터 사악에 물들고 학통(學統)을 범하며 주문을 외우는 자 있다면 즉시 잡아들이고 통첩지(通帖紙)도 수거할 것이다”라고 관찰사가 훈령.

* 원문은 각 항목 해당 연월일 참조.

동학농민혁명 이후 농민군 색출을 위해 전라도 각 군 단위와 군과 읍 간에는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가 사상통제를 위해서 향약(鄉約)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이는 전라감사 이도재의 농민군 수습책과 순무 선봉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작통 조직은 5가-통수-연장(連長; 이정, 이장)-동장-군수로 이어지는 체계였다.³ 부안군에는 농민군 주력 진압 직후인 1895년 1월 17일부터 ‘작통제’가 실시되었는데, 기형현은 “우리 마을

의 오가작통성책(五家作統成冊)을 다시 정리하였다”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19일에는 영문에서 향약장정절목책(鄉約章程節目冊)이 이 지역에 내려왔다. 오가작통제에 관한 『홍재일기』의 기록은 일찍이 1867년부터 시작된다.⁴ 작통제는 민란 등 변혁운동과 도적 등의 색출에 활용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러일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부안 지역의 오가작통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1900년 윤8월 활빈당(活貧黨)과 병정들이 전투를 벌였는데 병정이 패하자 병정 1포(包)가 다시 변산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다. 이에 관찰사 이도재는 “적당(賊黨)을 잡아들이는 일로 오가작통을 성책해서 보고하라”라고 훈령하였고, 같은 달 7일 기행현은 『포적작통성책(捕賊作統成冊)』을 작성해서 주었다. 1903년 8월 18일 관의 전령에, 화적(火賊)을 쫓아가 사로잡는 일을 오가작통하니 통수(統首)의 성명을 성책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같은 해 12월 1일 관청에서 온 첩문은 다음과 같다.

“근일에 도둑의 발생이 점차 늘고 널리 퍼져 백성이 안도하지 못하니 엄히 체포해야 하므로 각 마을로 하여금 오가작통(五家作統)은 매달 삭망(朔望) 두 차례에, 각자 호신죽창(護身竹槍)을 지니고 훈집소(訓執所) 있는 곳에 와서 점고에 참여하고 대열을 정리하여 빨리 방어하되, 성책(成冊)한 벌은 성첩(成帖)하여 내어 보내고, 한 벌은 관에서 조험(照驗)하라.”⁵

부안 지역의 오가작통은 각 마을에서 매달 2회에 걸쳐 시행하되 각기

3 이에 대해서는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2004, 261~292쪽 참조.

4 『鴻齋日記』, 1867년 3월 9일 자.

5 『鴻齋日記』, 1903년 12월 1일 자.

죽창 등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고 훈집소에 모여 점검하고 그 내용을 두 권의 책으로 작성하여 비치해두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10월 9일에는 ‘적비(賊匪)를 단속하고 체포하며 조직하는 규정’ 내용에, “오가작통하고, 각 통수는 통 안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순찰경계하라”면서 잡포관(戡捕官)으로 만경군수 정인의(鄭仁義)를 임명하였다. 11월 29일 참약장(參約長) 신관하(辛觀夏)의 통문을 보았는데, “각 마을은 오가작통 성책 3건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1905년에도 작통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해 2월 10일 집강이 오가작통의 일로 다녀갔고, 7월 5일에는 선무사 종사관 임권하(林權夏)가 읍에 들어와서 각면 훈집을 불러서 대면하면서 효유하였다. 이때 선무사는 오가작통 성책 중에 사업인(四業人)의 과공일기(課工日記)를 모아 작성 후 시급히 관가에 보고토록 하였다.

2) 동학농민혁명 이후 변혁운동

1895년 2월 6일 자 일기에서 기행현은 “지난번에 듣자니 동학당이 고산의 산중에 모여 진을 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들으니 감영에서 병사를 일으켜 공격하여 죽은 사람이 20명이고 생포한 사람은 18명이라고 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대둔산에서 전개된 동학농민군 최후항쟁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도 진산과 고산 등지에서 활동하던 농민군 중 일부가 대둔산에 근거하고 항쟁하였는데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은 1895년 2월 17일 총공세를 감행해 진압하였고 농민군은 모두 몰살되었다. 같은 해 4월에 그는 전봉준과 손화중 등 6명이 지난달 27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서울 소식을 들었다.

한편 11월에는 경상도 경주에서 민란이 크게 일어나서 왜인(倭人)과

접전하여 사또가 해를 입었고, 나주에서도 민란이 다시 일어나서 군기(軍器)를 훔쳐갔다고 한다. 또한 동학농민군 정익서(鄭益書)가 무리 300여 명을 이끌고 태인에서 고부읍에 이르렀고, 동학을 사로잡으라는 관문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후 1896년 7월과 1897년 9월의 일기에서도 영학(英學)이 크게 일어났고 동학도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파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패잔 동학농민군 토벌방침에 관해 1897년 10월 11일 면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령 고시를 보았다. 패잔 동학농민군뿐 아니라 서양 종교를 빙자하여 침략하고 폐단을 일으키는 무리를 엄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황제 폐하께서 하늘의 해와 달처럼 위에 계시는데 동비(東匪)의 여열(餘孽)이 여전히 남아서 잠복하였다가 숨어있는 곳에서 성기상통(聲氣相通)하고 도당(徒黨)을 체결하여 다시 일어났다. 이때 어지럽게 들리는 소문이 낭자하였기에 사령관 36대 친위 중대장 김명환(金命煥)이 읍을 순찰하기 위해서 다녀갔다고 한다.”⁶

1898년 3월 16일 일기에는 서울에서 몰래 내통한 영학당(英學黨)을 금강까지 유인하여 때리고 구덩이에 묻었고, 3월 17일에는 제주민란(제1차 제주민란)에 방두팔(房斗八; 방성철의 오기)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10월 16일 영학이 서학의 화포(火炮)를 빼앗아 갔다는 내용 등을 적고 있다. 같은 해 3월 23일 정부의 기독교 금지 전령에서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지몰각한 무리가 서교(西敎)라는 이름을 가탁(假托)하여 법을 어기

6 『鴻齋日記』, 1897년 10월 11일 자.

며 시골 마을을 침략하였다. 심지어 관인을 능멸하고 평민을 욕박지르니 이 무리들의 이런 습속을 결단코 엄중하게 처리하여 반드시 금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도 일기에 적고 있다. 10월에는 독립협회(獨立協會)의 민권당이 크게 일어나서 나라 안이 어수선하였고, 11월에는 독립협회가 만인공동회(萬人共同會)로 변하였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 이듬해인 1899년 1월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김응복(金應福)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4일 독립협회 회원 3,000여 명을 때려죽였다는 소문도 들었다. 마지막 일기 내용은 잘못 전해진 것이다.

기행현은 영학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영학은 곧 동학으로 1899년 3월 25일에 고창에서 다시 일어나 성을 함락하고자 들어갔는데 매우 삼엄하게 수성(守城)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28일에 물러나기로 하고 각처에 통문(通文)했는데 접주가 더러는 흥덕에서 더러는 김제에서 무리지어 모였다고 한다. 흥덕에서 모인 자는 고창에 붙잡혀 갇혀 있는 흥덕민란의 장두(狀頭) 이화삼(李化三)을 탈출시키려고 했고, 김제에서 모인 자는 군전관 김창석(金昌錫)의 집을 때려 부순 후에 합세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학과 동학, 서학을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영학은 고창 등지에서, 동학은 담양에서 모였고, 김창석은 서학에, 임권화(林權化)는 영학에 붙었다고 한다. 또한 인근 읍에 모인 사람 가운데 영학당의 접주는 8명이며 부안접주는 백사준(白士峻)이라고 한다. 이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1백여 명의 사람들이 4월 19일 새벽에 고부군에 들어가 군기(軍器)를 탈취하여 흥덕으로 향하였고, 20일에는 영학군 1,000여 명이 흥덕에 들어가 군기를 탈취하여 사포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데 장차 부안 줄포로

향한다는 동임의 보고에 따라 즉시 감영에 보고하고 수리(首吏)가 줄포에 사통(私通)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22일 밤에는 영학당이 부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낭자하였지만 지금 들으니 뜬소문이라고 하였다. 24일 저녁에는 고창군수가 몸소 선봉에 서서 영학군과 접전하여 처부수어 그중 8명을 사로잡았고, 난산장시[卵山市]까지 추적하여 추가로 16명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한편 정읍과 태인 등지에서도 영학이 크게 일어났는데, 고창에서 패한 이후 망명하여 달아난 사람이 허다하였기 때문에 28일 무렵에서야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감영군이 수성군과 함께 날마다 마을에 출몰하여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마치 큰 난리를 만난 것 같았다고 한다. 경병(京兵)과 강화병(江華兵)이 이제 막 내려왔지만 영학의 우두머리 최익선(崔益善, 최익서[崔益瑞]의 오인)과 동자 박쌍환(朴雙煥)의 체포에 실패하여 대신 그 아버지(최영두[崔永斗]를 말함)를 잡아 가두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부안군에는 영학이 없어서 병정이 들어오지 않아 태평하다고 안도하였다. 6월 2일 고창 경계에 이르러서는 영학 무리로 죽은 자가 40여 명이라고 들었다.

기행현은 1901년 5월 제주에서 큰 난이 일어났다는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들었는데 이는 제2차 제주민란(대정민란)을 말하는 것이다. 6월에는 풍문으로 흥양이란(興陽吏亂)의 소식도 들었는데 정장교(鄭將校)가 우두머리라고 하였다. 한편 1902년 2월 20일 뫟자리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고부 백산(白山)에 올랐다. 이때 그는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全琫準)과 갑오년을 회상하면서 “당시 민란의 장두(狀頭)이고 동학대장이었는데, 그대는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탄식하기도 하였다. 한편 1903년 11월 2일에는 그가 거주하던 읍에서도 민중봉기가 크게 일

어났다. 이에 3일 아침에 민요소(民擾所)의 집사 김해 김씨라는 사람이 마을에 돌입하여 소동을 일으킨 백성들의 집집마다 군인 수십 명을 동원하여 들이닥쳤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 난리는 평정되었고 장두(狀頭) 김군화(金君化)는 도주했다는 사실도 기록하였다.

3) 을미사변과 의병봉기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이루어낸 이른바 ‘조선 보호국’화의 결실을 거두려고 하였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삼국의 개입 이후 조선 왕실이 러시아 접근정책으로 회귀하였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1895년 8월 일본군과 낭인들의 왕후 민씨 살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고(을미사변) 그 여파는 ‘국모보수(國母報讎)’ 등의 기치를 내건 반일 의병운동(을미의병)으로 분출되었다.

왕후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기행현은 1895년 9월 3일 처음 듣게 되었다. 그가 들은 내용은 지난달 22일에 한양의 대궐 안에서 군인들의 난리가 크게 일어나 중전이 죽었다, 혹은 도망갔다고 하고, 10명의 대신이 모두 죽었는데 박영효(朴泳孝)는 도망하였고, 서광범(徐光凡)·어윤중(魚允中)·정범조(鄭凡祚)·김종한(金宗漢)·홍재희(洪在喜)도 죽었다는데 일단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정희(申正喜) 부자는 그 전에 자살했다고 한다. 당일 왕후 민씨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는다는 조칙도 소개하고 있다.

10월 9일 그는 동헌에 들러 고을 현감을 만났다. 이때 현감이 그에게 “나랏일이 한심할 뿐 아니라 통곡할 만하다고 하면서 죽고자 하여도 죽을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한다. 같은 달 21일 먼 주인으로부터는, 8월 22일 왕후 민씨를 폐위하고 서인으로 삼는다는 조칙 대신에 왕후를 복위한다

는 조칙이 내려왔으니 9월 15일에 거애(擧哀)하고 17일에 발상(發喪)한다는 훈령이 다시 내려왔다. 이번 달 23일에 곡반(哭班)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왕후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몇 달 후 의병 봉기의 기제가 되었는데, 그는 11월 1일 부안읍에 붙여진 의병의 방문(榜文) 전문을 일기에 소개하고 있다.

“삼가 대의(大義)로써 중외자에게 포고하노라. 국가가 불행한 운수를 만나 간신들이 시역(弑逆)하여 권세를 농단하고 있다. 8월 20일 변란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왜인을 불러들여 임금을 위협함에 저들의 앞잡이가 되었고, 태공(太公, 홍선대원군)을 만들어 국모를 살해함에 너희가 내응(內應)하였으니 왕망(王莽)이나 동탁(董卓)도 하지 않은 일이고, 진회(秦檜)나 채경(蔡京)도 하지 않은 일이다. 시찰경무(視察警務)는 한갓 민심을 어지럽히고 끼리끼리 결당하여 국록(國祿)을 훔쳐가고 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백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이것이 개화된 물건의 공로라고 하고, 연초(煙草)를 말고 다리를 꼬아 상에 올리면서 백성을 교화시키는 풍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 지 1년 만에 국모를 시해하였으니, 10년 동안 행한다면 장차 어떤 변고를 일으키겠는가.....우리들이 앞장서서 의리를 같이 하여 홍역을 토벌하려 한다. 삼가 원컨대 진신(縉紳)과 장보(章甫) 그리고 팔도의 신민(臣民)들은 일제히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우선 국내 역당을 토벌하고, 왜인 회판(會辦)의 경우는 각국 사람들이 법으로써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⁷

이 통문은 삼남의 유생 심상천(沈相天), 홍종명(洪鐘鳴), 김홍규(金鴻圭), 김창현(金昌鉉), 김병택(金炳澤), 조병설(趙秉高), 임재호(任在鎬),

7 『鴻齋日記』, 1895년 11월 1일 자.

권용기(權用起), 송노수(宋魯洙), 윤자익(尹滋益) 등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부안 지역 의병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로 향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듬해 초부터 전국적인 의병봉기가 시작되었다. 기행현은 1896년 2월 2일 자 일기에, “팔도[八路]의 의병들이 봉기하였는데, 장성의 기우만(奇宇萬)도 창의(倡義)하였다고 한다”라고 기록하였다. 이어 같은 달 4일과 5일에는 지난해 12월 팔도의 여러 지역에 보낸 호서의병대장 유인석(柳麟錫)의 격서와 참봉 기우만의 창의 통문을 보았는데, 장성향교의 통문과 홍주의 통문이 부안 향교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 각 지역에서 의병이 크게 일어나 개화를 주장하는 수령의 목을 베거나 병정과 서로 접전하였고, 나주 의병장 정석진(鄭石珍)과 장성 기우만이 서로 표리가 되어 네 명의 나주 낭관(郎官)을 목 베어 죽였다고 하였다. 같은 달 27일에는 “귀 읍의 수령 서상원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머리를 깎았으니 귀읍의 대소 민인들이 일제히 모여 그 죄를 성토하고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격문을 보내 먼저 징치할 것이다”라는 나주 의병소의 통문이 부안읍에 도착하였다.

3월 6일 자 일기에는 전라도 의병장 장성 참봉 기우만, 담양군수 민종열(閔種烈), 해남군수 정석진(鄭碩鎭)이 나주에서 성을 지키고 있고, 8일 경군 8백 명이 나주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런데 기우만과 정석진은 거처를 알 수 없고 의병들은 스스로 해산하였지만 박태익(朴泰益)은 나주성을 방비하면서 어가(御駕)가 환궁(還宮)하고 국모의 원수를 갚고 개화당을 혁파한 후에야만 의병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같은 달 17일에는 “감영군이 내려가서 의병을 크게 격파하여 나주성을 비웠으니 장성의 기씨 문중이 크게 화를 당하겠다”라는 이야기와 “의병이 하나같이 엄

숙하였다”라는 나주 아동들의 평가도 소개였다.

한편 자신의 가문이기도 한 전라도 기씨 문중의 의병참여와 감영군의 보복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3월 19일에는 기우만의 집을 때려 부순 것을 문제 삼아 3차례 상소하였지만 비답을 보지 못하자 다시 상소하기 위해 경성에 올라갔고, 25일에는 기씨 문중에 관한 일로 감영군이 부안 변산의 좌우 산내면에 들어갔는데 큰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또한 26일 풍문에 기진사(奇進士)가 청림 근처에서 잡혀갔다고 한다. 27일 자 일기에는 의병을 동학당으로 간주하여 정치하고 기(奇)씨 성을 가진 사람은 유독 큰 난리에 멸문(滅門)의 화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4월 1일 자 일기에는 파견한 영병을 불러들인다는 명령이 있었고, 기씨가 당한 화는 차츰 정리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4월 70여 명의 나주의 의병이 해를 입었고 기우만은 운봉에서 붙잡혔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의병에 대응하는 정부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한 전령과 훈령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5월 17일 자에 먼주인을 통해 확인한 전령에 따르면, 비도의 잔당들이 부랑패류의 습성으로 수상한 것을 저지르는데 혹은 염탐꾼이라고 하거나 혹은 병정이라고 하는 자와 잡기를 하거나 죄를 저지른 자를 결단코 붙잡아 들여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7월 13일 자 관찰사의 훈령에는, ‘비류(匪類) 가운데 분부받은 명령을 회피한 자를 다시 붙잡아 들여라’라고 되어 있었다.

기행현은 을미년의 의병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일기에 기술하고 있다. 이는 장성 의병대장 기우만을 비롯한 기씨 문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도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충청도 의병장 유인석에 대해서는 과하게 혹평하고 있다. 즉, 1897년 4월 20일 자 일기에서 그는 “충청도의 의병장 유인석(柳麟錫)은 역적이라고 할 만

하니 갑산과 춘천 두 고을의 사또를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경군(京軍) 몇천 명이 내려가서 사로잡았다고 한다”라고 적고 있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는 지방관리 살해가 큰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을사늑약과 을사·정미의병에 대한 인식

1) 을사늑약과 순국 자결

1904~1905년 러일전쟁과 관련하여 『홍재일기』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의 지역 주민과 물자 동원 문제였다.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1월 일본인 수백 명이 전주부에 들어가 전라도 관찰사와 전주 판관에게 군량과 말 콩[馬太]·땔감 등을 요청하여 제공해 준 사실을 거론하면서, “왜(倭)가 이기면 화(禍)가 아침저녁으로 있고 러시아가 이긴다면 화가 경각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또한 전주에 들어간 일본인[倭人]은 부지기수로 완산칠봉(完山七峯)과 황방산(黃方山) 등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군량과 말꿀·땔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으며, 이곳부터 김제 동진(東津)까지 운반하는 사람의 행렬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일본인이 관찰사를 위협해 9군에 훈령을 내렸지만 다행히 부안군은 이를 면하였으니 우선은 천만다행이라고 안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4월 무렵부터는 전쟁에서 일본이 승세를 굳히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4월 17일 자 일기에서 그는 “요즘 듣기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여 러시아 사람이 크게 패하고 일본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며, 러시아 사람 26,000여 명을 사로잡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한양 장현(長峴, 니현(泥峴)의 오기로 보임)에 큰 잔치를 베풀

고 본국의 대신을 초청하여 같이 즐겼는데 일본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말이 맞으면 모두 손을 올리라’고 요청하자, 대신들이 모두 손을 올렸지만 심상익(沈相益)만이 따르지 않았다. 일본사람이 그를 때리려 하자 심상익이 예의로써 그를 책망하니 일본사람이 앞드려 빌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심상익은 심상훈을 잘못 본 것으로 보인다. 반면 6월 7일 자 일기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하여 일본이 패하고 원산이 크게 부서졌다.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1만여 명이라고 하였다”라는 러시아의 승리 소식을 기록하고 있다. 충청도에서도 일본사람이 멋대로 행동하고 돈·곡식·논·밭·노비 등 재산을 빼앗는데 연산과 회덕이 특히 심하다고 하였다.

같은 해 7월의 일기에서는 전쟁 기간 일본의 토지 점탈 기도에 대한 관찰사의 훈령도 기록하였다. “산림과 시내와 못은 손을 안 대고 버려두어서 묵고 거칠어진 땅에 만약 일본사람이 온다면 행위를 금한다는 뜻의 표목(俵木)을 꽂고 각 면에 알려라”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일본 병참감부 공문서에, 한국 인부를 모집하는 사무는 먼저 본부(本府)에서 각 군에 분배하고, 인부 수효는 1,200명으로 모두 억지로 모집하지 말고 반드시 자원(自願)에 따르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1일 품삯을 7냥 5전씩 지급하는 일을 효유하라”는 관찰사의 비밀 훈령을 적고 있다. 전쟁 과정에서 조선의 황무지 개척을 빙자한 일본인의 토지점탈과 일본군의 인부모집과 동원에 관찰사가 양면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기행현 또한 “인부를 모집하는 일은 반드시 민심을 크게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였다. 반면 그의 친구 김윤중(金允中)은 “일본인이 모정(募丁)하는 일은 심히 걱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결론짓자 제국주의 일본은 그 후속 조치로서 대한

제국 정부의 각료들을 겁박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함으로써 국권 강탈을 본격화하였다. 이에 시종무관장 민영환을 필두로 하여 수많은 우국 지사들이 자결 순국하게 되었다. 그 소식은 부안의 기행현에게도 들리게 되었다. 그는 1905년 11월 14일 자 일기에 방금 듣자니 국가 어떤 큰 변란이 있어서 민영철(閔泳喆)·조병식(趙秉植)·이도재(李道載)가 종일토록 통곡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였고, 17일 자에는 열 명의 대신 중에 5대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5대신은 역적이 되었고, 국왕 가족 삼부자의 존망과 생사, 거처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였다. 한편 21일 자 일기에는 ‘지난달 27일 왜변(倭變)’(을사늑약을 말함)으로 민영환(閔泳煥)이 하루 종일 통곡하고서 종묘에 가서 칼을 품고 궐정(闕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병정 아무개도 그의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후 심순택(沈舜澤)·조병윤(趙秉潤)·이용식(李容植)·홍만식(洪萬植)·조병세(趙秉世) 등이 차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민영환에게 시호를 내리고 예장(禮葬)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러 대신들의 자결 관련 일기 내용은 와전된 것으로 민영환과 홍만식·조병세 외에는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을사늑약은 기행현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기에 개화지식인 밀아자(蜜啞子) 유원표(劉元杓)의 글과 영국 신문, 『대한매일신보』 기사, 참관 이남규(李南圭)의 상소 전문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먼저 밀아자의 글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 나라가 망할 때는 임금의 바뀔고 사직이 옮겨지며 국호가 바뀌더라도 토지와 인민이 모두 그 업을 이으니 이것은 황실이 없어져도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나라가 망함에 임금, 사직, 국호가 보존

되었으나 토지와 인민이 그 변역(變易)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황실이 보존되었으나 백성은 망했다는 말입니다. 대개 이 나라의 토지가 다른 나라에 점거되고 귀속되어 저 나라의 인민들이 이 땅에 옮겨오니, 우리 땅과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없어지는 증거는 본디 듣도 보도 못하였습니다.”⁸

영국 신문은 “한국의 일이 개탄스럽다. 인민들이 이처럼 끔찍하다. 일찍이 뜻하지 않은 조약이 성립되는 날에 외교는 동경(東京)으로 옮겨가고 통감(統監)은 한성에 설치되었음에도 모두 우매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과 같을 뿐이다. 하루아침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가련하고 또 가련하다. 아마도 세계의 공의가 없어서 일 것이다. 완력가가 병든 사람의 금과 보물을 힘써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였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스페인이 필리핀을 침입할 때 인민들이 굳센 기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저항하여 물리쳤고, 영국이 트란실바니아를 병탄하고자 병사를 일으켜 공격할 때 그 군주와 백성들이 죽기로 사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를 살펴보면 한국의 강토는 8만 방리(方里)의 면적과 인구는 2천만 인이니 공격하고 지키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백성들의 기(氣)가 거의 작디작은 두 나라만 못하니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참판 이남규는 소장에서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은 부(部)의 인장으로 조인하여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나머지 도적들이 더러는 가(可)라고 쓰고, 불가(不可)라고 쓰니, 하루아침에 적에게 두 손으로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위로는 종묘사직의 신령이 의지할 땅

8 『鴻齋日記』, 1906년 1월 4일 자.

이 없어지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슬픔을 호소할 하늘이 없어졌으니, 말살(抹殺)함이 이 같다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두루 고찰해 보건대 임금이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어 그 신하들이 따르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신하가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임금이 따르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기행현은 연재 송병선(宋秉璿)이 1905년 12월 27일에 약을 마시고 서거한 내용, 그의 상소에 대한 비답, 면암 최익현과 간재 전우의 상소에 대한 비답도 기록하였다. 또한 송병선의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며 1906년 2월 22일 금산에 예장(禮葬)한다는 소식, 6월 13일 민영환이 죽은 뒤 시신을 모셨던 방에 대나무 세 개가 났다는 풍문까지 소개하였다.

2) 을사의병·정미의병의 동향

러일전쟁 직전부터 일본의 침탈야욕을 감지한 지방 민중들의 움직임은 기민하게 전개되었다. 『홍재일기』에 따르면 1904년 1월 26일 임시중(林時中)이 주도하는 의병이 태인에서 모였다가 28일 스스로 흩어졌다고 한다. 을사늑약 직전에도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1905년 7월 일기에는 면암 최익현이 삼남(三南)으로 향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통문을 돌리며 읍을 순회한다고 적고 있다. 11월 13일에는 송병선과 최익현이 수두(首頭)라는 내용의 의병 통문이 그가 사는 부안의 향교에 당도하였다. 같은 달 21일 기행현은 의병소의 또 다른 통문을 보았는데, 올해 8월 27일에 대동공법(大同公法; 만국공법을 말함)을 준수한다는 통문을 발송하였고 13도의 유생 대표는 김동필(金東弼)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1906년 6월까지 경상도 동래와 안동 의병, 충청도 홍주 의병, 전라도 태인과

정읍, 장성, 광주, 순창, 전주의 의병 상황과 정부의 의병 토벌 사실을 일기에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1906년 1월 21일 자 일기에, “어제 화적(火賊)들이 흥덕 칠성동(七星洞)에 침입하여 방수군(防守軍)과 접전하였는데 반나절도 되지 않아 방수군은 패주하였고, 화적들은 곧장 들어가 포를 쏘고 불을 놓으니 온 마을에 한 집도 남지 않고 모두 재가 되었으며, 죽은 사람이 12명이라고 한다”라며 일부 의병을 화적으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부터 그의 인식에서는 의병과 화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선 을미의병 당시의 인식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떤 이는 의병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화적이라고 말하고, 더러 삼사백 명이라고 하고 혹은 삼사십 명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줄포에 들어가 왜관(倭關)을 때려 부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해산하였다. 간 곳을 알지 못하니 모두 말하기를 신병귀책(神兵鬼策)이라고 한다.”⁹

이 같은 ‘의병=화적론’은 지난달에 줄포에서 왜관을 때려 부순 의병들이 이제는 화적이 되어 무장(茂長) 등지에서 사로잡혔다는 기록으로 이어진다. 기행현은 곳곳의 의병이 “혹은 관장(官長)을 무참히 살해하고 혹은 관장을 무참히 몰아내는 일이 허다하다”라고 하여 일본인 처단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지방관 처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鴻齋日記』, 1906년 6월 14일 자.

이후에는 주로 의병과 일본군과의 접전, 그로 인한 지역민의 피란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1908년 4월 26일 자 일기에는, “의병이 변산에 들어와 왜병과 접전한다는 말이 낭자하니 산중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기록하였고, 개암동에 들어가 죄 없는 사람을 참수(斬首)하고 포살(炮殺)했다고 하였다. 용동리라는 곳에서는 7명의 여자를 약취해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예동에 들어와 마을 안을 횡행하다 가자 부녀자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 피해서 온 사람이 많았다고 하였다. 기형현 역시 종제와 피난도생법(避亂圖生法)을 보았다는 일기 기록으로 보아 피란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08년부터 기형현의 의병에 대한 인식이 전에 비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기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칭 의병’으로 인한 피해와 면회(面會) 개최 등을 통한 지역민의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해 9월 23일 자 일기에는, “외돈에 사는 김문재(金文才)와 머슴 김가가 자칭 의병이라면서 인근 마을을 마구 휘젓고 다녀 고부에 잡아 가두었는데, 마구잡이 진술 속에 면내 백성 중 잘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 면회를 열어 바로 잡으려 한다”고 적고 있다. 11월 10일 밤에는 전주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자칭 의병 김가가 찾아와서 돈 3냥을 주어 보냈다고 기록하였다. 같은 달 12일 밤에는 의병이 예동 김성숙의 집에 불을 질러 전곡(錢穀)·의복·음식 등 가산이 모두 잿더미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기에 다음날 가서 보기도 하였다. 21일 깊은 밤에 안가(安哥)와 자칭 의병 4, 5명이 들이닥쳐 돈과 재물을 토색하였는데 집집마다 적간(摘奸)할 때 종제의 집에서는 뒷날 50전을 주겠노라고 달래서 보냈다고 한 사실도 알았다고 한다. 1909년 7월 1일 자 일기에는 이른바 의병이라는 박가와 양가가 와서 보여준 호남 의병장 지령에, ‘술 2동이, 돼지 1마리, 백미 5

되를 즉시 거두어 오라라고 하였는데, 궁한 시절에도 사례(謝禮)가 없으면 내던지고 때리니 할 수 없이 돼지 1마리와 쌀 2되를 주어 달래 보냈고, 추가로 참외와 가지, 쌀 1말을 주어 보냈다고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의병봉기와 진압 일본군 출동에 대해 그 자신이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생활인으로서의 개인의 현실적 처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게 토로하였다.

“대저 금년 농사는 겨우 흉년을 면했는데, 고지대의 논밭이 아닌 곳은 풍년이고 깊은 곳의 물이 가까이 있는 논은 실농이니 흉년이라 할 만하다. 곡식값은 시세가 없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지진(紙錢)과 엽전(葉錢)이 통행되어 어지럽게 쓰이니 높이 떨 만한데 시세가 없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의병이 득세해서인가? 왜인이 제멋대로 자신의 위세를 부려서 그런 것인가?”¹⁰

남한대토벌 작전에 즈음하여 1909년부터는 부안 지역의 의병색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월 18일에는 각 마을 인구의 용모파기(容貌疤記)와 키는 몇 자인지, 생년월일을 성책하라는 지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용모파기를 성책하여 동임(洞任)에게 주었다. 윤2월 20일 자 일기에는 일본군[倭兵]이 마을을 횡행하며 사람을 만나면 차고 때려 거의 죽을 지경인 사람이 허다하고, 의병소 도처에 보발(步發)을 세우지 않은 일로 각 마을 동임을 잡아갔는데 가둔 지 5,6일 에야 지금 겨우 내보니 잔민(殘民)이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일본군 토벌

10 『鴻齋日記』, 1908년 11월 30일 자.

대로 인한 피해를 하소연하였다. 그들의 징발 문제도 거론하였다. 7월 17일 면장의 회유 내용에 ‘일본 수비대 보병 숙식소에 생닭 5마리, 계란 10개를 거두어 보내라’라고 하였다. 같은 달 18일에는 보병 10여 명이 도착해 동임의 집에 자리를 잡고 마을의 남자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불러 모아 일일이 적간하고, 그 뒤에는 집집마다 흩어져 들어가 가산을 일일이 적간하고 갔다고 하여 정부군의 가택수색 상황을 기재하였다.¹¹

이 시기 기행현은 의병의 군수품 징발을 ‘토색’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 예컨대, 1909년 윤2월 2일 “의병 두 사람이 와서 마을 안에서 돈, 재물, 술, 음식을 토색하였다. 그래서 돈 5냥을 주니 술과 음식을 기다리다가 갔다”라면서, “몸뚱이 하나에 사살(四殺)이 침범하여 쇠기(衰氣)가 침범하고, 화재가 침범하고, 의병이 침범하고, 왜병이 침범하였다. 한 점의 생기(生氣)로는 제거하기 어렵다”라고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같은 달 11일에는 “의병 2인이 와서 마을 안에서 돈, 재물, 술, 음식을 토색하므로 돈 2냥을 주어 보냈다”고 하였고, 12일 “의병이 또 와서 토색하므로 돈 2냥 2전을 주어 보냈다”, 13일에도 “의병이 또 와서 토색하여 2냥을 주었다”라고 기록하였다. 21일에는 “의병 두 사람이 와서 돈과 재물을 토색하였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갔다.” 22일에는 “의병이 돈을 결정하지 못한 일로 또 와서 휘젓고 다녔다. 동임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하니 보지 못해 결정하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하였다. 25일에는 의병전(義兵錢)을 해결하지 못한 일로 마을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달아났고, 26일 의병 최원경(崔元京)이 돈과 재물을 해결하지 못

11 대한제국 정부와 지방관의 반일운동 탄압양상에 대해서는 조재곤, 「러일전쟁 이후 의병 탄압과 협력자들」 『한국학논총』 37, 2012 참조.

한 일로 몰래 동임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6월 12일 이른 아침에는 의병 최철(崔哲)과 홍원경(洪元京)이 군수전 51냥을 마을에서 보조해달라고 요청했고 5냥만 주겠다고 하니 대꾸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강요된 의병의 금전 징수는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일부 피란으로까지 연결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4.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인식

1) 일진회와 친일세력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일진회와 자위단 등 민간차원에서 의병과 민중운동 탄압도 자행되었다. 일진회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국권보다는 민권,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더 강조한 이른바 ‘문명개화’를 절대 과제로 내세운 친일 사회단체였다.¹² 기행현의 일기 1904년 11월 12일 자에 “일진회(一進會) 40여 명이 본 군에 들어왔는데 본래 동학이라고 하였다”라는 기사가 처음 등장한다. 일진회 세력의 부안 진출이 시작된 것이다. 1904년 11월 이후부터 1905년 2월까지 부안 지역의 일진회 활동 상황을 『홍재일기』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14일에는 일진회 사무소에서 군의 남문 안과 주점 벽 위에 글을 부쳤고, 12월 29일에는 일진회원과 활빈당, 영학당이 주와 군에 횡행하여 뜯소문과 헛소문만 무성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1905년 1월에는 경

12 이에 대해서는 김종준, 『일진회의 문명개화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2010 참조.

성에 사는 김치병(金致秉) 5형제가 삭발하고서 일진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일진회원들이 새해가 된 후 더욱 성하다고 한다. 기행현이 거주하는 마을의 호구성책(戶口成冊)과 결복답주성책(結卜 畝主成冊) 2건을 작성하여 외예동 일진회소로 보낸 사실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진회원들이 전주의 병리(兵吏)들과 서로 다투어 3명이 피살되었다고 한다. 일진회원들의 폐해에 대해 그는, “일진지회(一進支會)의 본의는 진실로 황실을 공고히 하고 백성들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나온 것이니, 곧 양규(良規)이다. 회인(會人)이라고 거짓 칭하고 마을에서 횡행하여 폐단을 일으킨 자는 결박하여 잡아서 올려보내라”라는 같은 달 13일 자 관청의 지시 내용도 소개하였다.

지역사회의 일진지회 거부 운동과 의병의 대응 및 정부의 반응이다. 일진회원들의 횡행에 대한 1905년 2월 18일 전주향교의 권학수(權鶴壽)·유기(柳記)·최의영(崔議榮)·소휘관(蘇輝觀) 등은 통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 대한은 본래 예의지국으로 법과 강령이 당당하고 의관이 빈빈(彬彬)한 지가 500년이 됩니다. 아! 세월이 흘러내려 국보(國步)가 간난(艱難)하여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이 여기는 무리들이 일진회를 방자하여 이내 오합지색으로 감히 위세를 부리는 짓을 해서 삭발하고 변복하여 상심(常心)을 현혹하고 평민들을 능삭(勒削)하며 심지어 정부를 비방하는데 이르고, 부군(府郡)을 능욕하고 법과 강령을 멸역(滅戮)함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배척하기 위해 바야흐로 창의하고자 하는 뜻으로 사의(思義)가 이처럼 신중합니다.”¹³

그러나 삭발과 흑색 의복 강제에 반발하여 일어난 이 운동은 실패하였

다. 헌병 30명이 전주부에 들어가 의병소와 일진회소를 회유하며 서로 싸우지 말고 돌아가 생업을 힘쓰도록 하였다. 이에 의병들이 해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헌병소에서 의병 장두(狀頭) 8인을 잡아가자 다시 모였다. 일진회 두령 윤두병(尹斗秉)도 100여 명의 회원을 이끌고 전주부를 점령하여 일진회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자를 잡아 가두었다. 일진회와 더불어 진보회(進步會)도 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벌였음은 그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일진회원의 재물 요구도 빈번하였다. 1905년 7월 26일 태인 사는 일진회원 임량숙(林良淑) 등 3인이 부안에 와서 사무를 보면서 재물을 요청하기에 가난하고 비루한 고을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답도 없이 곧바로 떠났다고 한다. 같은 달 28일 임실의 일진회원 오일환(吳一煥)이 인구와 무망진결(無亡陳結)을 성책(成冊)하는 지가(紙價)의 일로 왔기에 1냥 5전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1906년 2월 2일에는 선운동에 사는 이정백(李正伯)의 과부 머느리 양씨(梁氏)에게 일진회원들이 음행하다는 헛소문을 내고 행패를 부리며 금품을 요구하자, 양씨가 관정에 원통함을 부르짖고 칼로 자결한 일도 있었다. 같은 달 6일에는 일진회원 김재섭(金在燮)이 와서 구걸하기에 쌀 3되를 주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 그달 30일에는 일진회원이라고 칭하면서 토색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를 보고하라는 관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1905년 8월 27일 자 일기에서 기행현은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전쟁하다가 영영 그만두고 떠나가고, 일본은 미국(尾國)에게 5만원을 뇌물로 주

13 『鴻齋日記』, 1905년 2월 18일 자.

고 강화를 청했다”며 『포즈머스강화조약』의 사실을 적고 있다. 또한 11월 22일에는 “박제순(朴濟淳; 朴齊純의 오기)이 일을 맡아서 권한이 막중하다고 한다”는 내용과, 26일 “왜인 이등방문(二登方文, 이등박문[伊藤博文]의 오기)·장곡천(長谷天; 長谷川의 오기)이 항복하는 문서를 빼앗아 바치고 전하는 거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여 을사늑약의 사실이 부안에도 전파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기행현은 러일전쟁 시기 『한일의정서』 체결의 당사자이자 이른바 ‘을사오적’의 한 명인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에 대한 의기(義妓) 산홍(山紅)의 수청 거절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영남 진주의 기생 산홍(山紅)이 침선비(針線婢)로 상경하였다. 이지용은 오적의 수장인데 연회가 끝난 후에 압박하고자 하였으나 산홍이 들어주지 않았다. 지용이 무슨 까닭으로 수청을 들지 않느냐고 묻자 산홍이 답하기를 ‘차라리 우리나라 도적을 위해서는 수청을 들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에게 수청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¹⁴

이와 동일한 내용은 황현(黃玑)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도 “진주 기생 산홍은 얼굴이 아름답고 서예도 잘하였다. 이때 이지용이 그를 불러 첩으로 삼으려고 하자 산홍은 사양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대감을 5적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첩이 비록 천한 기생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인데 어찌 역적의 첩이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이지용이 크게 노하여 산홍을 때렸다”¹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14 『鴻齋日記』, 1906년 11월 19일 자.

기행현은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1907년 6월 10일 나라에 큰 변이 있었는데, 역신(逆臣) 박영효(朴永孝)가 영의정이 되고, 왜인(倭人) 이등박문(伊藤博文)이 섭정 자리에 앉아 군왕을 협박하여 옥쇄를 탈취하고 태자에게 전위하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또한 면장을 통해 본 관청의 첩문을 통해 황태자 전하의 대리조칙이 이달 19일에 반포되자 백성들이 의심을 품어 인심이 동요하고 떠도는 말이 퍼졌다고 한다. 지역 주민에 대한 효유문 조칙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이달(7월) 2일 내각총리대신이 조칙을 공경히 받들었다. 개원(改元) 연호는 융희(隆熙) 2자를 쓰고, 태황제의 궁호는 덕수(德壽)이고, 부호(府號)는 승녕(承寧)으로 반포 시행하니 일반 인민은 잘 알 것”과 부안군 분파소 주임 순검 신치희의 고시에, “조칙으로 효유하셨으니, 지금 이후로 내외국 신문 지상에 게재된 무엄하고 터무니없는 소문은 단연코 믿지도 듣지도 말고 혹시 거짓말을 퍼뜨려 인심을 선동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1908년 8월부터 9월 사이에는 신임 황제 순종 즉위식을 즈음하여 단발령을 시행하라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명의의 칙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군 경내는 지난날 관직을 역임한 사람의 단발 여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빠른 시일 안에 성책하고 혹 감추고 현록(懸錄)하지 않고, 조칙이 내렸는데도 단발하지 않으면 실로 신민의 도리가 아니니 조관(朝官)의 거주지·성명·연령 및 단발 여부에 대한 형지(形止, 전말을 말함)를 성책하여 보고하라”라는 부안군수 박일헌의 명령이 주민들에게 하달되었

15 黃玪, 『梅泉野錄』 제5권, 光武 10년 丙午, 16. ‘진주 기생 山紅의 義氣’.

다. 이러한 식발령에 따라 부안 읍내 수리(首吏) 신동석(辛東錫), 김영옥(金永旭), 김시욱(金時旭)은 모두 식발하였고, 간재(艮齋) 전우(田愚)는 왕등도(王登島)로 도피했다고 기록하였다. 『정미조약』 이후 이 같은 상황을 그는 ‘나라가 망한 것’으로 총평하였다. 예컨대 같은 해 11월 16일 자 “경성 사람 안병일(安秉一)을 만나 함께 잤는데, 지난해 6월 이래로 대황제의 안위존망과 망국(亡國)의 형편을 이제야 자세히 듣게 되었다”라는 일기 기록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 직후에는 일본과 합국(合國)한 뒤에 의사(義士)가 많이 죽었는데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은 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고 적었다.

2) 일제의 한국 토지 점탈

러시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 등 서구열강과 조약을 맺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마련해 가던 일본은 전승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한국의 각종 권한을 제약하고 식민지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1907년 정미7조약으로 고종의 강제 퇴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나라의 형편은 준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다. 그 여파는 기행현의 거주지인 전라도 부안지방까지 파급되었다. 이 지역은 호남평야가 인접한 조선 국창지대에 해당하는데 국권이 형해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토지점탈과 식민지 농업기반의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

1909년 윤2월 23일 자 일기에 따르면, 일본 승려[倭僧] 쇼우카 키오토코(松花木男)가 일본인을 보내 변산을 조사 검색하기 위해 변산 동화동(桐花洞)에 들어왔고, 선산이 있는 사람은 각각 그 자손들이 문축(文祝)

을 가지고 와서 대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행현은 자신의 선산 토지문서는 이미 잣더미가 되었고, 조사 검색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려 그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1910년 3월 18일 자 일기에 “무신[1908년] 난리는 웬 난리? 기유[1909년] 생난리에 큰 개 작은 개가 시냇[1911: 신해년]가에 드러누워 임자[1912년]를 기다리네[戊申亂離 何亂離 己酉生亂離 大犬小犬 辛亥過臥待壬子]”라는 당시 회자되고 있던 동요(童謠)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친구 김국필과 함께 대화하던 중에 “국가의 일에 미치니 한심하고 안타까웠다”라고 토로하였다. 또한 종묘와 신구 대궐을 일본인이 매입하여 부수니, 경성에는 뿔감이 산처럼 쌓여 값이 매우 싸다며 무너지는 조선 왕실과 망국적 사태를 우려하였다. 기행현은 8월 4일, “대한 황제 폐하가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위하고 전권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맡는다”라는 대한제국의 권리를 일본에 양위하는 조칙을 받아 보게 되었다. 또한 같은 달 19일에는 “모든 관리와 유사(有司)들은 짐의 뜻을 본받아 시행과 설립에 종사하여 적당히 늦출 때는 늦추고, 급하게 할 때는 급하게 하여 못 서민들로 하여금 영원히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경복(慶福)을 누리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조선어로 번역한 명치(明治) 43년[1910] 8월 29일 자 일본 황실령(皇室令) 『조서유고칙령(詔書諭告勅令)』을 보았다.

8월 24일에는 “이번에 일본과 한국이 합방(合邦)하니 서로 축하하는 의미로 이달 30일에 와서 참석하라”라는 간친회(懇親會) 발기소(發起所)의 문자를 받기도 하였다. 29일에는 간친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참석·불참을 막론하고 60전씩 각자 의연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발기소의 공함(公函)이 도착하자 그는 돈 3냥을 지불하였다. 강제 병합 직후인 9월 9일

에는 성 위에 올라가 일본인 관광객 50여 명이 도착한 것을 보았는데, 뒤에 들으니 진신과 사람을 비롯하여 수백 명이 환영하였다고 한다. 10월 1일 이날은 일본 황제의 생일(메이지[明治]의 생일인 양력 11월 3일을 말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911년 일기에서는 일본인의 토지 점탈과 그들의 소작인과 마름 고용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해 1월 18일 자에는 일본인이 42,300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군청에서 그 평수가 많아 의심스러우므로 돌려보낸다는 공함 내용을 적고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일본인 미야케(三宅)의 논 7두락을 강용묵(姜用默)이 소작[時作]하는 일에 관한 입증표를 면장소에 써 주기도 하였다. 일본인의 토지매입도 거론하였다. 즉, 3월 13일일 자에는 고잔(古棧)에 사는 일본인의 논 마름 유봉경(柳鳳卿)이 마을 앞뜰에 있는 오병엽(吳炳燁)의 논 81두락을 6,500냥에 방매하여 일본인의 논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한다.

기행현의 아들도 일본인의 논을 소작하였는데, 도마름[都舍音] 신성언(辛成彦)의 집에 가서 전처럼 짓기로 하고 왔다는 것이다. 그 또한 일본인 후지모토(藤本) 합자회사의 논을 소작하였다. 이 농업회사에서는 소작인들에게 맹약증(小作人盟約證)을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부안 지역에서는 내수사(內需司)의 논을 일본인이 매입하여 소작권을 변경하는 일도 있었다. 같은 해 5월 5일 일본인의 광고(廣告)에, “전에 시작[時作]하던 사람으로 다시 정한다”라고 했으므로 소작인이 낸 돈 36냥 5전은 되돌려주고, 이전 소작인이 도로 경작하기로 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고, “가을이 오면 내년 농사지을 논 10여 두락을 얻어주겠다”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내수사의 논 소작인들을 불러 농사를 권면하면서, “부지런히 심고 김매면 가을에 저절로

보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부안 지역의 일본인 토지매입과 소작권 변경은 국망 직후부터 본격화되었고 식민지 농업경영으로 인한 여파는 농사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던 농촌 유생 기행현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었던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5. 맺음말

전라도 부안에 거주하였던 농촌지식인 기행현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 장기간에 걸쳐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탐문한 내용을 일기로 작성하였다. 그가 살던 시기는 개항 이후 봉건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기간이었다. 제국주의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이 시기 정치사회의 변동양상은 어떤 시기보다도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일기의 최종 부분은 그의 중년과 만년에 해당하는 근대화와 정치 사회적 격변과 이후 식민지로의 진행 과정이기도 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크게는 조선사회, 작게는 부안의 변화양상과 관련하여 기행현이 『홍재일기』를 통해 서술한 내용의 골자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동학농민군 잔여 세력의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색출과 토벌을 위해 부안 지역에도 유희소가 설치되었다. 농민군 체포와 처단은 1895년부터 1904년 러일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기행현은 폐잔 농민군도 ‘구 동학도’와 ‘신 동학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색출을 위해 전라도 각 군과 읍에는 오가작통제와 사상통제를 위한 향약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특히 개항 이후 일상화되었던 오가작통제는

러일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부안 지역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작통제는 각 마을에서 매달 2회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주민들은 각기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고 훈집소에 모여 점검하는 형식인데 그 내용을 두 권의 책으로 작성하여 비치해두었다.

기행현은 여타 변혁운동에 대해서도 일기에 언급하였다. 그는 경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민란 소식을 들었고, 대한제국 시기 초반 제1, 2차 제주민란과 서울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과 함께 특히 전라도 정읍과 고창, 흥덕, 김제 등 주변 지역에서 크게 활동하던 영학당 관련 내용도 일기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영학당을 ‘서양 종교를 방자하여 침학하고 폐단을 일으키는 무리’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는 영학을 동학의 변형으로 평가하면서도 영학, 동학, 서학 등으로 엄밀하게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거주지인 부안 지역은 영학이 없어 태평하다며 안도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조선 ‘보호국화’ 과정에서 왕후 민씨가 살해되는 을미사변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여파는 몇 달 후 부안 지역에서도 반일 의병으로 나타났고 부안 의병의 창의문 전문과 의병장들의 이름을 그는 일기에 소개하였다. 이듬해부터는 전국적인 의병봉기가 시작되었고, ‘의병이 하나같이 엄숙하였다’라는 나주 아동들의 평가도 소개하였다. 그의 가문인 전라도 기씨 문중에서는 참봉 기우만을 필두로 하여 대대적으로 의병에 참여하였고 이에 대한 감영군의 보복으로 ‘멸문의 화’를 당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 같은 을미의병에 대해 그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반면 지방관리를 살해한 충청도 의병장 유인석은 역적에 비유하면서 혹평하였다.

이후 러일전쟁과 일본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지역 주민과 물

자 동원, 일본인의 토지 점탈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그는 “인부를 모집하는 일은 반드시 민심을 크게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한 바 있었다. 러일전쟁은 일본이 승리하였고 이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등 국권이 형해화되어 가자 민영환과 홍만식, 조병세 등 우국지사들이 자결 순국한 사실도 일기에 적고 있다. 또한 밀아자의 글과 영국 신문, 『대한매일신보』 기사, 참관 이남규의 상소 전문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기행현은 이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세히 기록으로 남긴 점으로 보아 그 역시 국권 회복을 열망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을사늑약 이전부터 태인은 물론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그는 면암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키고 통문을 돌린 이후부터 경상도 동래와 안동 의병, 충청도 홍주 의병, 전라도 태인과 정읍, 장성, 광주, 순창, 전주의 의병봉기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앞선 을미의병 당시와는 달리 이 시기부터 그의 인식에서는 의병과 화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인 처단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지방관 처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것도 1908년부터는 전에 비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칭 의병’의 폐해와 면회(面會) 개최 등을 통한 지역민의 대응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의병의 지속적인 금전 징수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는데, 그는 의병의 군수품 징발을 ‘토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 1909년부터는 부안 지역의 본격화된 정부군의 가택수색과 의병색출 관련 내용도 기록하였다.

대한제국 멸망 직전에는 일진회 등 친일 사회단체가 전국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단체의 지회는 그가 사는 부안에까지 진출하였다. 기행현의 일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주민들의 일진회 지회에 대한 거부 운동과

주민들과의 갈등, 정부의 대응 등을 여러 각도에서 소개한 것이다. 일진 회원들의 토색과 빈번한 금품 요구도 있었다. 진보회와 주민들과의 갈등도 기록하였다. 또한 기행현은 을사늑약의 사실이 부안에 전파된 사실을 기록하면서 ‘을사오적’의 한 명인 외무대신 이지용과 기생 산홍의 수청 거절에 관한 일화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어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에 관한 정미조약, 황제의 대리 조칙, 지역 주민에 대한 효유문 조칙 전문, 단발령 시행, 기우만의 가결 등도 일기에 남겼다. 그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나라가 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국망 직전의 일기에서 그는 “무신 난리는 웬 난리? 기유 생난리에 큰 개 작은 개가 시냇가에 드러누워 임자를 기다리네”라는 당시 회자되던 동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의 왕궁 매입과 철거 등을 통해 무너지는 조선 왕실과 망국적 사태를 우려하면서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권리를 양위하는 조칙 번역문과 칙령을 보았다. 한편 호남의 곡창지대인 부안 지역은 이 시기부터 일본인들의 토지 점탈과 식민지 농업기반의 거점이 되었다. 일기에 그는 일본인의 부안 지역 토지 점탈과 그들의 소작인과 마름 고용의 사례를 적고 있다. 그의 아들도 일본인의 논을, 그 역시 후지모토 합자회사의 논을 소작하였다. 부안 지역의 일본인의 토지 매입과 그로 인한 소작권 변경은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 병합 직후부터 본격화되었고 그 여파는 기행현 자신에게도 피부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다.

투고일 : 2023.10.31.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참고문헌

-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2004.
- 김종준, 『일진회의 문명개화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2010.
-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상·하)』, 문화발전소, 2022.
- 조재곤, 「러일전쟁 이후 의병탄압과 협력자들」 『한국학논총』 37, 2012.
- 김철배, 「전라도 부안 土族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전북사학』 46, 2015.
- 김영준,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현 호구 및 결가 조사의 실제적 양상—남하면 훈집(訓執) 기행현의 홍재일기(鴻齋日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53, 2018.
- 이선아, 「19세기 부안 儒生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2019.
- ———,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秘訣의 유행」 『동학학보』 65, 2023.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변동

조재곤(서강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전라도 부안에 거주하였던 농촌지식인 기행현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 장기간에 걸쳐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탐문한 내용을 일기로 작성하였다. 그가 살던 시기는 개항 이후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기간이었다. 제국주의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이 시기 정치사회의 변동양상은 어떤 시기보다도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일기의 최종 부분은 그의 중년과 만년에 해당하는 근대화와 정치 사회적 격변과 이후 식민지로의 진행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그는 『홍재일기』라는 비망록으로 남겼다. 이 글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제 강점에 이르는 기간 한국 근대의 정치 사회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소개 분석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변혁운동의 추이와 ‘동비여당’ 색출과 오가작통제 시행, 을미사변과 의병봉기, 을사늑약과 순국 자결, 을사·정미의병의 동향, 일진회와 친일 세력, 일제의 식민농업 기반조성 관련 등이다.

주제어 : 기행현, 홍재일기, 부안, 동학농민혁명, 의병

Abstract

Social changes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s viewed in the of Hongjae Diary

Cho, Jae-Gon(Professor of Academic Research
at Sogang University)

Ki Haeng-hyun, a rural intellectual who lived in Buan, Jeolla-do, wrote a diary of experiences or reports from people around him from the mid-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His life was a period of transition from feudal society to modern society after opening the port. In relation to the imperial international order, the pattern of changes in political society during this period developed more rapidly than at any time. The final part of the diary was also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which corresponded to his middle and later years, and later to the colony. He left this situation as a memorandum of 『Hongjae Diary』. This article introduces and analyzes the contents, focusing on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of moder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to the Japanese occupation.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progress of the transformation movement, the search for the peasant army and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ntrol, the murder of the queen and the righteous army resistance, the Japan-Korea Treaty of 1905s and self-determination of patriots, the trend of righteous army in the second half, pro-Japanese groups and their fo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lonial agricultural foundation of Japan.

key word : Ki Haeng-hyun, Hongjae Diary, Buan, Donghak Peasant
Revolution, Righteous Army

특집논문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 1866년~1869년을 중심으로 -*

전 경 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목차

1. 머리말
2. 과거 준비
3. 과거 응시
4. 인적네트워크
5. 맺음말

1. 머리말

『홍재일기』¹를 살펴보면 기행현(奇幸鉉, 1843~?)이 살았던 시기가 한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격동기였던만큼 그의 관심이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고 이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도 크게 변하여 상이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홍재일기』의 기록에 의해, 기행현의 관심이 어떻게 변천되며 이에 수반되어 그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본고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홍재일기』의 전반부를 분석해서 기행현이 젊었을 때,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안에서 어떠한 인물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해보겠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시기적으로는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1866년(고종3)부터 부친이 사망한 1869년(고종6)까지 4년 동안인데 이때 그가 공부 모임인 ‘접(接)’을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 지방과 중앙의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오가는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아울러 과거응시 이외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밝히겠다. 끝으로 이 기간 동안에 그가 향촌사회에서 어떠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보겠다.

그런데 기행현의 수학과과정과 과거응시 및 교유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임혜영과 송행근이 소개한 바 있다.²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수학과 과거

* 이 논문은 2023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홍재일기』는 기행현이 1866년 3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쓴 일기로 2022년에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에서 국역하여 간행한 바 있다.

응시 과정에서 나타난 ‘접’에 대해 좀더 상세히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전통교육 과정이나 과거 준비 과정에서 ‘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설령 관심을 보인다 해도 이를 보는 시각에서 필자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송행근은 ‘접’을 ‘학습공간’으로 파악했으나 필자는 ‘학습모임’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우선 차이가 있다. 즉 한 공간 예컨대 어느 특정한 암자에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접이 동시에 상이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공간에도 서로 다른 공부 모임이 존재했다.

한편 기행현의 인적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임혜영이 분석해 다양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그는 『홍재일기』에 등장하는 인물 2,000여 명의 거주지와 친족 및 혼인 관계를 추적하고 조문과 방문의 횟수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인적네트워크를 상세히 규명했다. 그러나 필자는 기행현의 관심사에 따라 시기별로 이 인적관계망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일기를 쓴 전기간을 구분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만나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 참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가 과거 시험에 관심이 있어서 ‘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공부하는 시기에 국한해서 살펴보려 한다. 또 그가 지방의 어떠한 조직이나 친목 단체 예컨대 면향약이나 각종 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추적해서 그의 인적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는 그의

2 임혜영, 「『홍재일기』를 통해 본 지방사족의 일상생활」과 송행근, 「『홍재일기』에 나타난 기행현의 학습과정과 중국 시문의 수용」(2022년 이재연구소 학술대회, “『홍재일기』(1866~1911)로 본 부안의 사회상” 발표자료집 참조).

나이 24세 때부터 27세 때까지로 젊은 유학자로서 자신의 삶에 왕성한 의욕을 보이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그러하였듯 기행현의 과거 시험에 대한 공부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³ 따라서 그 이후 그의 관심은 향촌지역의 조직과 동향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⁴ 그 래서인지 면의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직강(直講), 훈집(訓執), 사수(社首), 훈약(訓約), 훈약장(訓約長) 등을 역임하기도 한다. 또 마을에 부과 되는 군역이나 부세 등에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일기에 남겼다. 따라서 관심이 과거 준비와 과거 응시에서 어떠한 계기로 지역의 현안문제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나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겠다.

2. 과거 준비

『홍재일기』는 봄기운이 화창하던 1866년 3월 10일에 예재(禮齋)에서 독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⁵ 독서를 한 이유는 유학을 익혀 바른 사

3 기행현은 1887년(고종24) 8월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전주에서 실시하는 향시에 참여했는데 이는 接과 관련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했다.

4 김영준, 「19세기 후반 부안군 훈집(訓執)의 성격과 역할 -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인문 과학연구』 77, 55~81쪽 참조.

5 丙寅三月初十日 始記 初十日 春氣方和 讀於禮齋. 본고를 작성하면서 전북대학교 이계 연구소에서 간행한 『국역 홍재일기』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弘齋日記』 원본 자체에 교감이 필요할 정도로 오탈자가 상당한데다 또 정서나 번역 과정에서 생긴 실수도 가끔 있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원문을 소개한다.

람이 되기 위해서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합격하여 입신양명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제는 부안현 상서면⁶ 백석리 예동(禮洞)에 있는 서재(書齋)로 그 주인은 김병용(金秉鏞)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궁벽한 향촌의 마을까지도 서당이나 서재(書齋)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 예제도 그 중 하나였다. 서재에 대한 호칭은 일반적으로 ‘예재’나 ‘용동재(龍洞齋)’와 같이 그것이 있던 곳의 지명을 덧붙여 불렀다. 즉 예제는 예동에 있는 서재이며 용동재는 같은 고을 좌산면(左山面) 용동에 있는 서재를 가리켰다.⁷ 또 서재 주인의 성(姓)에 따라 부르기도 했다. 예컨대 면의 실무자들이 군역의 배당과 관련하여 같은 해 9월 8일에 송재(宋齋)에서 모였는데 송재는 송씨의 서재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⁸ 1868년(고종5) 윤4월 4일에 석동의 김재(金齋)에서 공부모임이 개설되었는데 석동산(席洞山)에 있는 취성재(聚星齋)가 부안김씨의 재각(齋閣)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불렀다.⁹

서당과 서재는 다 같이 전통교육을 실시했던 기관으로 간주되지만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서당은 훈장이 직접 학동을 가르쳤다. 이에 비해 서재는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모임’에 더 가까웠다.¹⁰ 따

6 서재가 있던 예동이나 기행현이 살았던 홍에 마을이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상 어느 면에 속했는지는 미상이다. 예동은 읍지나 『호구총수』 등에 나타나지 않으며 홍에는 『호구총수』에 南上面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작 기행현이 받은 直講 差帖에는 南下面으로 적혀 있다.(1885년 9월 3일 일기) 따라서 예동과 홍에 마을이 조선시대에 어느 면에 속했는지는 좀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1866년 4월) 三十日 … 往龍洞齋 見宋靑坡而來.

8 (1866년 9월) 初八日 … 面會于宋齋 小軍二名入于此村云.

9 (1868년 윤4월) 初四日 … 往石(席의 誤)洞金齋設接.

라서 서당에서 사서삼경 등을 공부한 이후 과거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재에서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이때에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경서(經書)에 능통하거나 글 잘 짓는 선생을 접장(接長)으로 초빙하여 과거 시험에 나올만한 시제(試題)를 출제토록 하고 첨삭지도를 받아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공부 모임을 ‘접(接)’ 또는 ‘접중(接中)’이라 불렀으며¹¹ 서재에 거처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거접(居接),¹² 함께 공부하는 행위나 사람을 ‘동접(同接)’, 동접인(同接人) 혹은 ‘동접생(同接生)’이라고 했다.¹³ 또 공부 모임 개설하는 것을 ‘설접(設接)’¹⁴ 이를 끝내는 것을 ‘파접(罷接)’이라 하고¹⁵ 접에서 가르치거나 선도하는 스승이나 선배를 ‘접장(接長)’ 지도받는 자들을 ‘접인(接人)’ 또는 ‘접생(接生)’이라 칭했다.

기행현이 예제에서 독서하는 것으로 일기를 시작한 것은 그가 이전에도 이곳에서 글을 읽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개 접을 결성하는 이유는 가까운 미래에 과거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며 파접하는 이유는 서울 또는 타지에서 실시되는 과거 시험장에 가야하기 때문이었다. 기행현이 예제에서 책을 읽은 그 날, 서재의 주인인 김병용은 과거 응시를 위해 상경한 직후이며 접장이었던 백학래(白鶴來) 역

10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18~121쪽.

11 (1868년 5월) 十二日 … 逢金斗植於柿倉下 相問接中事.

12 (1868년 5월) 二十日 … 禮洞閔勝鎬來到 言道東金齋巨(居의 誤)接云.

13 (1866년 8월) 二十二日 … 午後同接 或行或在 而余亦發行次 往于宗人舍館 同行至月峯書院宿所.

14 (1866년 4월) 二十日 … 始設接於禮齋 而青田猶未當到 徒聚接率十餘人 出韻禱詩而罷.

15 (1866년 7월) 十五日 … 罷接.

시 응정(甕井)의 김규혁(金奎赫)과 상경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기행현과 술을 마시며 헤어지는 섭섭함을 달래려 했다.¹⁶ 일기에 의하면, 그로부터 16일 후인 3월 26일에 정시(庭試)가 실시되었는데¹⁷ 이날 국왕은 춘당대(春塘臺)에서 경과정시문과(慶科庭試文科)를 실시하여¹⁸ 진사 황익수(黃益秀) 등 10명을 선발했다.¹⁹ 경과라고 한 것은 철종(哲宗)이 태묘(太廟)에 부제(祔祭)되고 대왕대비와 왕대비 및 대비가 존숭(尊崇)되는 등 4가지 경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실시된 시험이기 때문이다.²⁰

1) 예재접(1차)

기행현은 비록 3월 26일 실시한 경과정시에는 응시하지 못했지만 곧 실시될 식년시(式年試) 향시(鄉試)를 위해 서둘러 설집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재의 주인인 김병용이 4월 9일에 서울에서 내려오자²¹ 4월 20일에 10여 명의 유생과 함께 서둘러 설집하고 모여서 운을 내어 시를 읊고서 과했다.²² 접장으로 추대한 백학래가 아직 서울에서 내려오

16 (1866년 3월) 初十日 … (禮齋)主人金秉鏞(字益三 詩號海隱) 上京發行後 陽山里白進士鶴來(字殷文 詩號靑田) 亦上京次 與甕井金奎赫(字正三 詩號東井) 聯鞭而來 沽酒以餞別矣.

17 (1866년 3월) 二十六日 … 是日廷試也.

18 丙寅三月二十六日卯時, 上詣春塘臺, 慶科庭試文科試取(『승정원일기』, 고종 3년 3월 26일.)

19 『고종실록』, 고종 3년 3월 26일. 그러나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이때 합격자는 20명이다.

20 『국조문과방목』 3, 1669쪽.

21 (1866년 4월) 初九日 … 海隱(김병용의 詩號-인용자주)丈 自京下來 問京奇則 及第盡是京城人.

22 (1866년 4월) 二十日 … 始設接於禮齋 而靑田猶未當到 徒聚接率十餘人 出韻詠詩而罷

지 않아 설집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었다. 백학래가 부안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5일이 지난 4월 25일이다.²³

백학래는 같은 고을 상서면 양산(陽山) 마을에 세거하던 수원백씨(水原白氏) 출신으로 1859년(철종10)의 증광시에서 진사에 합격한 인물이었다.²⁴ 기행현이 이처럼 서둘러 설집한 것은 백학래를 접장으로 선점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은 그가 글을 잘 짓는데다 전거(典據)가 확실한 시제(試題)를 적절히 선정하고 섬세한 시평(詩評)을 하기로 인근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의 제자 모임인 문생계(門生契)에 30여 명이 참가할 정도라 하니 당시 그의 명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²⁵

기행현 등이 백학래를 접장으로 모시고 예제에서 정식으로 설집한 것은 다음 달 첫날 즉 5월 1일이었는데 이 날은 첫 모임이라서 간단하게 운을 내어 시를 읊는 것으로 그쳤다.²⁶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백학래가 매일 시험문제를 고풍제(古風題)와 시제(詩題)로 나누어 출제해서 이에 맞추어 글을 짓도록 했다.²⁷ 예컨대 5월 2일의 고풍제는 “두 개의 감귤과 한 말의 술을 가지고 가서 꾀꼬리 소리를 듣고자 하네.[携雙柑斗酒 往聽黃鸝聲]”이며 시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다시 어떤 즐거움이 있어서 이것과 바꿀

23 (1866년 4월) 二十五日 … 白靑田自京下來 問京奇則 景福宮事 百分之內 猶未成一分.

2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25 (1866년 9월) 十五日 … 是日 陽山白靑田門生契也 團會三十餘人脩契.

26 (1866년 5월) 初一日 … 是日設接于禮齋 出韻相詠

27 고풍은 자수(字數), 구수(句數), 평측(平仄) 등의 제약이 없는 중국 수나라 이전의 시제(詩體)를 통칭하는 말로 고시(古詩)라고도 했다. 당나라 이후에는 시를 지으려면 자수나 구수 및 평측 등을 맞추어야 했는데 이를 고시와 구분해서 근체시(近體詩)라 했으며 통칭해서 그냥 시라 했다.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네[不知天壤之間 復有何樂 可以代此]”이다.

고풍제는 대옹(戴顒)의 고사와 관련이 있다. 대옹은 유송(劉宋) 즉 남조(南朝) 송나라 때의 은사(隱士)인데 어느 봄날에 감귤 두 꾸러미와 술 한 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어디 가느냐고 묻자 그는 “찌꼬리 소리를 들으러 간다. 그 소리는 속인(俗人)의 귀를 일깨우고 시심(詩心)을 고취시켜 주는데, 그대는 그걸 아는가”라고 대답했다 한다. 시제는 북송(北宋)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독락원기(獨樂園記)」에 나오는 구절이다. 사마광은 낙양에서 한직(閑職)으로 옮긴 후 퇴근하여 머물며 독서하던 정원을 독락원이라 이름 지었는데 「독락원기」는 그 경위 등을 밝힌 글이다.

이처럼 접장인 백학래는 매일 전거가 있는 고풍제와 시제를 출제하여 글을 짓도록 했는데 이는 과접하던 7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 기행현은 이와 같이 설접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서재에서 거접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글 짓는 데에 열중했다. 그러나 거접하던 시기가 하필이면 농사철과 겹쳤기 때문에 날씨나 기후 및 농사일에 마음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의 일기를 보면 기행현이 가문 날씨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백성들은 비가 흡족하게 내리지 않으니 근심하며 모내기 하지 못함을 탄식했다.²⁸

성황당에서 기우제를 지냈다.²⁹

28 (1866년 5월) 十三日 … 民以雨不足爲憂 有鋤種之歎.

29 (1866년 5월) 十八日 … 祈雨於城惶壇.

비는 내리기는 하였지만 가벼운 먼지조차 적시지 못했다.³⁰

저물어도 낮처럼 맑았다. 백성들의 근심이 너무 크다.³¹

질게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백성들의 근심이 너무 크다.³²

그러다 마침 비가 내려 농사일이 바빠지면 그도 서재에 앉아 글을 짓거나 책을 읽지 못하고 들판으로 달려나가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

초복이다. ... 모내기에 필요한 비가 너무 늦게 왔다. (늦었지만 비가 내리자) 들마다 모를 심느라 남녀가 모두 나왔다. 농사짓는 시기라서 서재에 갈 틈이 없었다.³³

오랫동안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모내기를 할 수 없었는데 늦게나마 비가 흠뻑 내렸다. 그러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인력이 들에 나와 모를 심었다. 사실 모내기 전후로 농가에서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다. 그래서 그 역시 서재에 가서 공부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모내기가 끝나자마자 즉시 서둘러 서재로 향했다. 이러한 사실은 6월 8일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들마다 하얗다. 모내기 일이 끝났다. 서재에 가는 길에 홀연히 벼꽃을 보았다. 풍제(風題)는 “허리에 돈 10만 관을 찬 채 학을 타고 양주(揚州)로

30 (1866년 5월) 二十日 雖雨未浥輕塵.

31 (1866년 5월) 二十六日 ... 暮而午晴 民憂太甚.

32 (1866년 6월) 初一日 陰陰不雨 民憂太甚.

33 (1866년 6월) 初三日 伏 ... 蒺(秧의 誤)雨太晚 野野鋤種 男女盡出 南畝之時未暇注書齋.

가네”이다.³⁴

들마다 하얀 것은 전날 비가 넉넉히 와서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못물이 찻기 때문에 그렇게 비친 것이었다. 그는 모내기를 마치자 서둘러 서재로 돌아갔는데 일찍 모내기를 한 논에서는 벌써 벼꽃이 폈다. 일기에 따르면, 예재 주변 마을에서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4월 22일이었으므로 이미 벼꽃이 필만도 했다.³⁵ 서재로 돌아온 그는 쉬지도 못하고 곧장 집장이 낸 고품제에 지어 제출해야만 했다. 이날의 고품제는 송대 은예(殷芸)가 지은 <소설(小說)>에 전거를 둔 것이었다. <소설>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각자 원하는 바를 말했는데 어느 한사람은 양주의 자사(刺史)가 되고 싶다 하고 다른 사람은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학을 타기를 소원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나머지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소원을 합쳐 “허리에 돈 10만 관을 찬 채 학을 타고 양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재에서 집을 구성해서 하는 공부에는 참가 유생의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 서재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 선생인 집장의 사정에 따라 며칠간 휴접(休接)할 때도 있었다. 백학래는 당시 부안 수령인 이운필(李雲弼)과 절친했는데 전라감영에 일이 있자 수령은 백학래를 초청하여 함께 전주에 다녀오려고 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휴접하기도 했다.³⁶

34 (1866년 6월) 初八日 … 野野生白 蕪(秧의 誤)事已了 往于書齋 忽見稻花 風題 腰帶十萬貫 騎鶴上揚州.

35 (1866년 4월) 二十二日 夏氣薰人 忽聞四野有插秧之聲.

과거시험에 대비해서 설집하긴 했지만, 예재가 마을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었다.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 위로한답시고 찾아오는 손님이 적지 않아 번거로워서 시제(詩題)를 출제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으며³⁷ 귀한 손님이 찾아오고 중복달임을 하느라 역시 시제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⁸ 또 말복일에는 마을의 어르신 예닐곱 명이 예재에서 회동을 하고서 편안하고 한가롭게 놀다 가기도 했다.³⁹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이처럼 과거 공부에 전념하기에 좋지 못했지만, 기행현 등은 5월 1일에 정식 설집한 이후 7월 15일 파접 때까지⁴⁰ 총 73일 동안 거접했다. 그 중 기행현이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겨우 5일, 접장이 휴접한 날은 3일, 도합 8일을 제외한 65일 동안 기행현은 예재에서 동료들과 함께 과거 시험에 대비한 글짓기를 매일매일 했다. 설집할 때 함께 한 동료가 10여 명이라 했는데 일기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재된 인물은 김재철(金在轍), 황학문(黃鶴紋), 권기풍(權基豐), 송진상(宋鎭祥), 권구룡(權九龍) 등이었다. 파접한 이유는 머지 않아 치러질 식년시 향시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⁴¹ 이들은 오랫동안 거접하면서 든 정 때문에 파접 후 잠 못 이루기도 하고⁴² 또 곧바로 헤어지지 못해서 하루종일 붙어 다니기

36 (1866년 6월) 二十一日 … 靑田先生 與本倅李雲弼 偕往全州 今日來臨 接中連三日限遊故出.

37 (1866년 5월) 初四日 … 詩 客煩未出題.

38 (1866년 6월) 十三日 少止 中庚煮伏 會賓客以樂終日 風題 六出祈山 答三顧草廬.

39 (1866년 7월) 初四日 … 鄉中老人六七 會于禮齋 優遊而去 是日末庚也.

40 (1866년 7월) 十五日 … 罷接.

41 3장 과거응시에서 살펴보면, 1867년에 실시될 식년시의 초시가 전년 즉 1866년 8월에 치러졌다.

도 했으며⁴³ 함께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⁴⁴ 예재의 설접 논의 등을 비롯해서 예재에서 거접한 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예재접(1차) 거접 현황

일시	내용	비고
4월 20일	설접 논의	10여 명이 회합
25일	접장 도착	
5월 1일	정식 설접	
6월 3일~7일	기행현 결석	농사
19일~21일	휴접	접장 출타
7월 15일	파접	

2) 관가(官家) 설강

수령의 임무 중의 하나가 지역민 교화를 위한 ‘흥학교(興學校)’였다. 학교 즉 향교(鄕校)에서 유생의 학업을 진작시켜야 했다. 특히 문과 출신이 배치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당시 부안현감은 이운필(李雲弼)이었는데 그는 문과 급제자로 지역의 유생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했던 부안출신의 낙방거자(落榜舉子)들이 비변사에 글을 올려 태수의 유임을 비변사에 요청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⁴⁵ 아무튼 부안의 수령이었던 이운필은

42 (1866년 7월) 十六日 … 旧雨(友의 誤)間送別 相惜終日 不能更宿.

43 (1866년 7월) 十七日 … 相送餞 與古阜金在轍黃鶴紋權基豐末鎮祥 不忍相分 終日相隨 至杏山宿.

44 (1866년 7월) 十九日 … 日日相從 至古阜黃鶴紋家宿; 二十日 … 相隨 至答洞權九龍家宿

45 (1866년 4월) 初九日 … 扶風之落榜舉子爲太守李雲弼願留云.

과거 시험이 임박하자 시험 볼 유생들에게 1866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의 강의를 한 바 있는데 기행현도 집장 백학래와 함께 참여했다.⁴⁶ 다만 이때 강의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강의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전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설강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으며 예재접(1차)와 관가설강을 마친 후 기행현은 <표 3>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주에서 실시하는 식년시 향시에 응시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표 2> 관가 설강 현황

일시	내용	비고
7월 27일 ~ 8월 1일	강의	청전과 함께 참가

<표 3> 식년시 향시 준비 과정

1866. 5. 1. ~ 7. 15.	→	1866. 7. 27. ~ 8. 1.	→	1866. 8. 19. ~ 8. 21.
예재접(1차)		관가설강		식년시 향시(광주)
집장 : 백학래 접생 : 10여 명		수령 주도		백학래와 함께 참가

3) 칠성암접(1차)

기행현은 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광주에서 실시한 향시에 응시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⁴⁷ 그 후 집장인 백학래의 문하생(門下生) 30여 명이 선생의 수강(壽康)을 기원하고 서로간

46 (1866년 7월) 二十九日 … 科日漸近 故官家設講於今月二十七日 撤講於來月初一日 云 故與靑田先生 共入講.

47 (1866년 8월) 二十四日 … 欲聞科消息杳然 但聞試官求錢云.

의 친목을 다지는 문생계(門生契)를 했다.⁴⁸ 이 자리에서 아마 기행현 등은 자신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 시험에 대비해서 칠성암에서 설집하여 공부하자는 제안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칠성암은 개암사(開巖寺) 소속의 암자로 과거 준비생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안 출신의 문과 급제자 최해(崔澐) 등 7노인이 77세가 되던 해의 7월 7일에 칠성암에 모여 계회(契會)를 했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칠칠회(七七會)라 불렀다고 한다.⁴⁹ 또 암자 아래 마을 밖에 있는 회시동(回柿洞)에는 산천의 정기가 모여 있어서 3명의 문장가가 배출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횡성(橫城) 김일좌(金日佐), 월파(月坡) 최경(崔勁), 화순(和順) 송래백(宋來柏)이 나와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한다.⁵⁰ 그래서 과거 준비생들은 이곳에 거집하는 것을 선망했다.

기행현은 1866년 10월 1일에 돈계의 김기혁, 송촌(松村)의 배장흡과 함께 칠성암에 올라가 책을 읽었다.⁵¹ 이 때의 설집이 이전의 예동 설집과 다른 것은 예동의 설집이 제술(製述) 즉 시와 부 등을 짓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칠성암의 그것은 강경(講經) 곧 경서(經書)의 내용을 심

48 (1866년 9월)十五日 … 是日 陽山白靑田門生契也 團會三十餘人脩契.

49 이 모임의 후손들이 칠성암과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하여 1846년에 『七星菴同遊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위창古3606-1)을 간행했다.

50 七星菴(金興運 崔澐 金壽良 金履孝 許紱 金練輝 金宗旭 七老人 年皆七十七 而以七月七日 契會于此 … 世稱七七會 菴下洞口外 有回柿洞 俗傳山川精氣融聚 出三文章云 橫城金日佐 月坡崔勁 和順宋來柏 三文章果出鳴世)(『扶安邑誌』 上, 23A.).

51 (1866년 10월)初一日 … 與遯溪金基燦松村裴璋翕 入七星菴 讀書.

충적으로 익히는 공부를 했다는 점이다.⁵² 따라서 전자는 글 짓는 것을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품평해야 하기 때문에 접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경서를 반복해서 읽고 암송해서 깊은 뜻을 스스로 터득하면 되었기 때문에 접장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기행연이 칠성암에서 거접할 때에는 접장을 초빙하지 않았다.⁵³

그런데 칠성암에서 설접을 시작하자마자 연일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웠다. 그래서 기행현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 잠시 집으로 돌아왔는데⁵⁴ 후에 살펴보니 김기혁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들은 월동 채비를 갖춘 후 다시 암자로 올라갔는데⁵⁵ 김기혁의 부친과 백부가 추운 날씨에 암자에서 거접하는 것이 염려스러웠던지 직접 칠성암을 방문하여 거접 환경을 살펴보고 주지를 불러 식사 등을 잘 제공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⁵⁶ 기행현은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 다시 칠성암으로 올라와 『서전』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⁵⁷

기행현은 칠성암에 거접하면서 틈틈이 산에 오르기도 하고 또 인근

52 물론 독서만 하고 제술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틈틈이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韻을 내어 시를 지었다. 1866년 10월 15일과 16일에 김창포를 만나자 운을 내어 시를 지었다. (1866년 10월) 十五日 … 與金蒼圃出韻相詠; 十六日 … 出韻云.

53 물론 암자에서 실시하는 모든 접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이웃 도술암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부나 스승이 손자나 제자를 암자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1867년 3월) 十一日 … 上兜率菴 古阜高濟萬氏 與其孫昌延來留教之.

54 (1866년 10월) 初三日 … 連四五日風吹; 初四日 甚寒 下家.

55 (1866년 10월) 初六日 晴寒 霜風甚巖 往遯溪金基赫 亦下來 故相與入菴.

56 (1866년 10월) 初七日 … 金基赫伯父正言養默 其父八默 日暮來臨 招主僧 以善供侍之意 訓責而下去.

57 (1866년 10월) 初八日 … 再閱書傳.

암자에 거접하는 사람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또 자신을 찾아 암자로 올라오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읍내에 사는 학동 유의열(俞宜烈) 등이 칠성암에 왔다갔는데 그가 지니고 온 풍축(風軸)을 살펴보니 아름다운 시구가 매우 많았다.⁵⁸ 다음날에 그는 우진암(禹鎭巖)⁵⁹을 등반하기도 하고⁶⁰ 50여 일 후에는 인근에 있는 정관암(靜觀菴)⁶¹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공부하던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그 사찰에는 황곡(皇谷)에 사는 조맹활(趙孟活)이 와서 독서하고 있었다.⁶² 그로부터 보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조맹활이 답방 형식으로 기행현을 찾아와 시축을 보여주기도 했다.⁶³

칠성암에 거접하는 동안 식사는 암자의 스님이 제공해 주었는데 기행현은 그 비용으로 아침저녁에는 각각 4홉, 점심에는 2홉의 쌀을 암자에 지불했다⁶⁴ 친지가 찾아올 경우, 그 식사 비용을 기행현이 별도로 지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앞에서 소개한 읍동(邑童) 유의열 등이 그를 찾아왔을 때 점심값을 2배로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⁶⁵ 반찬은 대부분 암자에서 만들었지만 집에서 식량을 조달할 때 함께 가져오기도 했다.⁶⁶

58 (1866년 10월) 初九日 … 邑童俞宜烈茁浦兩金童來到而今午去 探其風軸佳句甚多.

59 우금바위로 추정된다.

60 (1866년 10월) 初十日 … 暮上禹鎭岩而來.

61 어디에 있었는지 미상이다.

62 (1866년 11월) 三十日 … 往淨觀菴 皇谷趙孟浩 讀書矣.

63 (1866년 12월) 十七日 … 淨觀菴讀書趙孟活…來到 韻軸視余 見則佳句甚多.

64 (1866년 10월) 初八日 … 朝夕食四合 午二合.

65 (1866년 10월) 初九日 … 邑童俞宜烈茁浦兩金童來到而今午去 … 今午四合.

66 (1866년 11월) 十八日 … 糧饌來到.

칠성암 거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안이나 마을에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양현이 자주 외출을 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0월 17일에는 아버지가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음날 종제(從弟)의 관례(冠禮)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내려갔으며⁶⁷ 11월 15일에는 친구들과 모이는 계(稷)에 참여하기 위해 암자에서 내려갔다.⁶⁸

또 주목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독서하기 위해 칠성암으로 왔다는 점이다. 예컨대 11월 12일에 앞에서 소개한 유의열과 배창윤이 칠성암으로 올라와서 기행현의 앞방에서 책을 읽었다.⁶⁹ 같은 달 22일에는 갈촌에 사는 유인식(柳寅植) 역시 독서하려고 암자에 왔으며⁷⁰ 다음 달 4일에는 내포(萊浦)에 사는 김치일(金致鎰)이 도착해서 앞방에서 책을 읽었다.⁷¹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암자에 몰려들었는데⁷² 그것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칠성암이 거접하기 좋은 암자로 소문이 나 있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의열과 배창윤 등이 칠성암에서 기행현과 동시에 독서를 했다고 해서 동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동접

67 (1866년 10월) 十七日 … 聞親爲欠寧 從弟冠禮在來日云 故下家則 親爲大損 以痰改病 故卽向醫家問則 累年灯下角好云.

68 (1866년 11월) 十五日 … 下來 … 到家 親患差愈 往禮洞修稷 余及從弟恒永 閱致鼎金永杓閔任福金安倅 昨年一兩式作稷.

69 (1866년 11월) 十二日 … 俞宜烈裴昌允 讀書于前面房.

70 (1866년 11월) 二十二日 … 葛村柳寅植 讀書次來到云 … 前房讀書裴昌允來到云.

71 (1866년 12월) 初四日 … 萊浦金致鎰來到 讀書於前房.

72 (1866년 12월) 初六日 … 金需烈又讀書次 來留; 初九日 … 葛村柳友基震讀書次 來留; 十七日 … 葛村柳潤興讀書次來留 號葛坡 萊浦金漢哲號硯方來到 … 自作勸農文 勸道文來示余.

이라하면 기행현과 함께 칠성암에서 책을 읽기로 논의하고 함께 들어갔던 김기혁과 배장흠만을 지칭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행현은 독서를 위해 칠성암에서 1866년 10월 1일에 설접한 이래 같은 해 12월 25일에 파접을 했다.⁷³ 총 85일의 거접 기간 중 외출한 날짜는 27일이므로 실제로 거접한 기간은 58일 동안이라 할 수 있는데 칠성암에서의 거접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칠성암접(1차) 거접 현황⁷⁴

일시	내용	비고
10월 1일~3일	설접	독서
4일~5일	외출	추위
10월 6일~16일	거접	
17일~21일	외출	가사, 아버지 병환
22일~25일	거접	
26일~11월 9일	외출	아버지 병환, 위친계와 문계 참여
11월 9일~14일	거접	
15일~16일	외출	一兩稷
11월 17일~12월 9일	거접	양식과 반찬 도착, 독서유생 증가, 정관암 방문.
12월 10일~12일	외출	김영표 吉行
13일~24일	거접	독서유생 증가
25일	파접	

73 (1866년 12월) 二十五日 … 與諸益 罷接時 出韻相贈.

74 송행근은 칠성암접을 10월 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차로, 11월 9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차로 구분했다. 그것은 10월 26일의 일기에 ‘自菴下來’, 그리고 11월 9일에 ‘到菴’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自菴下來’는 불

4) 예재접(2차)

1867년(고종4) 2월 3일에 부안현감은 향교에 문서를 보내어 9월 17일에 경과정시를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⁷⁵ 이 시험은 대왕대비의 나이가 60세가 되고 익종대왕에게 존호가 추가로 올려지고 대왕대비 전에 존호를 올리는 세 가지 경사가 겹쳐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이었다. 같은 달 29일에는 기행현이 예동에 가서 부안 출신으로 진사시 합격자 소식을 들었는데 석제(石堤)에 사는 이겸술(李兼述)과 노적리(露積里)에 사는 박해봉(朴海鳳)이 그 주인공이었다.⁷⁶ 그 이튿날은 백학래의 제자들이 돈계에 모여 문생계를 했기 때문에 기행현은 거기에 참석했다.⁷⁷

설접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행현이 4월 17일에 내예동(內禮洞)에 사는 백낙선(白樂善)의 집에 가서 이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었다.⁷⁸ 그러나 5월이 되도록 설접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임씨의 재실⁷⁹로부터 예재에 이르기까지 설접하기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으나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다.⁸⁰ 그러다 5

일이 있어서 암자에서 외출한 것을 말하며 12월 25일에 동접생들과 헤어질 때 비로소 ‘罷接’이라 언급한다. 따라서 이때의 칠성암접은 10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시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5 (1867년 2월) 初四日 … 昨日付本倅下帖校中 以大王大妃寶齡六旬 翼宗大王加上尊號 大王大妃殿加上尊號 慶科廷試 以來九月十七日爲定云.

76 (1867년 2월) 二十九日 … 往禮洞 聞科消息 則石堤李兼(謙의 誤)述露積里朴海鳳爲之云.

77 (1867년 2월) 三十日 … 遯溪白青田 門生稷日 故往參.

78 (1867년 4월) 十七日 … 往內禮洞白樂善家 設接云.

79 林齋는 支石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67년 4월) 二十七日 與海隱丈 往支石里 林齋而來.

월 3일에 예재에서 설접하고 곧바로 시제를 출제했는데 시와 고풍의 문제를 함께 냈다.⁸¹

그 이후 예재 설접은 1차 때와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공부하다 잠시 쉬고 싶을 때에는 인근에 있던 암자를 방문하기도 하고⁸² 같이 공부하다 문과에 급제하거나 진사시에 합격한 동료들이 예재를 방문했을 때에는 하루 밤낮을 함께 어울려 놀기도 했다.⁸³ 중복에 여러 손님들이 오자 그들과 함께 모여 하루 종일 즐겁게 놀기도 했고⁸⁴ 또 접생에게 시제와 풍제를 나누어주고 짝을 지어 경쟁하도록 했다.⁸⁵

2차 예재 설접 때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농번기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행현은 농사일이 바쁘면 예재에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도왔다. 대체적으로 일기에 풍제나 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날에는 예재에 가지 않은 날로 추측된다. 예컨대 설접 직후인 5월 6일과 7일에는 풍제나 시제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때에는 접장이 출타했기 때문에 기행현도 예재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⁸⁶ 또 접장이 읍으로 외출했다고 밝힌 5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기행현은 오랫동안 예재에 가지 않고 집안일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⁸⁷ 다만 장기간 집에 있었

80 (1867년 5월) 初二日 … 自林齋至禮齋 設接姑未定的而來.

81 (1867년 5월) 初三日 … 設接於禮齋 始出題 詩風同題 園林纔夏麥先秋.

82 (1867년 6월) 十八日 初伏 … 午後往淨觀菴.

83 (1867년 6월) 十九日 … 笈(及의 誤)第蔡大永 李進士兼(謙의 誤)述 會于禮齋 一晝一夜遊.

84 (1867년 6월) 二十八日 仲庚 會賓客 終日勝遊.

85 (1867년 6월) 二十九日 天地洪炉中 詩風 分偶戰芸.

86 (1867년 5월) 初六日 西風猶寒 日旱大甚 野野插秧已乾 靑田出他; 初七日 如昨而已.

87 (1867년 5월) 十二日 … 靑田邑行了; 十三日 … 惱人薰人; 十四日 … 夏日如火 路上行

기 때문에 소식이 궁금해서 가끔 예재에 들렀으며 이때 들었던 풍채와 시제를 일기에 기록했다.⁸⁸

그러나 2차 예재 설접은 1차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접장이 두 명이라는 점이다. 한 명은 1차 때의 접장인 백학래였지만 다른 한 명은 송방식(宋邦植)이었다. 그는 청림(靑林)에 세거하던 여산송씨(礪山宋氏) 출신으로 자(字)는 명집(明集)이고 시호(詩號)는 청파(靑坡)인데⁸⁹ 고을 내에서 서로 접장으로 모시려 할만큼 매우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추정된다.⁹⁰ 기행현은 1866년 4월에 용동재에 머무는 그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⁹¹ 그것은 그가 그곳의 접장으로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행현이 예재 2차 설접 이전에 예동으로 찾아가서 백학래와 송방식을 함께 만났는데⁹² 2차 예접 때에는 백학래의 외출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한 명의 접장을 더 모시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백학래가 주접장(主接長)이며 송방식은 주접장 부재시 이를 보완하는 부접장(副接長)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백학래는 당시 부안현감인 이운필과 매우 친했는데 수령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받기 위해 그를 불렀다. 실제로 백학래는 2차 설접한 지

人欲斷魂 …; 二十八日 … 秧事今日始了; 三十日 … 時雨適來 可謂農年有占; (1867년 6월) 初一日 … 雨中往禮洞.

88 (1867년 5월) 十七日 … 本倅李雲弼上去 而靑田亦隨完行 詩風同題出三 …; 二十二日 … 暮往禮洞而來; 二十九日 … 往禮洞金永杓家 … 永杓自禮齋來見 風題 則以成都佳釀三十甕 送與張將軍飲 解孔明….

89 (1866년 4월) 十八日 … 靑林宋邦植(字明集 詩號靑坡[坡의 誤])…氏來臨.

90 그는 1879년(고종16) 식년시에서 진사에 합격한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91 (1866년 4월) 三十日 … 往龍洞齋 見宋靑坡而來.

92 (1867년 4월) 二十八日 … 往禮洞 奉見靑田與靑坡耳.

나홀이 지난 5월 6일과 12일에 출타하여⁹³ 접생(接生)은 제술하지 못했다. 같은 달 17일에 백학래는 상경하는 수령을 따라 전주까지 따라 갔는데 이때에는 미리 고풍제와 시제를 같은 제목으로 3 문제를 출제해 접장이 자리를 비웠음에도 제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⁹⁴

부접장으로 초빙된 송방식이 예재에 나타난 것은 설접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6월 2일이었다.⁹⁵ 이때에는 백학래 접장도 있었을 때인데 그가 온 지 불과 3일 후인 6월 5일에는 두 접장이 모두 외출해서 결국 시제를 출제하지 못했다.⁹⁶ 송방식이 다시 예재를 찾은 것은 같은 달 26일이었으며⁹⁷ 7일 동안 머물다 다음 달 4일에 돌아갔다.⁹⁸ 그가 이처럼 예재에 머무는 기간이 짧았던 것은 이때 다른 접의 접장으로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차 예재 설접이 1차와 차이가 있었던 것은 고풍제와 시제를 같은 제목으로 낼 때가 많았다는 점이다. 1차 예재 때에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고풍제와 시제를 따로 출제했으나 2차에서는 하나로 내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예컨대 2차 설접 첫날인 5월 3일에 고풍제와 시제를 중국 북송대의 시인인 황정견(黃庭堅)의 북창(北窓)이라는 시의 둘째 구절인 “정원과 숲은 이제 막 여름인데 보리는 가을을 재촉하네[園林纔夏麥先秋]”로 냈다.⁹⁹ 1차 예재 때는 대부분 고풍제와 시제를 따로 출제한

93 (1867년 5월) 初六日 … 靑田出他; 十二日 … 靑田邑行了.

94 (1867년 5월) 十七日 … 本倅李雲弼上去 而靑田亦隨完行 詩風同題出三.

95 (1867년 6월) 初二日 … 宋靑坡亦來存.

96 (1867년 6월) 初五日 … 詩 田坡兩先生不來 故未出.

97 (1867년 6월) 二十六日 … 日暮宋先生來臨.

98 (1867년 7월) 初四日 … 宋先生去.

데 비해 2차 때는 이처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고품제와 시제를 함께 낸 것이 출제와 품평의 과정이 번거로워서 이를 줄이기 위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867년 5월 3일에 설접한 후 7월 20일 과접까지 총 77일 동안 거접했다.¹⁰⁰ 그 중 기행현이 외출한 것은 아래의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려 22일이나 되었다. 또 비록 거접 기간이라 하더라도 시제(試題)가 기록되지 않은 날이 적지 않았는데 7월에 들어서는 매우 심했다.¹⁰¹ 게다가 출제하고 품평해야 할 접장 백학래와 송방식의 외출이나 부재 또한 상당했다. 결국 제출하지 않은 날들이 많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곧바로 칠성암접을 시작했다. 2차 예재의 거접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예재접(2차) 거접 현황

일시	내용	비고
4월 17일	설접 소문	
5월 2일	설접 논의	
3일~5일	거접	
6일~7일	외출	접장 출타
8일~11일	거접	
12일~6월 1일	외출	12일, 17일 접장 출타

99 (1867년 5월) 初三日 … 設接於禮齋 始出題 詩風同題 園林纔夏麥先秋.

100 (1867년 7월) 二十日 … 是日罷接

101 (1867년 7월) 初三日 如昨; 初四日 如昨 宋先生去; 初五日 如昨; 初六日 如昨; 初八日 如昨 甚旱; 初九日 如昨 旧官李雲弼更來云.

6월 2일~7월 19일	거접	6월 2일 송접장 내왕 6월 5일 백접장과 송접장 부재 6월 26~7월 4일 송접장 내왕
7월 20일	파접	

5) 칠성암접(2차)

2차 예재접에서의 제술 활동이 부실해서 그랬는지 파접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곧바로 칠성암접의 설접이 거론되었다. 파접하고 다음날 친구들과 이별할 때 곧바로 칠성암접을 열자고 논의하고 헤어졌으며¹⁰² 그 이튿날 기행현은 민치정(閔致鼎), 김영표(金永杓), 백낙선(白樂善) 등과 함께 칠성암에 도착했는데 이미 송진상(宋鎭庠), 유인식(柳寅植), 유윤흥(柳潤興)이 먼저 와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¹⁰³ 설접한 이후 연이어 김채영(金彩永), 이방헌(李邦憲), 기만용(奇萬龍), 고창현(高昌賢), 유미경(柳美卿), 김기선(金耆善), 김성익(金聖益) 등이 차례대로 올라왔다. 접장인 백학래도 예재접에서 자신이 부재한 날이 많아 미안함을 느꼈는지 미리 시제를 출제해주기도 하고 또 직접 암자에 올라오기도 했다.¹⁰⁴

2차의 칠성암접은 1867년 7월 22일에 설접하여 8월 7일에 파접했기 때문에 겨우 15일 동안 유지되었다.¹⁰⁵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만 거접한 이유는 2차 예재 파접 때 동료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충분한 준

102 (1867년 7월) 二十一日 … 諸益相別之時 更設研於七星菴之意 相約而分手.

103 (1867년 7월) 二十二日 … 與禮洞閔致鼎金永杓內禮洞白樂善 上七星菴 古阜青揚(陽의 誤)里宋鎭庠葛邨柳寅植柳潤興來坐.

104 (1867년 7월) 二十二日 … 青田已出三題送之 故不得浪遊; 二十六日 … 日暮邇溪白青田金耆善金聖益來到.

105 (1867년 8월) 初七日 … 罷接下來.

비도 없이 칠성암접을 설접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과거시험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시되기 때문에 상경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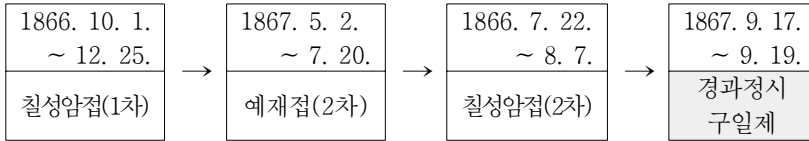
다만 2차 칠성암접이 1차 때와의 차이점은 1차 때에는 경서를 읽고 암송하며 그 뜻을 깊게 새긴 데에 비해서 2차 때에는 제술을 위주로 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대비하는 시험이 달랐기 때문이다. 1차 칠성암접은 식년시 향시를 대비했는데 이 시험에서는 경서의 의미를 묻는 사서의의(四書疑)나 오경의(五經義) 1편씩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¹⁰⁶ 그런데 2차 칠성암접은 경과정시를 대비하기 위해 설접했는데 이 시험에는 경서의 의의를 묻는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2차 예재접 때와 같이 고시(古詩)와 시(詩)에 대해서만 익혔던 것이다. 2차 칠성암의 거접 활동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으며 칠성암접(1차)와 예재접(2차) 및 칠성암접(2차)를 마친 후 <표 7>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서울에서 실시되는 정시와 구일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표 6> 칠성암접(2차)의 거접 현황

일시	내용	비고
7월 21일	설접 약속	
22일~27일	거접	27일 접장 방문
28일~29일	외출	
8월 1일~6일	거접	
7일	파접	

106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51쪽.

<표 7> 식년시 향시 준비 과정



6) 김집

기행현은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1867년 9월에 상경하여 경과정시와 구일제에 참여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여행의 피곤함만 느꼈는지 두문불출했다.¹⁰⁷ 사실 그는 과거 시험장에서 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더군다나 돌아올 때는 노자가 바닥이 나서 죽을 고생을 했다.¹⁰⁸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이후에 설집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1868년(고종5) 윤4월 4일이 되자 동료였던 민치정, 김영표, 배장흡, 김희중(金喜鐘)이 와서 함께 석동(席洞)에 있는 취성재(聚星齋)로 가서 김재의 설집을 참관했다. 김재는 지고부군사(知古阜郡事) 김광서(金光敍)의 묘각으로 원래 현손곡(賢孫谷)에 있었는데 1819년(순조19)에 화재로 불타자 1826년(순조26)에 석동산으로 이건(移建)하고 취성재라 명명했다.¹⁰⁹ 마침 백학래도 와 있었는데 집장으로 초빙되어 왔지만 불행히 다음날 가족의 부고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¹¹⁰ 기행현은 설집에 참

107 (1867년 9월) 二十九日 … 不勝路憊 故未出.

108 (1867년 9월) 二十五日 … 躋錢罄絕 顛到皇華亭宿; 二十七日 … 顛倒還巢.

109 聚星齋(在郡南五里 扶寧面蓮谷里席洞山中麓東 高麗奉正大夫知古阜郡事扶寧金光敍墓閣 舊在賢孫谷 名曰德星菴 純祖朝己卯回祿 越八年丙戌 移建于此 盖取林石川億齡詩 甕井多君子 金門聚德星之義也)(『부풍승람』 2, 齋閣).

관 후 곧바로 돌아가 한동안 거접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접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다음달 12일에 시정(柿亭) 아래에서 김두식을 만나 자 접중의 상황을 물어보았다.¹¹¹ 10여 일이 지난 5월 23일에 그는 결국 민승호(閔勝鎬)와 함께 석동의 김재로 가서 거접에 참여했다. 그는 다음의 <표 8>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몇 차례 거접과 귀가를 반복 하다가 7월 15일에 파접했다.¹¹²

<표 8> 김재접의 거접 상황

일시	내용	비고
윤4월 4일	설접	
5월 23일~6월 4일	거접	
6월 5일~8일	귀가	
6월 9일~15일	거접	
6월 16일~6월 21일	귀가	
6월 22일~6월 24일	거접	
6월 25일~7월 13일	귀가	
7월 14일	입재	
15일	파접	

<표 9> 식년시 향시 준비 과정

1868. 윤4. 4. ~ 7. 15.		1869. 6. 26.		1887. 8. 17. ~ 8. 19.
김재접	→	부친 사망	→	식년시 향시(전주)

110 (1868년 윤4월) 初四日 … 閔致勝金永杓裴璋翁金喜鐘來到宿 往石(席의 誤)洞金齋 設接 靑田先生來臨; 初五日 … 靑田先生 聞訃而去.

111 (1868년 5월) 十二日 … 逢金斗植於柿亭下 相問接中事.

112 (1868년 7월) 十五日 … 罷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재접은 1868년 윤4월 4일에 설접하여 같은 해 7월 15일까지 총 100일 동안 거접을 실시했다. 기행현은 뒤늦게 여기에 참여한 데다가 도중에 자주 집으로 돌아가 겨우 25일간 김재에 머물렀다.

3. 과거 응시

기행현은 과거 실시 정보가 알려지면 미리 그에 맞게 접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시험 날짜가 임박하면 과접한 후 시험장을 향해 출발했다. 그는 1866년 8월 19일에 광주에서 실시된 식년시 향시에 참여했으며 이듬해 9월 17일에 서울에서 거행된 경과정시에 참가했다. 『홍재일기』에 따르면 그는 모두 세 차례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데¹¹³ 여기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두 차례 과행(科行)만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그가 광주 향시에 응시하러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향시

기행현은 예재접(1차)과 관가의 설강을 들은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시(式年試) 향시에 응시하고자 했다. 과거 응시자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향시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 서울에서 개최되는 회시(會試)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따라서 향시는 과거 합격의 첫 단추라

113 나머지 한 번은 1887년 8월에 전주에서 실시되는 시험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국역 홍재일기』 상, 489쪽 참조.

할 수 있다. 그런데 향시는 감사가 주관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 등이 크게 갈렸다. 그래서 기행현은 스승인 백학래에게 과거 규칙 등을 물었다. 그러자 백학래는 당시의 전라감사인 조재응(趙在膺)이 시에 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과거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 대답했다.¹¹⁴

그렇지만 관리의 편리함 때문에 향시를 감영 소재지에서만 실시하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한 지역의 군현을 좌우도를 나누고 그 한 고을에 시소(試所)를 돌아가면서 설치하도록 했다. 응시자가 좀더 가까운 시소로 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기행현은 좌도나 우도 중 어느 곳에서 시험을 치러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백학래가 좌도의 시소에서 치르겠다고 하자 그 역시 좌도의 시소인 광주로 가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공문이 필요했으므로 이를 청탁해서 받아냈다.¹¹⁵

그러나 기행현은 노자를 준비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¹¹⁶ 천신만고 끝에 돈을 마련하여 8월 15일에 돈계(遯溪)에서 백학래, 김기령(金基齡), 김기혁(金基赫) 등과 함께 출발했다.¹¹⁷ 줄포, 고창, 장성 등을 거쳐 17일에 광주 서문 밖에 숙소를 정했다.¹¹⁸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시험을 보았는데 경시관(京試官)이 조창화(趙昌華)에서 정현유(鄭賢猷)로 바

114 (1866년 7월) 二十五日 … 日暮逢靑田先生 問科規 則監司趙在膺善詩 故科規嚴於他時.

115 (1866년 8월) 十一日 … 科日漸近 於左於右 姑未定處 左都試邑光州 試官趙昌華善詩云; 十三日 … 科行欲同靑田左行 故公文一張托出.

116 (1866년 8월) 十四日 … 科行在遯 盤躔未備.

117 (1866년 8월) 十五日 … 日暮發科行 至遯溪 與靑田先生金基齡金基赫 至榮田酒店.

118 (1866년 8월) 十六日 … 茁浦朝飯 古(高의 誤)敝邑午飯 長城邑宿; 十七日 … 卽定舍館於西門外崔家.

뛰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¹¹⁹

시험이 끝난 후 기행현은 광주 신촌에서 시험을 치르러 온 종인(宗人)을 만났다. 그래서 부안으로 되돌아 올 때에는 일행과 헤어져 광주 월봉서원으로 가 분향하고 선영에 들러 성묘한 후 장성 하사(下莎)를 방문하여 종인들을 만났다.¹²⁰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8월 27일인데 그는 결국 향시에 뽑히지 못했다. 다만 이때 좌도 합격자 중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던 김기령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¹²¹ 식년시 향시에 응시하기 위해 광주에 다녀온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식년시 향시 응시 여정

일시	내용	비고
7월 25일	과거 규칙 문의	
8월 11일	시소 미결정	
13일	좌도 응시 위해 공문 요청	
14일	노자 준비 못해 고민	
15일	광주로 출발	백학래, 김기령, 김기혁 등과 동행
16일~17일	고창, 장성 경유, 광주 도착	
18일	답안지 구입	

119 (1866년 8월) 十九日 … 是日科日也 上試本趙昌華 而忠淸道上試 中道交易鄭賢猷也… ; 二十日 … 午後卽入場 依據終場… ; 二十一日 … 入場後 題掛.

120 (1866년 8월) 二十二日 … 午後同接 或行或在 而余亦發行次 往于宗人舍館 同行至月峯書院宿所; 二十三日 … 奉拜諸先生 … 午至新村宿; 二十四日 … 先山省墓 尋訪諸族 ….

121 (1866년 8월) 二十六日 … 聞科消息 則左道榜三人 遯溪金基齡露積里朴海鳳石堤李炳五云; 二十七日 … 日暮抵巢.

19일~21일	과거 응시	
22일	부안으로 출발, 월봉서원 도착	
23일	서원 배알	
24일	광주의 선산 성묘	
25일	장성 종인 방문	
26일	부안 제내 도착	
27일	귀가	

2) 정시와 구일제

기행현은 1866년 8월 말에 광주에서 실시된 식년시 향시에 참가하고 부안으로 돌아와 약 한 달이 지난 10월 1일부터 동료인 김기혁, 배장흡과 함께 칠성암에 들어가 경서를 읽었다. 글을 잘 지으려면 그 바탕이 튼실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랬던 것 같다. 칠성암에서 2달 가량 거절한 후 다시 두달이 지난 2월 4일 경과정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¹²² 조선 후기에는 경과(慶科)가 자주 설행되었다. 왕실에 경축할만한 행사가 있으면 이 기쁨을 신민에게도 널리 알린다는 취지에서 과거를 실시했다. 1867년에는 대왕대비의 연세가 환갑이 되고 또 익종대왕과 대왕대비전에 존호를 올리게 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9월 17일에 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기행현은 정시 실시 소식을 전해듣고 5월 2일부터 실시하는 예제의 2차 거접에 참가했다. 7월 20일에 예제 거접이 끝나자 바로 이어서 칠성암 2차 거접에 또 다시 참여했다. 이처럼 나름 착실하게 과거 시험에 대비했기 때문에 시험 일자가 다가오자 백학래 등과 9월 4일 출발하기

122 (1867년 2월) 初四日 … 慶科廷(庭의 誤)試 以來九月十七日爲定云.

로 약속했다.¹²³ 그러나 백학래의 병환으로 예정된 날짜에 떠나지 못하자 다음 날 김기선과 함께 출발했는데 노자를 읍내에 들러 당백전으로 바꾸었다.¹²⁴ 김제와 익산을 거친 후 금강을 건넌으며 천안과 수원 및 과천을 경유해 마침내 14일에 서울에 입성하여 남대문 안에 숙소를 정했다.¹²⁵ 10일 동안의 긴 여정이었다. 그는 호동(壺洞)에 있는 수령의 본가를 방문하여 이관술을 만났으며¹²⁶ 백학래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본 후 그곳에서 잤다.¹²⁷

과거 시험 당일인 9월 17일에 그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지 않았는데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추측컨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모두 성균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 들었기 때문에 이를 다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자 성균관 밖에 설치되어 있는 시험장으로 들어가 앉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비록 비를 가리는 장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시험을 치르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시제가 걸리자마자 곧바로 답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나왔다.¹²⁸ 시험 결과는 다음날 알 수 있었는데 그는 비록 합격하지 못했지만 이

123 (1867년 8월) 初二日 … 與靑田 京行定于初四日云.

124 (1867년 8월) 初五日 … 靑田以滯感倚枕 不能發行; 初七日 … 遯溪著善發行來到 故俱發 至邑內 躋錢當百錢還去 至金堤莊華鄭文益家宿.

125 (1867년 8월) 初八日 … 至益山立石店宿; 十一日 … 至天安三街宿; 十三日 … 至水原北門; 十四日 … 至果天(川の 誤) … 日暮入城 宿南門內豆粥家.

126 (1867년 8월) 十五日 … 往壺洞李扶安家 見本邑李觀術靈光盧首學而來.

127 (1867년 8월) 十六日 … 聞則白靑田來到云 故雨中 往大寺洞吳致遠家 見之因館.

128 (1867년 9월) 十七日 如昨而不止 場中之事 万不成說 不得入場 坐於成均館外場令 果是出焉 大駕入後 賦題卽掛 … 卽地納券而出來.

시험에서 7명의 인재가 선발되었다.¹²⁹

기행현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즉 9월 19일에 성균관에서 실시한 구일제(九日製)에도 참여했다. 이 날은 날씨가 아주 좋아 가을의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었다. 시제는 “또한 높은 곳집이 만(萬)과 억(億) 및 자(祗)이거늘”인데 출전은 『시경』이며 풍년이 들어 곡식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음을 노래하는 것이다.¹³⁰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때 참가자들이 제출된 시권이 무려 10,795장이나 되었다고 한다.¹³¹ 참가자 중 일부만 시권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이날 절일제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기행현은 시험을 마친 다음 날 국왕이 창화문(彰化門) 밖에 있는 광평창(廣平倉)에 거둥하자 그곳에 가서 멀리서 임금의 얼굴을 보았으며 세검정 석경루(石鏡樓)와 새롭게 건축하는 경복궁을 둘러보고 서둘러 귀향길에 올랐다. 서울을 왕래하는 사이에 물가가 크게 뛰어들라 내려올 때는 노자 부족으로 여러 차례 곤경을 겪으며 죽을 고생을 다했다.¹³² 기행현이 정시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한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129 (1867년 9월) 十八日 … 昨暮榜目出云 今朝得見 慶尙道三人 全羅道二人 黃海道一人 平安道一人 鄭度仁鄭應哲鄭芳鉉李商斗朴龍載宋淇姜永壽 七員用云.

130 (1867년 9월) 十九日 秋日晴好 節題 亦有高稟萬德及稭(稭의 誤) 成均館設場.

131 (趙)寧夏啓曰, 臣敬奉御題, 與弘文提學, 偕往泮宮, 九日製儒生試取, 則收券爲一萬七百九十五張矣. 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승정원일기』, 고종 4년 9월 19일.)

132 (1867년 9월) 二十日 … 彰化門外廣平倉巨(舉의 誤)動 故天顏謹承 … 翻洗劔亭石鏡樓而來 … 入見新建景福宮而來; 二十一日 … 下來時 見物儼騰用 甚於他時…; 二十五日 … 躋錢磬絕 顛到皇華亭宿 一行徐相桓 知尹令升 故入其家 取五錢 纔拾(給의 誤)朝夕食餽; 二十七日 … 至金堤四街 朝食三葉 顛倒還巢.

<표 11> 정시와 구일제 응시 여정

일시	내용	비고
9월 2일	상경 논의	
7일	출발	당백전으로 환전
8일~14일	김제, 익산, 천안, 수원, 과천, 남대문 도착	
15일	수령 본가 방문	
16일	백학래와 상면	
17일	정시 응시	
18일	합격자 확인	
19일	구일제 응시	
20일	서울 구경	
21일~27일	진위, 천안, 금강, 김제 경유 귀향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이나 다른 고을에 가는 것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지방양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또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정을 잡아야 할지를 크게 고민했다. 예컨대 경상도 안동에 살았던 김병황(金秉璜, 1845~1914)은 다음의 <표 12>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이나 대구로 과거시험을 보러 갈 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치러지는 시기를 선택했다. 김병황은 기행현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 그는 1880년에 상경해서 6가지 시험을 치렀으며 1882년에는 7가지 시험에 응시했다.¹³³ 서울에 머무는 동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이지만 한 차례 상경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에 응시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그만

133 전경목, 「김병황의 과거 응시 전략과 그 함의」, 『일기의 행간에서 조선의 삶과 문화 깊이 읽기』, 새물결, 2018, 93~144쪽.

크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12> 김병황이 응시한 각종 시험 일람표

연도	시험명	날짜	장소
1880년	경과증광별시감시초시	2월 26일, 2월 28일	서울
	삼일제	2월 29일	
	관학유생응제시	4월 2일	
	경과증광별시감시초시제시	4월 18일, 4월 20일	
	일차유생전강	4월 21일	
	경과증광별시문과초시	4월 27일, 4월 28일, 4월 30일	
1881년	관학유생응제시	2월 8일	서울
	식년시감시초시	8월 20일, 8월 22일	대구
1882년	알성시	1월 12일	서울
	관학유생응제시	1월 22일	
	인일제	1월 29일	
	구도응제시	2월 8일	
	관학유생응제시	2월 26일	
	식년시감시회시	2월 27일, 2월 29일	
	별시초시	3월 7일, 3월 9일	
1885년	증광시감시초시	5월 13일, 5월 15일	서울
	경과증광별시문과초시	5월 25일, 5월 26일, 5월 28일	
	관학유생응제시	5월 27일	

김병황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과거 시험에 응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 대로부터 연망이 있던 관리들을 찾아가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들의 후 원을 받으려 했다. 예컨대 1881년 정월에 서울에 올라와서 관학유생응 제시를 치른 후 이조참판 홍철주(洪澈周)와 좌의정 김병국(金炳國)에게 문안 드리고 친족을 통해 대원군으로부터 액서(額書)를 받으려고 했다. 또 서울에서 열리는 유회(儒會)에 참여하여 미국 등 서구 열강과 수교

하는 것을 반대했다. 1885년에는 성재(性齋) 허전(許傳)을 만나서 조부인 김두흠(金斗欽)의 묘갈명을 받았다.¹³⁴

이와 같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상경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부안의 양반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재의 주인인 김병용과 집장 백학래가 1866년 3월에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상경했을 때¹³⁵ 이들은 같은 달 26일에 실시된 정시(庭試)에 참여하고¹³⁶ 이어 다음날 시행된 삼일제에 참가했다.¹³⁷ 뿐만 아니라 전국 유생이 모여서 올린 만동묘 철폐 반대 상소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부안현감 이운필의 유임도 청원했다.¹³⁸ 이처럼 지방양반이 서울에 오갈 때에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한 번 상경할 때 여러 가지 과거 시험에 응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집안의 숙원 사업과 관련된 일들도 처리하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4. 인적네트워크

기행현이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임혜영

134 임혜영, 위의 논문, 136~138쪽.

135 (1866년 3월) 初十日 … 讀於禮齋 主人金秉鏞 … 上京發行後 陽山里白進士鶴來 … 亦上京次 … 聯鞭而來 沽酒以餞別矣.

136 (1866년 3월) 二十六日 … 是日廷試也.

137 丙寅三月二十七日卯時, 上詣春塘臺, 三日製試取(『승정원일기』, 고종 3년 3월 27일.)

138 (1866년 4월) 初九日 … 海憲丈自京下來 問京奇則 … 廷(庭의 誤)試題 … 三日題 … 萬東廟伏閣事 狀頭鄭海最稱病不上 南原金漢忠自爲周旋促囚云 扶風之落榜舉子爲太守李雲弼願留云.

이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그는 『홍재일기』에 등장하는 2천여 명의 친분 관계를 조사하여 그중 기씨의 친족은 121명이며 친지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예동에 136명, 읍내에 82명, 돈계에 37명, 백석에 28명, 송천에 14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친지가 이웃고을인 고부에 66명, 김제에 27명, 순창에 11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또 연도별 분석을 통해 그가 부친 상중에 만났던 인물의 수가 가장 적었지만 직장이 된 이후 그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것은 직책을 맡은 것과 유관하다는 점도 밝혀냈다.¹³⁹ 2천여 명이나 되는 인물들의 거주지나 친분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지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규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작업을 통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행현이 어떤 인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조직과 모임에 참여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그의 인적네트워크를 밝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따라서 필자는 기행현이 부안에 살면서 어느 조직이나 모임에 참여하여 어떠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일기를 쓴 1866년부터 그의 부친이 사망하던 1869년까지 4년 동안 위친계(爲親契)를 비롯한 문계(門契), 문생계(門生契), 서림정계(西林亭契), 일냥계(一兩契), 향약안(鄉約案) 및 향회(鄉會) 등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조직에 참여하여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친계와 문계는 가족 또는 문중의 조직이며 문생계와 서림정계는 과거공부와 시작(詩

139 임혜영, 앞의 논문, 80~86쪽.

作)을 통한 교류 모임이고, 일냥계와 향약안 및 향회는 지역사람과의 친목과 결속을 위한 모임이다.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가족이나 문중사람들의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위친계와 문계부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위친계·문계

기행현은 1866년 3월 29일에 그는 형제 너댓 사람과 모여 위친계를 했다.¹⁴⁰ 물론 “서로 우정을 터놓고 펼쳤다”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이때 처음 위친계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만든 후 자주 만나서 형제간의 돈독함을 스스로없이 펼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친의 건강이 양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행현은 출타할 경우 항상 이를 걱정했다. 예컨대 그가 향시 응시를 위해 광주로 출타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물어 무손(無損)하고 가족이 무탈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안심을 했다.¹⁴¹ 칠성암에서 공부를 하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산에서 내려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약을 구해 치료를 도왔다.¹⁴² 기행현은 이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한 두 차례 형제들이 모여 형제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부모의 상을 대비했는데¹⁴³ 당시에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모임 때마다

140 (1866년 3월) 二十九日 … 爲親楔也 與四五人 暢叙交情 正是三月晦日 留春詩云 …

141 (1866년 8월) 二十七日 … 日暮抵巢 親節無損 渾眷無煩耳.

142 (1866년 10월) 十七日 … 聞親爲欠寧 … 故下家則 親爲大損 以痰改病 故卽向醫家問
則 累年灯下角好云 故卽求用之 別無大效; 十八日 … 親爲少愈; 十九日 … 往醫家
加味二陳湯一帖 煮飲別無效.

143 (1866년 10월) 三十日 … 爲親楔日也; (1867년 11월) 初三日 … 爲親楔日 故四五人

각각 5전씩 내어 저축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⁴ 아무튼 위친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형제간의 우의가 돈독했음을 알 수 있다.

기행현은 가족의 모임 뿐 아니라 문중의 회합에도 열성적이었다. 부안에 사는 행주 기씨는 그 뿌리를 광주와 장성에 있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향시를 치르기 위해 광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월봉서원에 들러 봉심하고 선산에 가서 성묘를 했으며 이름난 종인들을 만난 바 있다.¹⁴⁵ 그는 문중의 모든 일 예컨대 족보 수단(收單), 재실 증전, 선산 개장 등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가끔 폭설이 내리는 등 예측하지 못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는 4월과 11월에 열리는 문계에 거의 참여하고 또 선산에도 다녀왔다.¹⁴⁶

기행현이 가족과 문중의 모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부안 고을 내에서 그 집안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 부안에 세거하는 행주 기씨는 기묘명현으로 추송된 기준(奇遵)의 형인 기진(奇進)의 후손으로 기종와(奇宗窩)가 광주에서 부안으로 이거했지만 그 이후 단 한 명의 생원진사시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그의 가문은 부안에서 알아주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다. 시골에서조차 알아주지 않는 몰락한 향반(鄕班)으로 평가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이나 문중의 모임에

來會; (1868년 3월) 三十日 … 往新洞 修爲親稷.

144 (1869년 4월) 二十九日 … 每名下 五錢式 爲親作稷.

145 (1866년 8월) 二十二日 … 余亦發行次 往于宗人舍館 同行至月峯書院宿所; 二十三日 … 奉拜諸先生; 二十四日 … 先山省墓 尋訪諸族; 二十五日 … 發行 至廣谷族兄冠鉉家 … 日暮到下莎 訪奇亮衍未逢 暫見奇掌令.

146 (1866년 4월) 初二日 … 吾門稷日也; (동년 11월) 初二日 … 吾門稷也; (1867년 11월) 初二日 白雪終日紛紛 來數尺餘 門稷日 阻雪人莫往來; (1868년 11월) 初二日 … 修門稷; (1869년 4월) 初二日 … 門稷日 故鳳隱洞先山下人數三人來去.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접의 활동에도 능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2) 문생계·서림정계

기행현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학래의 제자였다. 백학래는 아버지의 병환에 단지(斷指)를 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을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시문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졌으며 1859년(철종10)에 진사시에 합격했다.¹⁴⁷ 그래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장으로 오랫동안 초대되었다. 1866년 9월 15일에 백학래의 제자 30여 명이 문생계를 개최했다.¹⁴⁸ 그 후 매년 2월 30일이나 3월 1일에 정기적으로 그의 문하생들이 양산(陽山)이나 둔계(遯溪)에서 모였는데 백학래가 이곳에서 접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⁴⁹

서림정은 1848년(헌종14)에 현감 조연명(趙然明)이 관아의 서쪽에 상소산(上蘇山)에 정자를 짓고 계(稷)를 조직해서 매년 봄가을에 한 차례씩 시회(詩會)를 열었다. 1866년(고종3)에 당시의 현감 이운필은 이 계를 중수하여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부활시켰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안의 유림들의 협조가 컸기 때문이다.¹⁵⁰ 기행현

147 白鶴來 水原人 … 己未進士 性本至孝 親癯斷指 器宇穎悟 詩文鳴世(『부풍승람』 4, 司馬).

148 (1866년 9월) 十五日 … 是日 陽山白靑田門生稷也 團會三十餘人脩稷.

149 (1867년 2월) 三十日 … 遯溪白靑田門生稷日 故往參; (1868년 2월) 三十日 … 白靑田門生稷日 故往參 … 靑田早朝來到 先去; (1869년 3월) 初一日 … 往陽山 參靑田門生契.

150 西林亭 … 憲廟朝戊申 縣監趙然明草創 … 因設稷 而每年春秋一次唱和 … 丙寅秋

은 1867년 11월 15일에 서림정계에 참여하기 위해 읍내로 갔는데 당시 일기를 보면 서림정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부안의 서림정은 전임 태수 조연명(趙然明, 호는 三崑)이 세웠으며 계(稷)가 있었다. 그래서 현임 수령인 이운필(李雲弼, 호는 雨聖)이 이를 중수해 다시 계를 실행하고자 모임 날짜를 내일로 정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밤에 읍내에 (미리) 도착해서 남하주인(南下主人) 이복(李福)의 집에서 잤다.¹⁵¹

다음날 예정대로 서림정계가 열렸는데 마침 임금이 경복궁으로 이어(移御)하는 날이었다. 경사가 이처럼 겹치자 하루종일 떠들썩하게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으며 놀았다. 심지어 그 여흥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경복궁으로 임금이 옮겨가는 날이었다. 온 고을 사람이 다 모여 서림정에서 수계(修稷)를 했다. 생황과 노래가 떠들썩하여 이날이 천하가 즐기는 날임을 알게 하였다. ... (수령이) 하루 종일 즐겁게 놀고서 저녁에 동헌으로 돌아갔다. 밤새도록 즐겁게 노니 노랫소리가 커지고 요란하여 속삭이거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¹⁵²

境內紳士捐義重脩 一新丹雘 倍加舊制(『부풍승람』, <누정>)

151 (1867년 11월) 十五日 ... 扶風西林亭 前到(任의 誤)太守趙然明(號三崑)之所作有稷故時倅李雲弼(號雨聖)重修 更欲修稷之意 定日子于明日 故夜到邑底 南下主人李福家宿

152 (1867년 11월) 十六日 ... 景福宮移御日也 一郡畢集 修稷於西林亭 笙歌鼎沸 因知此日天下同樂之日也 ... 終日勝遊 暮歸東軒 終夜勝遊 歌聲昇沸 吟談未作.

기행현은 이때 시회에 참여하여 신구계첩(新舊契帖)을 살펴보았는데 이 시회에 부안 출신의 전현관직자와 생원진사 합격자 및 일반 유생을 비롯하여 책실(冊室)과 향리(鄕吏)까지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¹⁵³ 기행현은 이때 살펴본 계원 명단을 일기에 옮겨썼는데 그것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서림정계 계원 명부

구분	성명	이력	구분	성명	이력
계장(契長)	김양묵(金養默)	정언(正言)		민치정(閔致鼎)	
계원(契員)	이겸술(李謙述)	진사(進士)		김동환(金東煥)	
	이관술(李觀述)			김상만(金尙晩)	
	이동식(李東植)			최로수(崔魯洙)	
	백학래(白鶴來)	진사		김영표(金永杓)	
	고제희(高濟羲)	만경현령 (萬頃縣令)		이현오(李玄吾)	책실(冊室)
	채대영(蔡大永)	주서(注書)		엄석구(嚴錫龜)	
	이규백(李圭白)	정언		이방헌(李邦憲)	
	송방식(宋邦植)			김기우(金基宇)	
	허희(許禧)			김수학(金洙學)	
	김규혁(金奎赫)			최재철(崔載轍)	
	고규상(高圭相)			신응환(辛應煥)	읍중계원 (邑中契員)
	백학수(白鶴洙)			신동직(辛東稷)	
	김쇄모(金瑣模)			신학조(辛鶴祚)	

153 (1867년 11월) 十六日 … 見新舊契帖 契長金正言養默 其次李進士兼述 李觀述 李東植 白進士鶴來 高萬頃濟羲 蔡主書大永 李正言圭白 宋邦植 許禧 金奎赫 高圭相 白鶴洙 金瑣模 李柄英 許準 金基澤 金永彩 河用必 金在洛 閔致鼎 金東煥 金尙晩 崔魯洙 金永杓 冊室李玄吾 嚴錫龜 李邦憲 金基宇 金洙學 崔載轍 邑中契員 辛應煥 辛東稷 辛鶴祚 金瑣模 辛鍾斗 辛在明 金明俊 辛 不可盡記.

	이병영(李柄英)			김□□(金□□)	
	허준(許準)			신중두(辛鍾斗)	
	김기택(金基澤)			신□□(辛□□)	
	김영채(金永彩)			신재명(辛在明)	
	하용필(河用必)			김명준(金明俊)	
	김재락(金在洛)			신□□(辛□□)	

계장인 김양목을 비롯해서 계원 채대영과 이규백 등은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서 정언이나 주서에 임명되었으며 고제회는 음관으로 경상도 좌영장을 거쳐 만경현령을 역임했다. 이점술과 백학래는 각각 진사시에 합격했다. 책실은 책방(冊房)이라고도 하는데 수령의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읍중계원은 읍내에 사는 계원이라는 뜻이지만, 대체로 향리들이 읍(邑) 주위에 살면서 관아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출신의 계원을 그러한 호칭으로 불렀다. 이처럼 서림정계에는 시문에 능한 부안 출신의 전현직 관리와 진사 합격자 및 양반 출신 계원 그리고 수령의 참모나 향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안은 일찍부터 문학을 숭상하고 순후함을 좋아하여 군자향으로 알려져 있었다.¹⁵⁴ 그래서 양반뿐만 아니라 향리도 함께 시회(詩會)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했다.¹⁵⁵ 더군다나 조선후기에 문과 출신의 수령이 부임하면서 이러한 풍조는 더욱 진작되었다. 서림정계는 간혹 암행어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을 뒤로 물리기도 하고¹⁵⁶ 또 수령의 공덕비를 건립하는 것 때문에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¹⁵⁷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

154 尙文學好淳厚[出地誌]君子鄉(『부풍승람』 1, 風俗).

155 (1868년 10월) 初三日 … 午後 往西林亭 鄉士鄉吏十餘員會.

156 (1868년 4월) 十五日 … 繡衣下來 故西林亭契日 退定.

로 실시되었다. 수령이 가끔 공무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¹⁵⁸ 기행현은 여기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3) 일냥계·향약·향회

기행현은 과거 시험 과정에서 만나 접을 구성하고 함께 공부했던 동료 중의 일부와 다시 계를 만들어 매우 긴밀하게 지냈다. 그는 1냥씩 돈을 내어 모임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금으로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와 관련해서 1866년 11월 15일의 일기를 살펴보자.

예동에 가서 계를 했다. 나와 종제 기항영(奇恒永), 민치정(閔致鼎), 김영표(金永杓), 민임복(閔任福), 김안수(金安倅) 등이 작년에 1냥씩 내어 계를 만들었다.¹⁵⁹

민치정과 민임복은 예동에 세거한 여흥 민씨 출신인데 이들은 원래 선조대에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무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여 부안 내에서 나름 이름이 있는 가문이었다.¹⁶⁰ 김영표는 역시 예동에 세거하던 의성 김씨 출신으로 오봉(鰲峯)이라는 호로 널리 알려진 김제민(金齊閔)의 후손이다. 김제민은 아버지 김호(金灝)가 부

157 (1869년 3월) 十三日 … 禮洞閔友金友來到 言西林亭契近脩 而稷中爲本官碑云.

158 (1868년 10월) 初三日 … 本官自南社倉入衙 送侍童致言 未出參見云 韻字草送云.

159 (1866년 11월) 十五日 … 往禮洞修稷 余及從弟恒永 閔致鼎金永杓閔任福金安倅 昨年一兩式作稷.

160 驪興閔氏 閔諱[文仁公]漬后 左承旨 宣祖朝 自京城來(『부풍승람』 3, 姓氏); 閔庭鴻[驪興人 左承旨]諧子 武 判官 判決事; 閔庭鳳[驪興人 判官]庭鴻弟 武 郡守 歷典六邑 以清白稱(『부풍승람』 4, 무과).

안 용동에서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 1558년(명종13)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73년(선조6)에 문과에 급제한 후 화순현감과 순창 군수를 역임한 인물로 자손들이 부안과 고부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¹⁶¹ 기행현이 부안의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과 계를 만들어 함께 했던 것은 이들과의 교유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선중기에 향약이 고을에서 점차 시행되었는데 후기에 이르면 이것이 마을 즉 면(面)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를 면향약(面鄉約), 그리고 그 모임을 면회(面會)라고 했는데 기행현은 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것은 당시 고을이나 면의 현안이 면회나 향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일기를 보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

8일의 향회는 (고을에서 배정한) 소군(小軍)의 숫자를 채우는 일로 동원(東園)에서 모일 예정인데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대촌(大村)은 2~3명, 잔촌(殘村)은 1~2명으로 정할 것이라 한다.¹⁶²

예동에 가서 향교의 통문을 보았더니 “문벌 출신으로 명경에 뛰어난 선비 한 명을 거원(擧員)으로 정하여 전주 모의소로 보내는 일로 내일 향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우리 고을에서는 김병용을 관에 천거할 것이라고 한다.¹⁶³

161 양만정, 『扶安邑 甕井마을의 歷史』, 『玄谷楊萬鼎鄉土史論文集』, 정화사, 1994, 431쪽.

162 (1866년 9월) 初五日 … 八日鄉會 小軍充數之意 會于東園 至今未快 而大村或二三名 殘村或一二名爲定云.

163 (1866년 10월) 初五日 … 至禮洞 見鄉校回文曰 有門閥明經之士一人 定舉員 治送于全州募義所事 明日鄉會云 而本邑以金秉鏞稟官云.

향회에서는 마을에 배당되는 구역의 인원을 정하기도 하고 모의소로 파견할 인물을 선정하여 수령에게 천거하기도 했다. 당시 마을이나 고을의 현안을 수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면회나 향회를 통해 구성원끼리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기행현은 당시의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렇지만 아직 젊기 때문인지 향교에서 모임을 갖는 향회에는 잘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이에 참여했던 숙부를 통해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다.¹⁶⁴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개최되는 면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다. 더구나 그 임원들은 자신과 매우 친숙한 인물들이기 때문이었다.

예동에 갔는데 김윤호(金潤浩), 백진사(白進士), 김영효(金永孝), 임정묵(林貞黻) 등 서너 사람이 와서 모였다. 남하향약안(南下鄉約案)을 보았는데 진신유사(縉紳有司)에는 부사과(副司果) 김양묵(金養黻), 읍서기유사(邑書記有司)에는 진사 백학래, 별유사(別有司)에는 김병용, 면서기유사(面書記有司)에는 민치정, 하유사(下有司)에는 장달매(張達每)였다.¹⁶⁵

읍서기유사인 진사 백학래는 기행현이 예재접을 할 때의 접장이고, 별유사 김병용은 예재의 주인이며 면서기유사 민치정은 예재의 동접(同接)이었다. 따라서 기행현은 남하면의 주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면회에는 스스로없이 출입하여 향약안도 살펴보고 당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164 (1866년 12월) 二十六日 … 是日以鄉約事 面會于松齋 故叔父往; (1869년 2월) 十五日 晴 鄉會於校中 故叔父入參; (1869년 10월) 二十七日 晴寒 季叔父自鄉會所來臨聞則船破稅米 還徵民間之意 鄉會各從其畚主徵納云.

165 (1866년 12월) 二十七日 … 往禮洞 金潤浩白進士金永孝林貞黻四人來會 見南下鄉約案 則縉紳有司副司果金養黻 邑書記有司進士白鶴來 別有司金秉鏞 面書記有司閔致鼎 下有司張達每.

피력하고 또 현안에 대한 여러 정보도 얻었던 것 같다.¹⁶⁶

5. 맺음말

『홍재일기』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이를 준비하던 자들이 어떻게 접을 구성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양반이지만 부안 내에서 유력한 망족(望族)이 아닌 가문 출신이 어떻게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격변하는 시대에 태어난 기행현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덧씌워진 전통시대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부안 내에서 유력한 가문이라 할 수 있는 부령 김씨, 전주 최씨, 여산 송씨, 의성 김씨, 여흥 민씨, 수원 백씨 자제 등과 접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고 향촌 내의 각종 모임에 부지런히 출입했지만 결국 향리도 참여하는 서림정계에 그나 그의 가족들은 계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었으며 또 동접생들이 임원으로 등록된 면향약에도 참여는 할 수 있었으나 임원이 될 수는 없었다. 그가 과거를 치르기 위해 광주에 갔을 때 기껏해야 선영에 성묘하고 장성의 친척이나 방문했으며 서울에 올라갔을 때 겨우 수령의 본가에 들러 인사한 것 이외의 일정을 잡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부안이나 그 주위 고을에 사는 사람들과 교

166 (1867년 8월) 初十日 … 聞鄉會消息 則一境內作五倉云.

류를 했을 뿐 전라도 전주나 서울 또는 그 근교에까지는 연망을 형성할 수 없었다. 1887년(고종24)에 발간된 『부안지』 나 1932년에 간행된 『부풍승람』 에도 기행현이나 그의 친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산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기행현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려 했지만 전통시기의 정치적·사회적 굴레를 벗어나 어려웠다.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 혹은 피와 땀이 필요했다. 전통시기에 내재화된 여러 굴레와 기행현과 같은 하층양반 혹은 평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파열음을 내며 빚어진 충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학농민전쟁이라 생각된다.

투고일 : 2023.11.06.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	-------------------	---------------------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
- 『호구총수』
- 『七星菴同遊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위창古3606-1
- 『국역 홍재일기』,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2022.
- 『국역 부풍승람』, 부안교육문화회관, 2021.
-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 김영준, 「19세기 후반 부안군 훈집(訓執)의 성격과 역할 -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7, 2023.
- 임혜영, 「『홍재일기』를 통해 본 지방사족의 일상생활」, 2022년 이재연구소 학술대회, “『홍재일기』(1866~1911)로 본 부안의 사회상” 발표자료집.
- 송행근, 「『홍재일기』에 나타난 기행현의 학습과정과 중국 시문의 수용」, 2022년 이재연구소 학술대회, “『홍재일기』(1866~1911)로 본 부안의 사회상” 발표자료집.
- 전경목, 「김병항의 과거 응시 전략과 그 함의」, 『일기의 행간에서 조선의 삶과 문화 깊이 읽기』, 새물결, 2018.
- 양만정, 「扶安邑 甕井마을의 歷史」, 『玄谷楊萬鼎鄉土史論文集』, 정화사, 1994.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1866년~1869년을 중심으로-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필자는 기행현이 쓴 『홍재일기』를 분석해서 그의 관심이 어떻게 변천되었으며 그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그가 45년 동안이나 일기를 썼기 때문에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1866년(고종3)부터 부친이 사망한 1869년(고종6)까지 4년 동안의 일기를 분석해서 이 기간 동안 그가 과거시험 준비에 집중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 모임인 ‘접(接)’을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 지방과 중앙의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오가는 과정에서 응시 이외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밝히겠다. 끝으로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향촌사회에서 어느 조직이나 친목단체에 참여하여 어떠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그 결과 기행현의 나이 24세부터 27세에 이르기까지 ‘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과거시험 공부를 하고 동료나 스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젊은 유학자로서 자신의 삶에 왕성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대부분의 유학자가 그러하듯 부친이 사망하자 그의 관심은 과거응시에서 멀어졌으며 향촌지역의 조직과 동향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가 추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홍재일기, 기행현, 과거(科擧), 접(接-공부모임), 인적네트워크

Abstract

Ki Haeng-hyeon's Preparation for and Participation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His Human Networks —Focusing on the Period from 1866 to 1869—

Chon, Kyoung-Mok (Professor Emeritu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Hongjae Diary written by Ki Haeng-hyeon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his interest and the accompanying changes in his human networks. As Ki wrote his diary for 45 years, this study focuses on an established period to increase analytic efficiency. Specifically, the target range of research includes Ki's diary records created for four years ranging from 1866 (Year 3 of King Gojong) when he began writing his diary to 1869 (Year 6 of King Gojong) when his father passed away. Considering his intensive preparation for a civil service examination during this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following aspects: the formation of a jeob (接), a study group that Ki formed; academic fields that he studied for the examination; other activities that he conducted in regional and capital areas before and after his participation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human networks that he established based on his involvement in certain organizations or social groups in rural communities during the four-year period.

The analytic results show that Ki actively participated in a jeob to study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s with his

colleagues and teachers, and lived an enthusiastic life as a young Confucian scholar from the age of 24 to 27. However, as observed in the lives of most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period, Ki gradually lost his interest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Instead, he paid great attention to organizations and trends in rural communities and joined these groups. Follow-up research will be required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s in his life after this period.

key word : Hongjae Diary, Ki Haeng-hyeon, Civil service examination(科
舉), Jeob (接, a study group), Human networks

자료소개

갑오일기 해제

신 영 우(연구소장)

『갑오일기(甲午日記)』는 경상도 김산군(현 김천시)에 거주하는 필자가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시기의 지역 사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본인 이름을 쓰지 않은 일기이기 때문에 필자는 알 수 없으나 자주 나오는 동리 이름과 상지(上枝)에 형 은필(殷弼)이 산다는 것을 근거로 추적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갑오년 격변기를 『갑오일기』라는 제목으로 쓴 일기가 여러 편이 전해지고 있지만 향리의 사정과 보고 들은 내용을 소개한 기록으로는 가장 생생한 일기이다. 김산의 갑오년 사정을 전해주는 일기인 여중룡(呂中龍, 1856~1909)의 『갑오이후일기』와 최봉길(崔鳳吉, 1853~1907)의 『세장년록(世藏年錄)』을 함께 검토하면 상세한 지역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본래 일기는 일상사 기록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일기는 중심 주제를 동학농민군과 관련한 사건으로 한정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진압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처음 기록한 것이 이해 봄에 동학지인(東學之人)이 보은 장내리에 집결했고 접주는 최시형(崔時亨, 일기는 崔時榮으로 오기)이라는 소식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1895년 을미년과 1896년 병신년에 김산 일대에서 단발령으로 촉발된 의병봉기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김산의병에는 김산을 비롯한 상주와 선산 인사들이 참여해서 김산 관아의 무기를 탈취하였고, 의병장이 이기찬(李起燦, 1853~1908)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갑오일기』의 필자가 목격하거나 들은 이야기는 주로 김산과 인접 지역인 지례, 충청도 황간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경상도와 서울에서 벌어진 큰 사건들도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6월에 왜인(倭人) 백여 명이 대구 감영에 들어와서 감사가 각 군현에 군수물자 수송에 협조하라는 관문을 내렸다는 것이나, 원세개(袁世凱)가 틈을 타서 중국으로 들어갔고,

6월 21일 밤 경북궁에 돌입해서 아국인은 한 사람도 출입할 수 없으며 강제로 맺은 조약 20여 조는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쓰고 있다.

『갑오일기』의 필자가 사는 마을은 해발 1,241m의 민주지산 줄기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가르는 목에 있어 산골짜기로 난 작은 길을 통하여 여러 지역의 동학농민군 소식이 들려오는 곳이었다. 따라서 『갑오일기』에는 커다란 사건보다 인접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작은 사건들이 지명 인명과 함께 기록되었다.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준비하고 북접 교단이 전면 참여하면서 산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청도 황간과 영동에 동학농민군이 대규모로 집결한 상황부터 북접 농민군이 우금치전투를 벌이고 전라도로 내려간 후 임실 장수를 거쳐 무주로 올라오는 과정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군이 경상도 군현으로 행군해 오는 것에 공포를 느낀 경상 감영과 각 군현 관아의 대비 상황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김산군과 지례현의 민보군은 두 지역의 중간인 동시에 무주에서 오는 길목인 석현(石峴)을 방어처로 정하고 지키고 있었다. 임진왜란의 전투지인 김산 석현이 다시 주목받게 된 사건이었다. 그다음에는 김산 소모영의 민보군과 경상 감영의 남영병이 추풍령을 지키기 위해 집결하였다.

또한 이 일기에서 양호도순무영에서 내려보낸 지침인 십가작통(十家作統)이 실제로 실시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도순무영 종사관 정인표(鄭寅杓)가 강구한 오가작통의 강화책인 십가작통이 전국에서 드물게 김산에서 실시한 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연구소 소식

위원회 명단 : 편집위원회·윤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연구소 소식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출범

- 출범일자: 2023. 4. 1.
- 연구소장: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등재일자: 2023. 5. 24.
- 등재대상: 동학농민혁명기록물 185건

□ 연구소 개소 및 현판식 개최

- 일시: 2023. 6. 29(목). 11:00
- 장소: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입구
- 참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 재단 직원 등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2023. 6. 29(목). 11:30
- 장소: 연구소 회의실
- 참석: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 사업 논의 등

□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발표회 개최

- 시간: 2023. 6. 29(목) 14:00 ~ 18:00
-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동학농민혁명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발표 내용
 - 세계기록문화로서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
발표: 김양식(청주대 교수)
 -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흐름과 쟁점 및 과제
발표: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공공역사화 방안

- 발표: 서고운(동국대 석사과정)
- 1894년 이전 무장 지역에서의 손화중 포 결성 과정
- 발표: 최지선(고려대 석사과정)
- 종합토론: 좌장 신영우(연구소장)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 일시: 2023. 8. 29(화). 10:30 ~ 12:00
- 장소: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앞
- 내용: 등재 인증서 전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등
- 참석: 이경훈(문화재청 차장), 신순철(재단 이사장), 임상규(전북부지사), 이학수(정읍시장) 주영채(유족회장) 등 200여명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일시: 2023. 8. 29(화). 14:30 ~ 18:00
-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
- 발표내용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과 향후 과제
 - 발표: 김귀배(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본부장)
 - 토론: 허권(전 아태무형유산 사무총장), 임승범(문화재청 연구관)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활용방안
 - 발표: 김양식(청주대 교수)
 - 토론: 안종철(5·18진상조사위 부위원장), 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전환과 세계화
 - 발표: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 토론: 정근식(서울대 명예교수), 왕현종(연세대 교수)
- 종합토론: 좌장 신영우(연구소장)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발간

- 발간일자: 2023. 8. 30
- 수록자료
 - 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

- 천우협(天佑俠)
- 남정여록(南征餘祿)
-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
- 일청교전록(日淸交戰錄)
- 일청전쟁실기(日淸戰爭實記)

□ 부안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2023. 10. 26(목). 11:00 ~ 18:00
- 장소: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 주최: 부안군
-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홍재일기(1866~1911)로 본 격동기 조선사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
- 기조강연: 홍재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
 - 신영우(연구소장)
- 발표내용
 -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 발표: 유바다(고려대 교수)
 - 토론: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
 -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 발표: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왕현중(연세대 교수)
 -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 조선 사회의 변동 양상
 - 발표: 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 토론: 김철배(임실군청 학예연구사)
 -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 네트워크
 - 발표: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토론: 김희태(전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 홍재일기로 본 조선후기 지명 연구
 - 발표: 김병남(전북대 교수)
 - 토론: 김경성(부안문화원 사무국장)
- 종합토론: 좌장 김양식(청주대 교수)

□ 정읍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2023. 11. 3(금). 14:00 ~ 18:00
-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정읍시
-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만석보 위치고증과 활용방안 모색
- 발표내용
 - 19세기 고부지역 수리시설 현황과 만석보 수세 징수
발표: 왕현중(연세대 교수)
토론: 김희태(전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
 - 전라북도 기념물 ‘만석보지’의 위치 재지정 검토
발표: 홍성덕(전주대 교수)
토론: 이진주(현대문화재연구원장)
 -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발표: 조광환(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토론: 서인석(전 동학사업소 소장)
 - 동학농민혁명 상징공간으로서 만석보 활용방안
발표: 박정민(전북대 교수)
토론: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종합토론: 좌장 신영우(연구소장)

□ 고창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2023. 11. 15(수) 14:00 ~ 18:00
- 장소: 고창 고인돌박물관 입체영상실
- 주최: 고창군
-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새로운 이해
- 기조강연: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현황과 과제
 - 신순철(재단 이사장)
- 발표내용
 - 손화중도소 위치와 문화재적 가치
발표: 최지선(고려대 대학원)

토론: 정성미(원광대 교수)

-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 피체지 재고

발표: 안후상(노령역사문화연구원장)

토론: 유바다(고려대 교수)

- 선운사 미륵비기 탈취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발표: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토론: 김양식(청주대 교수)

- 종합토론: 좌장 신영우(연구소장)

□ 군산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2023. 11. 25(토) 14:00 ~ 17:30

- 장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공연장

-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주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 기조강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군산

- 신순철(재단 이사장)

- 발표내용

-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성격

발표: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토론: 전병호(전북교회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군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현황 및 활동 거점 연구

발표: 김중규(군산근대역사박물관장)

토론: 정상호(군산문화원 원장), 신진희(안동대 강사)

- 종합토론: 좌장 신영우(연구소장)

□ 장흥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2023. 11. 29(수) 14:00 ~ 18:00

- 장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후원: 장흥군

- 주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발표내용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
발표: 박형모(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토론: 이병규(재단 연구조사부장)
 -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
발표: 김양식(청주대 교수)
토론: 문영식(전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명예관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박물관 운영현황과 과제
발표: 나윤호(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예연구사)
토론: 천진기(전 국립민속박물관장), 박석면(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 종합토론: 좌장 신영우(연구소장)

□ 학술지 발간

- 제호: 동학농민혁명 연구
- 창간호 발간일: 2023. 11. 30.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_김양식(청주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집위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왕현종(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_강윤정(안동대 교수, 한국근대사)

_남기현(한국통신대 교수, 한국근대사)

_김창수(전남대 교수, 한국근세사)

_박정민(전북대 교수, 한국근세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_이병규(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편집간사 _임현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 _김양식(청주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리위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왕현종(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_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한국근대사)

_이병규(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윤리간사 _임현진(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의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서평·논평·자료 소개 등의 투고 심사 및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학술지 발간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와 연구 윤리 문제의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사후 대책을 담당하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발행인) 학술지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업무를 총괄할 발행인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장이 겸임한다.

제5조(발간일 및 분량) 학술지의 발간일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2. 학술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3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 온라인 논문 제출 시 [별지 1]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재단에 속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필자가 본인의 게재된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7조(기타) 본 규칙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 임명, 자격 및 권한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3.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10조(편집위원) 편집위원에 대한 위촉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조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소속 기관의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11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편집간사)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편집간사는 연구소 소속 연구직 직원으로 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등의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기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15조(편집간사의 임무) 편집간사에 대한 위촉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편집간사는 연구소 연구직 직원이 담당한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3.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편집회의의 소집 및 개최)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회의를 운영한다.

1.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회의는 서면, 온라인 등의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3.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궐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4. 편집위원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편집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편집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편집회의의 권한) 편집회의는 학술지의 발행, 투고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 논문 심사, 논문의 편집 및 기타 출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18조(편집회의의 의결) 편집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원고의 투고

제19조(투고 방법) 원고의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2. 원고는 「『동학농민혁명 연구』 발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온라인 투고 시 [별지 2] 「게재심사신청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한다. 유사율이 높은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투고자는 「『동학농민혁명 연구』 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 시 [별지 3] 「연구 윤리 협약서」를 제출한다.
5. 투고 원고에는 필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는 첫 번째 각주 위에 투고자의 성명, 현재 소속 및 직위, 대표 논저(2편 이상)를 기재한다.
7. 학위논문이나 학위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주를 달고 하단 주석란에 표기한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을 보완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8.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발간 45일 이전(4월 16일,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단, 기획논문, 비평논문, 서평, 자료 소개는 제외)

제20조(공동저자의 구분) 공동저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고 논문이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저자를 역할에 따라 구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저자: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나. 제2저자: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다. 제3저자: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2. 이외 3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칙에 따라 ****표 등으로 순차에 따라 구분한다.

제21조(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의 전체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2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각각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 방식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에 한하여 괄호 속에 병기한다.
 - 나.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한 문이나 외국어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
 - 라. 중국 인명의 경우, 1911년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은 한자의 한국어 발음으로,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예: 선생, 교수, 박사 등)은 일체 생략한다.
4. 형식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 가. 편집용지: A4용지(세로 배열), 위 여백(20.0mm/15.0mm), 아래 여백(15.0mm/15.0mm), 좌우 여백(30.0mm / 30.0mm), 제본(0.0mm)
 - 나. 문단모양: 좌우 여백(0.0mm), 위아래 여백(0.0mm), 양쪽 정렬, 줄 간격(160%)
 - 다. 글자모양: 제목(바탕체 20Pt, 장평 95%, 자간 0%) / 본문(바탕체 11Pt, 장평 95%, 자간 0%)
5. 나머지 원고 작성 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1. 논문의 구성은 국문 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으로 한다.
2. 목차
 - 가. 장은 I. II. III., 절은 1. 2. 3., 항은 1) 2) 3)으로 기재한다.
 - 나. ‘서론’, ‘결론’ 등의 명칭은 ‘머리말’, ‘맺음말’로 통일한다.
 - 다.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나 로마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3. 표와 그림

가. 표는 표 위에 번호와 제목, 단위를 달고, 표 아래에 전거를 밝힌다.

예시) <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분포(단위: 명)

나. 사진은 사진의 아래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출처를 밝힌다.

예시) <사진 1> 의안(議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진 제공

4. 각주

가.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나.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 명칭 등을 기재하고,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壬戌」, 『梧下記聞』,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0001-001-002>), 2023. 5. 11.

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제24조(각주의 표기)’를 참조한다.

5. 주제어·참고문헌·초록

가. 국문 초록의 말미에는 한글 주제어 5개 내외를 기재한다. 영문 초록의 말미에는 영문 주제어(Keywords) 5개 내외를 기재한다.

나. 한글 주제어 뒤에 주요 참고문헌의 목록을 첨부한다. 참고문헌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순으로 기재한다.

다. 참고문헌 목록 다음에 180단어 안팎의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참고문헌과 영문 초록의 분량은 전체 원고 분량에 포함된다.

제24조(각주의 표기) 각주의 표기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출전 표기 순서

가. 논문 및 저서의 출전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권수, 호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인용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단, 출판 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예시) 홍길동, 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0쪽.

다. 전자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 「자료명」, 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 자료의 최종 확인 날짜’ 순서로 기재한다.

2. 저자

- 가.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뒤에 ‘편’, 구미어 편서의 경우 ‘ed. (편자가 복수인 경우 eds.)’를 표기한다.
- 나.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이름 등 원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 뒤 괄호를 한 후 역자명 등 번역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3. 출판연도

- 가. 저자명 다음에 표기하고, 초판이 아닌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판’ 자를 더하거나 책명 뒤에 괄호로 ‘개정판’임을 명시한다.
- 나. 출판연도가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 사이에 가운뎃점(·)을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2022·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 (상)·(중)·(하), 출판사.

4. 논문명, 책명, 잡지명

- 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논문명은 원어를 사용하여 작은곁낫표(「」)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큰곁낫표(『』)로 묶는다.
- 나. 구미어로 된 논문명은 “ ”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시) Akira Iriye, 1981, “Review”, *American Historical Review* 86-1, February, pp.191~193. Martina Deuchler,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pp.1~5.
- 다. 논문이나 책의 부제는 ‘- -’ 사이에 표기한다.
예시)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부제-』, 『책명-부제-』, 출판사, 인용면수. 단, 구미 논저의 부제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 라. 책의 편자나 공저자를 명시할 경우, 책명 뒤에 괄호로 묶는다.
예시)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 출판사명, 인용면수.
- 마. 인용 한문 원전의 권수를 표기할 경우, 권수 뒤에 쉼표를 찍는다.
예시) 『仁祖實錄』 권18, 인조 6년 1월 3일 을축.
- 바. 잡지나 저서의 권수, 호수, 집수, 통권 수 등은 아라비아숫자로만 표기한다.
예시) 3집, 3호, 통권3 등 → 3

12권의 2호 → 12-2

5. 출판 지역 및 출판사

- 가. 출판 지역 및 출판사의 표기는 책명 뒤에 쉼표를 하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단, 출판 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

예시) 『한국사입문』, 한국문화사

『朝鮮史入門』, 東京: 日本書店

나. 고서(고문서)의 영인 출판사 및 연도, 소장처 및 도서번호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시)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三國遺事』 高麗大 晩松文庫本(영인 출판사, 연도)

6. 인용면수

가. 면수 뒤에 ‘쪽’을 붙인다.

나. 여러 면이 계속 인용된 경우, 시작 면수와 끝 면수 사이에 물결표(~)를 표기한다.

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면이 인용된 경우, 면수 사이에 쉼표를 하고 끝에 ‘쪽’을 붙인다.

예시) 3쪽, 15~18쪽

라. 한문 고서의 앞·뒷면은 ‘앞면’과 ‘뒷면’으로 표시한다.

마. 구미 논저의 면수 앞에는 ‘p.’ 또는 ‘pp.’를 붙인다.

7. 반복 인용

가. 앞에서 인용했던 문헌은 반복을 피하여 바로 위의 것은 “위 책”, “위 논문”으로, 바로 위가 아닌 더 앞에서 인용한 것은 저자명과 연도를 표시한 뒤에 “앞 책”, “앞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나. 구미 논저가 반복 인용된 경우는 ibid. 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8. 재수록

가. 동일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잡지명)』; 출판연도, 『책명』, 출판사, 면수.

9. 사료 원문 인용

가. 사료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 ”로 묶는다.

예시) 『續大典』 刑典 禁制 “咸鏡道富寧以北 商賈入居者 以制書有違律論 勿論犯禁與否 竝禁斷 而興販之物 沒官”

10. 기타

가. 각주가 문장형(~이다, ~한다, ~하라 등)으로 끝날 경우, 마침표를 찍는다.

나.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중복 표기할 경우, 바깥 괄호는 중괄호([])로 표기한다.

예시) ~라고 이해한다[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한국사연구회 편), 면수].

제4장 원고의 심사

제25조(심사 의뢰 결정과 심사위원 판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투고했을 경우 심사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본 재단의 운영 위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3. 투고자의 지도교수와 동일 소속 기관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4.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투고할 경우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며, 심사는 모두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5. 심사 종료 후 지급되는 심사비는 [별지4] 논문 심사비 지급 기준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은 일반심사 논문의 경우 심사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 논문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통보 없이 심사 결과 회신이 제출 시한을 경과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단계) 학술지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보완심사로 나눈다.

1. 예비심사는 학술지에 제출된 글들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을 따져 본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3. 본심사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심사를 진행한다.
4. 재단의 요청으로 집필된 기획논문 및 비평논문, 서평, 연구 동향, 자료 소개, 역주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심사 내용 및 방식) [별지5] 논문심사서에는 심의검토 의견과 종합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는 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자료 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 활용의 타당성: 20점
 - 나. 논문 작성의 성실성: 20점
 - 다. 논지의 정확성: 20점
 - 라. 연구의 독창성: 20점
 - 마. 학계의 기여도: 20점
2. 항목별 평가를 감안하여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정 후 재심사(C) 혹은 게재 불가(D)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평가 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제29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A,A,A)(A,A,B)(A,A,C) - 게재 가능(본호)
 - 나. (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본호)
 - 다. (A,A,D)(A,B,D)(A,C,C)(A,C,D)(B,B,D)(B,C,C)(B,C,D)(C,C,C)(C,C,D) -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 라. (A,D,D)(B,D,D)(C,D,D)(D,D,D) - 게재 불가
2. (A,A,D), (A,B,D), (B,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3.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 후 차호 재심사 의사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재심사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차호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편집 중인 학술지 수록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주제가 해당 호의 편집 기획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심사 성적을 기초로 순위를 정한다. 종합평가가 동점일 경우 투고한 일시의 순서로 정한다.
5.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윤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다.

제30조(수정된 원고의 송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원고의 게재

제31조(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심사 판정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원고와 함께 [별지6]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고 수정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 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5개월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간주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재심사의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하며, 재심사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 판정은 본 규칙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한다. 재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5. 최종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충분한 수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심사 결과 통보와 수정) 심사 결과 및 수정 사항은 편집간사가 수합하여 필자에게 전달한다. 심사 결과에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자는 이를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 논문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이의신

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정 2023. 9. 2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에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재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학술·연구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 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 윤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연구 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 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9. 연구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10. 연구자는 연구 윤리 규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1] 연구 윤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 조작,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자 본인의 기존 논문을 그대로 혹은 일부 내용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수정·편집하여 다시 투고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인 경우는 예외로 함.
5.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상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2장 윤리위원회

제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2장 제9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피제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윤리위원회 회의) 윤리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전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제8조(심의 기간) 심의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

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9조(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호한다.

1. 제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제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신원 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이의 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이의 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징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한다.
2.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

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가. 학술지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조치
- 나.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 다.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홈페이지 및 최초 발간되는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 라.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 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윤리규칙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에 준한다.

제14조(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2. 조사 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 윤리 규칙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예외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제정 2023. 9. 26.

동학농민혁명 연구 | 2023.11 | 창간호

인 쇄 _2023년 11월 25일

발 행 _2023년 11월 30일

발행인 _신순철

발행처 _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_063-530-9432 / 팩스_063-538-2893

인쇄처 _흐름출판사(www.heureum.com)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59

전화_063-287-1231 / 팩스_063-287-1232

ISSN 3022-2435

비매품

본 학술지의 판권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